

발간사

향토문화의 발굴, 선양, 전승 향유에 마중물 역할은
옹진문화원의 기능과 사명입니다.

옹진은 바다를 바탕으로 하여 곳곳이 섬으로 된 섬
마을입니다. 그들 섬 마을은 섬의 지리적 위치, 생태
적 환경에 따라서 인문 역사적 사람살이 흔적이 있습니다.
그 흔적들 즉 삶과 문화는 세월 따라 변해오고 사
라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섬에서 선대로부터 살
아오던 역사, 생활문화, 자연 생태적 환경 변화 등
그 모두를 아울러 온전히 발굴 보전 전승코자 7개년 목표로 옹진섬 향토
문화 아카이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년차 사업으로 북도면 편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섬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유산은 날이 갈수록 문화가치가 빛날 것
입니다. 본 북도면 일원의 향토문화 발굴에 다각도로 접근 연구하시어 섬
문화 보전에 힘쓰신 김석훈 박사님을 비롯하여 김기룡 박사님, 정연학
과장님, 정재홍 선생님, 최중기 교수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연구 발굴
에 협조하신 최영윤 전 북도면장님과 이근덕 주민자치위원장님 등 구술
에 협조해 주신 지역 어르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올립니다.

북도면은 신·시·모도 3개 섬과, 장봉도로 구성된 섬이기에 그 자연 생
태계의 특이한 점과 농수산물의 특산물과 다양한 생활상이 온전히 발굴
전승 선양됨은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학의 일환으
로 후대에 전승되는 자료로써 문화가치는 세월에 비례하여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문화원 사업의 완성으로 그 책무를 다 함에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로
인하여 각 섬의 인문학적 삶의 흔적들이 생생히 살아서 우리네 생활 속에
문화의 힘으로 작동되기를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2024년 11월

옹진문화원장

축사

옹진군 지역문화 창달과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옹진문화원에서 옹진섬 향토문화 발굴 아카이브 사업으로 『옹진 섬마을 역사 문화 이야기 북도면』을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옹진군 북도면은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동에 인접한 도시로 영종-신도간 대교가 2025년도 완공되면 우리 옹진군에서 교통이 가장 좋은 환경이 될 것이며, 도서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섬이 인구 증가 등 변화가 클 것이라 생각됩니다. 연육으로 인한 섬 지역 북도면의 환경이 크게 바뀌고 발전할 것이고 그에 따른 향토문화의 변화도 크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맞게 그동안 옛부터 전래되고 있는 향토문화 역사 지리 풍습 생활방식 등을 우리 후대에 보전하고 전수하기 위하여 7개년 계획 사업으로, 2024년 북도면을 시작으로 한 『옹진 섬마을 역사 문화 이야기 북도면』 발간 사업은 우리군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옹진군의 정체성 확보와 아름다운 풍광을 홍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앞으로 귀중한 향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책자 발간을 위해 힘써 주신 태동철 옹진문화원장님과 조사 연구 책임을 맡아주신 김석훈 박사님과 다섯 분의 박사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구술에 참여하여 자료와 증언을 해주신 지역 어른신인 최영윤 전 옹진군행정동우회장님과 참여해주신 여러 어르신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으로 본 조사 보고서를 통해 지역문화의 정체성과 역사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옹진군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옹진군수

축사

올 한해 옹진문화원에서 진행한 옹진섬(북도면) 향토문화 발굴 아카이브 사업의 결과물인 『옹진 섬마을 역사문화 이야기 북도면』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북도면은 인천시 중구에 인접하여 접근성이 좋아 관광지로도 각광을 받고 있어 많은 방문객이 오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풍부한 자원, 넉넉한 인심이 계속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손색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북도면을 비롯한 우리 옹진군에는 역사와 문화, 자연 환경 등을 본격적으로 다룬 정통 도서가 없었습니다. 옹진군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 유산이 점차 퇴색되어 가고, 자연 환경은 급격히 변해가며, 전통을 기억하는 주민들은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옹진문화원에서 추진하여 결실을 본 북도면 향토문화 발굴 아카이브가 바로 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이라도 북도면의 다양한 면을 조사하고 기록한다면 분명 북도면의 과거를 기억하고 앞으로의 발전에 초석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앞으로 옹진문화원에서 우리 옹진군 7개면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옹진 섬마을 역사문화 이야기’ 북도면을 발간할 계획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도서의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김석훈 박사님을 비롯한 집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사업을 이끌어 주신 옹진문화원 태동철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섬 연구는 여러 모로 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연구자 분들이 집필에 몰두할 수 있도록 여러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옹진 섬마을 역사문화 이야기 북도면』의 발간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다른 섬으로 이어져 총 7권의 발간이 완성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옹진군의회 의장

이상우

문화
유산



천연기념물
신도 노랑부리백로와 갯이갈매기 서식지



노랑부리백로



갯이갈매기

아름다운
북도면



장봉도 인어상



장봉도 선착장



시도 수기해변



장봉도 말문고개 등산로



북도면 입도객



장봉도 견어장 일몰



장봉도 건어장해변



모도 박주기 소공원



신도 푸른벗말정자각



모도 배미꾸미 조각공원



신도 수변공원

특산품



포도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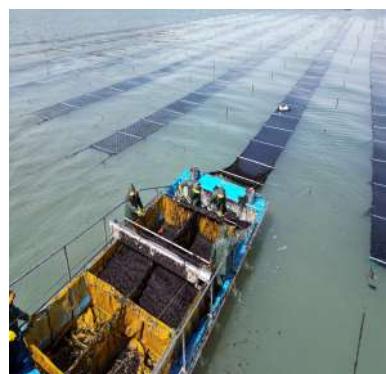
포도



단호박



장봉도 김 양식장



김 채취

- 이 책은 바다와 섬으로 이뤄진 북도면(北島面)의 지리적 특징, 향토생활과 관련된 용어와 내용을 중심으로 정체성이 드러나게 서술하며, 북도면 이외의 지역에 대한 서술은 본 면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 목차의 장, 절에 제시한 순서에 따라 집필의 내용을 서술하지만 일정 부분 중복되는 내용이 존재하며, 서술의 수준은 고유명사 등 전문용어를 제외하고 지역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하게 서술한다.
- 집필의 공간적 범위는 북도면의 유인도와 무인도(예 : 동만도, 서만도, 신도(薪島))의 경우 주변 해역을 서술하며, 이외 북도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해역이나 섬도 포함하여 서술한다.
- 시간적 범위는 선사시대부터 현대(2024년 10월 31일)까지 한다.
- 문장은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중·고등학교 교재 수준으로 하며, 한자나 외국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병기하나 인용문과 각주는 원문을 그대로 반영한다. 또 사안에 따라서는 각주에 출처를 분명히 밝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한다. 한문이나 외국어 원문의 인용 시 번역문을 본문으로 하고, 각주에 원문을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서술 내용의 이해를 돋기 위해 과거와 현재의 ‘사진, 지도, 그림(이하 자료)’을 활용하는데, 구분과 번잡함을 피하기 위해 일괄 기호 ‘||자료||’로 표시하였다. 또 책의 규격으로 보아 최대한 가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록한다.
- 도서별 개별 서술이 불가피한 경우 신도, 시도, 모도, 장봉도의 순서로 집필한다.

편찬 방향

- 옹진문화원에서는 2024년부터 ‘옹진섬 향토문화 발굴 아카이브’ 사업을 추진하여 그동안 정리되지 못한 채 사라지고 잊혀져 가는 옹진군의 향토문화를 발굴하여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다.
- 바다 환경의 변화와 도서 지역 개발의 급속한 변화에 직면한 옹진군 내 7개 면 중 매년 한 개 면의 인문과 자연 분야를 망라한 문화유산을 조사·연구하여 도서(島嶼)의 분야 별 성격을 밝힌다. 그리고 그 결과를 옹진문화원 『역사문화총서』로 발간하며, 첫 번째 대상을 행정면 순서에 따라 ‘북도면’으로 하였다.
- 섬 마을의 입지와 지명, 마을과 마을 사이의 고갯길과 육지 왕래를 위한 교통로 그리고 산과 바다를 통한 그들의 경제 활동 등 다양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섬 지역 주민이 보관하거나 전승되고 있는 각종 자료, 증언, 기타의 신뢰성 있는 사료를 통해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 섬 주민의 삶을 결정짓는 자연 환경은 자체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도서민과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살펴보고자 했으며, 나아가 2025년 신도대교 개통 등 수도권 시민들의 많은 출입이 예상됨에 따라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관광요소를 선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집필, 자문위원을 중심으로 편찬 방향, 대상 지역과 영역(분야)을 선정하여 전문성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재정상의 어려움은 더 많은 전문가와 동행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점차 보완하기 위한 방법을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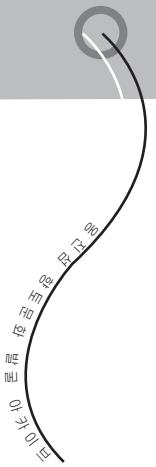
발간사

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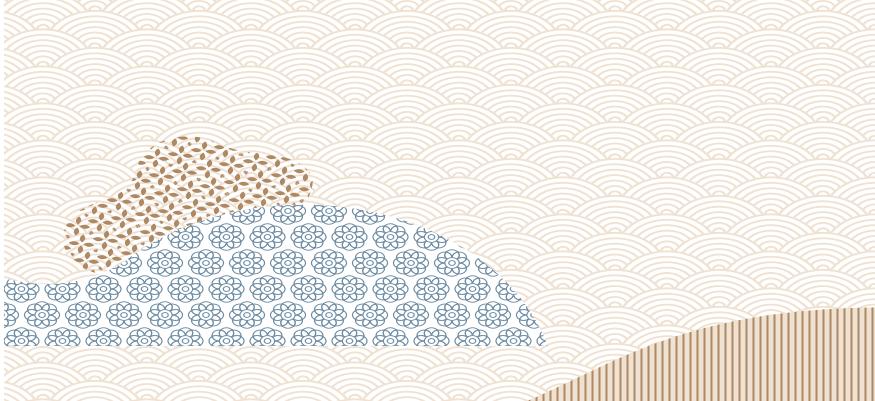
북도면 화보

I. 조사 개요	11
II. 자연 환경	15
1. 지형	17
2. 지질	27
3. 해양수산환경	32
4. 조류(鳥類)	54
III. 연혁, 마을과 지명	67
1. 연혁	68
2. 마을	76
3. 지명	104
IV. 교통과 전화(電化), 우편	149
1. 교통	150
2. 전화	169
3. 우편	171
V. 교육과 종교	175
1. 교육	176
2. 종교	208
VI. 어업문화와 민속유산	231
1. 어업문화	232
2. 민속유산	302
VII. 자연·인문 유산	307
1. 자연 유산	308
2. 인문 유산	334

참고문헌



I. 조사 개요



I. 조사 개요

강화도 남단에 동서 방향의 일렬로 위치한 신도, 시도, 모도와 장봉도로 구성된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은 인문·해양 문화 그리고 자연 유산이 즐비한 곳이다.

조선 시대 강화도호부, 강화현을 거쳐 강화군 제도면(諸島面)에 소속되었다가 일제강점기인 1914년 경기도 부천군 북도면(北島面)으로 편입되면서 방위 면으로 ‘북도면’ 지명이 붙게 됐다. 면 이름의 유래는 부천군에 소속된 도서 중 가장 북쪽에 있어 붙여졌다.

본 면은 주지하듯이 한반도 중부의 큰 물줄기인 한강 등 민물의 유입으로 기수역(汽水域)이 조성되어 다양한 어종과 어장이 형성됐고, 조수간만의 차로 갯벌이 발달하여 생물종의 다양성과 풍부한 수산 자원 제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질학적으로 장봉편암과 운모편암의 경관은 신의 작품인 듯 자연의 섭리가 반영돼 관광객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여 관광 자원으로 활용되기에 충분하다. 또한 한때는 이 지역의 지질 자원이 지역 주민의 경제 활동으로 이어진 바 있다.

이런 천혜의 조건을 갖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북도면민은 역사·종교·민속·교통·어로활동 등 그들의 삶 속에서 다양한 해양 문화를 낳아 변화·발전시켜 왔다.

더불어 지정학적으로 보장의 땅 강화도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 가까이는 강화도, 나아가 고려와 조선의 수도인 개성(개경), 서울(한양)을 해상에서 방비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했고, 황해를 통해 중국 등 해외로 진출하는 초입으로서 해외 문물 교류의 통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육지와 비교적 가까운 지리적 위치는 개발의 명분 속에 형질 변경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변화의 큰 변곡점은 인천국제공항 건설이었다. 이웃한 섬으로서 대규모 토목공사는 조류(潮流)와 바다 환경이 바뀌는 등 해양 생태계의 변화가 초래됐다. 앞으로 2025년에는 서해평화도로 건설을 위한 1단계 공사로 영종도와 신도를 잇는 가칭 신도대교가 개통을 앞두고 있어 북도면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도서 지역에서 급속히 진전되고 있어 본 면도 예외일 수 없으며, 크고 작은 개발 속에 지형의 변화는 급속히 진행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라지는 북도면의 자연 유산과 주민들이 남긴 인문 유산의 결정체는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지역의 원로들은 늘 걱정의 눈으로 봐 왔다.

오늘날 섬 주인이 섬을 떠나고 있으며, 섬 내의 어르신은 세월에 밀려 한 분씩 사라져 그들의 문화가 기록되지 못한 채 사라지고 있다. 게다가 수온의 상승 등 바다 환경의 변화와 세대의 단절은 역사의 단절로 이어지며, 북도면의 역사와 문화는 점차 잊혀지는 현실 속에서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기록으로 남겨보자는 공감대가 이번 조사의 계기가 되었다.

지금까지 북도면을 별도로 다룬 자료는 없다. 다만 『甕津郡誌』(1989, 2012)를 비롯하여 『甕津郡鄉里誌』(1996), 국립문화재연구소(2000)와 인천시립박물관(2015)에서 조사한 보고서가 있으나 개략적이거나 문화유산 등 일부 영역에 국한되어 있다. 최근에는 인천문화재단 등에서 『신도·시도·모도』(2022)가 간행된 바 있지만 가장 큰 섬인 장

봉도를 포함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이에 옹진문화원에서는 지역 주민의 숙원을 특색 사업으로 ‘옹진섬 향토 문화 발굴 아카이브’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옹진군 소속 면 단위의 과거 생활 자취를 모아 정체성을 찾는 기록물을 남기기로 했으니 다행스런 일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장소로 북도면을 실시하기에 이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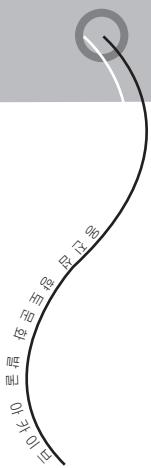
이번 북도면 아카이브 작업에 참여한 연구·자문·집필 위원과 영역은 다음과 같다.

- 사업 기간 : 2024. 4. 1. ~ 2024. 11. 30.
- 고고·역사 분야 및 기획 : 김석훈(문학박사, 인천섬유산연구소 이사)
- 해양분야 : 최중기(이학박사,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 명예교수)
- 지질분야 : 김기룡(이학박사, 인천섬유산연구소 이사장)
- 민속분야 : 정연학(문학박사,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 과장)
- 조류분야 : 정재홍(이학박사, 인성여자중학교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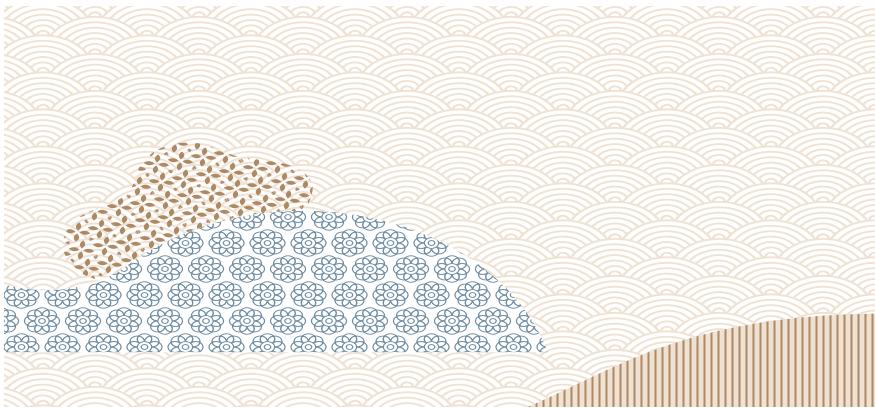
본 사업은 북도면의 인문, 자연, 해양 등 다양한 분야의 역사와 문화를 정리하여 기록 보존하고, 나아가 본 자료를 통해 관광 요소를 찾고 관광 자원화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북도면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2024년 유난히 무더웠던 날씨에도 불구하고 조사 및 연구를 맡아 진행해 주시고, 또한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원고를 모아 주신 자문위원님과 북도면 주민 여러분, 옹진문화원 관계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김석훈 (인천섬유산연구소 이사)



II. 자연환경



II. 자연환경

북도면은 옹진군의 북부, 영종·용유도의 북쪽에 위치한 신도, 시도, 모도, 장봉도 4개의 유인도와 11개의 무인도(신오도, 시오도, 아염, 사염, 날가지, 감투섬, 서만도, 동만도, 신도, 대멀곶(말끝), 고석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도면은 지리적으로는 동에서 서쪽으로 신도, 시도, 모도, 장봉도가 일렬로 군도를 이룬다. 북으로 강화도 남단의 화도면과 길상면이 가깝게 마주하며, 동쪽은 영종도 운북동에 이어서 남쪽으로 오면서 용유도의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다. 서쪽으로는 무인도와 망망대해가 펼쳐진다.



|| 자료 || 신, 시, 모도의 항공사진

신, 시, 모, 장봉도는 한강, 임진강, 예성강이 유입되는 곳에 있고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갯벌이 형성되기 좋은 조건을 간직하고 있어서 섬주변에는 넓은 갯벌이 발달되어 있다.



|| 자료 || 신오도와 시오도



|| 자료 || 동만도와 서만도

1. 지형

신도, 시도, 모도, 장봉도는 영종·용유도 북쪽에 있는 행정구역 상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에 속한 섬으로, 신도는 영종·용유도 북쪽 해안의 삼목선착장에서 여객선을 타고 약 10분 정도, 장봉도는 30여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우며, 신도, 시도, 모도는 연도교로 연결되어 있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 또한 다가오는 2015년에는 영종·용유도와 신도가 연도교로 연결될 예정이다.

신, 시, 모도는 사이좋은 3형제 섬처럼 옹기종기 가깝게 모여 있고 고도차가 별로 없는 노년기 지형으로, 길이 500m 정도의 신도·시도 연도교와 시도·모도 연도교로 이어져 있다. 그래서 신, 시, 모도를 둘러볼 수 있는 여러 방법(승용차, 마을버스, 자전거, 도보 등)이 있겠지만 날씨가 좋은 날에는 신도 바다역 선착장 부근에 있는 자전거 대여점에서 자전거를 대여하여 3형제 섬을 천천히 여행해 볼 것을 추천한다. 언덕길이 많지 않고 거의 평지에 가까워 힘들지 않고 세 섬의 구석구석을 천천히 여행하기에 적당한 섬들이다. 자전거 여행의 백미는 시도(강원)염전으로 가는 제방길을 따라 1.4km 정도의 펼쳐지는 시도 해당화길이다.



|| 자료 || 자전거 타고 여행하는 모습



|| 자료 || 시도 해당화꽃 길

북도면의 신도, 시도, 모도, 장봉도의 지형은 전반적으로 200m 이하의 나지막한 노년기의 지형을 이루고 해안가의 돌출된 부분은 해식애와 해식대지가, 움푹 들어간 곡부(만)에는 갯벌이 발달되어 있다. 항상 물이 흐르는 하천은 없고 비가 오거나 장마철에 계곡을 따라 임시로 흐르는 하천은 십여 개가 발달되어 있다.

가. 신도의 지형

섬 주민들이 순박하고 진실되어 믿을 신(信)자를 가진 신도의 지형을 살펴보면 서쪽에 위치한 구봉산(178m)를 주봉으로 하여, 동북쪽으로는 발달한 산줄기는 북쪽의 왕봉산(124m)으로 이어지고 왕봉산에서 다시 남쪽으로 안산(98m)의 줄기가 갯부리해안 까지 달하고, 동남쪽으로 뻗은 산줄기는 속목재산, 신촌4리(신촌)의 고두구지해안에 달하며, 서쪽으로는 황새부리, 구로지마을 앞 용의뿌리, 신오도 쪽으로 향한 산줄기가 구멍바위뿌리에서 끝난다.

지도상으로 본 신도의 모양은 동쪽 끝부분이 남, 북간의 폭이 넓고 서쪽해안으로 가면 갈수록 남, 북간의 폭이 좁아지고 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다.¹⁾

산의 능선과 능선 사이에는 계곡과 같은 곡부가 발달되어 있고 계곡과 해안의 마나는 지점에 마을이 조성되어 있다.

1) 옹진군편찬위원회, 『옹진군 향리지』, 1989, 69쪽.

원래 신도는 한국전쟁 1·4후퇴 때 이주해온 실향민들의 간척공사 등으로 갯벌이 농경지와 염전으로 변해 면적이 넓어져 장봉도(7.32 km^2)와 거의 같은 면적(7.16 km^2)의 섬이 되었다.

나. 시도의 지형

고기를 잡기 위해 갯골에 살을 매었다는 살섬에서 유래한 시도의 지형은 남북방향으로 길고, 동서방향으로 좁은 형태의 2.46 km^2 면적의 작은 섬으로, 섬 중앙에 큰당산(당말래산, 95m)을 중심으로 하여 남쪽으로 높은구지산(73m), 북쪽으로 수기산(71m)이 있다. 산줄기가 남북으로 섬의 척추를 이루고 동서방향으로 좁고 넓은 계곡이 발달되어 있다.

시도는 동쪽으로 500m의 갯골을 두고 신도와 서쪽으로 500m의 수로를 사이로 두고 모도와 인접해 있고 남쪽으로는 영종·용유도가, 북쪽으로는 강화도 화도면이 마주하고 있다.

시도의 마을은 갯골 넘어로 신도의 구봉산이 보이는 곳에 위치하는데 마을 남동쪽으로는 큰당산이 북동쪽으로는 안두산 줄기가 마을을 감싸고 있다.²⁾

다. 모도의 지형

바다에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는 올라오지 않고 띠 뿐만 걸린다고 하여 띠염이라고 불리었다가 한자로 명칭을 바꾸면서 띠 모(茅)자를 써서 모도란 이름을 가진 모도는 모도산(북망산, 95m)을 중심으로 하여 북쪽 끝에는 높은산(75m)과 남쪽 끝의 안산(38m)을 연결하는 반원형의 산줄기가 동남향을 한 마을 감싸고 있다. 섬의 북쪽은 강화도 화도면과 마주하며, 서쪽으로는 무인섬 말끗섬을 사이에 두고 장봉도와 마주하고 남쪽으로는 영종·용유도와 마주 보고 있는 약 0.23 km^2 의 매우 작은 섬이다.³⁾

2) 옹진군편찬위원회, 『옹진군 향리지』, 1989, 113쪽.

3) 옹진군편찬위원회, 위의 책, 115쪽.



|| 자료 || 신도, 시도, 모도 항공사진

라. 장봉도의 지형

장봉도는 영종도에서 북서쪽으로 약 5km, 동경 126도 20분, 북위 37도 33분에 위치하는 동서 길이 약 9km, 남북 폭 약 1.5Km, 면적은 7.32km², 해안선 길이는 22.5km에 달하는 섬이다.

섬 중앙에서 야간 북쪽에 치우쳐 있는 국사봉(149m)을 중심으로 동서로 뻗어나간 높고 낮은 산봉우리들이 길게 지붕을 이루고 있어 긴 장(長)자와 봉우리 봉(峰)자를 사용하여 장봉(長峯)란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장봉도는 섬 전체가 북서-남동 방향으로 길게 뻗어 있고, 전체 면적의 약 17%가 논 또는 밭의 경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약 81%는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봉도는 국사봉(높이 151.1m)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국사봉의 동쪽으로는 할미당고개, 말문고개, 늘논고개 등을 지나 옹암의 상산(114m)이, 국사봉 서쪽으로는 구제이넘어산, 절터골산, 진촌당산, 봉화산(130m), 긴능산, 큰봉(141m) 줄기 등이

가막머리 끝까지 이어진다. 이들 산봉오리를 따라가는 등산로가 조성되어 있는데 장봉도 서쪽 끝인 가막머리에서 서쪽 바다로 지는 해의 낙조가 매우 아름답다.⁴⁾

장봉도의 해안 돌출부에는 해식애가 발달되어 있고, 그 외 대부분 해안은 해수욕장과 갯벌이 넓게 펼쳐져 있다. 특히, 섬의 남서쪽 및 서쪽 해안을 따라서는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된 크고 작은 해빈이 조성되어 있고 수심은 비교적 얕다. 이들 해빈은 모래 갯벌이 펼쳐져 있어 뛰어난 해안 경관을 자랑하고 있다. 영종도에 인천국제공항이 생김으로 인해 장봉도는 수도권으로부터 접근성이 좋아지고 관광 및 문화 참여 활성화되면서 섬 관광 지역으로 각광 받고 있다. 장봉도는 어민의 삶과 자취가 많이 남아 있고 섬으로, 전체적으로 갯벌과 해수욕장이 발달 되어 있어 여름철 피서와 갯벌 체험에 매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 자료 || 장봉도의 항공사진

4) 옹진군편찬위원회, 『옹진군 향리지』, 1989, 138쪽.

마. 북도면의 간척

신, 시도, 모도, 장봉도 주변에 발달된 갯벌의 일부는 간척공사를 통해 매립되어 염전이나 농경지로 변한 장소가 많다.

신도 남동쪽 해안과 북쪽 해안에 있는 농경지, 염전, 양식장과 시도의 북동쪽에 있는 농경지, 시도염전과 모도 마을 남동쪽의 농경지는 간척공사를 통해 조성된 간척지이다.

장봉도의 평촌과 건어장 주변의 농경지도 역시 간척으로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 자료 || 신도, 시도, 모도의 간척지 분포



|| 자료 || 장봉도의 간척지 분포

1) 신도의 간척

가) 신도2리(고남) 간척

고남리의 '안말' 주변 밭과 신도4리로 가는 도로 아래의 논으로 경작되는 곳은 모두 간척지다. 즉 간척 이전은 모두 만(灣)으로 형성된 바다의 갯벌이었고, 안말 일대부터 간척이 시작됐다. 신도2리 간척지는 마을 앞의 문전옥답을 연상케 하며, 순서대로



|| 자료 || 간척으로 갯벌이 논으로 바뀐 고남마을 남쪽 농경지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간척을 시작한 사람은 김문희와 김종훈이다. 이들은 부자지간이며, 1962년 시작하여 작은 면적이지만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1965년부터 신도교회 최인석 목사가 교인들을 대상으로 25명의 희망자와 함께 간척에 매진했다. 이를 아침 새벽부터 밤까지 지게와 가마니를 등에 대고 돌과 흙을 날랐다. 작업에 긴요한 기구는 지게뿐이었고, 무려 10년 동안 작업은 계속됐다. 그 결과 방축은 완성됐고, 대성공이었다. 최목사의 활동은 각계각층을 방문하며, 사정과 구걸을 통해 구호양곡인 소맥분(밀가루) 또는 옥수수가루를 나누어 주어 큰 도움을 주었다.

나) 신도3리(마장지구) 간척

마장이란 지명은 이곳에 조선시대부터 말 목장이 있어서 붙여진 것으로, 벗말에서 배주개고개를 넘어 해안가를 따라 10여 가구가 모여 있다. 마을 앞으로는 시도를 마주하며 강화도 남단의 홍왕리가 가까이 위치한다. 원래 마을 지형은 마을 깊숙하게 바닷물이 들어와 갯벌이 형성되었던 만이었으나 현재는 간척으로 논이 되었다. 간척지가 논이 되기까지의 사연은 1950년 6·25 전쟁 당시 황해도 연백, 웅진 등지에서 이곳으로 피난 나와 움막집 짓고 정착한 안승필 외 13명이 지게 등짐으로 제방을 막아 농경지를 조성하였다. 제방에 필요한 돌은 해안가나 주변 야산의 바위를 깨서 사용했다. 조성 연도는 1963~66년이며, 제방 길이는 400m, 면적은 8ha에 이르는데, 간척의 대외적인 업무는 이석충이 맡아 했으며, 외부의 원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자료 || 간척으로 갯벌이 농경지로
변한 '마장지구'

다) 신도3리(염촌) 간척

바다를 바라보며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마을인 염촌은 마을 주민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식량 해결을 위해 농경지 확보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그 결과 제방을 쌓아 갯벌(干潟地)을 메우는 간척사업을 했다.

제방 조성 연도는 1889~92년이며, 조성자는 강화도에서 건너온 이낙현이었다. 갯벌이 비교적 넓고, 수원(水源)이 비교적 풍부한 지리적 이점을 고려해 부락민을 동원하여 제방을 축조하고 농경지를 조성하였다. 제방의 길이는 약 700m, 면적은 20ha이다. 이곳은 염벗 마을 최초의 간척지이며, 이 당시에 쌓았던 제방을 ‘구방죽’이라 한다.

이후 1950년 6·25 전쟁으로 황해도 옹진, 연백 등지에서 피난하여 장봉도에서 거주하던 70여 세대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원이 풍부하고 이용이 가능한 갯벌이 있는 염촌 부락으로 이주하여 ‘공생조합’이라는 조합을 만들었다. 조합원 구성은 이주해 온 주민 세대 전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김완식을 비롯하여 약 65명으로 구성되었다. 조성 연도는 1957~1959년이며, 제방 길이 700m, 면적은 40ha이다. 이때 만들어진 제방을 ‘신방죽’이라 한다. 그러나 초기에는 염기로 인해 농사를 짓지 못하다가 1960년대 중반부터 벼농사를 시작하였다고 하며, 간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토지를 매매하고 출도했다고 한다.



|| 자료 || 간척으로 갯벌이 농토로 변한
'진촌' 마을 앞 농경지

라) 신도4리(신촌) 간척

공생조합을 통해 간척을 완성한 뒤 간척의 노하우를 통해 피난온 주민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20여 가구가 ‘삼성조합’이라는

모임 아래 농경지 조성을 위해 간척을 하게 되었다. ‘공생조합’에서 간척한 토지와 맞닿아 있으며, 햄섬(일명 똥섬)을 중심으로 좌우에 위치한다.

조성 연도는 1962~65년이며, 제방 길이 400m, 면적은 12ha이다. 이 조합의 대표자는 송창이며, 조합 땅은 개인 사유지이다. 일본식 용어인 ‘우깨도리’라는 방식을 취해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며, 이런 과정에서 ‘평띠기’라는 용어가 생기기도 했다. 이 현장에서 한 평은 가로·세로·깊이는 모두 1.8m를 말하며, 팀워크가 맞는 3~4명이 조(組, 팀)를 이뤄 역할 분담했다. 간척의 노임은 일한 면적만큼 일당으로 계산했다고 한다.

2) 시도 간척

시도의 간척공사가 이었던 곳은 시도 중동부 해안에 인접한 시도(강원)염전과 주변의 논경지로 추정되는데 주민들에 따르면 1·4 후퇴 이후 주민들이 염전과 농지를 간척했다고 한다. 이 지역의 간척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지만, 신도의 간척 역사 등으로 미루어 보아, 1960연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 자료 || 삼성조합에서 조성한
신촌 주변의 농경지



|| 자료 || 간척으로 조성된 시도 동쪽 해안
논과 시도(강원) 염전

3) 모도 간척

모도에는 원래 논이 없었지만, 모도 마을 앞에 논경지가 조성된

것은 모도 출신 북도면사무소 최영윤씨의 숨은 공로가 크다. 그는 모도 주민, 특히 모도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던 어린 학생들에게 개구리 울음소리를 들려주고 싶다고 청와대에 건의를 했다. 1982년 내무부 장관이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곳을 방문한 이후 1984년 7월 400m의 제방을 쌓아 1986년에 8ha의 농경지가 조성되어 벼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다고 하며, 개구리는 자연적으로 생겨나 그 울음소리를 듣게 됐다고 한다. 당시 간척지 면적은 총 40필지였으며, 모도 주민에게 1인 당2필지씩 싼 값으로 불하했다고 한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이 들어서면서 이웃 섬인 영종 주민 등 외지인들이 현 간척지를 매입하는 등 현재 모도 간척지 대부분은 외지인의 소유라고 하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현재 모도는 물이 부족해 농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저수지를 논 옆에 마련했으며 쌀은 맛있기로 유명하다. 현재 간척을 위해 쌓은 제방에 해당화 꽃길을 조성했으며, 간척지는 논과 논농사를 위해 저수지로 활용하고 있다.



|| 자료 || 간척으로 조성된
모도 마을 앞 농경지

4) 장봉도의 간척

장봉도는 면적이 6.68km² 밖에 되지 않지만 넓은 간척지로 둘러싸여 있고, 섬 중앙에는 비교적 넓은 평지가 있다. 옛날부터 주민들의 반은 농사를 짓고 또 반은 어업에 종사했다.

장봉도의 주요 간척지는 지형을 고려해 보면 평촌과 건어장 주변인 것으로 보인다. 장봉도 간척의 역사에 대한 역사 기록을 찾기 어렵지만, 장봉진이 위치했던 진촌(장봉3리)은 주변이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아득한 마을이다. 마을 뒤 당산을 중심으로 가막머리(북서) 방향의 산줄기와 국사봉(남동) 방향의 산줄기가 마을을 ‘Ω형’으로 둘러싸고 있다. 유일하게 서쪽으로 터져 있어 건어장(乾

魚場)과 바다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바다 기원의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고,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안성맞춤인 지형이다. 따라서 군사시설이 들어서기에 알맞은 천혜의 조건이었던 것이다. 아울러 건어장부터 축동(장봉4리)과 진촌(장봉3리)의 경작지(논)까지는 간척에 의한 것이며, 옛 모습은 바다였다. 지금도 마을 부근의 논에는 토탄이 출토되고 있다는 차윤태씨(장봉3리)의 증언이나 고연희씨 댁 화장실 탱크를 설치하기 위해 땅을 깊었는데 갯벌이 나왔다는 것은 과거에 바다였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1800년대 말 조선시대에 장봉진이 장봉3리에 존치했던 역사적 사실로 보아 장봉도의 건어장부근의 간척은 1895년(고종32) 장봉진 폐지 이후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자료 || 간척으로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평촌의 농경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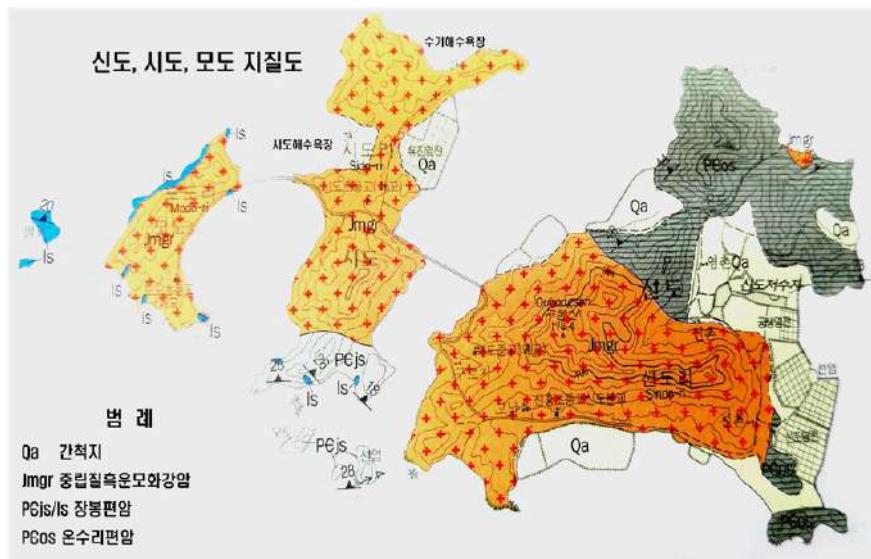
|| 자료 || 간척으로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어장 북쪽 진촌 앞 농경지

2. 지질

북도면의 유인섬인 신도, 시도, 모도, 장봉도를 구성하고 있는 암석들을 살펴보면 신원생대 초 약 10억전에 형성된 퇴적기원의 변성암류인 장봉편암과 온수리 편암을 기반암으로하여 중생대 쥐라기에 관입된 생성된 중립질 흑운모화강암과 이들 암석을 관입한 석영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신도, 시도, 모도의 지질

신도, 시도, 모도를 구성하고 있는 암석은 선캄브리아대에 형성된 퇴적암이 변해서 만들어진 호상편암인 장봉편암과 온수리편암을 기반암으로 하여 이를 중생대 쥐라기에 관입하여 생성된 중립질 흑운모화강암과 이들 암석들을 관입한 석영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파도의 영향을 많이 받은 신, 시, 모도의 해안가에는 이러한 암석들이 양호하게 노출되어 있고 간간히 모래와 갯벌로 구성된 해안이 발달되어 있다.



|| 자료 || 신도, 시도, 모도의 지질도(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료 인용)

2005년 한국자원연구원에서 발간한 강화·온수리 도폭(신도, 시도, 모도 지지도)에 따르면 신도의 동쪽 왕봉산 주변에는 선캄브리아대에 형성된 온수리편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곳에서 노출된 온수리편암은 수 mm 크기의 백운모들이 발달되어 있는 백운모 편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봉산을 중심으로 한 구로지(신도1리), 고남(신도2리) 지역에는 중생대 쥐라기에 생성된 중립질 흑운모 화강암

과 이 암석을 관입한 석영맥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구봉산 지역을 직접 지질 조사해 본 결과 장봉편암으로 추정되는 운모편암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고 간혹 석영맥이 관입되어 있고 중생대 쥐라기에 생성된 중립질 흑운모 화강암은 신도 선착장 주변에 분포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자료 || 왕봉산 주변 온수리편암



|| 자료 || 구봉산 주변 운모편암(장봉편암 추정)



|| 자료 || 구봉정 주변 운모편암을 관입한 석영맥



|| 자료 || 신도 선착장 주변 흑운모 화강암

신도에는 금을 채굴했던 광산 2곳이 1918년, 1921년부터 운영되었다고 전해지는데 광부들의 대부분은 외지인으로 수입이 대단히 많았다고 한다. 신도광산에서 발견된 채굴된 광물은 금과 은이며, 알봉산 아래쪽으로 광굴이라는 지명이 있고 현재에도 광산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⁵⁾ 주민들의 기억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에 금과 은을 채굴했던 곳인데 광복 이후 주민들이 사금을 채취하려 했으나 타산이 맞지 않아 폐광되었다고 한다. 신도3리 왕봉산 부근에도 광산의 흔적이 발견된다.

신도의 지질로 보았을 때 신도광산의 기원은 온수리편암과 중생

5) 인천문화재단, 『인천 섬 생활사 보사보고서(제2집) 신도, 시도, 모도』, 2022, 81~84쪽.

대 화강암을 관입한 마그마 분화단계 마지막에 생긴 열수가 냉각되어 생성된 석영맥을 따라 발달된 열수광산으로 추정된다.

또한 신도의 뾰족산, 왕봉산 주변과 신도 북동단 하모리 부근에서 1930년대 구들장을 채석했다는데 이것도 역시 엽리를 따라 판상으로 잘 갈지는 편암의 특징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 장봉도의 지질

장봉도는 원생대에 퇴적된 퇴적암류가 변성되어 형성된 흑운모 편암, 석회질 편암, 결정질 석회암 및 석영편암으로 구성된 장봉편암을 기반암으로 하여 중생대 쥐라기에 관입하여 형성된 적자색 중립질 흑운모화강암과 이들 암석을 관입하여 생긴 석영맥들로 구성되어 있다. 장봉도의 대부분은 장봉편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적자색 중립질 흑운모화강암은 장봉도의 서쪽과 동쪽 편에 소규모로 분포하고 있다.

장봉도의 광산은 일제강점기때 금을 채굴했던 광산이 몇군데 있는데 대표적인 곳이 옹암선착장에서 작은 멀곶으로 가는 도로변과



|| 자료 || 장봉도의 지질도(출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료 인용)

장봉도 북쪽해안의 긴장수리뿌리 근처이고 장봉4리(축동) 북서쪽해안에는 화강암 석재를 채석했던 채석장이 분포한다.

장봉도의 지질을 감안해 보았을 때 장봉도의 금은 광산의 기원은 기반암인 장봉편암과 중생대 쥐라기에 생성된 화강암을 관입한 마그마 분화단계 마지막에 생긴 열수가 냉각되어 형성된 석영맥을 따라 발달된 열수광산으로 추정된다.



|| 자료 || 장봉도 옹암선착장 부근
금 채광 흔적



|| 자료 || 장봉도 긴장술뿌리 부근
금 채광 흔적



|| 자료 || 장봉4리(축동) 북서쪽해안의 화강암 채석장

김기룡(사단법인 인천섬유산연구소 이사장)

3. 해양수산환경

가. 해양환경

북도면의 해양환경은 한강하구인 강화도 남단에 인접하여 한강수의 유입 정도에 따라 계절별로 하구 특성과 연안 특성을 보여준다. 우기인 여름철에는 한강으로부터 담수의 유입량이 많아 염분 농도의 감소로 기수역의 특성을 보이고, 건기인 겨울과 초봄은 담수의 유입이 감소하고 해수의 유입이 증가하여 연안역의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기수와 해수의 영향으로 이 해역에 서식하는 생물들은 기수에 잘 적응된 생물들과 해수에 잘 적응된 생물들이 같이 나타나 생물 다양성이 높은 편이다. 이 해역의 해저는 한강수와 함께 유입된 모래와 펄들이 쌓여 다양한 퇴적구조를 보이고, 모래갯벌, 펄갯벌, 암반갯벌 등을 형성한다.

이런 퇴적구조로 거기에 사는 생물들도 다양한 종류가 나타난다. 바다의 수질 또한 한강수와 인천 연안수의 오염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북도면은 신도, 시도, 모도, 장봉도 등 유인도와 주변에 동만도, 서만도, 신도, 날가지도, 암서도, 고석도, 신도먹염(신오도), 시도먹염(시오도), 대말도, 와염, 사염등 크고 작은 섭여개의 무인도를 가지고, 서쪽에 수백만평의 대규모 모래풀등을 형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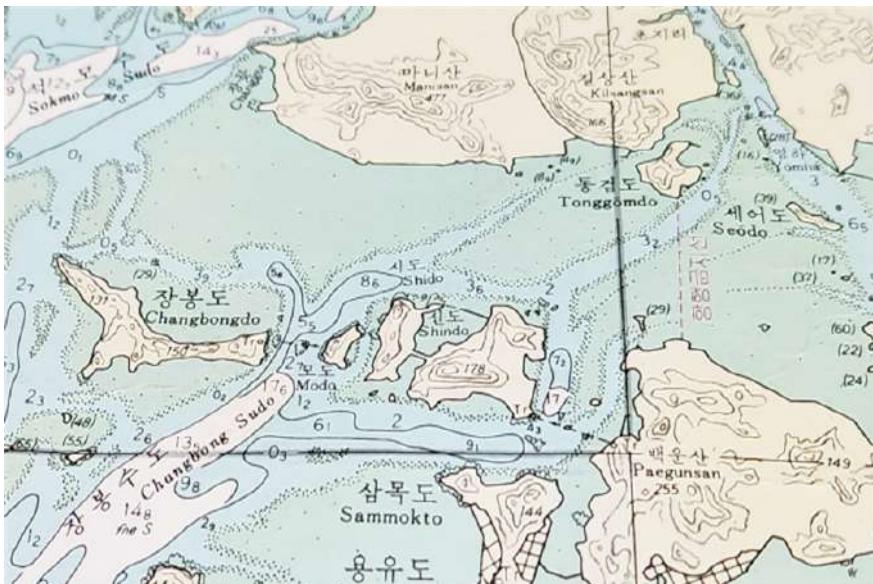
신도와 시도는 1990년대 건설한 방파제로 연결되어 있었으나 방파제 앞에 펄이 퇴적되어 조류 유통이 원활하지 않아 문제가 생기자 방파제를 철거하고 2005년 12월에 539m의 연도교를 건설하여 조류의 흐름이 원활하게 하였다. 시도와 모도를 연결하는 시모도 연도교는 기존의 박스형 다리를 철거하고 570m의 왕복 2차선 다리를 2024년 5월에 다시 건설하였다.



|| 자료 || 신·시도 연도교

1) 해양지리적 위치와 물리적 특성

북도면은 북쪽으로 강화 남단 갯벌과 접하며, 남쪽으로는 수심 12~17m의 장봉수도를 통하여 영종도와 만난다. 동쪽으로는 수심 3m 내외의 동검수로를 통하여 염하수로와 접하고, 서쪽으로는 수심 14~20m의 석모수로와 만난다. 동쪽으로 강화도와 김포 사이의 염하수로로 유입된 한강수의 일부가 수심이 얕은 동검수로를 통하여 썰물시 신도 방향으로 들어온다. 갈수기인 겨울과 봄에 담수 유입량이 적을 때 담수 희석수의 영향(염분 28psu)이 신도 부근까지 영향을 미치나, 풍수기인 여름엔 염하수로와 석모수로를 통하여 유입된 담수가 북도면 전체와 팔미도 부근까지 영향을 미친다(이혜민 등, 2021). 장봉도 주변의 해수는 석모수로를 통하여 유입된 한강수와 장봉수도를 통하여 외해로부터 유입된 염분농도가 다소 높은 연안수가 만남으로 염분농도가 23.0~31.3psu 범위로 여름에 낮고 겨울에 농도가 높다. 풍수기인 2006년 7월 장봉수도에서 측정된 염분은



|| 자료 || 북도면 주변 해도

썰물시 23~25psu, 밀물시 25~27psu로 담수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또 소조기보다 대조기에 염분의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장봉도 주변의 해수의 조위변화는 인천항 부근에 비해 다소 적으나 강화대교 아래에 비해 다소 크게 변화한다. 장봉수도의 대조시 가장 높은 수위는 9m에 달하며, 사리 때인 대조 평균 고조위(최고만조) 840cm에 이른다. 조금때인 소조 평균 고조위는 620cm로 대조시와 2m 이상 차이가 난다. 수심이 낮아지는 평균 저조위도 대조시 67cm, 소조시 287cm로 2m 이상 차이가 난다. 대체로 대조시 조위차는 7.75~8.20m에 이르고 소조시 조위차는 3.34~3.60m에 달한다. 장봉도 북쪽 갯벌 수로에서 측정된 최고 수위는 889cm, 대조시 평균 고조위 824cm, 소조시 평균 고조위는 625cm이다. 평균 저조위는 대조시 64cm, 소조시 264cm로 대조차 760cm와 소조차 360cm를 보여 평균 조차 560cm로 장봉수도와 유사하다. 북도면 해역의 조차는 서해연안의 큰 대조차(macrotidal) 환경(3m 이상)에 속한다.

신도 남쪽 해역에서 조류의 유속은 밀물시 북동 방향으로 155cm/s 속도로 흐르고, 썰물때는 남서방향으로 154cm/s의 속도로 흐른다. 장봉수도에서도 밀물은 북동 방향으로 흐르고, 썰물은 남서 방향으로 흐른다. 대조시 가장 빠른 밀물의 유속은 104~206cm/s 속도로 썰물때의 최고 유속 90~170cm/s 보다 다소 높다. 소조기에는 평균 유속이 크게 감소한 30cm/s로 밀물과 썰물의 유속이 거의 같다. 장봉도 북쪽 수로에서의 가장 빠른 유속은 141.3cm/s로 남쪽보다 빠른 편이다. 장봉도와 모도 사이의 조류 속도는 200cm/s로 북도면에서 가장 빠른 유속이 나타난다.⁶⁾

2) 해안 퇴적환경

신도 주변의 해안은 편암류의 암편 위에 펄이 쌓인 펄갯벌이 넓게 둘러싸고 있다. 시도 또한 섬 전체가 갯벌로 둘러싸여 있으나 해안선 부근에서는 파랑의 영향으로 모래해안, 자갈해안, 파식대가 드러난 암석해안 등이 잘 발달해 있다. 섬의 동쪽 해안은 갯벌이 주로

6) 최중기, 「장봉도 주변의 해양생태환경과 어업」, 『장봉도』, 민속원, 2017, 133~154쪽.

형성되어 있고, 북쪽 해안은 만입부를 중심으로 수기해수욕장과 같은 모래해안과 소규모 해안사구가 발달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해안은 파랑의 영향으로 기반암이 침식된 암석해안이 발달하고 있으며, 그 전면에는 파식대가 있고, 파식대는 각질의 자갈로 덮여 있다.

모도 주변 해안 대부분이 갯벌로 되어 있으나 해안선 부분은 파랑의 작용에 의한 자갈해안이나 암석해안이 노출되어 있다. 파랑이 강한 곳에서는 소규모 파식대와 시스템이 곳곳에 나타난다. 파랑이 작은 동쪽 해안은 갯벌이 형성되어 있고 소규모 만입부에는 사질 물질이 갯벌 상부를 덮어 모래해안을 이루고 있다.

장봉도는 섬 주변으로 폭 넓은 간석지와 해안선을 따라 크고 작은 모래 해안이 잘 발달되어 있다. 특히 남쪽 해안의 헤드랜드 사이의 만입부에 형성되어 있는 길이 약 400m, 폭 50m의 옹암 해수욕장과 서남쪽 해안의 섬 내해에 발달한 길이 약 1km, 폭 50m의 한들 해수욕장은 전면의 모래해안과 배후에 소규모의 사구가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어 전형적인 해안퇴적 양상을 보인다.

장봉도 서쪽 해안지역은 완만한 해안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식동굴이 있다. 북서쪽 해안과 가막거리해안 지대는 기암기석의 경관을 갖추고 있어 보전할 가치가 높은 곳이다. 장봉도 북쪽 갯벌은 동쪽의 사니질 갯벌에서 서쪽으로 가면 모래갯벌로 변한다. 전반적으로 모래 함량이 3.5~65.1%를 차지하고 유기물 함량은 0.25~6.30%에 이른다. 동쪽 사니질 갯벌은 연간 최대 5cm씩 퇴적되는 반면에 서쪽 모래갯벌은 연간 2~4cm씩 침식된다(Woo and Je, 2002). 장봉도 남쪽 갯벌은 모래함량이 30.7~88.4% 분포로 조립질 퇴적물을 이루어 유기물 함량이 2.2~6.2% 정도이다. 장봉도 서쪽 동만도 지역 모래 함량은 92.7~100%로 전형적인 모래갯벌로 유기물 함량은 1.7~4.2%로 낮은 편이다. 서만도 모래갯벌은 모래 함량이 69.6~99.5%로 모래함량이 동만도 보다 다소 떨어지나 유기물 함량은 유사하다. 동만도 서쪽에 한강으로부터 유입된 모래와 점토가 쌓여 8~12km² 규모의 모래풀등이 대형 천해사퇴를 형성하였다 (Bang 등, 1994).

3) 수질환경

북도면 해역의 수질은 석모수로와 염하수로를 통해 유입되는 한강 수의 영향이 크고 북수도와 장봉수도를 통해 유입되는 외해수의 영향을 받는다. 담수유입이 적은 건조기에 한강하류부터 장봉수도까지의 용존질소의 분포를 보면 한강하류 신곡수중보에서 용존무기질소(DIN)의 농도는 평균 603.91uM/L, 석모수로에서 평균 125.05uM/L, 장봉수도에서는 평균 49.9uM/L로 장봉수도로 오면서 1/12로 감소하였다. 흥수기에도 용존무기질소가 신곡수중보에서 178.70uM/L에서, 석모수로에서 103.5uM/L, 장봉수로에서 30.8uM/L로 감소하여 바닷물에 의한 희석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의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의 해양 수질측정망 측정 자료를 보면,⁷⁾ 해수수질 기준인 DIN의 경우 한강 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석모수로 창후리 앞바다에서 2023년 11월 1,085.6ug/L와 염하수로 상의 초지리 앞바다에서 1,675.8ug/L로 높으나 장봉도 서북방에서는 686.9ug/L로 감소하였고, 2024년 2월에도 창후리 앞바다에서 2,288.9ug/L로 4등급의 높은 농도를 보였으나 장봉도 서북방에서 3등급의 농도 876.7ug/L로 크게 감소되었다. 3월에 초지리 앞바다에서 2,085ug/L의 높은 농도를 보였으나 장봉도 동남방 신, 시도 앞쪽에서 349.3ug/L로 크게 감소된 농도를 보였고, 4월엔 214.5ug/L를 보였다. 이는 외해수(31.52 psu)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용유도 앞바다의 3월 282.4ug/L와 4월 139.3ug/L보다는 높은 것으로 장봉수도를 통하여 유입된 해수(30.77psu)의 영향을 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

풍수기인 2024년 8월 신, 시도 앞쪽에서 DIN 농도 281.1ug/l, 용유도 앞쪽에서 145.0ug/L로 갈수기에 비해 크게 감소되었다. 또 하나의 오염지표인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분포는 1.29 ~4.90mg/L 분포로 조사시기에 따라 농도 분포가 크게 변하였다. 2022~2024년 북도면 주변 해수의 생태기반 해수수질 등급은 4월에 1등급, 8월에 2

7) 해양환경공단, 『2021년 갯끈풀 제거 및 관리사업』, 해양수산부, 인천광역시 강화군, 해양환경공단, 2021, 6쪽.

등급, 10월에 2등급, 11~3월에 3등급을 보여 전반적으로 한강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동계에 수질이 악화되고, 해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봄에 회복되었다가 풍수기에 다시 한강수의 영향을 받아 수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체적인 해수수질 기준은 보통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도면의 해수 수온은 1.1~25.9°C 분포로 2월(2021년)에 최소를 보이고 8월(2024년)에 최고를 보인다. 2024년은 9월에도 고 기온을 기록하고 있어 높은 수온을 기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실측 자료가 없다.

염분은 석모수로 창후리 앞바다에서 15.10~23.00psu, 초지리 앞바다 16.33~22.49psu, 북도면 해역에서 26.32~30.77psu의 분포를 보여, 북도면 해역이 하계에는 담수 영향을 많이 받고, 동계와 만조 시에는 해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 중 중금속 농도는 주의 기준 농도 이하이나 신, 시도 (장봉도 동남해역) 앞바다의 해저 퇴적물 중 2022년 10월 측정 자료에서 구리(cu) 농도가 38.96mg/kg로 측정되어 주의 기준인 20.6mg/kg을 초과하였으나,⁸⁾ 2023년 측정자료에서는 기준치 이하인 16.3mg/kg을 보였다. 향후 지속적으로 관찰할 부분이다.

바다의 투명도를 결정하는 부유퇴적물 입자 농도는 장봉수도에서 대조기에 100~120mg/L 분포로 높은 편이고, 겨울에 특히 높은 농도를 보인다. 소조기에는 크게 감소한다. 이로 인한 투명도 깊이 분포는 0.4~2.2m로 겨울에 높은 탁도로 빛의 투과가 작게 나타난다.

4) 수층 생태

수층생태계를 부양하는 식물플랑크톤은 수층에서 광합성을 하여 유기물을 생산하는 엽록소-a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엽록소-a의 농도 분포로 식물플랑크톤의 양적인 변화를 알 수 있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의 2021년~2024년 조사에서 0.65~4.62ug/L의 엽록소-a 농도 분포를 보였다. 2월에 0.65~2.18ug/L, 3월에 3.4ug/L,

8) 앞 해양수질측정망 자료, 2022년 4분기(2022.12.) 해저질 측정자료, 장봉도 동남해역

4월에 2.30ug/L, 5월 4.62ug/L, 8월에 0.79~2.04ug/L, 10월에 1.0~2.0ug/L, 11월에 0.85ug/L 분포로 동계에 낮은 농도를 보이고, 3월부터 증가하여 5월에 춘계대증식을 일으키고, 하계부터 다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인천 연안의 봄철과 여름철에 대증식을 일으키는 양상과 다소 차이가 있다. 2007년 조사자료에서는 주로 봄과 여름에 높고 가을에 낮았다.⁹⁾

식물플랑크톤의 성장은 영양염 공급과 빛에 의해 좌우된다. 동계에는 용존질소(DIN)가 476.7~876.7ug/L의 높은 농도로 영양염이 충분하였으나 투명도가 0.4~0.6m로 낮아 빛 부족으로 성장이 미약하였다. 봄에는 겨울철에 공급된 충분한 영양염과 개선된 빛 조건으로 성장이 활발히 일어난다. 여름에도 육지로부터 영양염이 많이 공급되고 광 투과도 충분하여 대증식이 일어나나 동물플랑크톤의 포식에 의해 식물플랑크톤의 양적인 감소가 일어날 수 있다.

북도면 해역에서 주로 우점하여 출현하는 식물플랑크톤은 100~200um크기의 규조류로 골편돌말(Skeletonema), 갯돌말(Paralia sulcata), 센털돌말(Chaetoceros) 등이고, 은편모류 같은 미소편모류(20~50um 크기)도 많이 출현한다. 식물플랑크톤을 포식하는 동물플랑크톤은 주로 200~400um 크기의 요각류로 갑각류에 속한다. 인천연안에서 가을부터 봄까지 가장 우점하는 동물플랑크톤 종류는 요각류 뒷벌레 *Acartia hongi*로 기수지역에 잘 적응된 종이다. 이 종은 봄에 산란하므로 유생들이 봄에 대량증식한 식물플랑크톤을 먹고 왕성하게 자란다. 장봉도 해역에서 4월에 성체가 3,134개체/m³, 유생 5,286 개체/m³가 대량 출현한 바 있다.¹⁰⁾ 이 종류는 여름에 이동했다가 가을에 다시 나타난다. 여름에는 다른 요각류인 *Paracalanus crassirostris*와 *Acartia pacifica* 등이 출현한다. 때로는 원생동물인 와편모류 야광충(*Noctiluca scintillans*)이 봄과 여름에 대량 출현하여 식물플랑크톤과 요각류 알을 섭식하며 적조를 일으키기도 한다.

동물플랑크톤을 포식하며 북도면 해역 수층에 서식하는 어류의

9) 최중기, 앞의 책, 133~154쪽.

10) 최중기, 앞의 책, 141쪽.

자치어는 여름에 밴댕이가 64%로 가장 우점하였고, 그다음이 멸치 12%, 청멸 10% 순이었다. 가을에는 농어 자치어가 우점하였고, 겨울과 봄에는 흰베도라치와 까나리가 우점하였다. 성어도 하계에는 밴댕이와 멸치가 우점하고, 가을에는 농어, 겨울과 봄에는 실치라 칭하는 흰베도라치가 많이 출현하였다.¹¹⁾

2000년 장봉도 갯벌에서 조사된 어류는 총 36종으로 농어목 17종, 청어목 5종, 쇠뱅이 목 5종, 가자미목 4종이었다(서인수, 홍재상, 2010). 이 중 개체수가 가장 많은 종류로는 농어목 어류가 61.5%를 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 가자미류 11%, 쇠뱅이류 10.6%, 청어류 10.5% 순으로 많이 출현하였다. 전체적으로 여름에 가장 많이 출현하였고, 겨울에 가장 적게 출현하였다. 출현종 중 풀망둑이 겨울에 최대 출현량을 보이며 가장 많이 출현하였고, 조피볼락은 여름에 가장 많이 출현하고 동계와 봄에 소량 출현하였다. 민태는 6월부터 여름에 많이 출현하였고, 참서대는 7~9월에 많이 출현하였다. 쥐노래미, 양태 등도 여름에 많이 출현하고 겨울에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삼세기, 가승어 등은 겨울에 많이 발견되고, 5~9월에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멸치는 여름에 많이 출현하기 시작하여 10월에 최대 개체수를 보였다.

장봉도 인근 석모수로에서 2월부터 12월까지 개량안강망으로 매월 채집한 유영생물은 어류 45종, 새우류 16종, 기타 갑각류 12종, 두족류 3종, 해파리 1종으로 그중 밀새우는 거의 매월 출현하였고, 개체수 또한 전체의 32.6%로 가장 우점하였다. 그다음으로는 젓새우가 15.9%, 그라비새우 9.9%, 꽃게 7.7%, 중국젓새우 6.9%로 갑각류 5종이 총 출현 개체수의 73%를 차지하였다. 월별로는 2월에 밀새우, 아작망둑, 흰발망둑, 그라비새우, 참게, 웅어, 가승어 등이 우점하였고, 3월에는 그라비새우, 웅어, 밀새우, 송어 등이, 4월에는 그라비새우, 웅어, 밀새우, 꽃게, 실고기 등이, 5월에는 그라비새우, 웅어, 실고기, 밀새우, 두줄망둑, 오셀망둑, 문절망둑, 꽃게 등이, 6월에는 젓새우, 웅어, 그라비새우, 밀새우, 풀밴댕이, 풀반지, 실고기 등이 많이 출현하였다. 7월에는 밀새우가 최우점하였

11) 최중기, 앞의 책, 145쪽.

고, 그라비새우, 싱어, 황강달이, 젓새우, 꽃게 등이 우점하였다. 8월에는 밴댕이가 가장 우점하였고, 밀새우, 반지, 병어, 황강달이, 꽃게, 해파리, 중국젓새우, 싱어, 웅어, 납작게 등이 우점하였다. 9월에는 밀새우와 꽃게가 가장 우점하였고, 황강달이, 해파리, 싱어, 웅어, 청멸, 풀밴댕이, 그라비새우, 중하 등이 많이 출현하였다. 10월에는 꽃게, 밴댕이, 반지, 황강달이, 가승어, 그물무늬금게 등이 우점하였고, 11월에는 중국젓새우, 꽃게, 붉은줄참새우, 애기참게, 쉬쉬망둑 개체수가 많이 출현하였고, 무게로는 꽃게, 가승어, 참서대, 중국젓새우, 점농어가 많이 잡혔다. 12월에는 중국젓새우, 긴발딱총새우, 꽃게, 가승어, 그라비새우, 봉장어, 풀망둑이, 쉬쉬망둑 등이 많이 출현하였다.¹²⁾

5) 저서 생태

신도의 남부 갯벌의 퇴적상은 조간대 상부에서 자갈과 모래가 약간 섞인 펄질의 혼성갯벌이고, 하부로 갈수록 무릅까지 빠지는 점토질의 펠갯벌이다. 조간대 상부에는 소규모 염습지 식생대가 형성되어 있다. 갯벌에 출현하는 저서동물은 단위면적 당 평균 7종/0.05m²로 종수가 많지 않다. 평균 출현 밀도는 436개체/m²이고 생체량은 22.2g/m²이다. 이곳은 상대적으로 게가 많이 출현하여 갑각류가 총개체수의 약 60%를 차지하였고, 갯지렁이는 23.9%, 연체동물은 8.3%였다. 주요 우점종은 칠계, 펠털콩계, 양손갯지렁이류, 기수우렁 등이었다. 북동부 갯벌은 펠갯벌로 칠계, 방계, 세스랑계, 참계 등 게 종류가 우점하였다. 암반해안에는 전반적으로 굴과 따개비가 많이 부착하여 해조류 서식에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 해조류가 관찰되지 않고 있다.



|| 자료 || 갯끈풀(Spartina alterniflora)

출처 『2021년 갯끈풀 제거 및 관리사업』

12) 최중기, 앞의 책, 146~147쪽.

그러나 2018년부터 신도 동남 해안과 서쪽 해안에 위해식물인 갯끈풀(Spartina)이 관찰되고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다. 갯끈풀은 벼과 식물로 기수지역에 서식하는 다년생 초본 식물로 염습지나 갯벌에 군락을 이루며 뿌리와 씨를 통하여 급속히 범위를 확산하며 성장한다. 갯끈풀 군락은 서식지 변형을 일으켜 생물다양성 감소, 수산자원 감소, 관광산업 등에 피해를 일으켜 2013년 환경부에 의해 위해 우려종으로 지정되고, 다시 2016년에 생태계교란생물(환경부) 및 유해 해양생물(해양수산부)로 지정되었다.



|| 자료 || 강화도 동막해변의 갯끈풀군락
출처 『2021년 갯끈풀 제거 및 관리사업』



|| 자료 || 신도 갯끈풀 출현지점
출처 『2021년 갯끈풀 제거 및 관리사업』

|| 표 || 신도 갯끈풀출현지점
출처 『2021년 갯끈풀 제거 및 관리사업』

구분	위치정보	갯문풀 발견현황	
		2020년	2021년
1	37°31'57.4"N 126°26'41.7"E	미확인	확인(7월 9일)
2	37°32'14.6"N 126°27'14.8"E	확인	확인(7월 9일)
3	37°32'19.1"N 126°27'58.9"E	확인	미확인
4	37°31'43.8"N 126°28'17.2"E	-	미확인
5	37°31'19.8"N 126°28'05.4"E	확인	확인(7월 9일)

우리나라에는 2008년에 국내에 최초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며,¹³⁾ 2012년부터 강화도 동막리에 출현한 것으로 보고되었고, 2016년부터 갯끈풀 제거사업이 시작되었다. 2017년에는 영종도에서도 발견되어 긴급 제거되었고, 신도에서는 2018년 처음 발견되었다.¹⁴⁾

13) 해양환경공단, 『2021년 갯끈풀 제거 및 관리사업』, 해양수산부, 인천광역시, 강화군, 해양환경공단, 2021, 6쪽.

14) 해양환경공단, 위 보고서, 157쪽.



|| 자료 || 신도 진염해안 칠면초군락과 신오도(먹염)

2021년부터 해양환경공단과 인천녹색연합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현재까지 4개 지점에서 발견되었다. 그 외에 진염해안의 상부 조간대에 염생식물 칠면초의 작은 군락이 분포하며, 제방을 따라 갯잔디, 갯질경, 방석나물, 나문재 등이 분포한다(심현보, 2005).

시도 북부의 수기 해변은 상부에 자갈이 혼합된 모래 해안이 펼쳐져 있고, 중부에서 하부까지는 자갈과 모래가 약간 섞인 펄갯벌이 형성되어 있다. 저서동물상은 다소 빈약하여 총 출현종수 38종으로 갯벌 생태 등급 5등급으로 평가되었다.¹⁵⁾ 단위면적 당 평균 출현 종수는 13종/0.05m²이었고, 평균 밀도는 3,396 개체/m²가 출현하였다. 수기갯벌은 계와 옆새우류의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갑각



|| 자료 || 시도 수기해안 모래사장

15) 서해연안환경연구센터, 『인천연안도서 해양환경 조사 및 보전, 관리 계획』, 인천광역시, 2007, 146쪽.

류가 총개체수의 80%를 차지하였고, 갯지렁이와 연체동물은 각각 11.1%와 2.6%에 불과했다. 주요 우점종은 발성육질꼬리옆새우, 칠게, 참갯지렁이, 펄털콩계, 입빗갯지렁이 등이었다. 시도 남부 해안은 펄모래갯벌로서 칠게, 갈색새알조개, 댕가리, 기수 우렁이 등이 발견되었다.

2024년에 신도와 시도 사이 갯벌에 종밋(Musculista senhousia)이 대량 출현하여 바지락 어장을 훼손시키고 있다. 종밋은 이매폐류 홍합과에 속하는 소형(1.5cm 내외) 홍합류로 동아시아 특산종으로 우리나라 남해와 서해에 많이 출현한다. 최근엔 남해 새꼬막 어장에 대량 출현하여 새꼬막 생산을 감소 시키고 있고, 미국과 유럽의 갯벌에 침입종으로 대량 출현하여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조간대에 서식하는 해조류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시도 동쪽 염습지에 칠면초가 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갈대, 지체, 천일사초 등이 분포한다. 시도 서쪽 해안의 염습지에서 칠면초가 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나문재 속의 한국 미기록종인 기수초가 방석나물과 혼재되어 생육하였다(심현보, 2005).



|| 자료 || 모도 박주기해안 칠면초군락

신도와 시도에 염생식물로 통통마디, 갯개미취, 해당화, 사철쑥, 비쑥, 갯개미취, 사데풀 등 16종이 발견되었다.¹⁶⁾ 모도 펄갯벌에서 새조개류, 가무락조개, 갈색새알조개, 방게, 칠게, 동죽, 참갯지렁이류, 바지락, 왕좁쌀무늬고등 등 9종이 발견되었고, 암반해안에서는 갯강구, 개울타리고등, 대수리, 총알고등, 참굴 등 5종이 발견

16) 심현보, 『한국산 나문재속의 분류 및 염생식물상 연구』, 인하대학교 이학박사학위 논문, 2005, 129쪽.



|| 자료 || 종밋(Musculista senhousia)

되었다. 해조류는 발견되지 않았다. 모도 동남쪽 박주기해안에 소규모 칠면초 군락이 형성되어 있다. 모도 남쪽 해안에 2017년경 갯끈풀이 관찰된 바 있으나 현재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장봉도 주변은 모래, 자갈, 펄, 펄모래 등의 갯벌이 잘 발달하고 해양생물상이 풍부하여 2003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다. 2010년~2011년 장봉도 북단 갯벌에서 사계절을 조사한 자료(한국해양연구원, 2011)에 의하면 총 48종이 보고되었고, 평균 388개체/ m^2 의 많은 개체수가 출현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가장 많은 종이 출현한 종류는 갯지렁이류로 19종이 출현하여 총개체수의 50%가 넘는 208개체/ m^2 의 많은 개체수가 출현하였다. 연체동물은 15종 평균 59개체/ m^2 출현하였으며, 갑각류는 12종 평균 117개체/ m^2 출현하였다. 북단 갯벌에서 가장 우점한 종은 긴꼬리올챙이새우류로 1평방미터에 평균 51개체가 출현하였다. 그다음으로 양손갯지렁이, 벼들갯지렁이, 긴가지송곳갯지렁이 등 갯지렁이류가 많이 출현하였다. 그 외에 분홍접시조개와 칠개가 12~15개체/ m^2 출현하였다.

장봉도 남단갯벌에서는 북단갯벌보다 더 많은 대형저서동물이 출현하였다. 총 68종이 1,000개체/ m^2 가 넘는 많은 출현 양상을 보였다. 이 중 갯지렁이 종류가 29종 평균 780개체/ m^2 로 가장 많이 출현하였다. 그다음으로 연체동물이 24종 평균 211개체/ m^2 출현하였고, 갑각류는 14종 평균 80개체/ m^2 출현하였다. 출현한 68종 중 가장 우점한 종은 벼들갯지렁이류, 양손갯지렁이, 분홍접시조개 등이었고, 그다음으로 서해비단고등, 갈색새알조개, 참보석요정갯지렁이류도 많이 출현하였다. 해조류는 복도면 다른 해안과 유사하게 초록실 외 발견되지 않았다. 염생식물은 옹암해수욕장과 한들해수욕장 주변에 사구 식생이 형성되어 순비기나무, 해당화 등의 목본과 갯완두, 갯방풍, 통보리사초 등이 생육하며, 염습지에는 해홍나물, 나문재, 가는갯능쟁이, 사철쑥 등이 생육하였다. 장봉도에서 발견된 염생식물은 수송나물, 갯쇠보리, 갈대, 갯잔디, 천일사초 등 16종이다(심현보, 2005).

나. 수산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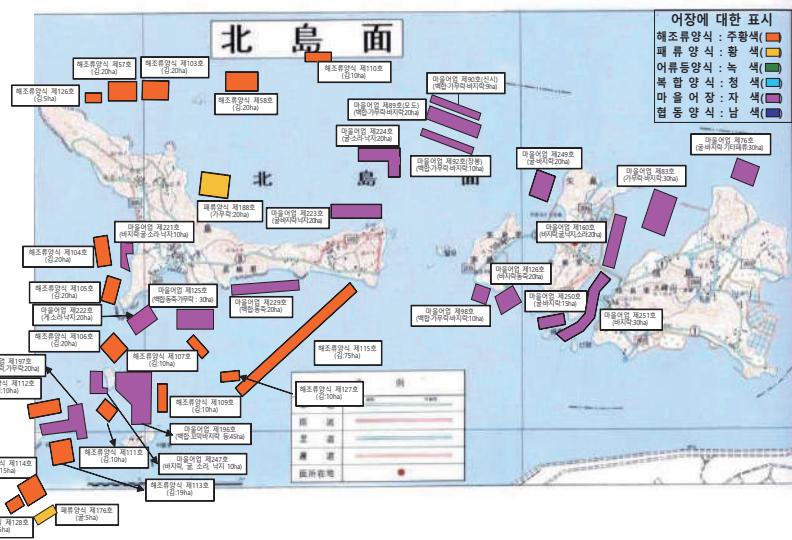
1) 수산 일반

신도는 7.15 km² 면적에 16.1km의 해안 둘레를 가지고 368가구 662명이 거주하며. 시도는 2.54km² 면적, 10.9km의 해안 둘레에 225가구 381명이 거주한다. 신도와 시도 합하여 어촌계 하나로 어촌계원은 258명이다. 신도에 3톤 이하의 소형어선 1척이 있으며 수하식 양식장이 한 곳 있다. 모도는 0.78km² 면적, 4.6km 해안선에 74가구 119명이 거주한다. 모도 어촌계원은 53명이 50ha의 어장에 3건의 마을어업 어업권을 가지고 바지락 등을 캔다. 장봉도는 7.32km² 면적에 22.5km의 해안선을 가지고 541가구 969명이 거주한다. 장봉도 어촌계에는 어촌계원 302명이 속해 있다. 장봉도의 어선은 연안개량안강망 어선 1척, 연안복합 어선 12척, 연안자망 어선 1척, 연안통발 어선 1척, 협동양식 어선 1척, 수하식 양식 어선 15척 등 모두 31척이 있다. 모두 5톤 미만의 소형어선이다. 장봉도는 2016년 조사에서 개량안강망 어선 1척과 통발어선 1척, 자망어선 3척, 연안복합 어선 11척 등 모두 16척에서 15척이 증가하여 31척이 있다.

어업권은 신, 시도 합하여 마을어업 7건 154ha의 어장이 있으며 주로 굴과 바지락 어장이다. 장봉도는 569ha의 어장에 패류양식 2건, 마을어업 12건, 해조류 양식 17건의 어업권이 있다. 패류 양식은 주로 백합양식과 가무락조개 양식이며, 마을 어업은 계, 소라, 낙지 어업이다. 해조류 양식은 김양식으로 15가구가 김 양식 영어조합(대표 김준태)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북도면 어업권 현황도는 뒤쪽 어장도와 같다.

2) 북도면 수산물 생산 현황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북도면 수산물 생산 현황을 보면, 2019년에는 535톤을 생산하여 20억 2,4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2022년에는 573톤을 생산하여 최고의 생산량을 보였으나 수입은 22억



|| 자료 || 북도면 어장도

5,800만원에 그쳤다. 2023년 428톤, 2020년 468톤, 2021년 485톤 생산량은 감소하였으나 수입은 각각 25억 9,800만 원, 34억 6,800만 원, 35억 4,500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이 중 꽃게 생산은 0.68~3.2 톤으로 480만 원에서 3,200만 원 수입으로 옹진군의 다른 면에 비하여 낮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는 북도면 어선들이 소형어선으로 꽃게 어업을 주로 하는 어선이 아니기 때문이다. 북도면에서 가장 생산량이 많은 수산물은 김으로 162.5톤 생산하여 17억5천6백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그다음으로 바지락을 170톤 생산하여 5억 천 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상합을 78톤 생산하여 1억 5,600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 가무락과 동죽도 각각 6.2톤, 2.5톤 생산하여 6,200 만 원과 875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 굴은 2톤가량 생산하여 3,300 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꽃게는 3.2톤 어획하여 3,200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 어류는 우럭 350kg, 농어 273kg, 놀래미 270kg 등 1.5톤을 생산하여 1,900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 북도면의 어업생산은 다른 면에 비하여 작은 편으로 주로 김과 바지락, 상합(백합) 등에 의존하는 한정된 어업을 하고 있다. 1980년대에 장봉도에 김 공장이 30 여 개 있을 정도로 김 양식이 활발하였다. 장봉김은 소량이지만 현재도 맛이 좋고 영양 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대량 생산하여도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봉도의 김 생산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장봉도의 주요 생산물 중 하나인 백합은 국내 생산이 크게 감소하여 중요 자원이 되고 있다. 북도면이 백합 서식에 필요한 퇴적환경의 적지로서 넓은 사니질 갯벌을 가지고 있으므로 백합양식을 특화할 필요가 있다. 백합을 국가수산어업 대상 수산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3) 북도면의 어업사 및 어촌계

국가수산어업으로 지정 받기 위하여는 50년 이상의 전통어법에 의한 어획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백합의 경우 옹진군지(1989)에 의하면 『세종실록지리지』에 장봉도가 속한 강화도호부의 주요 수

산 생물 목록에 흥어, 송어, 민어, 백하, 백합, 굴 등을 잡은 기록이 있어 백합을 이미 조선 초기부터 어업의 중요 대상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낙지, 소라, 황석어, 중새우, 꽃게, 게를 빨을 설치해 잡은 것으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되어 있다. 영조때 편찬한(1708년) 『여지도서』에는 바지락, 가리맛조개, 준치, 전복, 조기, 농어, 벤댕이, 전어, 청어 등이 잡힌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조기는 이미 1620년경 장봉도 갯골에 싸리발을 쳐서 조기를 잡기 시작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옹진군지, 1989). 이는 인조때 연평도에서 임경업장군이 가시나무 빨을 쳐서 조기를 잡았다는 기록보다 더 오래된 이야기로 조기 어업이 서해 연안에서 전반적으로 일찍부터 행해졌음을 알려준다. 장봉도에서는 또한 1880년 경부터 갈초로 어망을 만들어 홀치어업이 시작되었고, 1888년경에는 해선망을 건조해 새로운 방법으로 고기를 잡았다. 1915년 장봉도 어민 정배영, 김문식, 이원선, 김경식 등이 만도리 어장을 개척하였고, 1930년경에는 건새우를 건조 가공하여 중국 등지에 수출하였고, 이는 1960년대까지 지속되었다고 한다.

예전부터 장봉수도에서 백하, 민어, 농어, 벤댕이를 많이 잡아 장봉어장이 유명하였고, 성어기에는 장봉수도에 20~30척의 새우잡이 어선이 조업을 하였다. 심지어 일본인 안강망 어선도 들어와 조업을 하였다(옹진군지, 1989). 1931년에는 북도어업조합이 장봉리에 설립되어 북도면 해역에서 주로 새우, 조기, 민어를 잡았다.

1939년에는 조합에서 날가지도 인근에 양식어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기도 하였다. 동만도와 서만도 일대의 만도리 어장은 1960년대와 1970년대 새우와 실치, 병어 어장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하였다. 4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실치를 많이 잡아 동만도에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살면서 실치를 삶아 말리고, 충남 삼길포에서 여자들 수십 명을 초청해 뱃어포를 만들었다(김선만 전 어촌계장 구술). 장봉도 홍순일 씨에 의하면 이 시기에 해선망 어선 30여척, 유자망 어선 20척, 낭장망 어선 10여척 등 총 60여 척이 조업을 하여, 옹진수협 장봉출장소가 옹진군내에서 실적이 가장 좋았다고 한다. 그러나 70년대 말부터 인건비가 많이 오르고 사람을 구할 수 없어 새우 어업이 사

양길로 들어서자 많은 어가가 김 양식업을 시작하였다. 1973년 장봉도 어업 가구는 56가구로 30척의 어선으로 연간 새우와 어류 900톤을 잡고, 패류 12톤을 채취하였다. 이때 북도면에서 어선어업만이 아니라 굴양식과 백합양식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1985년 장봉도 어가는 78가구로 어선 48척으로 새우잡이와 실치 어업을 주로 하였고, 맨손 어업도 활발하였다.

1994년 인천공항 건설로 어업을 폐업할 당시 어선 세력은 신도에 8척, 시도에 1척, 장봉도에 해선망 40여척, 낭장망 15척이 있었다. 2016년 장봉도 어촌계원은 230명으로 이 중 어선어업자는 10가구, 김 양식업자는 15가구, 나머지 어가 70~80%는 맨손어업자로 바지락, 가무락, 백합 등 패류를 주로 채취하였다.

장봉도에 김 양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70년대 말이었다. 김선만 전 어촌계장 구술에 의하면, 당시 김용환 어촌계장과 황세창씨가 1978년 김 양식에 대한 교육을 받고 완도에서 포자를 가져와 지주식 김 양식을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6가구가 시작하여 1992년에는 100가구까지 양식을 하여 김 가공공장이 32개에 이르렀다. 처음에는 손으로 말리는 김 공장이 세워지고, 그 후 5연식 자동 김 건조기를 가진 공장이 들어서면서 대량 생산을 하였다. 당시 한 공장당 15~20만 속 생산하여 총 450~500만 속 생산하여 푸른 신협이 전국적으로 판매하여 가구당 6천만 원 정도의 고소득을 올렸다고 한다. 그러나 1992년 영종도 신공항 건설이 추진되면서 김 양식업과 김 공장에 대한 폐업이 시작되어 1996년까지 대부분 폐업되고, 폐업 보상이 1999년까지 이루어져 김 양식이 장봉도에서 사라졌다. 그 후 일부 어민이 불법으로 김 양식을 하자 옹진군이 조례로 김 양식을 300ha까지 할 수 있게 하고, 2016년에는 500ha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 2010년 김 양식업자들이 장봉 김 양식영어조합 법인을 만들어 2016년 15가구가 250ha 면적에서 총 13~20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 2023년에는 299ha에서 김 165톤 생산하여 17억 5천여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

신, 시도 어촌계 이만식(77세) 어촌계장에 의하면, 신, 시도에 꽃게잡이도 할 수 있는 복합 어선이 현재 1척이나 60년대에는 선원이

6~7명이 타는 중선배가 20여 척
있어 연평도에 가서 조기잡이를
하는 등 어선 세력이 적지 않았으나
60년대 말 조기잡이가 사양
길로 들어서자 연평도 인천 연근
해 어업을 주로 하면서 어선 세
력이 인천 화수부두로 옮겨갔다.

신, 시도에는 인천공항 건설 이전에 이미 어선이 거의 없어지고, 단지 2명이 타고 돌자망을 이용해 고기를 잡는 소형 지향배가 조성학, 이봉세, 이갑진씨 등에 의해 운용되었다. 모도와 시도 사이에 조류를 이용해 새우, 밴댕이, 곤챙이, 황강달이 등을 잡는 곳배가 많았는데, 공항 건설 후 없어졌다. 신, 시도에는 겨울에 한강에서 집채만한 유빙이 떠내려와 수하식 양식장을 훼손하기 때문에 가두리양식장이나 수하식 양식장을 만들지 못한다. 주로 갯벌에서 굴과 바지락을 캐는 마을어업이 주가 된다. 바지락은 동검수로 옆 등대 쪽 거문여어장이 사니질로 바지락 양식이 잘된다. 거문여는 한 때 백합도 나왔는데 요즘엔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신도 진염 앞 신오도(먹염)에는 기수에서 자라는 벗굴(강굴, 갯굴)이 많이 나와 큰 벗굴을 많이 채취한다. 과거 신도와 시도사이 수로에서 실뱀장어를 많이 잡아 재미있던 시절도 있었으나 신도와 시도를 잇는 방파제 건설 후 실뱀장어가 사라지고 펄이 많이 쌓였다. 2005년 방파제를 없애고, 다리를 건설해 수로가 다시 형성되었으나 실뱀장어가 아직 나타나지 않는다. 최근에는 수로에 낚시꾼들이 많이 와 레저선(소형 낚시배)들이 많이 생겼다. 예전 수로 양옆에 모래가 많아 대합, 키조개도 많이 생산되었으나 지금은 펄이 많이 쌓였다.

최근의 신, 시도 마을어업의 문제는 시도 동쪽 160호 어장에 종밋(홍합과 패류)이 많이 생겨 바지락 어장이 황폐화 되고 있다. 73호 어장에는 쪽이 많이 생겨 경운해야 하는데 군에서 세운 예산 1억 5천만 원 비용 중 일부를 어촌계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어촌계



|| 자료 || 신도 북쪽 거문여어장

에서 직접하면 3,000만 원이면 할 수 있고, 경운 시기를 종래 뿐리기 전에 하면 좋은데 종래 뿐리고 나서 한다고 해서 시작을 못하고 있다. 경운을 밤에 하는 것보다 낮에 해야 종래 뿐리기 좋은데, 밤에 하기 때문에 경운한 장소를 정확히 모르는 것도 문제라고 한다. 차라리 어촌계에서 포클레인으로 경운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한다. 신, 시도 어촌계에서는 어촌계원들에게 어장에 입어료로 3,000 원을 받는다고 한다. 한번 들어가면 20~30kg을 채취하여 모두 사매 매로 판매한다. 그게 팔기도 쉽고, 가격도 잘 받는다. 어촌계원 모두 판로가 있다. 영종도나 신도 사이에 다리가 건설되면 신도에 바다역을 만들어 연평도 수산물을 직판할 수 있는 신도 직판장을 만들어 수입을 올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모도어촌계는 신향자(59년생)씨가 여자 어촌계장으로 잘 알려져 있다. 모도 어촌계는 53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4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도 어촌계 가입은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100만 원을 내고 들어온다. 어촌계원이라도 마을 어장에 들어가고, 1인당 5,000원을 받는다. 보통 한번에 10~30명이 어장에 들어가고, 1인당 20~30kg 채취하여 모두 합해 똑같이 분배한다. 모도 어촌계 또한 바지락 판매는 사매매를 통해 판매한다. 모도 어촌계는 동남쪽 박주기 해안 126호 어장에서 유어장을 열어 외지인들에게 1만 원의 입어료를 받고 낚시 및 굴, 바지락 등을 채취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자료 || 모도 박주기해안 유어장

장봉도 어촌계는 2016년 230명에서 현재 233명으로 정연희 어촌계장에 의하면, 옹진군 자료에 나와 있는 어촌계원 302명은 잘못된 자료라고 한다. 수협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정 어촌계장은 장봉도 어촌계원 대부분이 굴, 바지락, 동죽, 가무락, 백합 등 패류를 채취해 파는 맨손어업을 하는데, 최근에 이들 패류 생산이 반으로 감소하여 생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한다. 패류 감소 요인으로 수온 증가도 있겠지만 항공기 소음에 의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북도면에서 장봉도에서만 생산되고 있는 백합(상합)은 최근에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해 전에는 한번에 20kg 캐어 15~20만 원 벌던 것이 이제는 10kg 뿐이 못 캐어 어선 비용 3만 원을 제하면 수입이 좋지 않아 백합 어장 대신 김 양식장에서 일한다고 한다. 백합이 많이 나올 때는 1인당 연간 백합으로만 3,300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한다. 주민들이 어린 백합을 캐지 말고 전통적인 대형 백합 생산 체계를 만들어 장봉도 백합어업을 국가 수산 유산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장봉도 김 양식은 인천공항 건설 전 100가구까지 하였다가 공항 건설 시 폐업 보상으로 없어졌다가 다시 한정어업으로 시작하여 현재 16명이 3500㏊ 정도를 하고 있다. 현재 장봉도 어업 중 가장 큰 규모로 하고 있다. 백합을 비롯한 패류어업과 김 양식업이 장봉도 어업의 살길이라고 보고 있다.

다. 결론

북도면은 한강하구 기수와 인천 연안 수가 만나는 수역에 위치하여 물때에 따라 기수 특성을 보이기도 하고, 연안수역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한강에서 유입된 퇴적물의 영향으로 모래갯벌, 펠갯벌, 혼합갯벌, 암반 갯벌 등 다양한 퇴적 특성을 보인다. 한강 유입수와 연안에서 유입되는 해수 수질은 양호한 편이 못 되나 해저에 모래와 펠 갯벌이 발달하여 수질 정화 기능이 있고, 일부 외해수의 유입으로 해양생물이 서식하기에는 문제가 없으며, 한강으로부터 영양물질이 풍부히 유입되므로 해양생물의 먹이 장소로 유용하다. 이런 결과로 북도면 해역은 서식 조건이 다양하여 다양한 해

양생물이 출현하고, 수산물 또한 다양하다. 그중 새우와 백합이 비교적 많이 생산되고, 서해 특산 종인 범계의 주 서식지이기도 하다. 2003년 해양수산부는 장봉도 일대를 대규모 모래 풀등과 갯벌에 213종에 이르는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멸종위기 종인 저어새와 노랑부리백로 등 조류 40여 종이 서식하는 우수갯벌로 평가하여 장봉도 해역을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지금까지 관리하여 오고 있다. 북도면의 장봉어장과 만도리 어장은 과거 인천연안에서 새우와 실치(흰베도라치) 어장으로 유명하였다. 그러나 인천공항 건설 후 그 명성을 잃었으나 최근 어선이 증가하고 있어 어업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도와 영종도를 잇는 신도대교 건설 후 북도면 연안개발 요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북도면의 아름다운 해안을 보존할 수 있는 해안관리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사 : 북도면 수산 현황에 관한 자문을 해준 인천광역시 수산과 오국현 과장과,
박윤비 주무관, 신시도 어촌계 이만식 계장, 모도 신향자 계장,
장봉도 정연희 어촌계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종기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 명예교수)

4. 조류(鳥類)

우리나라의 서·남해안은 동아시아와 대양주를 잇는 철새 이동 경로(East Asian-Australasian Flyway)의 중간지점에 위치해 있어 많은 수조류가 도래하는 지역이다.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은 신도, 시도, 모도 장봉도 등을 포함한 섬 지역으로, 서해안의 갯벌과 습지를 포함하여 다양한 야생조류가 서식하는 생태적으로 중요한 조류 서식지이며 특히 신도(옹진군 북도면 장봉리 산297)는 멸종위기 조류인 매 서식 및 노랑부리백로의 번식지로 확인되어 특정도서 제10호 지정되었고 장봉도 주변의 무인 섬인 서만도는 노랑부리백로의 번식지로 확인 되어 특정도서 제137호로 지정되어 매년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다.



|| 자료 || 북도면의 갯벌

※ 이하 사진은 모두 필자가 직접 촬영하였음



|| 자료 || 서만도 번식하는 저어새와 괭이갈매기

북도면의 섬들과 갯벌은 계절에 따른 많은 철새들이 머무르는 주요 기착지이다. 봄과 가을에는 다양한 도요·물떼새가 이동 중에 머무르며 최근 멸종위기조류인 알락꼬리마도요가 꾸준히 관찰되고 있다.

여름은 번식의 절정기로, 북도면의 조용한 환경과 갯벌이 어린 새들의 성장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서 박새, 오목눈이, 참새 등 많은 새들이 이 시기에 북도면에서 둉지를 틀다. 멸종위기조류인 저

어새와 노랑부리백로가 북도면 지역에 번식하는 것이 확인되어 북도면 일대 갯벌의 보호 및 보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겨울철 북도면 갯벌과 습지에는 청동오리, 흰뺨검둥오리, 쇠오리 등이 무리를 이루어 월동을 하며 큰기러기, 쇠기러기가 갯벌과 농경지 주변에서 먹이를 찾는다. 매

우 드물게 습지나 얕은 물가 갯벌에서 두루미가 관찰되기도 한다.

일년 내내 왜가리와 중대백로는 주로 갯벌과 습지에서 가마우지는 해안가에서 물고기를 사냥하고 박새, 참새, 까치 등은 섬 곳곳에서 다양한 서식 환경을 기반으로 넓게 분포해 있다.

국내 논문에서 북도면 일대의 조류는 68종이 관찰된 기록이 있으며, 2023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특정도서 모니터링에서 신도(옹진군 북도면 장봉리 산297)는 매(멸종위기 I 급, 천연기념물 제323-7호)가 2020년부터 매년 번식하고 있고, 2023년도에도 이소한 새끼와 어미가 함께 관찰된 것으로 보고 되었다. 팽이갈매기는 약 2,000 쌍 내외가 번식할 것으로 추정 되며 가마우지도 30개체 관찰되었으며 번식을 확인하였다. 또한 장봉도 일대의 특정도서로 지정된 서만도에서는 9종 저어새, 중대백로, 중백로, 쇠백로, 노랑부리백로, 민물가마우지, 가마우지, 검은머리물떼새, 팽이갈매기가 관찰 되었으며, 이 중 7종으로 저어새, 쇠백로, 노랑부리백로, 민물가마우지, 가마우지, 검은머리물떼새, 팽이갈매기의 번식이 확인되었다.

2024년 5월 12일, 6월 29일에 실시한 답사(신도, 시도, 모도, 장봉도)에서 관찰된 조류는 36종이 관찰되었으며 북도면 일대에 계절별 야생조류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멸종위기 조류인 알락꼬리마도요를 포함한 다양한 도요·물떼새가 관찰되고 저어새와 노랑부리백로 등이 북도면 지역에서 번식하고 있으므로 꾸준한 연구와 보호가 요구되는 지역이다.



|| 자료 || 신도에서 관찰된 알락꼬리마도요

|| 표 || 북도면의조류

번호	학명	국명	비고
1	<i>Phasianus colchicus</i>	꿩	
2	<i>Anas poecilorhyncha</i>	흰뺨검둥오리	
3	<i>Tachybaptus ruficollis</i>	눈병아리	
4	<i>Platalea minor</i>	저여새	멸종위기야생생물 I 급 천연기념물 제205-1호 보호대상 해양생물
5	<i>Ardeola bacchus</i>	흰날개해오라기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6	<i>Ardea cinerea</i>	왜가리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7	<i>Ardea alba</i>	중대백로	
8	<i>Ardea intermedia</i>	중백로	
9	<i>Egretta garzetta</i>	쇠백로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10	<i>Egretta eulophotes</i>	노랑부리백로	멸종위기야생생물 I 급 천연기념물 제361호 보호대상 해양생물
11	<i>Phalacrocorax carbo</i>	민물가마우지	
12	<i>Phalacrocorax capillatus</i>	가마우지	
13	<i>Falco tinnunculus</i>	황조롱이	천연기념물 제323-8
14	<i>Falco peregrinus</i>	매	멸종위기야생생물 II 급 천연기념물 제323-7
15	<i>Accipiter soloensis</i>	붉은배새매	멸종위기야생생물 II 급 천연기념물 제323-2
16	<i>Haematopus ostralegus</i>	검은머리물떼새	멸종위기야생생물 II 급 천연기념물 제361호 보호대상 해양생물
17	<i>Pluvialis squatarola</i>	개꿩	
18	<i>Numenius madagascariensis</i>	알락꼬리마도요	멸종위기야생생물 II 급
19	<i>Tringa nebularia</i>	청다리도요	
20	<i>Calidris ruficollis</i>	종도요	
21	<i>Calidris alpina</i>	민물도요	
22	<i>Larus crassirostris</i>	괭이갈매기	
23	<i>Streptopelia orientalis</i>	멧비둘기	
24	<i>Dendrocopos kizuki</i>	쇠딱다구리	
25	<i>Dendrocopos major</i>	오색딱다구리	
26	<i>Lanius bucephalus</i>	때까치	
27	<i>Garrulus glandarius</i>	어치	
28	<i>Pica pica</i>	까치	
29	<i>Parus major</i>	박새	
30	<i>Parus varius</i>	곤줄박이	
31	<i>Hirundo rustica</i>	제비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32	<i>Microscelis amaurotis</i>	직박구리	
33	<i>Phoenicurus auroreus</i>	딱새	
34	<i>Passer montanus</i>	참새	
35	<i>Motacilla alba</i>	알락할미새	
36	<i>Emberiza elegans</i>	노랑턱멧새	



[꿩]

-몸길이 85~95cm
-관찰시기 연중
숲 주변 초지, 농경지, 간척지 등
에서 생활하며 씨앗, 나무 열매,
곤충류 등을 먹는다.

[흰뺨검둥오리]

-몸길이 53~60cm
-관찰시기 연중
논, 하천, 습지에서 생활하며 수
초, 수서곤충, 작은 물고기, 식물
종자, 낙곡 등을 먹는다.



[논병아리]

-몸길이 25~29cm
-관찰시기 연중
하천, 저수지에서 생활하며 잠수
해서 작은 물고기 등을 먹는다.

[저어새]

-몸길이 73~81cm
-관찰시기 3월~11월
갯벌, 하구에서 생활하며 어류,
새우류 등을 먹는다.



[흰날개해오라기]

- 몸길이 42~52cm
- 관찰시기 4월~9월
- 논, 하천, 저수지, 습지 등에서 생활하며 어류, 양서류, 갑각류, 곤충류를 먹는다.

[왜가리]

- 몸길이 90~98cm
- 관찰시기 연중
- 저수지, 갯벌, 습지에서 생활하며 물고기 등을 먹는다.



[종대백로]

- 몸길이 85~104cm
- 관찰시기 연중
- 논, 습지에서 생활하며 물고기와 개구리 등을 먹는다.

[종백로]

- 몸길이 65~72cm
- 관찰시기 4~9월
- 논이나 하천에서 생활하며 개구리, 메뚜기, 귀뚜라미 같은 곤충을 잡아먹는다.



[쇠백로]

-몸길이 58~65cm
-관찰시기 연중
하천, 습지에서 생활하며 작은 물고기와 새우류 등을 먹는다.

[노랑부리백로]

-몸길이 65~68cm
-관찰시기 4~10월
갯벌이나 해안에서 생활하며 물고기, 게, 갯지렁이, 새우 등을 잡아먹는다.



[민물가마우지]

-몸길이 80~100cm
-관찰시기 연중
하구, 호수 등에서 생활하며 잠수하여 물고기를 먹는다.

[가마우지]

-몸길이 80~92cm
-관찰시기 연중
해안, 섬에서 생활하며 잠수하여 물고기를 먹는다.



[황조롱이]

- 몸길이 33~39cm
- 관찰시기 연중
개활지, 논에서 생활하며 작은 쥐와 소형 조류를 잡아먹는다.



[매]

- 몸길이 38~51cm
- 관찰시기 연중
서·남해안 무인도에서 생활하며 포유류, 조류, 파충류 등을 잡아먹는다.



[흙은배새매]

- 몸길이 28~33cm
- 관찰시기 5~9월
산자락, 논에서 생활하며 개구리, 잠자리 등을 잡아먹는다.



[검은머리를떼새]

- 몸길이 45cm
- 관찰시기 연중
갯벌, 해안에서 생활하며 조개와 갯지렁이류를 즐겨 먹는다.



[개평]

- 몸길이 7~30cm
- 관찰시기 연중
- 갯벌, 해안에서 생활하며 갯지렁이류를 잡아먹는다.

[알락꼬리마도요]

- 몸길이 60~66cm
- 관찰시기 3~11월
- 갯벌, 해안에서 생활하며 게, 조개, 작은 어류 등을 먹는다.



[청다리도요]

- 몸길이 35cm
- 관찰시기 4~5월, 7~12월
- 무논, 갯벌, 하천 등에서 생활하며 작은 어류, 곤충류, 조개 등을 먹는다.

[총도요]

- 몸길이 15cm
- 관찰시기 4~5월, 8~10월
- 갯벌, 습지, 논, 하구 등에서 생활하며 1mm 내외의 작은 동물을 잡아먹는다.



[민물도요]

-몸길이 17~21cm

-관찰시기 연중

개벌, 하구 등에서 생활하며 작은 환형동물이나 갑각류, 연체동물을 먹는다.



[괭이갈매기]

-몸길이 47~53cm

-관찰시기 연중

해안, 하구 등에서 생활하며 물고기, 갑각류, 갯지렁이, 곤충 등을 먹는다.



[멧비둘기]

-몸길이 31~34cm

-관찰시기 연중

산림, 개활지에서 생활하며 주로 풀씨와 나무 열매를 먹는다.



[쇠딱다구리]

-몸길이 15cm

-관찰시기 연중

야산, 산림에서 생활하며 곤충류, 애벌레, 식물의 열매, 거미류 등을 먹는다.



[오색딱다구리]

-몸길이 24cm

-관찰시기 연중

야산, 산림에서 생활하며 곤충류, 애벌레, 식물의 열매, 거미류 등을 먹는다.



[때까치]

-몸길이 18~21cm

-관찰시기 연중

농경지, 야산에서 생활하며 곤충류, 지렁이, 도마뱀, 개구리 등을 잡아먹는다.



[어치]

-몸길이 33cm

-관찰시기 연중

야산, 산림에서 생활하며 잡식성이며 파충류, 어류, 연체동물, 나무 열매 등을 먹는다.



[까치]

-몸길이 45cm

-관찰시기 연중

도시, 농촌에서 생활하며 잡식성이며 주로 나무 열매, 과일, 곤충류, 양서류 등을 먹는다.



[박새]

-몸길이 14cm

-관찰시기 연중

야산, 산림, 공원 등에서 생활하며 곤충류, 거미류, 식물의 씨앗, 열매 등을 먹는다.

[곤줄박이]

-몸길이 14cm

-관찰시기 연중

산림, 인가 부근의 숲에서 생활하며 곤충류, 거미류, 식물의 씨앗, 열매 등을 먹는다.



[제비]

-몸길이 16~18cm

-관찰시기 3~10월

인가, 습지에서 생활하며 곤충류를 주로 잡아먹는다.

[직박구리]

-몸길이 28~30cm

-관찰시기 연중

산림, 인가 주변에서 생활하며 곤충류, 연체동물 식물의 열매 등을 먹는다.



[딱새]

-몸길이 14~16cm

-관찰시기 연중

인가 부근의 덤불, 농경지 등에
서 생활하며 곤충류, 식물의 열
매 등을 먹는다.

[참새]

-몸길이 14cm

-관찰시기 연중

인가 주변, 농경지 등에서 생활
하며 농작물의 난알, 씨앗, 나무
열매, 곤충류 등을 먹는다.



[알락할미새]

-몸길이 18~20cm

-관찰시기 3~10월

인가, 논, 하천변에서 생활하며
주로 곤충류, 애벌레, 거미류 등
을 먹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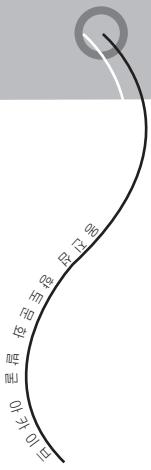
[노랑턱멧새]

-몸길이 15~1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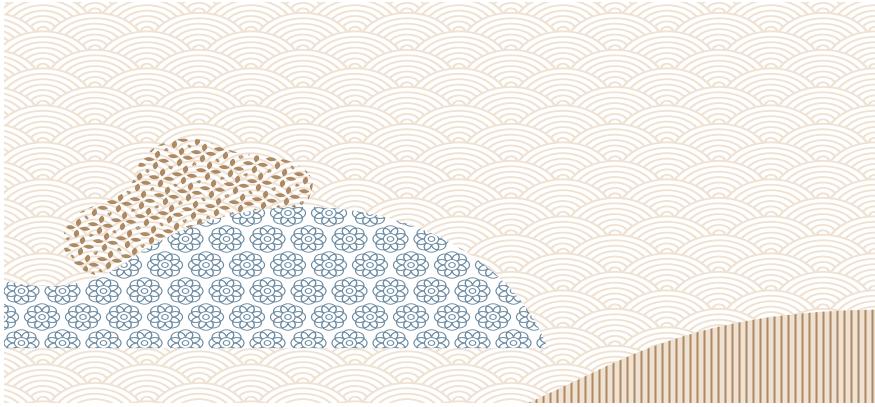
-관찰시기 연중

야산, 논, 밭에서 생활하며 식물의
씨앗, 곤충류 등을 먹는다.

정재품(인성여자중학교 교사)



III. 연혁, 마을과 지명



III. 연혁, 마을과 지명

1. 연혁

옹진군 북도면(北島面)은 육지의 한 덩어리로 된 지역이 아니라 4개의 유인도와 9개의 무인도로 구성돼 있다. 지역적으로 다른 곳에 비해 복잡한 양상을 띠며, 동에서 서쪽으로 신도(信島), 시도(矢島), 모도(茅島), 장봉도(長峰島)가 일렬로 군도를 이룬다.

관계적 위치는 북으로 강화도 남단의 화도면(華道面)과 길상면(吉祥面)이 매우 가깝게 마주하며, 동쪽은 영종도 운북동에 이어서 남쪽으로 오면서 용유도의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다. 서쪽으로는 무인도와 망망대해가 펼쳐진다. 남북으로 보면 강화도 보다 영종·용유도가 더 가까워 현재 영종도의 삼목선착장에서 배편이 있으며, 신도까지 10분, 장봉도는 40분 소요된다.

가. 신석기시대, 북도면에 최초 사람 거주

북도면은 문자로 기록되기 이전인 신석기시대부터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했다. 유적의 형태는 조개더미 일명 패총(貝塚)인데, 이것은 사람들이 조개류를 먹고 버린 쓰레기장으로 그 속에서 당시의 빗살무늬토기나 간석기 같은 생활용구, 돌로 만든 화덕자리 및 각종 인위적 구조물인 유구(遺構)가 확인되었다. 대표적 유적인 시도패총 이외에 유인도 4개의 섬에서 모두 10여 곳 발견되었으며, 예로부터 어로와 채집, 사냥 활동 등 식량 자원 획득이 쉬웠던 곳이었다.

나. 북도면의 변천

유인도 4개 섬 중 옛 문헌에 먼저 등장하는 섬은 장봉도다. 아마 규모가 크고 지리적 중요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고려사(高麗史)』 강화조에 ‘진강현은 ~(중략)~ 강화현에 소속시켰다. (진강현 소속으로) 장봉도(長峰島) 등이 있다’는 것으로 보아 장봉도는 진강현(鎮江縣)에 소속되었다. 이 사실을 토대로 이전 시대를 해석해 본다면 통일신라시대는 전국을 9주로 나눌 때 북도면은 한산주에 속하며, 이하 하부행정체계는 거의 변함이 없이 고려로 이어진 점으로 보아 강화도에 소속되었을 것이다. 더욱 이 그 이전 시대인 삼국시대는 각국의 흥망성쇠에 따라 소속을 달리했을 것이다.

조선시대는 몇 개의 사료에서 북도면 행정체제가 확인되는데, 첫째, 『세종실록(世宗實錄)』 「강화도호부」 조에 ‘남쪽 30리에 장봉도(長峰島)가 있고, 동쪽 60리에 신도(信島)가 있다’거나, 둘째,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강화도호부」 조에 ‘신도(信島)는 부의 남쪽 30리에 있는데 목장이 있다. 거도(居島)는 신도 서쪽에 있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거도는 시도의 옛 지명이다.

셋째, 『선조실록(宣祖實錄)』 선조 31년(1598) 3월 24일자에는 ‘강화의 신도(信島), 거을도(居乙島), 장봉도(長峰島)~(후략)’에서 ‘거도’의 명칭이 ‘거을도’로 나온다.

넷째, 『강화부지(江華府誌)』 「도서(島嶼)」 조(1783)에는 ‘신도는 ~(중략)~ 둘레는 10리이며, 옆에 두 개의 작은 섬이 있는데, 썰물이 되면 걸어서 갈 수가 있다. 하나는 시도(矢島)라고 하는데, 말목장이 있고, 하나는 모도(茅島)’라는 것으로 보아 강화도 소속이 조선 후기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94년에는 면 행정구역이 강화도 주변 14개의 유인도를 묶어 신설한 ‘제도면(諸島面)’에 소속되었으며, 1914년에는 부천군을 신설할 때 ‘제도면’에 속해 있던 장봉도, 신도, 시도, 모도를 묶어 ‘북도면(北島面)’을 만들었다. 이때 ‘북도면(北島面)’의 명칭이 처음 등장하며, 명칭의 유래는 부천군 소속의 도서로 구성된 6개(영홍, 영종, 덕적, 용유, 대부, 북도) 면(面) 중 가장 북쪽에

속한 섬에서 비롯되어, 행정구역은 ‘경기도 부천군 북도면’ 이 되었다.

이후 1973년 7월 1일부터 ‘경기도 옹진군 북도면’으로 변경되며, 이후 1995년 3월 1일부터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에 소속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현재 북도면의 행정 구역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신도리, 시도리, 모도리, 장봉도리의 4개 법정동과 신도1~4리, 시도리, 모도리, 장봉도1~5리의 총 11개 행정동으로 구성돼 있다. 인구는 2024년 10월 말 기준 1,224 세대 2,117명이 거주하고 있다.

다. 북도면장

1) 광복 이전

광복 이전에 재임했던 면장은 누가 있을까? 『조선총독부 직원록』에는 1919년부터 1941년까지 매년 당해연도에 재임했던 명단을 기록하고 있다.

명단과 재임 기간은 조중옥(趙重玉, 1919~24/1대), 나동한(羅東漢, 1925~32/2대), 이중화(李重華, 1933~34/3대), 김봉조(金奉祚, 1936~39/4대) 그리고 조창덕(趙昌德, 1941~미상/5대)이 있으며, 신성우 면장(미상~1945.8.15/6대)¹⁾ 등 6명이 확인된다.

그러나 부천군 북도면이 시작되는 1914년부터 1918년까지 명단은 알 수 없지만 1919년부터 재임했던 조중옥이 면장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일제강점기는 십수 년간 직을 유지한 경우가 많았으며, 현재 모도에 거주하는 후손이나 주민의 증언에서 초대 면장은 ‘조중옥’이라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1941년의 5대 면장인 조창덕은 초대 면장 조중옥의 아들이다.

한편, 일제강점기 북도면과 관련된 ‘북도면장 후임을 군청에 진정’ 이란 기사²⁾를 보면 ‘부천군 북도면 신도리, 시도리, 모도리, 장봉리 4개 리 대표 7인은 동면 면장 후임에 대하여 동면은 섬인 만

1) 전양훈, 『全揚勳 回顧錄』, 2006, 83쪽.

2) 『동아일보』, 1935.1. 14.

치 그 섬의 사정에 능통한 인물이라야 된다고 하야 동면 수석 서기 김봉조(金奉祚)씨를 추천하야 진정한 것’이라는 내용이다. 면민들의 진정은 당시 면장인 이중화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되었는데, 그에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1949년 7월 13일에 열린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의 범죄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다. 자료에 의하면 ‘그는 1918년 5월경 순사 시험에 합격, 1920년 3월경 인천서(署) 고등계 근무, 1930년 12월경 순사 부장 임명, 많은 부녀능욕 문제로 권고 퇴직 후 1932년 4월경 부천군 북도면장 임명, 1945년부터 행정대서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①기미년 삼일운동 당시 창영보통학교 아동 수십 명을 검거하여 유치 및 고문 ②독립운동가 윤웅년(尹應念)을 체포 고문 취조 후 송국(送局)한 사실을 비롯하여 ③피의자는 15년간의 경찰관 생활을 통하여 일제 학정의 충실한 번견(番犬)이었고 ④많은 동포를 체포 혹은 검거하여 악독한 고문으로 취조하여 애국청년들을 형문에 보냈으며 ⑤또한 고문으로 인하여 치사케 한 사실로서 피의자가 고등계 근무 시에 이중화 형사라면 일반 부민(府民)은 무조건하고 떨었던 사실은 피의자의 과도한 행동을 역연히 증명하는 바이며 ⑥또한 피의자는 청년 시절에 지나치게 부녀자를 비롯한 처녀들에게 인면금수의 비인간적인 행동을 감행한 사실 등에 비추어 그 죄상은 반민족행위처벌법 제3조에 해당한다고 사료함’이라 적시하고 있다. 그의 면장 재임 기간은 수 개월이었지만 인성 및 자질 부족, 반민족 행위의 결과가 반영되어 지역 주민들의 진정이 있었던 것이다.

2) 광복 이후

1945년 광복 이후 2024년까지 북도면장은 80년 동안 35대 면장이 역임했으며, 평균 재임기간은 2.3년이다. 역대 면장은 31명이며, 두 번 이상 역임했던 사람은 전창실 외 4명이다.

한편, 31명의 면장 가운데 북도면 출신은 전창실, 최병갑, 추무성, 천용택, 전양훈 외 7명으로 총 12명이 있다.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했던 몇 분과 특징적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추무성 3·4대 면장은 북도면 어업조합 이사 당시 지역 어업 발전에 공을 세웠으며, 그의 재임 시절 6·25 전쟁이 발생했다. 한편, 3

대 면장 시절 지방자치법에 의거 1952년 제1차 지방선거가 실시돼 북도면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당시 당선된 면의원은 서재근(신도1리), 윤봉운(신도2리), 정정옥(신도3리), 석만칠(시도리), 조원순(모도리), 이양옥(장봉1리), 고수명·최장수·정을영(장봉2리), 고연희(장봉3·4리)이였고, 의장은 고수명, 부의장은 석만칠이었다. 그리고 북도면장은 면의회에서 간접선거로 뽑아 추무성이 4대 면장으로 당선되었다.

1956년에는 지방자치법 개정(3차)으로 면장 주민 직선제로 바뀌고, 그해 지방선거를 통해 초대 면장과 면의회 의원 동시 선거가 실시되는데, 천용택이 5대 면장으로 당선되었다. 당선된 면의원은 천윤근(신도1리), 전성실(신도2리), 정동근(신도3리), 김태신(신도4리), 백갑진(시도리), 곽준영(모도리), 염형태(장봉1리), 고수명·정을영(장봉2리), 고연희(장봉4리)이며, 면의장은 고수명, 부의장은 백갑진으로 의회를 구성하였다.

천용택은 대한청년단 북도면단을 조직하여 전쟁에서 공산당과 싸우기로 맹세한 결사대를 조직했으며,³⁾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자 면내의 무방비 치안 상태에서 자체 방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치안자치대를 조직했다. 조직 구성을 보면 대장 천용택, 부대장 김준식, 총무과장 전양훈, 감찰부장 김화성이었으며, 이들은 신도초등학교를 징발하여 활동했다.⁴⁾

1950년대 말에는 5대 면장으로 부임하면서 부천군 지역구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아 신도, 시도 다리 건설에 기초를 놓았으며, 신도의 구로지에 해광고등공민학교를 설립해 북도면 중등교육에 초석을 놓았다.

전양훈 6·7·10대 면장은 6·25 전쟁 이후 난민정착 등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생조합(조합장 김완식)의 조직을 도왔으며, 신·시도 연도교 사업비를 받아 잠수교 석축공사를 완료하였다. 10대 면장 시절에는 북도면 장봉출장소 설치를 이끌었으며, 면 행정선(선

3) 천용택, 『잊을 수 없는 6·25』, 연도 미상, 7(기독교복음운동중앙회). 한편 이 자료에서 천용택은 6·25 전쟁 이전부터 북도면 단장 겸 예비역 육군 소위로 임관되어 북도면 방위 책임을 맡고 있었으며, 6·25~27일까지 3일간 모도리에서 청년 단원 훈련을 실시하고 있었다고 한다.

4) 전양훈, 앞 책, 2006, 30~31쪽.

장 조종학 등 3명)을 두어 응급환자 후송 등 면 복지를 위해 노력했다. 인천무선전화국 신도분실 건축을 위해 토지를 내놓기도 했다. 특히 북도면에 중학교 설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했는데, 그 과정에서 구로지의 신도초등학교가 고남리로 이전할 때 부지를 제공하였으며, 구로지에 북도중학교가 건축되기까지 부지 등 난관을 해결하고 1972년 3월 개교하도록 도왔다. 면장 퇴임 후 최초로 삼목도와 신도 사이의 선박 통행을 섭외하여 북도면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데 가교역할을 하였다.

최영윤(12·20대 면장)은 ‘1978~79년 사람들이 구직 차 육지로 나갈 때 낙도 주민을 위한 특수 시책으로 면 행정선을 이용한 1일 1회 순회 민원 처리반을 편성하고 5,750건의 민원을 처리하여 도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였다. 또한 행정선 건조 1척, 동력선 건조 3척과 장봉도, 모도, 시도의 회주도로 3천 ㏊을 건설하고 헬기장 12개소를 신설, 취약지 대책사업을 완료’ 하여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았다.⁵⁾ 이외에도 1979년부터 북도면에 전기를 들이는 사업을 시작하여 1980년에는 면 전체에 점등(點燈)이 이루어져 밝은 세상을 이끌었으며, 이를 자축하기 위해 4섬 주민이 시도초등학교에 모여 잔치를 열었다는 후문도 전한다.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한 북도면장과 장봉출장소장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광복 이전⁶⁾

|| 표 || 북도면장 명단

순서(대)	이름	재임기간	비고
1	조중옥(趙重玉)	1919~1924	1914~1924
2	나동한(羅東漢)	1925~1932	
3	이중화(李重華) ⁷⁾	1933~1934	
4	김봉조(金奉祚)	1935~1939	
5	조창덕(趙昌德)	1941~미상	
6	신성우	미 상~1945.8.15.	

5) 『경향신문』, 1980. 8. 1.

6) 『조선총독부 직원록』에 의함

7) 이중화에 대해서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에서 범죄 사실을 기록하여 형사처벌을 위한 반민족행위특별 검찰부 검찰관장에게 넘기는 1949년 6월 21일자 의견서, 범죄보고서, 폐의자심문조서, 공판조서가 있다.

□ 광복 이후

|| 표 || 북도면장 명단

순서(대)	이름	재임기간	비고
1	전창실	45.12.01.~49.10.30.	북도면 출신
2	최병갑	49.12.01.~50.02.20.	"
3	추무성	50.05.03.~52.05.06.	"
4	추무성(중임)	52.05.08.~56.07.13.	의회간접선거, "
5	천용택	56.08.08.~58.11.15.	주민직접선거, "
6	전양훈	58.12.24.~60.11.25.	주민직접선거, "
7	전양훈(중임)	60.11.26.~61.06.19.	주민직접선거, "
8	문종혁	61.07.01.~62.01.09.	"
9	최대식	62.01.09.~67.02.10.	
10	전양훈(중임)	67.02.24.~72.06.03.	"
11	이정식	72.06.03.~75.10.23.	
12	최영윤	75.10.29.~82.02.01.	
13	하준성	82.02.02.~84.01.05.	
14	나종원	84.01.05.~86.03.15.	
15	안현기	86.03.15.~88.07.02.	
16	천용진	88.07.02.~93.07.01.	"
17	김영문	93.07.02.~96.04.20.	
18	김종길	96.04.20.~98.01.09.	"
19	조인수	98.01.15.~98.04.15.	
20	최영윤(중임)	98.10.12.~99.12.31.	"
21	서상원	99.12.31.~05.03.25.	"
22	유순일	05.03.25.~07.03.12.	
23	김득년	07.03.12.~08.03.11.	
24	유순일(중임)	08.03.11.~08.12.31.	
25	박성모	09.01.02.~10.06.30.	"
26	김병관	10.07.27.~11.07.26.	
27	이상철	11.07.27.~12.07.01.	
28	현남식	12.07.02.~14.06.30.	
29	이 철	14.07.01.~15.01.01.	
30	박광근	15.01.01.~16.07.13.	북도면 출신
31	유관섭	16.07.14.~18.04.08.	
32	박진한	18.04.09.~19.08.05.	
33	김원식	19.08.05.~21.07.08.	
34	이성배	21.07.09.~22.09.04.	
35	여명옥	22.09.04.~23.08.16.	
36	한경주	23.08.16.~현재	

|| 표 || 장봉출장소장 명단

순번	성명	재직기간	순번	성명	재직기간
1	최병용	1967.01.01.~1967.10.09.	19	강석화	1999.02.27.~2000.10.20.
2	손성용	1967.10.10.~1970.05.19.	20	김영근	2000.10.21.~2004.02.23.
3	임석상	1970.05.20.~1973.01.10.	21	김종철	2004.02.24.~2005.10.07.
4	양재문	1973.09.21.~1975.09.30.	22	김영근	2005.10.08.~2006.06.30.
5	서병철	1975.10.01.~1976.07.05.	23	이주환	2006.07.01.~2008.08.12.
6	송덕무	1976.07.01.~1977.03.15.	24	김광산	2008.03.11.~2010.09.23.
7	박세봉	1977.03.16.~1978.09.13.	25	한경주	2010.09.24.~2012.01.31.
8	이성희	1978.09.14.~1979.05.04.	26	이성배	2012.02.01.~2014.06.30.
9	조성집	1979.05.04.~1982.09.07.	27	김태희	2014.07.01.~2015.01.14.
10	최창섭	1982.09.08.~1985.05.23.	28	김봉용	2015.01.15.~2016.08.15.
11	차갑식	1985.05.24.~1988.04.07.	29	정 철	2016.08.16.~2017.08.06.
12	김두현	1988.04.08.~1991.08.20.	30	이한석	2017.08.07.~2018.01.21.
13	이옥식	1991.08.21.~1993.02.16.	31	권경운	2018.01.22.~2019.08.04.
14	김영근	1993.02.17.1994~10.31.	32	이승복	2019.08.05.~2020.07.19.
15	이만석	1994.11.01.~1996.08.19.	33	권택수	2020.07.20.~2023.01.15.
16	김중배	1996.08.20.~1997.11.17.	34	김찬석	2023.01.16.~2024.07.14.
17	허관영	1997.11.18.~1998.11.02.	35	김태성	2024.07.15.~현재
18	김석남	1998.11.03.~1999.02.27.			

김석훈(인천섬유산연구소 이사)

2. 마을

가. 마을의 행정구역

북도면(北島面)은 지리적으로 육지의 한 둉어리로 된 행정구역이 아니라 4개의 유인도와 9개의 무인도로 구성돼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복잡한 양상이다. 그중 북도면의 유인도는 동에서 서쪽으로 신도(信島), 시도(矢島), 모도(茅島), 장봉도(長峰島)가 일렬로 군도를 이룬다. 관계적 위치는 북으로 강화도 남단의 화도면(華道面)과 길상면(吉祥面)이 매우 가깝게 마주하며, 동쪽은 영종도 운북동에 이어서 남쪽으로 오면서 용유도의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다. 서쪽으로는 망망대해가 펼쳐진다.

마을은 대체적으로 섬의 중심에 위치한 산 정상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뻣은 산줄기 사이의 말단부 완사면에 위치하며, 앞으로는 갯벌과 바다가 펼쳐진다.

1) 행정구역의 변천

유인도 4개 섬 중 옛 문헌에 먼저 등장하는 섬은 장봉도다. 아마 규모가 크고 지리적 중요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고려사(高麗史)』에 의하면 장봉도(長峰島)는 강화도호부의 진강현(鎮江縣) 소속이었으며, 규모가 작은 이웃 3섬도 강화도호부 소속이었다.

이 사실을 토대로 이전 시대인 통일신라시대는 하부행정체계가 거의 변함없이 고려로 이어진 점으로 보아 강화도에 소속되었을 것이며, 그 이전 시대인 삼국의 흥망성쇠에 따라 시기별로 소속을 달리했을 것이다.



|| 자료 || 조선총독부(제2171호)

조선시대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을 비롯한 옛 문헌에 의하면 강화도호부(江華都護府), 강화현(江華縣), 강화군(江華郡) 등 변화하는 지방 행정 체제에 맞게 강화도에 소속되었다.

1894년에는 강화도 주변 14개의 유인도를 묶어 만든 ‘강화부 제도면(諸島面)’ 소속이었으며,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는 ‘경기도 부천군’을 신설할 때 ‘제도면’에 속했던 신도, 시도, 모도, 장봉도의 4개 섬을 분리해 ‘북도면(北島面)’으로 작명하고 소속시켰다. 작명의 이유는 부천군 소속 6개 도서면⁸⁾ 중 가장 북쪽에 위치한 섬이라 하여 ‘북도면’이라 했다. 이 당시 면사무소는 모도리 60번지(현, 김정자씨 댁 주변 / 조상천 증언) 주변에 위치했는데, 북도면에서 가장 중심이라 여겨 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19년 10월 31일에는 면사무소를 신도 1번지[구로지 김광일씨 댁 일대(신도1리 836)]로 다시 옮겼고, 이후 1942년에 장봉도, 시도, 모도 주민의 반발로 시도로 옮겼다. 시도에 처음 설치된 곳은 현재 생활문화센터 자리이며, 시설이 좁고 낙후되어 2016년 10월 현재의 신축 건물로 이전했다.

행정구역은 ‘경기도 부천군 북도면’이 1973년 7월 1일부터 ‘경기도 옹진군 북도면’으로 변경됐으며, 1995년 3월 1일 이후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이 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1914년부터 1973년까지 60년 동안 ‘부천군’ 지명 사용은 현재의 행정구역과 연계가 이어지지 않아 지명의 정체성과 역사성이 없는 행정구역이었다. 그리고 현재까지 110년째 사용 중인 ‘북도면’ 명칭은 방위 개념이 아닌 ‘미추홀구’, ‘제물포구’의 사용 사례처럼 고유 지명으로 찾아야 할 것이다.

현재 북도면의 행정구역은 신도리, 시도리, 모도리, 장봉도리 등 4개 법정리와 신도 1~4리, 시도리, 모도리, 장봉도 1~5리의 총 11개 행정리로 구성돼 있다. 인구는 2024년 10월 말 현재 1,224세대 2,117명이 거주하고 있다.

한편, 오늘날의 면사무소와 같은 역할을 조선시대는 어디서 했

8) 부천군 15개 면 중 도서 지역은 북도면, 덕적면, 영흥면, 대부면, 영종면, 용유면 등6개 면이다.

을까? 첨사 겸 만호가 진장(鎮將)으로 통치하던 장봉진이었다. 장봉진장이 행정과 군사, 가벼운 사안의 사법적 권한을 갖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면사무소의 위치는 18세기 이후 장봉도의 장봉진에서 맡았고, 장봉진 폐지 이후 20세기에 들어 모도에서 신도, 시도로 옮겨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며,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한 곳에서 중·개축을 통한 변화가 있지만 섬 자체를 변경하면서 옮긴 사례는 복도면이 갖고 있는 지리적 특징이 반영된 것이다.

2) 도서별 마을 유래와 문화

가) 신도(信島)

(1) 신도1리[九老地]

• 지명 유래

‘이곳은 처음 강화도에서 노인 아홉 분이 들어와 살기 시작하여 유래됐다고 한다. 어느 때인지는 모르나 이 노인들이 초막을 치고 살면서 조개류와 낙지를 잡고, 산에 올라가 도라지와 열매를 따다 먹으며 살았다 한다. 구멍바위 뿌리 앞에 있는 웬돌여에서 살[石箭]을 메어 고기를 잡아먹으며 살았다. 이같이 아홉 노인이 살기 시작하면서 ‘구로지[九老地]’라 부르게 되었다 … (그후) 구로지에 사람이 정착하기 시작한 것은 1650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처음 입도한 사람은 영양(穎陽) 천씨로서 강화도에서 이주했다.⁹⁾ 현재도 구로지 마을에는 천씨가 많이 거주하고 있다.



|| 자료 || 신도1리(구로지) 마을 모습

9)옹진군향리지편찬위원회, 『甕津郡鄉里誌』, 1996, 76~77쪽.

• 마을 지형과 특징

신도1리는 신도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마을로서 주변은 구봉산 산록과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이웃 섬인 시도와 연도교로 이어져 있으며, 해안에 넓게 펼쳐진 암초(礪)는 굴의 집산지로 유명하다. 어로와 사냥 활동을 하기 좋은 위치여서 주변에는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걸친 조개더미가 산재해 있다. 현재도 신오도, 시오도 일대는 20~25cm 정도의 자연산 굴¹⁰⁾이 잡히고 있다. 신도에서 유일하게 농업보다 어업이 주된 경제활동 마을이다.

과거 일제강점기 20여 년간 면사무소가 있어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며, 2024년 10월말 현재 79세대 135명이 거주하고 있다.

• 역사와 문화

<면사무소 옛터>

북도면이 신설되던 1914년 면사무소의 첫 위치는 모도(茅島)였으나 1919년 신도로 변경되는데,¹¹⁾ 위치는 신도 1번지이다. 그러나 1942년 장봉도, 모도, 시도 주민의 반발로 다시 시도로 옮겨 현재에 이르고 있다. 면 소재지의 변천 과정은 다음과 같다.

|| 표 || 면 소재지 변천 과정

구분	1914~1919	1919~1942	1942~현재
소재지	모도(첫번째)	신도(구로지, 두번째)	시도(세번째)
위치	김정자씨 댁 일대(추정)	김광일씨 댁 일대	생활문화센터→현 위치

<사립 신흥학교(信興學校)>

신흥학교는 신도2리에 있는 인천공항초등학교 신도분교장의 원조 학교다. 이 학교는 강화도 사람인 황도문(黃道文)이 1920년 구로지에 들어와 신앙과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건립했다. 1923년에는 신흥학교 소년회 주관으로 동경대지진과 서선(西鮮) 지역의 수재 민을 돋기 위해 모금 활동을 했으며,¹²⁾ 학교의 향학열이 커지자 북

10) 벗굴, 갯굴, 강굴이라 부르며, 이들은 기수역에서 잘 자란다.(이만식 어촌계장 증언)

11) 『조선총독부 관보(제2171호)』, 1919. 9. 6.

12) 『동아일보』, 1923. 9. 27.

도면 북도부민회(北島富民會, 회장 천성록, 고문 나동한)를 조직하여 신흥학교를 후원하기도 했다.¹³⁾

학교터는 과거 해태건조장, 현재는 일등슈퍼마켓 건물터(전망대횟집 맞은편)이며, 주민들이 신학문을 배우기 위한 노력을 다



|| 자료 || 신흥학교 자리

한 결과 1936년 영종공립보통학교 부설 신도 간이학교로 승격했고, 광복 이후 1946년에는 정식으로 신도국민학교로 승격되어 6년제 3학급 교사를 신축하고 이전하였다. 1950년 후반~1960년대 학생 수의 급증으로 신도의 중앙지점인 고남리(皐南里, 신도2리)에 교사를 신축하고 일부만 이전했다가 1965년 다시 증축하여 전교가 이전했다. 교사는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일원으로 1923년 군자금을 모금하다 체포된 송중식(宋重植)이 있다.

<사립 해광고등공민학교(海光高等公民學校)>

초등교육기관보다 20여 년 늦었지만 이 학교는 광복 이후 1946년 6월 5일 구로지 마을에 살던 천용택(千龍澤)이 설립하였으며, 신흥학교가 옮겨진 자리를 이용했다. 그는 강화도에서 건너와 이 마을에 정착해 살았으며, 초등학교 과정을 마쳐도 섬이라는 지역적 여건과 생활난으로 학비 조달이 어려워 육지의 상급학교 진학을 못하는 현실을 통감하여 설립하게 됐다. 결국 이 학교가 토대가 되어 북도중학교가 세워진 것이다.

13) 『조선일보』, 1926. 6. 29.

(2) 신도2리[阜南里]

• 지명 유래

이 마을은 ‘고남리’ 라 부르는데, 지형의 특징에 따라 ‘마을 뒷 산이 언덕(阜), 앞쪽이 남(南)쪽으로 틔여 있어 옛날부터 살기에 좋았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 지역의 특징인 ‘언덕의 남쪽에 있는 마을’로 ‘고남리’ 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¹⁴⁾



|| 자료 || 신도2리(고남리) 마을 모습

• 마을 지형과 특징

구봉산 남쪽 완사면에 옹기종기 집들이 모여 집촌을 형성하고 있는 마을로서 동쪽은 해안가 긴장술을 경계로 신도4리, 서쪽은 배나무(고남리) 고개를 경계로 접하고 있다. 입도조는 남원 태씨(南原太氏)이며, 마을 주변 옛 무덤이 ‘태씨묘’라고만 전한다.

신도바다역이 있는 갯구지 선착장은 장봉도까지 운항하는 기항지이자 신·시·모도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1960년대부터 마을 앞 간척을 통해 농업이 발달한 곳이다. 현재는 벼농사를 비롯하여 특용작물로서 포도 및 단호박 재배를 하고 있다. 2024년 10월말 현재 121세대 196명이 거주하고 있다.

• 역사와 문화

현재 이 마을의 랜드마크로 우뚝 선 건물은 신도교회이다. 대부분 주민이 신자이며,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교회이다. 그 결과 많은 목회자가 배출되었는데, 대표적 인물로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을 역임한 김봉록과 김영순 권사가 있다.

또한 1920년 신도1리 신흥학교부터 출발하여 1960년대 현 위치로 이전한 인천공항초 신도분교가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간직한 곳

14) 인천광역시, 『仁川의 地名由來』, 1998, 843쪽.

이며, 신·시·모도의 초등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2024년 현재 13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그리고 1876년 우리나라 근대의 시작을 알리는 강화도조약 체결의 원인이었던 운요호(雲揚號) 사건(1875) 당시 대완구, 화승총과 같은 구식 무기로 일본과 맹렬한 교전이 이뤄졌지만 패전의 책임을 지고 사직했던 김옥현(金玉賢)이 제대 후 이곳에 정착하였다.¹⁵⁾ 김옥현은 초관(哨官)이며, 일본이 군함을 강화도 부근에 정박하고 식수를 구한다는 구실로 초지진에 접근하자 보트를 저지하기 위해 포격을 가했고, 무차별 반격하는 일군과 교전을 벌였다.

(3) 신도3리[鹽村]

• 지명 유래

이 마을은 ‘염촌’ 혹은 ‘벗말’ 등 다양하게 불렸는데, ‘질 좋은 소금을 생산하던 마을’을 뜻한다. 흔히 섬 지역에서 ‘염벗’, ‘벗말’ 등에 쓰인 ‘벗’의 의미는 함도(鹹度)가 높은 바닷물로 소금(염)을 얻었던 ‘가마솥(盆)’을 의미한다. 따라서 ‘벗말(마을)’은 소금을 생산했던 마을로서 마을 앞은 바닷물이 드나들며 갯벌이 잘 형성되어 있었고, 갯벌을 일궈 염전으로 활용하며 소금을 생산했던 곳이다.

그리고 신도를 ‘진염(眞塩)’이라 부르기도 했는데, 이 마을에서 생산했던 소금이 질이 좋아 붙여진 지명이다. 그러나 지금은 염전이나 염전 흔적을 찾을 수 없어 매우 안타깝다. 염벗의 위치는 농촌전통테마마을(농촌진흥청 지정) 조성을 위해 경작지 중간의 제방(도로)에 설치한 건물 자리였다. 염전을 운영한 것은 1910년 후까지이며, 국영목장을 관리하는 목부들의 생계 유지책으로 추정된다.

• 마을 지형과 특징

신도에서 가장 북동쪽에 위치한 염촌 마을은 주변의 구봉산(179.6m)

15) 현재도 그의 일가인 김연근의 손자(김광제씨)와 김태근의 사위(이귀영씨)가 거주하고 있다. 신도3리(마장)에 선친의 묘소가 있었지만 2023년 모두 정리했다고 한다.

을 정점으로 끊어질 듯 이어진 왕봉산(136.2m)과 다시 동남쪽으로 연결된 안산(101.1m)으로 둘러싸인 아득한 지형에 위치하고 있다. 과거에는 바닷물이 마을 가까이 들어왔으며, 그런 이유로 산록 완사면 해안가를 따라 현재와 같은 모습의 마을이 형성되었다.

해안가를 살펴보면 시도와 강화도를 마주보는 마장지구와 이를 돌아가면 동북쪽의 끝에 위치한 하모리 선착장, 여기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능원이 해변, 안산 해안가를 따라 돌면 과거 갯부리 선착장이 있다. 한편 마을 앞의 해안가는 ‘ㄷ’ 자 형태의 만(灣)을 형성하고 있으며, 광활한 농경지와 갯벌이 펼쳐져 있다. 마을은 동쪽의 능원이 마을을 비롯하여 벗말, 가운뎃말, 골안 등 자연부락이 끊어질 듯 이어지며 4개의 자연부락이 신도3리를 구성하는데, 2024년 10월말 현재 주민 거주 현황은 108세대 203명이 거주하고 있다.

• 역사와 문화

이곳은 조선 초기부터 신도 국영목장이 있었던 곳이다. 목장의 위치는 구봉산 북쪽의 선창구미부터 숙개, 마장 지역 일대 그리고 수천내, 마골재, 배주개 북쪽부터 왕봉산 북쪽을 경계로 한 넓은 지역을 차지한다. 이 일대는 경사가 완만하고 밑으로는 넓은 평지 습지대가 있어 수원이 풍부하고 초지가 무성하여 목장으로 적지였던 것이다. 구봉산 남쪽으로는 말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마성(馬城)을 쌓았다고 한다. 현재 마장 일대가 신도목장의 출입문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왕봉산 일대는 1930년대부터 구들장(온돌) 채석장이 있으며, 1950년 6·25 이후 구들 사용이 증가하자 광산의 전성기를 이뤘다. 신도3리 주민들의 대부분이 광산에 종사하며, 생계를 유지하였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6·25 전쟁 당시 대한청년단이 북한군을 망보기 위해 구축한 초소와 참호도 있다.



|| 자료 || 신도3리(염촌) 마을 모습

(4) 신도4리[新村]

• 지명 유래

구봉산 남쪽에 해당하는 완사면 지형에 촌락이 형성되었다. 앞으로는 갯벌과 바다가 이어지며, 현재 2025년 개통을 앞둔 신도 대교의 공사 현장도 볼 수 있다. 이곳은 원래 사람이 살지 않고 풀이 무성해 소에게 풀을 뜯기던 목초지였다. 마을이 형성된 것은 6.25 전쟁 중인 1951년 1·4 후퇴 때 당시 황해도 연백군 혹은 황해도 청단군의 용매도(龍媒島)에서 온 피란민들이 수원(水源) 주변에 토막(土幕)이나 초막(草幕)을 짓고 살기 시작했는데, ‘이재수’가 가장 먼저 정착한 인물로 전한다.

한편, 이들에게는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큰 당면 문제였고, 마침 신도에도 천주교구제회(NCWC)에서 난민정책사업으로 간척 사업을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변 섬 지역에 살던 주민들이 모여 마을이 새롭게 형성되었다. 그 결과 ‘신촌’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모여 살기 시작한 ‘신도4리’인 ‘신촌’은 한때 200 가구가 살아 절정을 이뤘지만 1990년대 후반 20여 가구로 줄었고, 2024년 10월말 현재 58세대 118명이 거주하고 있다.



|| 자료 || 신도4리(신촌) 마을 모습(차학원 제공)

• 마을 지형과 특징

마을 일대의 특징은 간척으로 인한 경작지 조성이 대표적이다. 간척 당시 난민정책사업장은 신도3리 ‘구(舊)방죽’ 밖의 갯벌을 막

아 염전과 논으로 만들고, 난민에게 분배해 자활의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었다. 또한 둑막기 공사를 하면서 동원된 피란민에게 구호양곡을 지급하여 생계를 잇는 대책의 일환이기도 했는데, 이때 새로 만든 제방을 ‘신(新)방죽’이라 부른다. 이 당시 천주교구제회에서 취급하는 구호물자들은 미국의 잉여 농산물로서 주로 옥수수 가루, 밀가루, 기름, 우유 가루, 그리고 현 옷들이며 그 외에도 의료 약품과 의료 기구 등이 있다. 이 잉여 농산물들은 전 미국 국민들의 이름으로 무료로 한국의 극빈자들을 위하여 기증되는 것이었다. 6·25 당시 황해도 용매도에서 피난 나와 축제공사에 참여한 차학원씨(신도4리)는 실제 경험을 이렇게 얘기했다.¹⁶⁾ “싸리나무로 만든 지게를 짚어지면 양옆에서 두 명이 삽으로 흙을 펴다가 쌓아줬어. ‘구루마’ (손수레)도 없이 그저 지게로 옮겨 실어 둑을 막았지. 제방을 쌓는 데 필요한 돌은 당시 선착장이 있던 ‘하머리’ 와 섬 아랫자락에 있는 ‘고두구지’ 에서 가져왔고, 매일 돌과 흙짐을 지고 갯벌에 빠지면서 등에 못이 박히고 손바닥이 가죽이 되도록 땀 흘려 일했다. 땅을 만든 후 3천 평씩 나눠갖는 일이 문제였는데, 산쪽에 붙어 민물을 많이 머금은 땅은 좋았고, 바닷가 쪽은 소금기가 있어 땅의 질에 편차가 컸다. 결국 제비뽑기로 좋은 땅 하나 나쁜 땅 하나씩 2필지를 나눠 가졌다”고 한다.



|| 자료 || 공생염전 간척경험을
말하는 차학원씨

• 역사와 문화

둑막기(간척) 공사에 사용했던 도구와 용어는 다음과 같다.(김종훈, 차학원 증언)

* 삽 : 지금과 같은 굴곡진 삽(막삽)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가공한다. 즉, 막삽을 뒤집어 뒤로 불룩하게 튀어나온 부분을 두드

16) 경인일보특별취재팀, 『실향민이야기』, 다인아트, 2018, 389~392쪽.

려 평평하게 만든다. 이렇게 해야 갯벌을 뜨는데 편리하고 같은 횟수의 삽질을 해도 힘이 덜 들고 더 나를 수 있다. 수입(日當)과 직결되는 요소다.

* 지게 : 갯벌을 등에 지고 나르는 도구다. 무릎을 굽혔다 일어서는 힘을 줄이기 위해 지게 다리는 길게 만들었고, 짐을 싣는 발채(경험자들은 ‘바소구리’라 부르는데, 방언임)는 싸리나무를 등글게 엮어 만들었다. 그리고 발채 내부에는 갯벌 흙이 붙지 않고 잘 쏟아지도록 접촉면이 매끈한 배급 포대를 둘러 엮었다.

* 작업 시기 : 바다의 특성상 물이 차오르는 밀물 상태에서는 할 수 없으며, 물때를 보며 주로 조수가 가장 낮은 조금에 많이 이루어진다.

* 조(組) 편성 : 지게의 양쪽에서 흙을 펴 주고, 지게를 지고 나르는 반복적 작업을 위해 보통 3~4명이 조(팀)를 이룬다. 손발이 잘 맞는 팀워크가 매우 중요하다.

* 평(坪) 띠기 : 평은 일반 경작지의 면적과 달리 보통 가로×세로×깊이가 1.8m 되는 넓이를 1평(坪)이라 부르는데, 하루에 일한 평수(면적)에 따라 임금(일당)이 다르다. 즉 임금은 노동량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때 쓰이는 용어가 평 띠기다. 따라서 몇 평의 흙을 펴 옮겼는지 조(組)마다 다르며, 조합원 개인의 임금은 조별 혹은 개인차에 따라 각각 달랐다.

* 간척 방법 : 둑을 막으면서 둑 안팎이 구별된다. 1차적으로 둑을 쌓기 위한 갯벌 흙은 외부에서 펴다 쌓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흙 둑의 바깥으로 돌을 쌓아 제방을 축조했다.

* 조직 구성 : 조합은 조합장을 비롯하여 부조합장 그리고 각부 3~5명의 과장이 있었다. 총무과장은 전체 업무를 총괄하며,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둑 막기의 설계에 따라 과업 지시를 했고, 경비과장은 각종 원조 물품을 관리 및 배부하는 일을 맡았다.

원래 이곳은 간척 사업이 이루어지기 이전은 바닷가였기 때문에 패총이 발견되고 있다. 대표적인 유적이 알미산 조개더미이다. 여기서는 빗살무늬토기를 비롯하여 화살촉 등이 찾아져 보고된 바 있다. 그리고 신도대교가 끝나는 해안가 지형에서도 조개더미의 흔적을 볼 수 있다.

나) 시도(矢島)

(1) 시도리(矢島里)

• 지명 유래

현재 사용하는 ‘시도’ 지명을 사용하기 이전에 부르던 지명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 옛 지도에 표기된 지명을 보면 대부분 시도 보다 ‘거도(居島)’를 시기적으로 먼저 사용하고 있으며, ‘시도’ 표기는 18세기 초로 추정되는 ‘강도 지도’에 나타나다가 ‘강화부전 도’ (1872)에 ‘시도’ 표기되며, 이후 간행된 지도에서 그대로 따라 ‘시도’로 표기하였다.¹⁷⁾



|| 자료 || 시도리 마을 모습

거도는 임진왜란 당시 서해안 섬 지역의 말 목장을 언급하면서 ‘거도(居乙島)’라 기록하고 있다.¹⁸⁾ 표현과 의미는 무엇일까? 원래 이 섬은 ‘살섬’이었는데 이를 이두(吏讀) 내지 향찰식(鄉札式)식 한자 표기로 표현하기 위해 ‘살 거(居)’ 자를 쓴 ‘거도’가 되었다는 것이다. 즉 ‘거도’의 ‘거(居)’는 ‘거’로 읽지 않고 ‘살’로 읽으며, 이것을 좀 더 분명히 나타내기 위해 아예 ‘리을’ 받침을 나타내는 ‘새을(乙)’ 자를 받쳐 쓴 것이 ‘거을(居乙)’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거을도(居乙島)’란 지명을 쓰기도 했다. 따라서 시도의 원래 이름은 우리말 ‘살 섬’에서 비롯됐으며, 한자로 읊기는 과정에서 거도·거을도로 작명됐다.

그렇다면 ‘살’은 무엇일까? ‘살’은 조간대에 소나무, 대나무, 싸리나무 같은 말뚝을 줄지어 박고 그물을 두르며, 좌우(양쪽)로 벌려 ‘▽’ 자 형태로 설치하면 밀물에 들어온 고기가 썰물에 나가다 걸려 고기를 잡는 도구였다. 즉, 밀물과 썰물을 이용한 어획 도

17) 강화군, 『江華 옛 地圖』, 2003, 40쪽.

18) 『宣祖實錄』 선조 31년 3월 24일 기유.

구였으며, 조수간만의 차가 큰 북도면 일대는 주변에 갯벌이 발달해 있어 ‘살’을 활용한 어획에 안성맞춤의 장소였다. 이런 의미의 ‘살’이 ‘화살’ 관련 전설과 결합되어 새로운 ‘시도’ 명칭이 작명된 것으로 보인다.

‘화살’과 관련한 전설을 보면 “고려말 왜적의 침입이 심하자 강화도 마니산에서 군대를 양성하게 되는데, 그때 군인들이 이 섬을 목표로 활쏘기를 연습했을 때 많은 화살이 날아와 끗혀 ‘살섬’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전설과 연결된 시도의 노루메기 선착장 부근에는 ‘살섬탑’이 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73년 인천 중부경찰서 북도면 지서장으로 부임한 성낙주는 평소 고고학 분야에 관심이 있었고, 때마침 북쪽 해안가 수기 일대의 시도패총(1970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발굴)을 답사하면서 화살촉을 채집했다. 이 사실에 대해 그는 보람 있으면서도 전설과 관련있는 ‘살 섬’ 역사의 상징이 될 만한 유물이라 여겨 오래도록 ‘시도’에 소장할 방법을 찾다가 ‘화살탑’을 세워 ‘살섬 탑’이라 하고, 사람의 왕래가 찾은 노루메기 선착장 입구에 세웠다는 것이다.¹⁹⁾ 이 화살은 시도패총에서 찾은 신석기 시대의 유물로서 지명과 연관성이 없으며, 시도의 유래를 찾는 과정에서 과장된 듯하다.

따라서 시도의 지명 변천과 의미를 살펴보면 밀물을 이용하여 어획하던 ‘어살’의 이름을 딴 ‘살 섬’이었는데, 이것이 (사람이) ‘산다’는 의미의 한자 표현인 ‘살 거(居)’ 자를 쓴 ‘거도(居島)’와 향찰식 표기인 ‘거을도(居乙島)’로 변하고, 다시 ‘화살’과 관련된 전설과 연결되어 ‘화살 시(矢)’ 자를 쓴 ‘시도(矢島)’가 된 것이다.

• 마을 지형과 특징

지형은 남북으로 긴 편이고, 폭은 동서로 좁게 이루어져 있다. 섬 중앙에 있는 당산(해발 105m)은 제일 높은 봉이며, 남쪽에는 늦

19) 살섬탑에는 화살촉을 안에 넣고 유리로 앞뒤를 막아 화살의 모양을 볼 수 있었지만, 현재는 유리와 화살촉 모두 없다.

은 구지산(해발 73m)과 북쪽에
는 수기산(해발 71m)이 자리잡
고 있다. 동쪽은 500m 갯골을 사
이에 두고 신도와 마주하며, 서
쪽으로는 모도와 마주한다. 남쪽
은 삼목항과 용유도, 북쪽은 강
화도 화도면(강화도 남단)과 마
주하고 있다.

시도마을은 중앙의 당산 기슭에 단일 부락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왼쪽은 당산에서 북동쪽으로 뻗은 안두산 뿌리가 마을 북쪽 울타리를
형성하고 있다. 마을 오른쪽은 당산에서 남동쪽으로 뻗어간 넘
말 용머리 뿌리가 마을을 에워싼 모습으로 평화롭고 아늑한 마을
을 이루고 있다. 마을을 가로지르는 도로를 중심으로 윗마을(상동)
과 아랫마을(하동)으로 나뉜다. 마을 앞은 옛날 많은 어선들이 기
항하던 어항으로 섬 주위는 패류와 해초류가 흔했다. 그리고 좁은
갯골은 살터로 이용됐다. 그러나 현재는 매립을 하였으며, 염전으
로 이용하고 있다.

서쪽은 모도와 사이인 웬돌끼미 갯골은 곳배가 새우를 잡아 많은
어획고를 올리던 황금어장이었다. 섬 중앙부를 비롯한 해안 구릉지
는 농경지로 현재는 어업보다 농업이 우세한 편이며, 2000년대 이
후 풀하우스(2004), 슬픈 연가(2005) 등 각종 인기 드라마의 촬영
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1960년대는 80가구 400여 명이 거주하였으
나 2024년 10월 말 현재 237세대 383명이 거주하고 있다.

신도(구로지)에 있던 면사무소는 1942년 시도로 이전을 한 이래
지금까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현재는 면사무소 이외 북도 보
건지소와 파출소, 119 지역대, 혼성 의용소방대, 우체국 그리고 주
민자치센터 및 생활문화센터, 체육시설 및 국민체육센터가 위치하
고 있어 북도면 주민의 편익을 담당하고 있다.



|| 자료 || 신도-시도 사이 갯골

• 역사와 문화

이 섬은 수기 해변에서 시도폐총이 발굴되어 서해안 도서 지역의 선사 문화를 밝혀주는 표준유적의 역할을 했다. ‘시도식 토기’라는 명칭은 발굴 사례가 거의 없던 1970~80년대 서해안의 대표적인 고고학적 용어로 사용된 바 있다.

시도를 중심으로 한 해안가 폐총이 많이 산재하며, 이 유적들은 북도면 일대에 신석기 시대부터 인류가 살았음을 알려주는 결정적 사료(史料)이다.

무엇보다 섬의 규모는 작지만 교육 열정을 강했으며, 서당에 이어 일제강점기에도 강습소를 통해 학업을 이어갔고, 광복 후 학교 설립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처럼 학습의 열기는 종교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개신교(감리교)는 1900년대 초에 유입되었으며, 100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정착 과정에서 민간 신앙과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점차 지역사회와 일정 부분을 함께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 모도(茅島)

(1) 모도리(茅島里)

• 지명 유래

오늘날 ‘모도’란 지명은 언제부터 사용되었으며, 이전의 명칭은 무엇일까? 강화도 옛 지도를 통해 살펴본 결과 모도의 다른 이름으로 ‘사도(沙島)’, ‘북도(北島)’, ‘소도(小島)’가 있는데, 강화의 옛 지도를 통해 알 수 있다. 시기적으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지명은 ‘사도’로서 1684년에 제작된 ‘강도전도’에



|| 자료 || 모도리 마을 모습

표기되어 있는데 이 지도는 연대가 확실한 강화도 지도로서 가장

오래된 것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모도’란 지명은 ‘강화지도’(1696)에 처음 나오며, 이후 지도에 표기되는 명칭은 ‘사도’, ‘모도’, ‘북도’가 번갈아 표기되다가 ‘강화부전도’(1872)에 표기한 이후 대부분의 지도에서 그대로 따라 ‘모도’로 표기하였다. 따라서 ‘모도’ 이전에 처음 ‘사도’라 불렸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전하는 ‘모도’의 지명 유래는 “조선 말엽인 1875년경 조강 포구에서 차영선(車永善)은 어선을 가지고 강화 앞 작은 섬 앞에 닻을 내리고 그물을 놓았다. 물때가 되자 뱃사람들은 큰 희망을 품고 그물을 끌어 올렸다. 그러나 고기는 한 마리도 안 걸리고 떠(풀뿌리)만 그물에 가득 걸려 선주인 차영선은 화가 나서 닻을 걷고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고 한다. 이때부터 이 섬은 떠만 걸리는 섬이라고 하여 ‘띠염’이라 부르게 됐다는 것이다. 그 뒤 이 섬을 한자로 ‘띠 모(茅)’ 자를 써서 ‘모도(茅島)’라 부르게 됐다”고 한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 나오는 1875년경에 앞서

‘모도’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누군가 지금의 이름을 보고 지어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도(北島)’ 지명의 사용은 18세기 초 제작된 ‘강화지도’에 처음 등장하여 주로 18세기에 사용되다가 이후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북도면 지명과의 관련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마을 지형과 특징

섬 중앙에는 해발 95m의 모도산 일명 북망산을 중심으로 북쪽 끝부분의 해발 75m의 산봉우리와 남쪽 끝지점의 안산(해발 38m)을 연결하는 반월형의 산줄기가 마을을 감싸고 있으며, 마을 앞은 갯골을 사이에 두고 시도와 마주 보고 있다. 북쪽은 강화군 화

도면 해안, 서쪽은 장봉도 옹암 부락, 남쪽은 용유도와 마주한다.



|| 자료 || 모도 박주기 해변

북도면에서 가장 작은 모도가 100년 전에는 북도면 소재지였다. 북도면은 강화군 제도면에 소속되었다가 1914년 부천군 북도면으로 재편될 때 면사무소가 위치했던 곳이었으며, 초대 면장인 조중옥(趙重玉)과 조창덕(趙昌德)도 모도 출신이었다. 북도면 4개의 섬 중 가장 중간 지점이라 여겨 이곳에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모도 면사무소의 위치는 김정자씨 댁 주변으로 보고 있다. 1960년대는 80 가구 400여 명이 거주하였으나 2024년 10월말 현재 75세대 120명이 거주하고 있다.

모도 작은 섬이지만 주변 해역은 좋은 어장이어서 예부터 어업을 전업으로 살아온 고장이다. 특히, 시도와 사이에 있는 갯골은 ‘웬돌끼미’라 하여 곳배 어장으로 이름난 곳으로 새우, 우럭, 농어, 흥어 등 고가의 어종이 많이 잡히는 어장이었다. 특히, 갯골에서는 어선(곳배) 10여 척의 배를 맞대어 일렬로 고정시키고 24시간 밀물 2번, 썰물 2번 총 4번의 물때에 맞춰 배를 돌려가며 새우잡이를 하던 황금어장이었다.

한편 농경지는 산비탈 구릉지대를 개간한 좁은 밭들만 있었지만 1980년대 오지 낙도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앞을 간척해 이 섬의 유일한 곡창지대가 만들어지면서 모도의 지도가 바뀌었다.

• 역사와 문화

이 섬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모도산 조개더미로 보아 신석 시 시대부터 살았을 것으로 보인다. 마을 앞의 소공원에는 암행어사 이건창 송덕비가 있다.

모도교회는 1905년에 설립되었지만 자체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세부 내용은 알 수 없고, 종탑의 종과 추가 오랜 역사를 대변해 준다. 오랜 기간의 타종으로 추가 많아 작게 되었다는 것이다. (김동현 목사 증언) 현재는 사용하지 않지만 교회의 오랜 역사를 보여 주고 있다.

신학문 교육을 위한 교육 시설도 있었다. 한문서당이 있었지만 면장이 중심이 되어 주민과 함께 추진했던 신학문 시설로서 1916년에 ‘배재학당’을 설치했다. 이 학당은 광복 때까지 존속하다가 모도

초등학교의 모체가 되었다. 이외에 이동웅, 황도문 등 유지는 모도에 여학생만을 교육하기 위한 숙명여학교(淑明女學校)를 설립하기 위해 기성회를 조직했다고²⁰⁾ 하나 그 후의 교육 상황은 알 수 없다. 양(羊)을 사육했던 국영목장이 있었다.

라) 장봉도(長峯島)

(1) 장봉1리(독바위[甕岩])

• 지명 유래

‘독바위’ 일명 ‘옹암(甕岩)’은 바위의 모양이 마치 독(항아리)과 같은 형태에서 유래한다. 독바위는 옹암포구와 작은 멀곳과 연결된 구름다리를 지나 장봉도 북동쪽 모서리 부분에 해당하는 동그란산의 뱀메기뿌리로 가면서 해안가의 모래사장에 우뚝



|| 자료 || 독바위 모습

서 있다. 독 혹은 항아리 모양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지금은 많이 훼손되어 원래의 모습을 잃었다. 그 이유는 과거 장봉도 일대가 ‘곶배(일명 명텅구리배)’로 새우잡이 할 때 배를 고정시키기 위한 닻(곳)돌로 쓰기 위해 독바위의 돌을 떼어 썼기 때문이다. (홍순일, 이선만 중언) 이 독바위는 원래 육지와 연결되어 있던 곳인데, 오랜 기간 파도에 의해 침식되어 육지로부터 분리된 기둥 모양의 연안 침식 지형이며, 지형학적으로 씨스택(Sea-stack)이라 부른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바위를 지나갔으나 알 수 없었을 것이며, 이 지역의 대표적 지명 발원 장소인 만큼 안내판이 설치가 필요하다.

• 마을 형성과 특징

장봉1리(옹암) 일대는 1895년경까지 국영목장이었기 때문에 마

20) 『동아일보』, 1924. 1. 15.

을은 없었으며, 폐장 후 1900년을 전후한 시기에 이재복(李載福)의 증조부가 용유도에서 입도하여 개척하였다고 한다. 그는 황무지였던 말 목장을 개간하고, 주민들이 살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마을은 원래 옹암 6촌이라 하여 ‘큰 논골’, ‘작은 논골’, ‘장골’, ‘옹암’, ‘늘논’, ‘검어지’ 마을 등 6개 마을이 있었으나 ‘늘논’과 ‘검어지’ 마을은 사라지고 현재는 4개의 마을이 장봉1리를 구성하고 있다.

가장 먼저 형성되고 규모가 큰 마을은 ‘큰 논골’ 이었지만 현재는 옹암 일대에도 많은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선착장 부근의 ‘옹암’ 일대가 커지게 된 배경은 1950년 6·25전쟁으로 피난민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증가는 어선 및 기타 선박의 증가로 이어졌고, 그 결과 작은 멀곳 앞의 옹암포구에는 선박이 빼곡하게 들어섰다. 난민이 많아 ‘난민 독바위’ 혹은 ‘난독바위’ 라 불리거나 장봉 8경 중의 하나인 ‘옹암기적(甕岩汽笛, 독바위 갯골을 지나는 배의 기적소리)’이라는 지명과 모습은 당시 사람이 많이 살았음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이후 해선망과 안강망 어업이 번창해 1971년에는 장봉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부터 현재까지 여객선의 기항지이며, 장봉도의 관문 역할을 하면서 규모가 커졌다.

특히, ‘큰 논골’ 마을의 옹암 해수욕장은 서해안 해수욕장으로서 많은 관광객이 선호하는 휴양지로 유명하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노송은 마을을 개척한 이재복씨 조부께서 방사방풍의 용도로 심었다고 하며, 오늘날 해수욕장의 풍치를 더해주고 있다.²¹⁾

현재는 삼목항에서 하루 1시간 간격으로 총 13차례(세종해운) 운항하고 있다. 2024년 10월말 현재 171세대 323명이 거주하고 있다.



|| 자료 || 장봉1리(옹암) 마을 모습

21) 옹진군향리지편찬위원회, 『甕津郡鄉里誌』, 1996, 175~176쪽.

• 역사와 문화

필자는 해수욕장 상가 인근의 경작지로 이용되는 모래밭에서 빗살무늬토기를 지표채집한 바 있어 이미 신석기 시대부터 해안가를 중심으로 살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만으로 형성된 이 일대는 선사유적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장봉1리 일대는 국영목장인 말목장이 운영되었던 곳이다. 장봉도 목장은 ‘둘레가 40리, 폭이 5리’라고 밝히고 있어 폭이 좁고 길이가 긴 형태로서 현재의 지형과도 같다. 이 당시 기르던 동물은 우(牛) 목장이었으며, 15세기 중엽부터는 말(馬)을 길렀다.

그리고 ‘큰 논골’에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의 옹암교회가 있다. 현재 1906년에 건립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 이전에 전파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 당시 이재수씨 소유 산에 목조 초가의 예배당을 짓고 시작했다. 그후 장봉부흥회를 통해 교세가 확장되었으며, 북도면 일대에서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

교육시설로는 옹암해수욕장 소나무 숲 사이에 장봉초등학교 옹암분교가 1980년 3월 1일 2학급 인가를 받아 3월 10일 개교하고, 초등교육을 실시해 왔지만 학생 수의 감소로 1992년 2월 28일자로 폐교됐다.

그리고 큰 논골 마을 위쪽에는 사회복지법인 백십자사 장봉혜림원·장봉혜림요양원이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1985년 임병덕(林炳德)이 장봉혜림재활원으로 개원하고, 다음해 3월 장봉혜림학교를 개교하였다. 40년의 동안 장애인을 수용하여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과 장애 극복 의지를 길러주어 성실한 자활인으로 육성하고자 설립하였다. 현재는 노약자를 위한 요양 시설까지 갖추어 활동을 하고 있다.

(2) 장봉2·5리[坪村]

• 지명 유래

장봉도의 중앙에 위치한 마을로서 평촌[坪村]이라 부르며, 간척

지로 이루어진 평평한 대지 위에 형성되었다. 국사봉(150.3m)을 기점으로 남서쪽에 위치하며, 동쪽은 장봉1리인 옹암, 서쪽은 번뎅이 고개이다. 3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 뒤에는 주위의 산비탈과 계곡에 넓고 좁은 농경지가 형성되어 있다. 해안에는 방파제 시설이 되어 있어 평촌 포구에는 뱃고동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좁고 긴 장봉도의 지형적 특성을 감안해 본다면 이 마을은 남북의 폭이 넓어 넓은 농경지와 큰 마을이 형성되었다. 그래서 들판이 넓다고 하여 평촌이라 부른다.²²⁾

최근에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장봉2가 분리되어 장봉5리가 신설됐다.²³⁾ 장봉도의 행정과 교육의 중심지로 가장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2024년 10월 말 현재 268세대, 450명이 거주하고 있다. 장봉 출장소와 장봉초등학교(현 인천삼목초등학교 장봉분교), 중등교육기관으로 1967년에 개교하여 1983년 2월 28일 폐교된 ‘푸른학원’ 이외에 장봉 보건지소, 소방대 등이 있다.

• 마을 지형과 특징

(가) 장봉2리

장봉2리 일대의 지형은 국사봉 줄기 남록 완사면 말단부에 밭 경작지가 있으며, 이어서 더 낮은 지형에 논이 위치한다. 현재의 논



|| 자료 || 장봉2, 5리(평촌) 마을 모습

22) 옹진군사편찬위원회, 『옹진군 역사, 사회, 문화, 고등 및 편찬 연구 용역(복도면)』, 2019, 178쪽.

23) 장봉2리는 인구증가 및 지역 개발 등에 따른 생활 여건 변화로 행정리 분리를 통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 자로 5리를 신설하여 나누었다. 분리 기준은 장봉도 선착장-축동(건어장) 간 도로망을 중심으로 북쪽(국사봉 쪽)은 2리이며, 남쪽(바다 쪽)은 신설된 5리에 해당한다. 그러나 평촌이란 지명은 분리하기 이전의 평평한 지형을 이르는 것으로 여기서는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두 개의 리를 함께 다루었다.

은 원래부터 경작지였을까? 보통 해안지형에 조성된 평지의 논과 밭은 대부분 간척에 의해 조성된 것이며, 평촌의 경우도 간척 이전에는 바다였을 것이다. 특히 지역 주민인 차윤태씨(장봉 3리)의 증언에 의하면 절터골 앞의 논에서는 과거 토탄이 많이 출토되었다고 하는데, 이 토탄은 파도에 의해 해안가 혹은 산지에서 흘러내린 나뭇가지 등 유기물이 쌓여 탄화된 것으로 옛 지형이 바다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평촌 일대의 논이 언제 간척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조선시대 장봉 수군진이 설치 운영된 시기인 18~19세기부터 간척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평촌은 배산임수 지형으로 3면의 산지가 병풍처럼 둘러싸여, 산지 안으로는 원래 바다였으나 간척으로 넓은 평평한 경작지가 조성된 지형이다. 보통 간척지는 육지쪽이 높고, 바다쪽이 낮기 때문에 해침의 빈도가 낮은 구릉 부근부터 개발이 시작된다.²⁴⁾ 평촌 지역 역시 국사봉 남록의 완사면 부분부터 간척이 진행되었을 것이며, 논과 밭으로 이용되기까지 제염을 위한 관개수로가 구축됐다. 따라서 평촌에는 질서정연하고 규칙적인 수로와 바둑판 모양의 경지정리구획이 되어 있다. 2024년 10월 말 현재 112세대 182명이 거주하고 있다.

(나) 장봉5리

이 마을은 사람이 살기에 천혜의 조건을 간직한 곳으로 촌락을 중심으로 산지가 3면으로 둘러싼 아득한 지형이며, 유일하게 남쪽으로 바다가 열려있는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만(灣) 지형이다. 마을의 동쪽은 국사봉에서 뻗은 안산(案山)과 다르구지산이 남으로 내려 오면서 해안에서 멈췄다. 서쪽은 번등 고개, 터러먹 고개를 만드는 산줄기와 이어서 바르미산, 야달 선착장까지 뻗어나간다. 마을의 남쪽은 다르구지산과 서쪽의 동족골 뿌리가 마주 보며, 평촌 앞장술로 연결되어 있다. 2024년 10월 말 현재 156세대 268명이 거주하고 있다.

24) 오홍석, 『충보관 취락지리학』 (교학연구사), 1994.

(다) 장봉2·5리

평촌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촌락의 형성이다. 흔히 배산임수의 만(灣) 지형의 경우 산록완사면에 촌락이 해안가를 따라 열을 지어 형성되며, 촌락 앞으로 경작지, 해안가로 이어지는 모습이 일반적이다. 평촌의 경우는 어떨까? 이곳은 산록완사면에 이어 경작지, 촌락, 해안가로 이어져 있어 전형적인 해안 취락의 형성 입지와 다르다. 즉, 해안가 가까이 타원형의 집촌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장봉도 일대는 100여 년 전부터 새우잡이 해선망 어업이 발달했으며, 특히 만도리 어장은 어족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 3대 어장으로 유명했던 곳이었다. 해선망 어업을 통해 평촌 지역 일대는 새우 어획물을 통해 많은 부를 축적한 선주(船主)들이 증가했고, 그들이 바닷가 조업의 편리성을 위해 해안가 가까이 집을 건축했다.(홍순일 증언) 이후 점차 증가하여 현재와 같은 해안가를 중심으로 집촌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 역사와 문화

만도리 어장을 중심으로 어업이 활성화되었을 당시에는 뱃고사와 띄뱃놀이 등 다양한 마을 신앙의 중심지였다. 마을의 규모가 커던 만큼 어업 종사자가 많았고, 일찍부터 어업조합이 장봉도에 위치했다.²⁵⁾ 어업조합은 1932년 1월 30일 덕적면, 서도면 어업조합과 함께 처음 설립·인가 되었으며,²⁶⁾ 1936년 ‘북도면 어



|| 자료 || 장봉출장소 모습

25) 어업조합 건물은 푸른고등공민학교 교장 사택으로 쓰던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이 건물은 일제강점기에 건축되었다. 따라서 이 건물은 처음 어업조합으로 쓰였을 것으로 보이며, 6·25 때는 인민재판소, 그리고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는 교장 사택으로 사용되다가(이세기, 「장봉도 푸른학원과 송두용」, 『장봉도』, 2017, 민속원, 128쪽) 현재는 방치 상태에 있다.

26) 『조선총독부 관보(1517호)』 1932. 1. 30. : 『조선일보』, 1932. 1. 31.

업조합’에서 ‘북도어업조합’으로 개명되었다.²⁷⁾

또한 푸른고등공민학교가 1980년대 초반 폐교되기 까지 평촌장술에 있었으며, 폐교된 이후에는 푸른신용협동조합이 뒤를 이어 활동했다. 1990년대 후반 곳배가 사라지기 이전까지 배를 수리하거나 건조하던 곳이 있었으며, 정월 초에는 뱃고사와 띄뱃놀이가 펼쳐지기도 했다.

이곳은 장봉도의 행정과 교육의 중심지였으며, 일제강점기부터 있었던 북도공립보통학교는 장봉분교의 전신이며, 1960년대부터 장봉출장소가 설치되어 주민의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행정기관이 위치하고 있다.

(3) 장봉3리[鎮村]

• 지명 유래

장봉3리는 일명 진촌이라 부르는데, 조선시대 군사시설인 ‘장봉진(長峯鎮)’이 있었던 마을이며, 군사시설인 ‘진(鎮)’과 마을을 뜻하는 ‘촌(村)’이 더해진 옛



|| 자료 || 장봉3리(진촌) 마을 모습

지명이다. 즉, 조선시대 해양 방어를 위해 설치한 수군진(水軍鎮) 주변에 있었던 마을에서 유래된다. 따라서 섬 지역에 수군진이 있었던 곳은 ‘진촌’ 혹은 ‘진말’ 이란 마을 이름이 존재하게 된다. 백령도, 덕적도에도 ‘진촌 혹은 진말’ 이 있는데, 과거에 수군진이 있었기 때문에 유래된 것이다.

• 마을 지형과 특징

진촌은 주변이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아득한 마을이다. 마을 뒤에 있는 동그란 형태의 작은 산이 풍어와 장수, 무병을 빌던 서낭

27) 『조선총독부 관보(2889호)』 1936. 8. 28.

당이 있던 ‘당산’이다. 이 산을 중심으로 가막머리(북서) 방향의 산줄기와 국사봉(남동) 방향의 산줄기가 마을을 ‘요형’으로 둘러싸고 있다. 유일하게 서쪽으로 터져 있어 건어장(乾魚場)과 바다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바다 기원의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고,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안성맞춤인 지형이다.

따라서 군사시설이 들어서기에 알맞은 천혜의 조건이었다. 아울러 건어장부터 축동(장봉4리)과 진촌(장봉3리)까지 이어지는 경작지(논)는 간척에 의한 것이며, 원래 지형은 바다였다. 마을의 논에서 토탄이 출토되었다거나(차윤태 증언) 고연희씨 댁 화장실 탱크를 설치하기 위해 땅을 팔 때 갯벌이 나왔다는 것은 과거에 바다였음을 의미한다. 2024년 10월 말 기준 52세대, 98명이 거주하고 있다.

• 역사와 문화

장봉진이 설치됐던 곳은 어디일까? 이곳은 조선시대 지방군인 ‘진(鎮)’이 있었던 곳이며, 북쪽에 있는 강화도 방어를 위한 목적이었다. 현재 차윤태씨(장봉3리)는 본인의 집 일대가 과거 장봉진이 있었다고 증언한다. 이곳은 다른 문헌에서도 동일 지역임이 확인되고 있는데, 장봉진의 설치 및 추진 과정은 다음과 같다.

1678년(숙종4)에 병조판서 김석주와 부사직(副司直) 이원정이 강화도 방비를 위해 현지를 방문하고 ‘진(鎮)’ 설치 장소를 열거하면서 장봉도를 선택하였다.²⁸⁾ 그 이유는 강화도를 지킬 수 있는 해문(海門)이라는 점, 진촌이 군사 항구로서 외부 노출이 안된다는 점, 포곡식(浦曲式) 해안으로서 수십 척의 군선을 정박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장봉 수군진 설치의 첫 언급이 있었다. 이어 1683년(숙종9)에는 강화유수 이민서(李敏敍)도 장봉진 설치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는 일부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대사헌(大司憲)으로 직책을 옮긴 후에도 설치의 상소를 올렸다. 그 결과 1717년(숙종43)에 ‘진(鎮)’이 설치되면서 진장(鎮將)에 수군만호(萬戶)를 파견하고 병선과 군사를 배치했다. 이때 배치된 ‘수군진’ 주변에 있었던 마을이었기 때문에 ‘진촌(鎮村)’ 혹은 ‘진말=진마을’이라

28) 『肅宗實錄』 숙종 4년 10월 23일 경인.

부르게 된 것이다.

장봉진은 1895년(고종32) 각 도의 진보(鎮堡) 폐지 건이 반포됨에 따라 177년간 강화도 방비책으로 그 역할을 했다. 당시 진촌의 규모는 “인호(人戶)는 남자 77명, 여자 58명으로 총 132명이며, 가옥은 49호” 인데,²⁹⁾ 현재와 비교하면 호수는 비슷하며, 인구는 오히려 30여 명이 더 많았다.

이런 군사시설이 있었다는 증거로 김신옹씨는 집 앞의 밭을 경작하다 쟁기에 부딪히는 쇠소리가 이상하여 확인한 결과 길이 1m 정도의 환도(還刀)를 찾았다고 하는데, 이 유물은 당시 군대에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진축교회는 원래 진촌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촌교회라 불렸다. 1973년 당시 담임 목사였던 고완섭에 의해 진촌과 축동의 중간 지점에 해당하는 현 위치로 이전했으며, 교회명도 두 마을의 이름을 따 진축교회라 하였다. 이 교회는 1900년 강화도에서 전파된 교회로 북도면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로 보인다. 그러나 긴 역사를 간직하고 있지만 자료가 부족하여 자세히 알 수 없다.

(4) 장봉4리[桩洞]

• 지명 유래

이 마을은 ‘싸리골’ 또는 ‘도란말’이라 했는데, 싸리나무가 많아 유래됐으며, 한자로는 ‘축동[桩洞]’이라 부른다. 싸리나무를 사용했던 이웃 사람들의 증언에 의



|| 자료 || 장봉4리(축동) 마을 모습

하면 “어업이 발달하기 이전 돌살을 설치할 때 썼던 발(簾)의 재료로 싸리나무를 엮어 썼으며, 싸리나무는 화력이 좋으면서 연기가 나지 않아 밤에 봉화를 올릴 때도 사용했다”는 것이다. 남쪽은

29) 『장봉진지(長峯鎮誌)』

마을 앞 논과 건어장 번등으로 이어져 바다와 접하고 있으며, 서쪽 역시 ‘쪽쪽골’과 ‘옻나무골’ 해안가와 연결되어 있다. 도란말은 진촌(장봉3리)에서 모롱구지(모퉁이)를 돌아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부르는 지명이다.

• 마을 지형과 특징

축동은 장봉도에서 가장 서쪽에 위치한 마을이며, 봉화산이 남쪽으로 뻗은 산줄기 사이의 완사면 지형에 위치한다. 마을 왼쪽은 모롱구지 뿌리가 오른쪽은 유노골 산줄기가 배진 물 뿌리까지 나가면서 마을 앞 논과 함께 마을을 애워싸고 있어 바다 밖에서도 잘 보이지 않는다.

마을 서북쪽으로는 긴 능선과 큰 봉우리가 장봉도의 끝인 가막머리로 이어지며, 남쪽과 북쪽 해안으로 줄기가 많이 뻗어 계곡을 이루고 있다. 해안도 그 영향을 받아 많은 굴곡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 굴곡마다 기암괴석이 있고 지명이 있어 장봉도에서 지명이 가장 많은 곳이다.

한편, 가막머리로 이어지는 중간지점의 정상부에 ‘봉화대(일명 봉화독)’가 8각정과 함께 복원·설치되어 있다. 이 봉수대는 『강화부전도』(1872)에도 잘 나타나 있으며, ‘장봉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해양문화 유산이다. 현재 마을 앞에 논으로 경작되고 있는 들판은 ‘장봉진’이 위치했던 당시까지도 바다였다. 2024년 10월 말 현재 55세대, 91명이 거주하고 있다.

• 역사와 문화

조선시대 국가가 위급할 때 불과 연기로 알리던 통신수단인 봉수대(烽燧臺)가 북도면에서는 유일하게 위치한다. 대체로 봉수대의 위치는 전망이 좋은 섬의 산 정상부에 있는데 장봉도는 축동의 배후산인 봉화산(해발 131.5m)에 있다.

이 지역의 지리적 중요성에 대해 “장봉도와 자연도(영종도)가 바다 양쪽에 위치하고 있어 남쪽 뱃길의 목구멍(咽喉)과 같은 곳”이라거나, “강화 소속의 섬이 많은데 그 가운데 장봉도와 자연도

는 해구(海口)에서 마주 보며, 우뚝 솟아 교통의 요지가 되니 …(중략)… 지키면서 망을 볼 수 있는 곳을 얻게 되어 방어하는 데에 힘이 될 것 입니다”라고 하거나 “장봉도와 주문도(注文島) 두 섬은 서남쪽 바다 가운데 있는데 …(중략)… 만약 이들이 외양(外洋)을 경유하려고 한다면 모두 장봉도와 주문도의 사이를 빠져나와야 한다. 이와 같이 이 두 섬은 요충이 되는 곳이다.”라고 하여 장봉도의 지리적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설치 시기는 1685년(숙종11)이며, 연변봉수(沿邊烽燧)로서 직봉제5거(炬)에 전달하기 위한 첫 번째 봉수였으며, 대웅 봉수는 서북쪽에 위치한 강화군 서도면의 볼음도 봉수였다.³⁰⁾

김석훈(인천섬유산연구소 이사)

30) 김주홍, 『기전지역의 봉수』, 2021, 경기문화재단, 293~299쪽.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유산을 살펴보기 바람.

3. 지명

가. 북도면(北島面)의 지명 변천³¹⁾

북도면(北島面)은 강화도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강화의 고지도에 표시된 지명을 통해 도서별 변천 과정을 알아봤다.³²⁾

1) 지도상으로 본 강화도와 북도면

강화의 고지도는 39종이 있으며, 고지도에 섬의 표현은 타원형이거나 외곽선으로 섬의 모양을 그리고, 그 안에 등고선을 삽입한 형태 등 다양하다. 고지도에 북도면은 강화도를 기준으로 주로 남쪽인 아래에 위치를 표시했다. 일부는 북쪽(위)에 표시하고 ‘南’이라 표기한 경우도 있다. 4개의 섬 중 지명이 모두 있는 기재되어 있는 경우, 1~3개의 섬만 표현된 것도 있다. 그리고 조선 후기 봉화대나 장봉진이 설치된 경우 이를 표기하였으며, 이중 지명이 확인된 29종을 참고하였다.

여러 고지도를 통해 볼 때 강화도가 고려의 개성, 조선시대 한양과 같은 수도의 관문이었다면 북도면은 강화도가 해양으로부터 위협이 예고될 때 해방(海防)을 위한 보장(堡障)의 섬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 몽골의 침입이 있었을 때 장봉궁(長峰宮)의 건립이나 조선시대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장봉진(長峰鎮) 및 봉화대의 설치는 강화도나 수도 방비책 혹은 해양 방비의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했다.

31)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인천의 지명(하)』, 2015(인천광역시사 4) ; 옹진군 향리지편찬위원회, 『甕津郡鄉里誌』, 1996 ; 인천광역시, 『仁川의 地名由來』, 1998 ; 웨스트비전, 『장봉도 이야기』, 2006 등을 참고하였다. 특히, 장봉도 옛 한자 지명은 김영근(장봉3리)씨가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32) 강화군, 『江華 옛 地圖』, 2003, 12~71쪽.

2) 북도면 지명의 변천

『江華 옛 地圖』는 언제 만들었을까? 병자호란(1636) 후 판중추부사 김개국(金蓋國)이 강화도의 치소(治所)를 옮기기 위해 위량동(位良洞), 선원사(仙源寺), 상림사(尙林寺) 등 세 곳을 후보지로 지도에 표시하여 1638년(인조16)에 보고한 것이 처음이다. 이후 20C 초까지 39종에 이르고 있는데, 대부분 18C 중·후반과 19C 후반에 제작되었다. 그 이유는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관방상 중요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³³⁾ 따라서 전체적인 시기는 조선 후기 약 250년 정도의 지명 변천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되고 있는데, 북도면 지명을 살펴보면 표와 같다.

가) 신도(信島)

지도상에 표기된 신도는 무표 기나 불분명한 지도를 제외하고 17세기 초의 『강화지도』부터 1860년의 『대동여지도』에 이르기까지 별칭이 없이 ‘신도(信島)’로 표기된 이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 자료 || 신도(대동여지도, 1861)

나) 시도(矢島)

시도는 17C 초에 제작된 『강화지도』에는 ‘살 거(居)’를 쓴 ‘거도(居島)’ 명칭이 처음 등장한다. 이후 거도 명칭이 18C에 주로 사용되는데, 시기 미상의 『강도지도』에 ‘시도(矢島)’로 한 차례 표현되고 있다. 이후 1872년 『강화부전도』부터 ‘시도(矢島)’로 표기된 이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즉 시도의 경우 크게 보아 18세기 이전에는 거도, 그리고 19세기 후반 이후에는 시도로

33) 김상태, 「江華의 古地圖」, 『앞의 책』, 6~7쪽.

변천되는 과정을 알 수 있다.

지명의 변천에 대해 이 섬은 ‘밀물과 썰물을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는 어살 혹은 독살의 이름을 딴 ‘살섬’이라 불리다가 이두 혹은 향찰식 한자 표기로 ‘살’ 이(사람이) ‘살다’는 의미의 ‘살거(居)’에 ‘섬도(島)’를 쓴 ‘거도(居島)’로 변하고, 다시 지명이 화살 관련 전설과 결합되어 ‘화살 시(矢)’의 ‘시도(矢島)’가 됐다고 하니³⁴⁾ 지명의 원래 의미는 섬 지역의 특성이 있는 어살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



|| 자료 || 거도(강화지도, 18C초)

다) 모도(茅島)

모도의 지명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지도는 1684년에 제작된 『강도전도』이며, 이 지도에는 ‘사도(沙島)’로 표현하고 있다. 그 후 ‘모도(茅島)’, ‘소도(少島)’, ‘북도(北島)’ 등이 간헐적으로 반복 사용되다가 1872년에 제작된 『강화부전도』에 ‘모도(茅島)’로 표기된 이후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북도’ 명칭은 18세기에 주로 사용되었던 지명으로서 『옹진군향리지(甕津郡鄉里誌)』에

‘모도’를 ‘북도’라 칭했다는 언급은 있지만 ‘북도면’의 ‘북도’와 지명의 관련성은 없어 보인다.



|| 자료 || 모도(강화부전도, 1872)

34) 옹진군지편찬위원회, 『甕津郡誌(상)』, 2012, 112~113.

라) 장봉도(長峰島)

지도상에 표기된 장봉도는 무표기나 불분명한 지도를 제외하고 1684년의 『강도전도』부터 1860년의 『대동여지도』에 이르기까지 별칭이 없이 ‘장봉도(長峰島)’로 표기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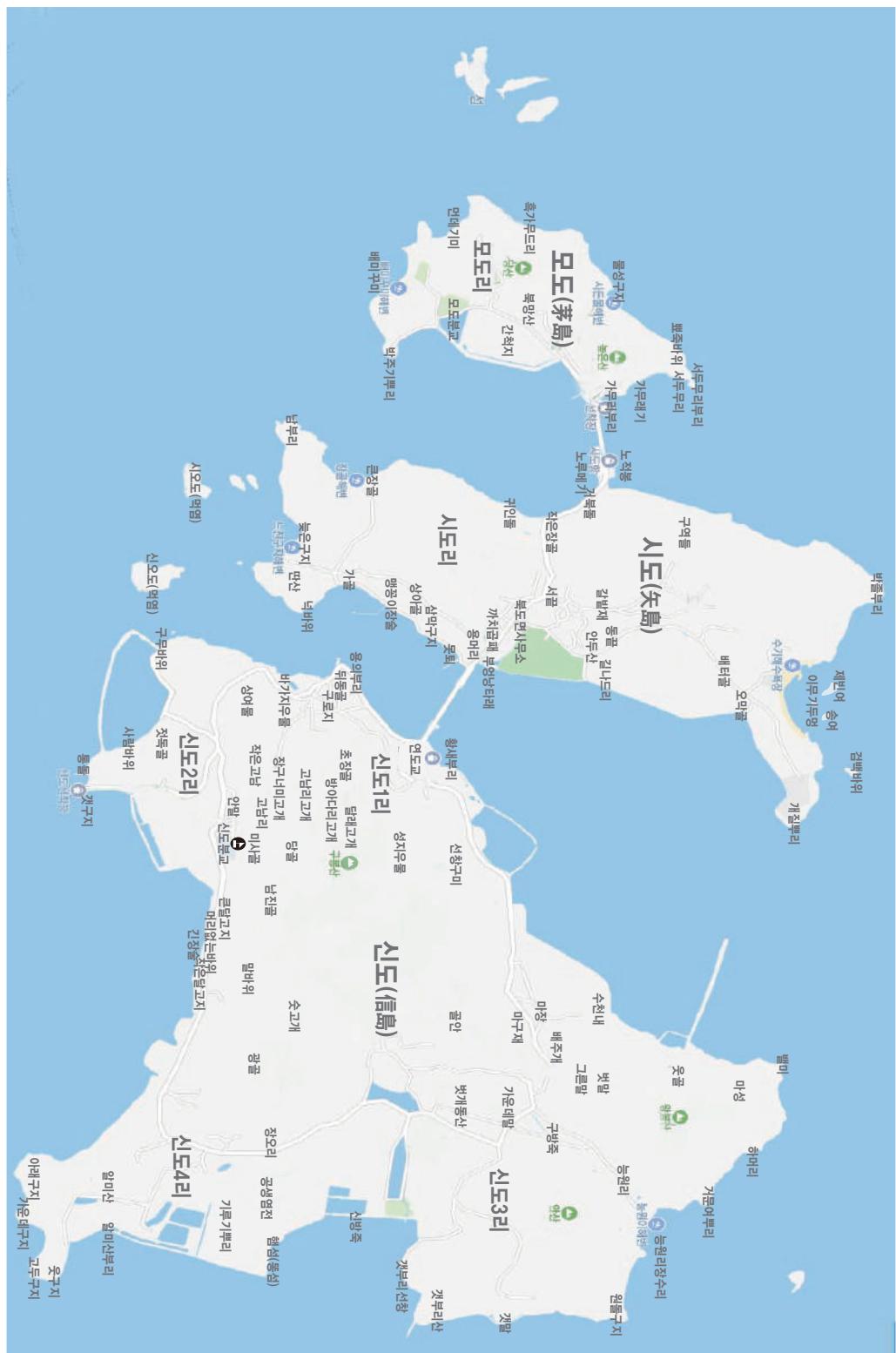
|| 자료 || 장봉도(강화부전도, 1872)

|| 표 || 조선 후기와 현재 지명의 변천

	신도	시도	모도	장봉도
조선 후기	信島 (신도)	居島, 居乙島, 矢島 (거도, 거을도, 시도)	沙島, 小島, 北島, 茅島 (사도, 소도, 북도, 모도)	長峰島 (장봉도)
	↓	↓	↓	↓
현재	信島 (신도)	矢島 (시도)	茅島 (모도)	長峰島 (장봉도)

|| 표 || 강화 옛 지도에 나타난 북도면 지명 변천

번호	시기	지도명/지도책명	신도	시도	모도	장봉도	비고
1	17C 초	강화지도/지나조선고지도	信島	居島	.	.	
2	1684	강도전도/고지도첩	信島	居島	沙島	長峰島	
3	1696경	강화지도/개인 소장	信島	居島	茅島	長峰島	강도지(이형상) 수록
4	1706~1708	강화지도/지도지	.	.	.	長峰島	
5	1718	강화전도/동여비고	信島	居島	少島	長峰島	
6	18C 초	강화지도	信島	居島	小島	長峰島	
7	18C 초	강화전도/조선강역총도	信島	居島	少島	長峰島	
8	미상	강도지도	信島	矢島	茅島	長峰島	
9	18C 초	강화지도	信島	居島	北島	長峰島	
10	18C 중엽	강도지도/해동지도	信島	居島	北島	長峰島	
11	"	강화이북해방도	信島	居島	沙島	長峰島	
12	1760	강화지도/여지도서	信島	.	北島	長峰島	위치 바뀜
13	18C 중엽 이후	강도지도	信島	.	北島	長峰島	
14	1783	심부전도/심부개판강화부지	信島	.	茅島	長峰島	
15	18C 후반 이후	강화지도	信島	居島	北島	長峰島	
16	19세기 후반	강도지도	.	불	분	명	
17	19세기	강화지도	.	불	분	명	
18	1872	강화부전도	信島	矢島	茅島	長峰島	봉대+장봉진
19	1875~1894	강화지도	信島	矢島	茅島	長峰島?	
20	19C 후반	강도부지도	信島	矢島	茅島	長峰島	봉대+장봉진
21	1882	강화지도	信島	矢島	茅島	長峰島	
22	1884	강화지도	信島	矢島	茅島	長峰島	
23	18C 중엽	해서경기해로도	信島	.	.	長峰島	
24	18C 후반	강화지도/지도	信島	矢島	茅島	.	
25	18C 후반	강화지도/8도군현도	信島	矢島	茅島	長峰島	
26	1785~1800	강화·교동부지도/팔도지도	信島	矢島	茅島	長峰島	
27	19C 초	강화·교동부지도/동국여도	信島	.	.	長峰島	
28	19C 중엽	강화지도/접역지도	信島	.	.	長峰島	
29	1860	대동여지도	信島	矢島	茅島	長峰島	



나. 도서별 자연 지명

1) 신도(信島)

가) 신도1리[九老地]

* 뒤뚱골

구로지 마을 입구의 지명으로 옛날에는 이곳에 아이, 어른 모두 대소변을 보던 곳이라 ‘뒤뚱골’이라 불렸는데, 변음되어 ‘뒤동골’로 부른다고 한다.

* 용의 부리

구로지 마을에 중선이 가장 많을 때는 10여 척이 있었다. 지역개발 사업으로 자가발전용 전주를 용의 부리에다 세웠는데 바로 전주 2개가 용의 눈에 세운 형국이어서 용이 아픔을 참지 못하고 움직이고 꿈틀거리면 마을에서 사고와 근심이 생겨 흉어(凶漁)도 되고 배도 많이 떠났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 선창구미

신도 북쪽 해안에 위치하며, 옛날에는 이곳에 배가 들어왔다고 한다.

- 우물

선창구미 산기슭에 있는 옛 우물인데, 이 우물은 수원이 좋아 항상 물이 넘쳐흘렀다. 마을에서도 이곳으로 빨래를 하러 다녔으며, 뱃사람들도 선창에 배를 대고 물도 싣고 빨래도 하던 곳이다. 이곳을 밤에 지나가면 빨래하는 소리와 여자의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여 우물 옆을 지날 때 웬지 머리가 쭈뼛해진다고 한다.

* 쑥개

마장(신도3리) 못미쳐 쑥 들어간 깊은 골짜기라 하여 ‘쑥개’라 부른다.

* 성지우물

구봉산 북쪽 중턱에 있는 우물이며, 물이 많이 나며 수질도 좋다. 일반 사람들은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애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이 마시고 100일 기도를 드리면 낳는다고 하여 ‘삼신(三神) 우물’이라고도 한다.

* 달래고개

마을 동북간으로 구봉산 줄기에 있는 고개이며, 달래를 캐서 넘어 다니는 고개라 하며, 이 고개를 넘으면 선창구미 우물이 있다.

* 방아다리 고개

구로지에서 고남리로 넘어가는 유일한 고개이며, 고갯마루에 성황당이 있었다. 이 고개를 넘으면서 성황당에 대한 불미스러운 짓을 하거나 돌이나 침 뱉는 것을 잊고 그대로 오가는 사람에게는 우락부락한 도깨비가 나타났다는 전설이 있다.

* 초장골

옛 중학교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풀이 무성하게 나는 곳으로 ‘초장골’이라 부른다. 옛날 국영목장으로 운영할 때 풀을 먹이던 초지로 보이며, 이곳에서는 현재도 기와 조각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말목장과 관련된 집터로 추측된다.

* 상여를

마을 앞산 쪽을 말한다. 이 마을에서 사람이 죽으면 상여(喪輿)가 모두 이곳으로 나갔다고 해서 부르는 이름이며, 이때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쪽을 바라보면 허탈한 마음이 들어 잠시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았다고 한다.

* 바가지우물

상여물산 밑에 있는 돌짬에서 물이 나는 우물이다. 규모가 바가지 정도의 작은 우물이지만 약수라 하여 길어다 먹었다.

* 먹염[信梧島]³⁵⁾

신도리 서쪽에 있는 무인도이다. 이곳 중앙에는 옛날 우물을 팠던 것처럼 큰 웅덩이 자리가 있는데 이곳에는 귀 달린 먹구렁이가 용이 되어 승천하려고 도를 닦던 곳이라고 전하며, 이 섬을 귀



|| 자료 || 신오도(구로지먹염)

달린 먹(검은)구렁이가 있던 섬이라 하여 ‘먹염’이라고 부르다가 1945년 해방 후 행정구역 변경으로 신도 먹염을 ‘신오도’라 부르고 있다.

나) 신도2리[皇南里]

* 게구지

고남리 마을 앞 선착장 뿌리의 지형이 바다의 ‘계’ 모습을 하고 있어 부르는 지형으로 ‘게구지’라고 부른다. 한편 갯가로 뻗은 곳이라는 의미의 ‘개곶’이 변음되었다고 추정되기도 한다.

* 통도리(바위)

선착장 옆에 있는 큰 바위로 본래 크고 둥근 모습이었으나 지금은 떼어내어 작아졌다. 본래 바위가 둥글다하여 ‘통돌’이라 불렸으나 연음되어 ‘통도리’라 부른다.

* 사람바위

선착장 서쪽에 있는 작은 장술에 서있는 바위가 사람과 비슷하다 하여 ‘사람바위’라 부른다. 고남리 마을에서 나는 연기가 사람바위 쪽으로 나가면 마을에서 불상사가 생긴다고 전하며, 마을에서 안산을 돌아 그쪽으로 가는 바람을 흥풍(凶風)이라 한다.

35) ‘염’은 섬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식생대가 있으며, 우물이 없는 바윗돌로 된 작은 섬을 말한다. ‘섬’은 우물과 마을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여’는 물이 들어오면 잠겼다가 물이 나가면 드러나는 바닷가 바위를 가리킨다(이세기, 『흔들리는 생명의 땅 섬』, 2015, 한겨레출판, 60~61쪽).

* 젓독골

신도바다역 선착장의 게구지를 돌아가면 현재 젓터골 갯벌을 막은 제방이 있다. 그 안쪽 산비탈에 좁은 평지가 되어 있고 농토가 있는 곳이 ‘젓터골’ 또는 ‘젓독골’이라 부른다. 옛날 이곳 어장에서 새우가 많이 잡힐 때 새우젓독을 저장하던 곳이었다 하여 ‘젓터골’, ‘젓독골’ 등으로 부른다.



|| 자료 || 젓독골

* 절골

구로지로 넘어가는 골짜기에 절이 있었기 때문에 부른다.

- 돌우물

절골 아래에 있는 넓은 바윗돌 옆에 수질과 수원이 좋은 우물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중들이 목욕을 하였다 하여 ‘중의 돌우물’이라 하였다.

* 큰 고남리

신도2리의 본 마을을 말하며, 400년 전 태씨(太氏)가 제일 먼저 들어와서 살았다고 전한다.

* 작은 고남리

고남리 큰 마을에서 서쪽 구로지로 넘어가는 고개에 70~80년 전 4~5가구가 살았던 마을을 작은 고남리라 하였다.

* 안말

고남리 큰 마을 서쪽에 있는 마을을 ‘안말’이라 부르며, 고남리 마을에서는 가장 먼저 정착해 살았던 곳이다.

* 마사골(馬舍谷)

조선시대 당시 신도 국영목장에 출입하는 말을 점검하던 곳으로 마장문(馬場門)이 있었고, 아전들이 머무르며 목장 일을 보던 마사(馬舍)가 있던 곳이라고 한다. 일명 ‘마장’ , ‘장문개밭’ 이라고 부른다.

* 마석골[馬死谷]

조선시대 신도 국영목장을 운영하였을 때 신도 목마장의 말이 모기 때문에 물려 죽었다 하여 ‘마사곡(馬死谷)’ 이라 부르다가 ‘마석골’로 변음되어 부른다. 신도초등학교가 있던 주위 마을이다.

* 남진골

고남리에서 신도3리인 평촌 혹은 염촌으로 넘어가는 산골짜기이다. 당골을 지나 남쪽으로 진 골짜기라 하여 ‘남진골’ 이라 한다.

* 당골

구봉산으로 올라가는 골짜기에 서낭당이 있어서 부르는 지명이며, 초등학교 뒤쪽에 있다.

* 큰 달구지(큰 달고지)

작은 달고지 부근에 달 모양을 하고 있었으며, 작은 달고지 바위보다 커서 ‘큰 달고지’ 라 부르다가 ‘큰 달구지’로 변음되어 부르고 있다.

* 작은 달구지(작은 달고지)

고남리에서 동쪽 신촌으로 내려가는 길 왼쪽 산 정상에 마치 달 모양으로 생긴 바위가 작다고 하여 ‘작은 달고지’로 부르다가 ‘작은 달구지’로 변음되었으며, 현재는 도서개발사업 도로개설 등의 자재로 써 모두 사라졌다.

* 머리얹은 바위

바위의 모습이 처녀가 족두리를 쓴 모습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며,

그 아래에 명당자리가 있다고 하나 일제강점기에 금광을 개발하여 금정(金井) 구덩이가 생기면서 구봉산 정기가 다 되었다고 전한다. ‘큰 달고지’ 와 ‘작은 달고지’ 중간 지점에 해당한다.

* 말바위(넓바위)

고남리와 신촌 사이에 큰 산 중턱에 있는 바위로서 형태가 말을 닮아 ‘말바위’ 라 부른다.

* 숯재(숯고개[炭峴])

신도2리에서 신도3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하며, 숯을 굽던 숯가마가 있었다. 원래는 ‘숯재’ 라 불렸으나 변음되어 ‘숯개’ 가 된 것이며, ‘큰 숯개’ 와 ‘작은 숯개’ 가 있었다.

* 금광굴

말바위 옆에 있으며, 일제강점기부터 금을 채광(採礦)했던 굴이다. 현재는 안보 차원에서 모두 폐쇄했다.

* 장구너미 고개

구로지에서 작은 고남리로 넘어오는 고개를 ‘장구너미 고개’ 라 불렀으며, 현재는 고개를 낮추었다. ‘작은 고남리 고개’ 가 “장구너미 고개”로 축약, 변음된 것이다.

다) 신도3리[鹽村, 坪村]

* 갯부(부)리³⁶⁾

갯부리산이 바다로 뻗은 산 뿌리에 해당한다. 하머리에 이어 주로 1970년대 선착장으로 이용했다. 현재도 선착장 대합실 건물이 남아 있다.

36) 부리나 뿌리는 대개 곶과 같이 육지부가 바다로 뻗어 나간 지형에 붙은 지명이다. 따라서 이곳은 대체로 배를 대기가 쉬워 선착장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이세기, 『앞 책』, 2015, 63쪽).

* 갯말(마을)

갯뿌리산 쪽에 있는 지명으로 5~6세대가 토담집을 짓고 살았으며, 조개류 채취로 생활하였다. 그리고, 선사시대의 조개더미(폐총)가 있었다고 증언한다.

* 언들고(구)지

고기를 잡기 위해 바다에 그물을 놓고 썰물에 고기를 잡는 수단이었던 ‘언들’ 이 있었다 하여 ‘언들고지’ 라 하였다.

* 능언리

옛날 어떤 벼슬아치가 죽어 이곳에 매장되었다고 하여 부른다거나 왕봉산이 능같이 보여서 부른다는 2가지 유래가 전한다.

* 하머리

복풍받이라 하여 ‘하머리’ 라 부르며, 1960년대까지 여객선인 통운환(通運丸)의 기항지로 사용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왕봉산 줄기가 ‘나비 같다’ 하여 ‘나방 아(蛾)’ 자를 써서 ‘아머리’ 라 부르다가 ‘하머리’ 가 되었다고 한다. || 자료 || 하모리 선착장(차학원 제공)



* 왕봉산

벗말 북쪽에 위치한 해발 122m의 산이다. 한편 전하는 바에 의하면 왕봉산은 박쥐형의 산세라고 한다. 옛날 어떤 사람이 이 산중턱에 묘를 쓰고 살만하게 되자 상석을 해 놓고 또 망주석을 세웠다. 그러나 망주석을 세운 후부터 살만하던 살림이 점점 가난해져 망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박쥐 형국의 머리 위에 망주석을 세우니 박쥐가 죽어 그 집도 망했다고 전한다.

- 온돌식

마을 북쪽에 해발 122m 높이의 왕봉산은 벗말의 주산이며, 이 산줄기에서 구들돌이 생산되었다. 매장량이 매우 많았으며, 일제강점

기부터 구들장(온돌석) 채석 허가를 내어 반출하였다. 돌의 질이 상당히 좋아 1950~60년대 많이 반출 되어 이곳 돈벌이가 잘되었다. 경인지역에서 호평을 받았으며, 그 당시 인천 월미도 제빙 공장터가 왕봉산 온돌석 판매장이었다고 전한다. 지금도 채석장 흔적이 있다.



|| 자료 || 구들장 채석장(왕봉산)

* 마성(馬城)

구봉산 북쪽 중턱부터 신도3리 왕봉산 북록까지 목장을 운영할 때 말이 넘나들지 못하도록 돌 또는 흙 등으로 쌓았던 것으로 이를 ‘마성(馬城)’이라 하며, 지금도 곳곳에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한다.

* 벌미

왕봉산 북서쪽 끝 뿌리이며, 지명 유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왕봉산 형이 나비형 혹은 박쥐형으로 전하고 있으며, 이 뿌리가 나비나 박쥐의 꼬리 모습이라 하여 부르는 지명으로 ‘벌미’란 곤충의 꼬리를 말한다고 한다. 다른 하나는 뿌리가 뾰족하고, 길게 뻗어나간 모양이 마치 뱀의 꼬리 같다고 하여 한자로 ‘사미(蛇尾)’라 하고, 이를 ‘배암미’ 뿌리라 부르다가 ‘배알뿌리’로 변음된 것이라 한다.

* 그른말

노인정이 있는 마을이며, 예로부터 토지가 비옥하던 곳으로 거름을 준 것 같이 곡식이 잘되어 ‘거름마을’이 ‘그른말’로 변음되어 부르는 것이다.

* 배주개 마루

벗마을에서 서쪽으로 오르면 째 솟아오른 것 같은 언덕마루가 있는

데, 이 높은 고개가 마치 배 부르다고 하여 ‘배주개 마루’ 라 한다.

* 수천내

마장으로 가는 중간에 있는 개울로서 구봉산 동쪽 큰 산줄기에서 흘러내리는 개울로 물이 흔하다 하여 ‘수천내(水川)’ 라 부른다.

* 가운데말

벗말 중앙 부분에 있는 마을로 앞에는 넓은 논들이 한눈에 보이고, 그 밖은 바다가 보이는 중심 마을이다.

- 우물

이 우물은 예로부터 풍흉을 점치는 우물이라 하였다. 물맛은 벗말에서 제일 좋을 뿐 아니라 여름에는 얼음같이 차고 겨울에는 김이 나는 우물이다. 이 우물이 이른 봄에 물이 줄거나 마르는 경우 그 해는 큰 흉년이 들고, 수위가 지상으로 올라오면 그 해는 무엇이든지 풍년이 된다고 한다.

* 구방죽

위해 갯벌에 쌓아 만든 방죽을 말하며, 1960년대 전후해 쌓았던 ‘신방죽’ 보다 먼저 쌓아 ‘구방죽’ 이라 한다.

* 신방죽

신도4리 피난민들이 ‘공생조합(共生組合)’ 을 만들고 10년 동안 등 짐으로 돌과 흙을 날라 축조한 구방죽 밖으로 길게 막은 제방을 말한다. 완공 후 농지까지 분배받아 주민에게 자활의 기반을 가져다준 사업장 방조제이다.



|| 자료 || 신방죽

* 마장(馬場)

구봉산 넘어 북쪽 해안 쪽에 있는 신도3리 소속 마을이다. 조선시

대 신도에 목장을 운영할 때 아전들이 머무르며 목장 일을 보던 곳이라 ‘마장’이라 부른다.

* **골안**

구봉산에서 벗말 뒷산으로 뻗어 나간 산줄기와 고두구지 쪽으로 뻗은 산줄기 사이 큰 골짜기를 말한다.

* **골안말**

골안에 형성된 끝마을이다.

* **벗개**

벗말 앞 논뜰 가운데 창고가 있는 쪽을 ‘벗개’라 부르는데, 예로부터 ‘염벗(鹽盆)’이 있었던 갯벌이라는 말이다.³⁷⁾

* **쇄매기**

소먹이 풀이 많아 소를 먹이던 곳이라 한다.

* **숯고개**

고남리에서 벗말로 바로 넘어 다니던 옛길이다. 옛날 이 고개에서 숯을 구웠다고 하여 ‘숯고개’ 또는 ‘숯재’라고도 한다. 이 고개는 해발 108m로서 ‘고남리 마루턱’이라고도 부른다.

* **성황당**

마을 정남쪽에 있으며, 이를 ‘당재’라 한다. 그리고 천주교 옆에도 윗당, 아랫당 2곳이 있어 일제강점기까지도 소나 돼지를 잡고

37) ‘벗’이 들어가는 지명은 소금을 생산하던 곳이다. 서해안의 경우 조선시대에 갯벌에서 함수(鹹水)를 만들고, 그 함수를 가마솥(소금 굽는 그릇, 盆)에 넣은 다음 불을 때고 줄여 소금을 만들었다. 이때 소금을 만드는 가마솥을 ‘염벗’. 한자는 ‘염분(鹽盆)’이라 한다. 서해안은 갯벌이 발달한 곳이었기 때문에 제염 과정에서 바닷물(海水)을 끓였던(直煮) 염벗이 많이 있었으며, ‘벗’이 들어간 지명이 많다. 다만 ‘벗’을 활용한 지명은 염벗이 있었던 곳을 의미하는 ‘염벗터’ 이외에 ‘염촌’, ‘벗말’ 등이 있다. 이외 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갯벌을 중심으로 부르는 지명이다.

당제를 지냈던 곳이며, 보통 음력 정월(1월) 초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당굿을 하였다. 해방 후 교회가 들어오면서 당제는 없어졌으나 간혹 개인들이 당제를 지내는 경우도 있다.

* 금광굴

구봉산 줄기 동쪽부터 고두구지 철탑까지 금광굴이 있었다. 일제 강점기부터 해방 후까지 계속 채광하였으며, 일제강점기 때는 인부가 약 1,000명이 있었다고 하나 불명확하다. 그러나 이 당시 식사를 제공했던 분들은 중언을 통해 알 수 있다.



|| 자료 || 금광굴(폐쇄)

* 웬돌구지(원들곳지)

어장으로 옛날에 웬돌(살의 일종)을 매던 곳으로 ‘웬돌구지’ 를 ‘원들고지’ 라 부른다.

* 모기네 마루터

배주개 마루터에서 마장으로 내려오는 곳인데, 이곳은 명당자리라 하여 자손들이 잘 살게 되어 비석을 세웠다. 그러나 잘 살던 후손들의 가세가 기울었는데, 이유는 모기네 마루터는 산세가 약한 곳이었는데 여기에 크고 무거운 비석을 세우니 설상가상 산세가 죽어 살림도 줄어들고 끝내는 망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 옥굴

골이 길고 수원이 좋아서 벼가 잘된다거나 땅이 기름지다는 뜻이며, 현재도 밭과 집터도 남아 있다.

라) 신도4리[新村]

* 장오리

4리에서 북동쪽으로 약 500m 거리에 있는 구봉산의 줄기 뿌리로서 4리와 3리의 경계 해안이다. 옛날 영종도에서 온 노인이 해안에서 낚시와 밭을 경작하고 살았다고 하며, 이때 노인은 머리에 상투를 틀고 있어 ‘장오리 할아버지’라 불렸다는데 여기서 장오리가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 알봉산

구봉산 줄기가 동쪽으로 뻗어 산봉우리가 된 곳으로 이를 ‘알봉산’이라 한다. 일제강점기 때에는 이곳에서 금광을 하던 산으로 일명 ‘똥산’이라 부른다.

* 솟바리골

신도4리 앞쪽 바다를 ‘솟바리골’이라 하며, 이곳은 굴이 많이 생산되던 갯벌이다. 고두구지에서 솟바리 바위까지 금광 줄기가 있었는데 금맥이 솟바리골 물속으로 들어가 폐광되었다고 전한다.

2) 시도(矢島)

가) 시도리[설섬]

* 개질뿌리

시도 북쪽 수기산에서 동쪽으로 뻗어나간 개질산 뿌리로서 이곳에는 해초의 일종인 개잘풀(바다풀)이 많이 나는 곳으로 이 풀은 식용으로도 사용한다. 개잘풀이란 어원이 개질로 변하여 개질산, 개질뿌리 등으로 부른다. 다른 유래로는 한의학에서 수기는 사람의 음경이라 하는데, 개질뿌리는 마치 음경과 같은 형태라 하여 수기뿌리라 부르다가 개잘뿌리로 부른다고 한다.

* 오막골

배터골에 많은 배가 들어오면 어물 거래를 하거나 누룩으로 빚은 막 걸리로 뱃사람들의 시장기를 가셔주고, 홍도 돋아주며 장사를 하던 어막(魚幕)이 있던 곳의 지명이 오막골로 변음된 것이다.

* 배터골

현재는 시도염전이 있으며, 염전이 되기 전에는 바닷물이 들어오던 곳으로 U자형으로 만곡(灣曲)을 이루고 있는 지형에 배가 닿았다하여 배터골이라고 부른다.

* 길나드리

동쪽 끝마을 해변가의 지명이다. 옛날에는 모든 어선들이 나가거나 들어올 때 사람들이 이곳으로 출입했다. 이곳에는 장승이 서있어 출입할 때 장승에 대하여 무사고와 만선을 빌었으며, 옛날에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장승이 있는 곳이 마을 출입구였다고 한다.

* 용머리

산뿌리가 용의 머리형이라 하여 부르는 지명으로 矢島 농협 건물 뒷 산뿌리를 말한다.

* 모테

용머리에서 농협 쪽으로 돌아오는 산모퉁이를 말한다. 모테는 모퉁이가 축약, 변음된 것이다.

* 살막구지

용머리와 맹꽁이장수리 중간 지점 장술의 지명이다. 이 섬에서는 처음으로 살을 맷던 갯골이 있는 살터이며, 살을 매고 지키면서 살던 살막이 있던 것이다. 이 살터로 하여금 살섬이라는 지명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 맹꽁이 장수리

검은 바윗돌이 마치 맹꽁이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 부르는 지명으로 가골과 살막구지 사이에 있다.

* 가골

옛날 민가가 있던 마을 지명이라 하여 가골(家谷)이라 불렀으며, 현재는 큰 마을로 이사를 하여 폐촌이 되었다.

- 나루

옛날 시도와 신도 사이를 왕래하던 나루터이다. 간조에는 돌다리로 건너다니고, 물이 들어오면 나룻배를 타고 건너다니던 유일한 나루터였다.

* 넉바위

딴산 동쪽 뿌리에 있는 바위로 평평한 바위이다. 옛날에는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나, 또는 풍랑으로 익사된 선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하여 이 바위 위에서 굿을 하였다 하여 넋바위라 한다.

* 늦은 구지

늦바람을 많이 타는 곳이라는 지명으로 옛날에는 고기와 새우들을 잡아 말리던 곳으로 사람이 살던 시도의 가장 남쪽 끝부분에 있는 마을 지명이기도 하다.

* 남부리

시도의 가장 남쪽 뿌리가 남부리로 축약 변음되어 부르는 지명이다. 이곳 산뿌리에는 시도에는 자라지 않고 강화도에서만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곳에 번식되는 이유는 강화도에서 이곳을 왕래하는 동물의 배설물에 의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한다. 한편 난초도 이곳에서 번식하고 있어 난 뿌리라고도 부른다.

* 먹염(시오도)

검은 바위섬라는 뜻으로 작은 시도 주변에서는 가장 큰 섬이다. 시도

에는 한자로 오도(梧島)라고 표기되고 있다. 오(梧)자는 ‘벽오동나무 오’ 이외에 ‘버틸 오’, ‘큰 오’의 뜻도 있어 남쪽에서 시도를 지켜주는 벼팀목 역할을 하는 섬이라 하여 ‘시오도(矢梧島)라고 부른다. 참고하여 먹염 옆에 신도 쪽의 무인도는 신오도(信梧島)라 부른다.



|| 자료 || 먹염(시오도)

* 장골

장골앞 바다는 노름풀 어장이라 하여 어선이 많이 모이던 곳이다. 그러나 파도가 세어 배사고가 자주 일어났는데, 이때 사고로 익사한 선원들이 장골해변으로 밀려 들어 송장골이라 부르다가 지금은 장골[葬谷]로 부른다.

* 귀인돌

원래가 고인돌인데 귀인돌로 변음된 것으로 큰 바윗돌 밑에 받힘돌이 있는데 사람이 돌을 고인 것 같다 하여 부르고 있다.

* 노루메기

현재 생활문화센터 뒤쪽인 당재 너머에 있는 산줄기로서 선착장 까지 길게 뻗은 모습이 노루목 같다 하여 부르는 지명이다. 이 곳은 선착장으로 쓰던 곳이며, 시도에서 처음으로 마을이 있던 곳이기도 하다.



|| 자료 || 노루메기(건물이 선착장 매표소자리)

* 노적봉

노루메기 선착장 매표소 뒤에 있는 동산으로 옛날부터 연육이 되었

던 동산인데 어느 때부터인지 파도에 노적봉이 끊어졌기 때문에 마을에 흉사가 많이 생겼다 한다. 현재는 다시 연육되었으며 곡식을 쌓아 놓은 모습과 같다 하여 노적봉이라 부른다.

* 구역뜰

구역뜰이란 곳은 현재 시도해수욕장이 있던 안쪽 지역의 지명으로 이 곳은 옛날부터 논과 밭 등 농경지가 있던 곳이다. 이 곳 농경지는 모두 목마장에 속한 국유지였으며, 주민들이 부역을 나와 농경지를 경작하였다. 옛날 부역을 나오던 뜰이라 하여 부역뜰이 변음되어 구역뜰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 수기

수기는 오막골 북쪽으로 개질산 줄기를 넘어가면 모래사장이 있는 해안가이며, 가족 단위 유원지로써 적지이다. 2004년에 드라마 풀하우스의 촬영지로 유명하다. 1970년에 중앙박물관에서 발굴해 빗살무늬토기 등 신석기 시대 유물이 출토됐던 시도패총이 있다.

- 논골

시도(矢島) 북쪽 끝인 수기산 중턱에 있는 작은 논배미들이 있는 골짜끼를 말하는 것으로 옛날부터 있는 오랜 논들이다. 옛날 이씨들이 처음 마을을 형성한 곳이라 한다.

* 제번여

송여 옆에 있는 바위로서 파도칠 때마다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죽은 송 여인의 넋을 위로하는 소리처럼 들린다고 하여 제번여라고 부른다.



|| 자료 || 수기 해변

* 송여

송씨 성을 가진 여인이 이곳으로 굴 따러 갔다 죽었다 하여 송여(宋輿)라고 부르는 바위이다. 이 바위는 원래 만조에도 물에 묻히지 않던 바위인데, 어느 때인지 송 여인이 다른 여인들과 같이 굴을 따다가 모두 물에 빠져 죽었다 한다.

* 이무기 두명

수기 장술 앞에 있는 갯벌 두명이다. 이 두명에 넓은 갯굴이 나 있는데 시도 남쪽 늦은구지 앞에 있는 멱염(梧島)에 있는 굴하고 통한다는 것으로 이무기(龍)가 왕래하는 굴이라고 전한다.

* 거북돌

현재는 노루메기 선착장에 있던 거북모양 바위이다. 바윗돌이 머리는 모도, 꼬리는 시도로 향하고 있어, 모도에서 물어다 먹고 시도 쪽으로 배출을 하여 모도는 가난하여지고 살섬은 잘 살게 된다는 전설이 담긴 돌이다.

* 안두산

마을 왼쪽 동끌마을 뒷산 줄기의 지명이다. 이 안두산 끝 해변에 길나드리가 있다.

* 부엉낭타래

옛날에는 이곳에 부엉이가 서식하고 뱀이 많았던 곳이며, 상당히 후미진 곳이다. 한편부엉이가 집을 짓고 새끼를 번식하던 외딴 낭떠러지라는 지명이다.

* 딴 산

늦은구지 동쪽에 따로 떨어져 있다 하여 딴 산이라고 부른다고 전한다. 이 산에는 옛날부터 죽은 말을 묻었다 하여 ‘마(馬) 산소’라고도 부른다. 옛날 시도 목장 당시 죽은 말을 이 산에 묻어서 유래한 것이다.

* **상아골**

옛날부터 아이들이 죽으면 묻었던 아이들의 공동묘지로 상아골(喪兒谷)이라 부른다. 상아골은 외진 곳이었다.

* **항아지골**

골짜기 모양이 항아리 같다고 하여 항아리골로 부르다가 변음되어 항아지골이 되었다.

* **범정골**

상돌깨 동북간에 있는 후미진 곳을 말한다.

* **서래(西來)**

옛날 서쪽에 있던 노루매기 골짜기에서 이곳으로 이사를 와서 산다고 하여 서래라고 불렀다 한다.

* **갈밭**

현 북도지서 옆에 있는 마을 지명인데 옛날 이곳까지 바닷물이 들어올 때에 갈풀이 많이 나왔다 하여 갈밭이라 부른다.

* **상돌깨**

옛날부터 묘 앞에 상석(床石)이 있던 묘지 부근의 지명이다. 상석(상돌)까지 있었던 곳으로 보아 부유한 집의 묘지였다. 그러나 오랫동안 묘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고총이 되었다. 그후 묘지 옆이 쓰레기장이 되면서 묘와 상석이 묻혀 상석이 있는 묘지 부근이라는 뜻으로 부르는 지명이다. 전언에 의하면 이 묘지는 시도의 시주 성씨로서 강화노씨(江華魯氏)의 묘라고 전해진다.

* **검배바위**

이무기 두명 옆에 있는 검은 바위의 이름이다.

* 까치곱때

큰 당산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곳의 지명으로 이곳의 나무 그늘에 나는 풀이름으로 까치와 고들빼기를 까치곱때라고 줄여 부르는 이름이다.

3) 모도(茅島)

가) 모도리(띠염)

* 가무리 부리

모도 선착장에서 북쪽으로 돌아가면 산뿌리 안쪽으로 갯벌이 있다. 이 갯벌에서 가무락조개가 난다고 하여 가무리 부(뿌)리라고 한다. 이 갯벌은 해태양식장으로도 적지이다.

* 박주가리

모도 남쪽 끝에 있는 산(안산)으로 박쥐 모양 같이 생기고, 가장 뒤쪽에는 곡식을 쌓은 더미가 있는 곳 같다는 지명으로 박주가리산, 박주기산이라 한다.

- 산

모도 남쪽 끝에 있는 산으로(해발 38m)마을 안산(案山)이라고도 한다.

- 뿌리

박주기산(안산) 뿌리로서 동쪽으로 뻗어 나간 산뿌리를 말한다. 이 산뿌리는 시도 쪽을 향하고 있어 선착장 뿌리와 함께 마을을 감싸고 있는 모습이다.



|| 자료 || 박주기해안

* 배미끼미³⁸⁾

모도 서남쪽에 있는 해안지역으로 초등학교에서 남쪽 너머에 있는 곳이다. 산 밑으로는 좁은 뱉퇘기가 있는 곳이고, 모래사장은 여름에 해수욕도 할 수 있는 조용한 해변으로 배를 댈 수 있는 장소이다.



|| 자료 || 배미끼미 해안

* 먼데끼미³⁹⁾

모도 서남쪽 해안에 있는 지명으로 모래와 자갈이 있는 좁은 골짜기 지명이다.

* 둘성구지

섬 서쪽 해안에 있는 지명으로 모래사장이 있고 좀 오목하게 산 쪽으로 들어간 좁은 장수리 지명이다.

* 뾰족바위

섬 서쪽 해안에 있는 뾰족한 바위로 멀곳과 마주 보고 있다.

* 서두무리

모도 북쪽 끝지역으로 강화도와 마주보고 있는 곳이다. 이곳 가무래기산 골재기에서 나는 샘물이 바위 틈새에서 나온다 하여 새틈물로 부르다가 서두무리로 변음되어 부른다고 한다.

38) ‘꼽’, ‘금’, ‘낌’은 우뚝하게 들어간 후미진 곳을 말하는 해안 지명을 의미하며, 언’, ‘얼’ 보다 작은 만(灣)의 형태를 말한다(이세기, 『앞 책』, 2015, 65). 여기서는 ‘꼽’이 ‘끼미’로 연음된 것 같다. 섬마다 동일한 접미어를 가진 지명들이 있어 참고 할 만하다.

39) ‘꾸미’, ‘끼미’는 섬에서 골짜기를 가리킬 때 쓰는 이름이다(이세기, 『앞 책』, 2015, 63쪽).

* 가무래기산

북쪽 끝에 있는 산으로(해발 76m) 강화도와 마주 보는 산이다. 가무락조개가 나는 쪽의 산이름이다.

* 모도 간척지

모도마을과 초등학교 사이에 만(灣) 지형의 갯벌을 1986년 정부 지원에 의해 제방을 축조하였다. 그 결과 약 2만 여평의 간척지 논이 되어 모도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큰 공사일 뿐만 아니라 마침내 모도에도 쌀을 생산하는 논이 마을 앞에 펼쳐진 것이다.



|| 자료 || 모도 간척지

* 모도 동안

모도와 시도 사이에 있는 갯골 어장을 예부터 모도동안 혹은 곳배 웬돌끼미라 불렀다. 이 어장에는 곳배를 고정시켜 놓고 긴 막대기(수해, 암해)를 배 양쪽에 가로 장치를 하고 그물을 달았다. 썰물, 밀물 하루에 네 번씩 물때를 보며 주로 젓새우를 잡았다. 1980년 대까지도 새우잡이, 실치, 곤쟁이, 꽃게 등을 잡았으며, 성어기 때는 곳배가 17척이나 이 갯골에서 어업을 하였다. 이 배는 주로 선장과 화장 2명이 탔다.

* 아랫말

선착장 가까이 있는 마을을 아랫마을이라고 한다.

* 윗말

서쪽편으로 산 밑에 있는 마을을 윗마을이라고 한다.

* 골안말

북쪽마을을 골안마을이라고 부른다.

* 띠염산(모도산)

섬 중앙에 있으며, 띠염산(해발 94.8m) 또는 “원두막 꼭대기산”이라고도 부른다고 한다. 원두막 꼭대기란 모도에서 제일 높은 산을 의미한다.

4) 장봉도(長峰島)⁴⁰⁾

가) 장봉1리(독바위[甕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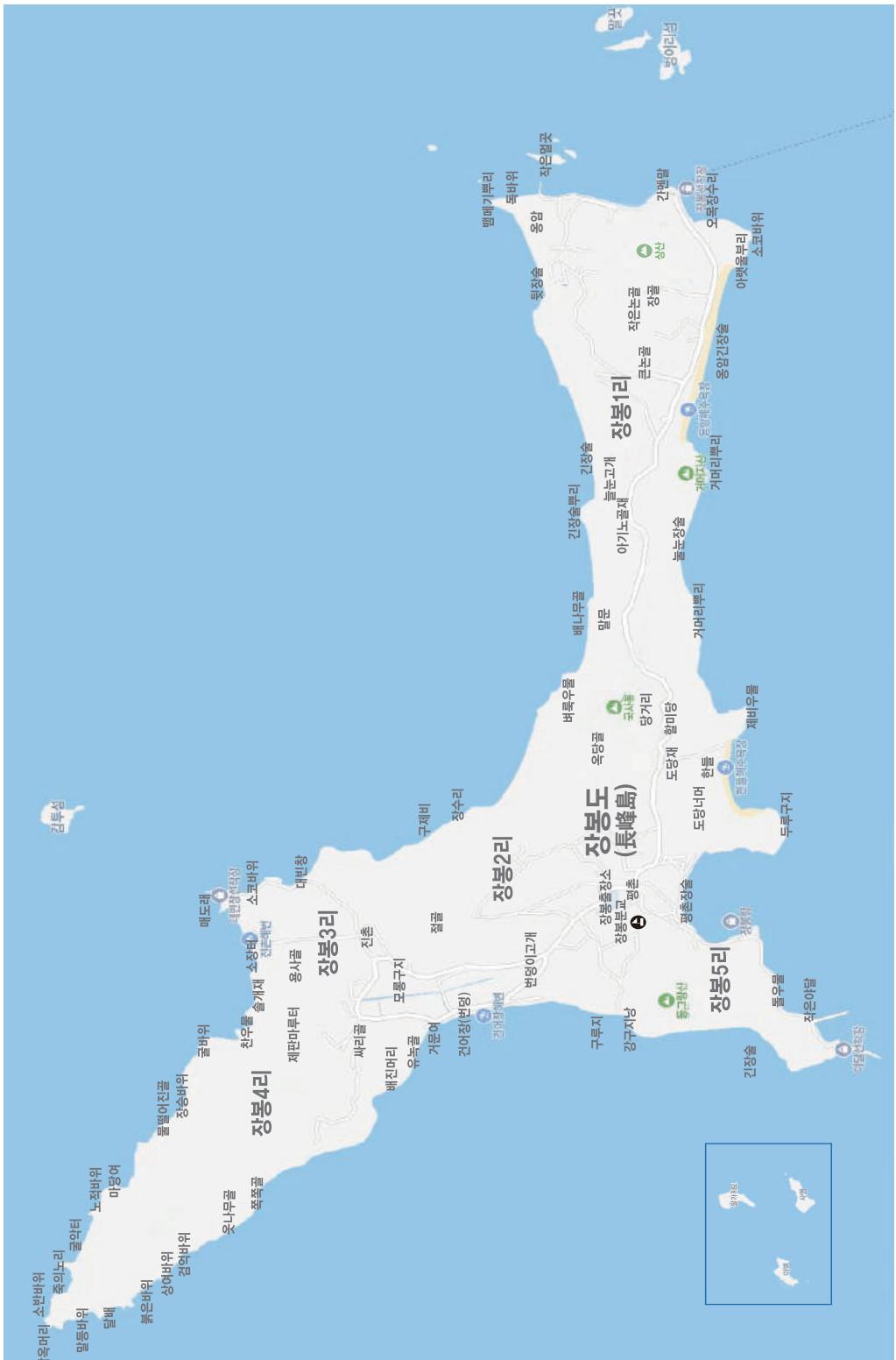
* 독바위, 옹암(甕岩)

‘독바위’란 마치 바위가 독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 일명 ‘옹암’이라 부르며, 바위 일대의 마을 이름으로 쓰인다. 실제 ‘독바위’는 옹암마을 해안가에 위치하며, 현재는 독 모양이 아닌 종 모양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곳배를 운영하던 당시 닻 대용으로 독바위를 빼어 ‘고’(쇠닻 이전 돌을 사용)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독바위 마을은 동쪽 끝 해안에 위치하며, 19세기 말까지 말을 기르던 국영목장(國營牧場) 지대였다. 또한 6·25 당시 피란민이 들어와 살던 곳으로 난독바위라 부르기도 했으며, 근래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주도한 포구로서 많은 어선들이 드나들며 기적소리가 끊이지 않아 장봉8경 중 ‘옹암기적(甕岩汽笛)’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해안가의 독바위가 지명으로 사용된 것이다.

* 멀곶

옹암과 모도 사이에 있는 작은 무인도로서 바다 가운데 있다 하여 가까워도 먼 곳과 같다 하여 멀곶이라 하였다고 한다. 지금은 멀곶과 구름다리로 연결되어 있어 통행이 가능하다.

40) 장봉도의 자연 지명에 대한 한자어는 김영근 전 장봉출장소장(장봉3리)이 제공한 장봉도 지도 필사본에 기록된 것임을 밝혀두며, 지도를 제공해 주신에 감사드린다.



* 뱀메기뿌리

독바위 동북쪽 뿌리로서 배의 이물이나 고물같이 생겨 부르는 지명이라 한다.

* 뒷장술

뱀메기뿌리를 돌아 연결된 북쪽의 긴 해안가 모래사장이다. 독바위 뒤에 있다 하여 부르는 이름이다.

* 배아미산(鼈哦微山)

장군의 깃발같이 휘날리는 모습의 산이라 하여 부르는데, 정확한 한자와 의미는 알 수 없다.[참고, 鼈(땅이름 배), 哟(읊조릴 아), 微(작을 미)]

* 긴장술(長樟述)

뒷장술과 서쪽으로 연결된 해안가의 긴 모래사장을 말한다.

* 배나무고지(碩擎茂墓址)

말문 동쪽 해안의 빨인데, 빨이 주걱턱처럼 턱이 쳐서 물때에 따라 찰풀이 무성할 때가 있는가 하면 찰풀이 말라 버린다. ‘배나무골’이라고도 한다.[참고, 碩(주걱턱 배), 擩(잡을 나), 茂(무성할 무), 墓(짚 고=마른 풀)]

* 범등골(帆登谷)

골짜기에 나무가 우뚝우뚝 서 있다 하여 한자로 범등골이라 한다.[참고, 帆(뗏목 범), 登(오를 등)]

* 아구노골(棗埧櫓(櫓)谷)

물가의 방죽에 나무가 무성한 것이 방패와 같이 견고하다는 뜻과 독바위 지역에서는 ‘논 면적이 작은 골짜기’ 라 하여 ‘아기 논골’이라고도 한다. 정확한 한자는 알 수 없다.[참고, 棗(무성할 아), 埠(방죽 구), 櫓(=櫓, 방패 로)]

* 아구노골(阿懼麓谷)

늘륜 고개 북쪽에 있는 후미진 골짜기로서 접근하기 두려워 부르는 이름이다.[참고, 阿(언덕 아), 懼(두려워할 구), 麓(산기슭 록)]

* 늘륜(嶧嵒) 고개

높고 험준한 고개를 이른다는 율륜 고개가 변음되어 늘륜이 되었다. 또한 이 고개 밑에 두명이 있고, 논에 물이 흔하다 하여 ‘늘논’이라고 한다.[참고, 嶧(가파를 율), 嵘(산이름 룬)]

* 큰 논골

옹암해수욕장이 있는 마을로 독바위 지역에서 논 면적이 제일 넓은 곳으로 과거 이곳 마을이 제일 컸었다고 한다.

* 작은 논골

큰 논골 동쪽 마을로 큰 논골 다음으로 논 면적이 넓다하여 부르는 이름이다.

* 심박골(深博谷)

산이 양쪽으로 높아 골짜기가 길고 넓다 하여 부르는 지명이다. 한자로는 심박곡(深博谷)으로 표기한다.[참고, 深(깊을 심), 博(넓을 박)]

* 한증막(汗蒸幕) 터

늘륜 해변 큰 산 밑에 한증막이 있었기 때문에 붙은 지명이다.

* 아랫몰 뿌리

장골 아랫마을 소코바위 서쪽 산뿌리이다. ‘몰’은 ‘마을’이 축음되어 변음된 것이다.

* 옹암 긴장술

큰 논골 앞 해안으로 옹암에서 제일 큰 해수욕장이다. 과거 모래

바람이 불어 방사와 방풍을 위한 소나무를 심었으며, 현재 해안에 있는 송림이 100년의 역사를 말한다. 그리고 해수욕장 송림 사이에 주로 1980년대 교육활동을 했던 옹암분교가 있었다.



|| 자료 || 긴장술(옹암 해변, 용진군청제공)

* 간뎃말

독바위 남쪽 산기슭에 있던 가운데 마을이 축약된 것이며, 폐촌되었다.

* 오목장술

소코바위 동쪽으로 오목하게 들어간 해안을 이른다.

* 소코바위

바위 모양이 소의 코같이 생겨서 부르는 바위이며, 사진 촬영 장소로 유명하다.

* 말문(馬門) 고개

옹암 목장의 출입문으로 국사봉 남쪽에서 북쪽 해안까지 석성을 쌓아 말들이 서쪽 농경지로 넘지 못하게 하고 이 말문 고개에서 육지로 반출과 반입을 했다. 한자로 마문현(馬門峴)이라 쓴다.



|| 자료 || 말문고개

* 거무지(柜茂輶)

떡갈나무가 많아 붙은 지명이라고 하나 불분명하다.[참고, 柜(느티나무 거), 茂(무성할 무), 輶(굴대머리 지)]

- 장사바위

거무지의 검은 바위 중에 특별히 흰색 바위인데 이곳에 옛날 어떤 장사가 걸어간 발자국이 선명하다고 한다.

* 남생이 우물

장골 위쪽에 있는 우물로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아 남생이가 와서 살았다고 하여 부르는 이름이다.

* 장골(奘谷)

상산 서쪽 골짜기로 골이 커서 장골이라 한다.[참고, 僧(클 장)]

나) 장봉2리[坪村]

* 국사봉(國師峰)

산 정상에 높이 1m의 석축 단이 축조되어 있었고, 연대 미상의 자기, 기와, 토기 조각 등이 출토되어 건물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현재는 알 수 없다. 제단으로 추측되며, 후에 무당과 주민들이 기도하는 장소가 되었다.

* 벼룩우물(蚤井)

우물 위에 물벼룩이 떠다닌다 하여 붙은 명칭이다.[참고, 蚤(벼룩 조)]

* 활미당[滑尾堂]

끝 당으로 가는 언덕길이 경사가 급해 잘 미끄러진다는(滑) 고개의 이름인 ‘활미당’이 변음되어 활미당이라 부른다. 또한 ‘활마이당(姑堂)’이라 불리는 것으로 보아 다른 전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참고, 滑(미끄러울 활), 尾(꼬리 미)]

* 진녹골(蓁麓谷)

골짜기에 원추리 풀이 많을 뿐만 아니라 화초도 있어 각종 풀이 무성

하다고 하여 부르는 이름이다.[참고, 粿(우거질 진), 麓(산기슭 록)]

* 간데 당

국사봉 중턱에 있던 당으로 윗 당과 끝 당의 중간이다.

* 중뜰

평촌 중간에 있는 논들을 이르는 지명이다.

* 고개밀들

번등 고개 밑에 있는 평촌 논들이다.

* 행정개울(行程川)

옹암 쪽으로 가는 평촌 동쪽 개울의 이름이다. 개울이 이정표 구실을 해서 ‘행정천’으로 부른다.[참고, 行(갈 행), 程(한도 정, = 길, 경로)]

* 구재(口才) 마루터

평평하고 잔디가 있는 고개마루인데, 이곳에서 나뭇꾼들이 지게를 벗어 놓고 노래를 부르고 재주를 겨루던 곳이라고 한다.[참고, 口(입 구), 才(재주 재)]

* 옥당모리(獄塘模里)

감옥 터가 있던 마을로서 국사봉 서쪽에 있다.[참고, 獄(감옥 옥), 塘(옥이름 당), 模(법 모, 본뜰 모)]

* 당제 터

풍어를 기원하고 무사고를 비는 제사를 지내던 터이다.

* 당거리게

당제를 지내던 당의 길가로 옛날에는 가마를 타거나 상여도 당(堂) 부근의 길을 지나다니지 못했다.

* 절터골(寺址谷)

절이 있던 곳으로 추정되며, 공동묘지 아래 산 쪽이라고 한다. 한때 밭을 경작하였으며, 깊이 파면 기와 조각이 나온다고 한다.



|| 자료 || 절터골

다) 장봉3리[鎮村]

* 대빈창(待賓唱)

진촌 뒤 비석거리를 너머 해안을 대빈창이라 부르는데 강화도와 교동통어영을 왕래하는 배들이 기항하던 포구였다. 군대 주둔에 필요한 창고가 있어서 붙은 명칭이라고 하는데 장봉진과 관련된 여관이 있던 곳으로 보인다. 다른 명칭으로는 대병창이라고도 한다.[참고, 待(기다릴 대), 賓(손님 빈), 唱(부를 창)]



|| 자료 || 대빈창



|| 자료 || 비석거리

* 비석거리

진촌에서 대빈창으로 넘어가는 쟁등을 비석거리라 부르는데, 과거에는 이곳에 장봉진장을 역임했던 만호겸감목관선정비(萬戶兼監牧官善政碑)가 2~3개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없다.

* 소재(訴裁)

송사를 판결하던 곳으로 진촌 뒤에 있다.[참고, 訴(호소할 소), 裁(마를 재)]

* 구두지(龜頭地)

엎드리고 있는 거북이가 머리를 든 형태의 바위로 강구지 뿌리 서쪽에 있다.[참고, 龜(거북 구), 頭(머리 두)]

* 매도래(枚渡來)

대빈창 서쪽 부리를 이르는 지명이다. 썰물 때면 뺄 위로 돌다리가 있어 이를 이용하여 건넜는데 매는 ‘돌’, 도래는 ‘건너온다’는 도래(渡來)의 의미로 돌을 딛고 건너온다는 뜻이라고 하나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부리를 감싸고 있는 산을 매두랑이(枚逗痕迤) 산이라 부른다. [참고, 枚(낱 매), 逗(머무를 두), 痕(높을 랑), 迤(비스듬할 이)]

* 당산(堂山)

진촌 뒷산으로 옛날 연중 큰 행사로 온 마을이 정월 초순에 소나 꽈지를 잡고 정성을 드려 풍년, 풍어, 장수, 무병을 기원하던 서낭당에 큰 제를 올리던 산이다.



|| 자료 || 당산(장봉3리)

* 길청문

수군진영이 있을 때 남쪽에서 진 청사로 들어오는 정문을 이른다. 진청문(鎮廳門)이 길청문으로 변음되었다.

* 절터골(寺址谷) 마루

진촌 동쪽 마루터기다. 이 고개를 넘으면 평촌 절터골이 나온다 해서 부르는 지명이다.

* 벼드나무깨 학방(學房)

옛 한문 서당을 이른다. ‘깨’는 근처, 부근의 뜻이며, 벼드나무 부근에 학방 즉 서당이 있었다는 뜻이다.

라) 장동4리[杻洞]

* 모룡구지

진촌과 싸리골 사이의 산모퉁이로 옛날 갯골이 있었다고 한다. 원래는 ‘모룡곶’으로 ‘모룡’은 ‘산모퉁이가 휘어 돌아간 곳’을 의미한다. 또 ‘곶(串)’은 ‘고지’로 연음된 후 ‘구지’로 변음되었다.

* 번덩[繁洞]

섬의 가장 중요한 어장으로 이 어장 때문에 마을 살림이 번창해졌다는 뜻으로 ‘번동’이라 불렀는데 변음된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한때 새우 등 많은 어물을 잡아오면 해변에서 말리는 대표적인 곳이었다. 일명 ‘건어장(乾魚場)’이라고 부르며, 이 용어가 널리 알려져 있다.[참고, 繁(번성할 번), 洞(고을 동)]



|| 자료 || 건어장(번덩)

* 용사골

당산 서쪽의 골짜기로 뱀이 많았던 부르는 지명이다.

* 제판(齊坂)터

산 언덕이 평평하고 고르다 하여 붙은 지명이라고 한다.[참고, 齊(가지런할 제)/제계할 재, 坂(언덕 판)]

* 유노골(流路谷)

골짜기에서 물이 흐르는데 그 바닥이 딱딱하게 길처럼 되어 있어 이런 지명이 붙었다고 한다. 한자로 유로곡이라 한다.

* 배진머리(鰯陳頭)

유노골과 싸리골 중간 지역이다.[참고, 鰯(장군 배, 술잔 배), 陳(베풀 진, 둑을 진), 頭(머리 두)]

* 쪽쪽골

골이 양쪽으로 갈라진 곳으로 이곳에서 소쩍새가 잘 운다고 하여 이와 같은 지명이 붙었다.

* 옷나무골

옻나무가 많아 부른 이름이다.

* 검은바위(黑岩)

다른 바위보다 색이 검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 상여바위

바위 모양이 상여처럼 생겼다 해서 붙은 바위 이름이다.

* 빨은바위(紅岩)

바위가 유달리 빛어서 붙은 이름이다.

* 달배

바위가 달팽이 같다 해서 부르는 바위로 큰 봉 남쪽에 있다.

* 말등바위

바위가 엎드려 있는 말의 잔등 같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 큰봉

진등과 감악머리산 중간에 있는 산이다.

* 감악머리(甘嶽頭)

봉화산 서쪽으로 긴 능선에 이은 높은 봉우리를 이른다. 해발 141m의 이 봉우리를 오늘날 ‘큰 봉’이라 부르는데 옛날에는 ‘감악’이라고 불렀다. ‘달 감(甘)’에 ‘큰산 악(嶽)’을 쓴다. 또 ‘감’에는 ‘상쾌하다’는 뜻풀이도 있어 산의 위엄과 함께 밝고 힘찬 모습을 형용해서 불린 명칭으로 보인다. 감악머리는 감악산 끝머리라는 의미이다.

* 소반바위(槃岩)

감악머리 해변에 있는 바위로 소반 형태여서 붙은 이름이다. 서반 바위라고도 한다.[참고, 檳(쟁반 반)]

* 죽의노리

굴막터 서쪽 지역이다. 물이 썰어도 바위가 잘 드러나지 않아 굴의 생장이 나쁜 까닭에 죽어버린 굴이 있다고 하여 부르는 지명이다.

* 굴막터

막을 세우고 물때에 따라 굴을 따던 곳을 이른다.

* 마당여(場譽)

해안에 마당같이 넓은 바위가 있어 붙은 이름이다.[참고, 場(마당장), 譽(독 있는 돌 여)]

* 물떨어지는골(水零谷)

마당여 지나 물이 항상 똑똑 떨어지는 골이라 하여 붙은 지명이다.[참고, 水(물 수), 零(떨어질 령, 영)]

* 긴골

골이 길다고 해서 붙은 지명이다. 장승바위 서쪽에 있다.

* 봉화(烽火)臺

서북쪽 산 정상에 봉화를 놓던 봉화대가 있다.

* 봉화臺 장술

봉화대 서북쪽에 있는 해안가 모래둑이다.

* 굴바위

찬우물 서쪽 바위가 길게 뻗어 굴 번식이 잘 돼 부르는 바위 이름이다. 굴뿌리라고도 부른다.

* 찬우를(冷水井)

술개재 근처 물의 수원이 좋고 여름에 차고 겨울에 김이 나는 우물이다.

* 봉화산(烽火山)

싸리골 서쪽에 있는 봉화대가 있는 해발 130m의 봉화산을 이르는 말이다. 옛날 장봉진과 강화도를 비롯한 주위의 유인도와 봉화로 통신을 하던 곳이다.

* 긴등

봉화산 뒤쪽 산인데 능처럼 생기고 길다 해서 부르는 이름이다. 긴 능산이라고도 한다.

* 만도리(晚島里)

무인도로서 ‘늦게 찾은 쌍등이 섬’이라 하여 ‘동만도(東晚島)’, ‘서만도(西晚島)’로 불렸다. 일설에는 장봉도 지역에서 가장 해가 늦게 지는 섬이라 하여 만도(晚島)라고 부른다고 한다. 장봉도 서쪽 끝 감악



|| 자료 || 동·서만도

머리 뿌리에서 약 10km 서쪽에 있다. 본래 섬이 하나였는데 오랜 세월 동안 조수의 침식으로 인해 섬 중간이 갈라지면서 두 개의 섬이 되었다고 한다. 동쪽은 동만도, 서쪽은 서만도로서 주변 해역이 만도리어장(晚島里漁場)으로 유명했던 곳이다. 두 섬 모두가 한쪽에 굴곡진 만(灣)을 이루어 어선들이 일시 대피하기 좋은 곳으로 만도(灣島)라고 표기하기도 한다.



|| 자료 || 감투섬

* 감투(甘套)섬

말총, 형겼, 가죽 등으로 만든 옛날 감투를 쓴 것 같다고 하여 감투산이라고 한다.

마) 장봉5리(평촌)

* 아염(臥嶼)

바닷물이 소용돌이치고(渦) 파도가 출렁대며(濂) 넘쳐 흐르듯 섬을 돌아 나가는 물목인 와염이 아염으로 변음된 것으로 보인다. 다른 뜻으로 소가 누워(臥) 있는 것 같은 모습이라 하여 와염이 아염으로 변음된 것이라 부른다는 두 가지 유래가 있다.[참고, 臥(누울 와), 嶼(섬 서)]

* 사염(蛇嶼)

평촌 남쪽 해상에 있는 바위섬으로 뱀이 많기로 유명해 이 섬으로 어선들이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뱀 때문에 다른 곳으로 피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참고, 蛇(뱀사), 嶼(섬 서)]



|| 자료 || 사염, 날가지도, 아염[좌→우]

* 날가지도(飛加之島)

평촌 앞 해상에 있는 무인도로서 이 섬 주변은 고기들이 서식하기에 아주 좋게 되어 있다. 항상 고기떼가 물 위로 솟구쳐 날 정도로 몰려들어 ‘날가지’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장봉도 인어와 연관된 전설이 있기도 하다.[참고, 飛(날 비), 加(더할 가), 之(갈 지)]

* 똥섬

이 섬의 모양이 뱀 형상의 사도가 잡아 먹으려 하자 등에 무엇을 업고 도망치려는 것 같다 하여 ‘도망섬’이라 부르다가 축음되어 ‘똥섬’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제비우물(燕井)

물이 맑고 맛이 좋아 제비들이 목욕하는 우물이라 하여 붙은 이름이다. 장봉8경에 연정세탁(燕井洗濯) 있는 것으로 보아 아낙네들이 모여 빨래를 하기도 했던 곳이다.



|| 자료 || 제비우물

* 돌무지(石眾址)

갯골에 돌을 쌓아 고기를 잡던 옛날 돌살터로 제비우물 옆에 있었다.[참고, 石(돌 석), 羣(그물 무)]

* 한들[閑野]

이곳은 조용하여 마음까지 조용하고 편안해진다는 지명이다.[참고, 閑(안온할 안), 野(들 야)]

* 큰당

상산굿을 하던 당으로 지금은 장봉주유소가 있다.

* 도당너머

마을 전체의 당제를 지내던 ‘도당(都堂)’의 너머를 이르는 지명이다.

* 서녁들

평촌 서쪽 논들이다.

* 발음이[越陰帽]

산 그늘이 갑자기(빨리) 진다는 지명으로 동그란산 쪽이다. ‘발음미’가 ‘발음이’로 변음되었다.[참고, 越(바삐가는 모양 발), 隱(그늘 음), 帽(산이름 미)]

* 장구제(長丘齋) 뿌리

언덕이 높고 낮은 곳이 없이 일정하게 길게 이루어진 구릉지대이다.

* 터러[強奪]목 고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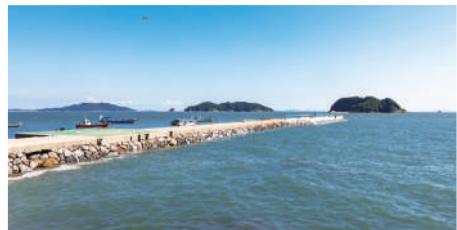
옛날 해적들이 들어와 식량이나 물건을 강탈하여 달아나던 고개라고 한다. ‘터러먹’은 ‘털어먹는다’는 의미로 보인다.[참고, 強(강할 강), 奪(빼앗을 탈)]

* 강구지[岡咲地]

도적에게 강탈당하고(岡) 산등성이에서 투덜대던(咲) 곳이라는 강고지가 변음되어 강구지가 된 것으로 보인다.[참고, 岡(산등성이 강), 咲(투덜거릴 고/구)]

* 야달(偌懇)

선착장 좌우에 큰 야달, 작은 야달이 있다. 암초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가 너무 소란스러워 놀라는 곳이라고 한다. 정확한 어원은 불명이다.[참고, 倘(이와같을 야), 懇(슬풀 달)]



|| 자료 || 야달 선착장 (출처 옹진군청)

* **돌우물(石井)**

동적골(桐滴谷) 지나 작은 야달 못미쳐 있는 우물이다. ‘석정’이라 표기한다.

* **동적골(桐滴谷)**

산골짜기 진흙물이 스며 내린다 하여 ‘동적골’이라 부른다고 한다.
[참고, 桐(오동나무 동), 滴(물방울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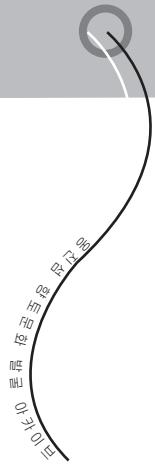
* **안산(案山)**

마을 앞에 있는 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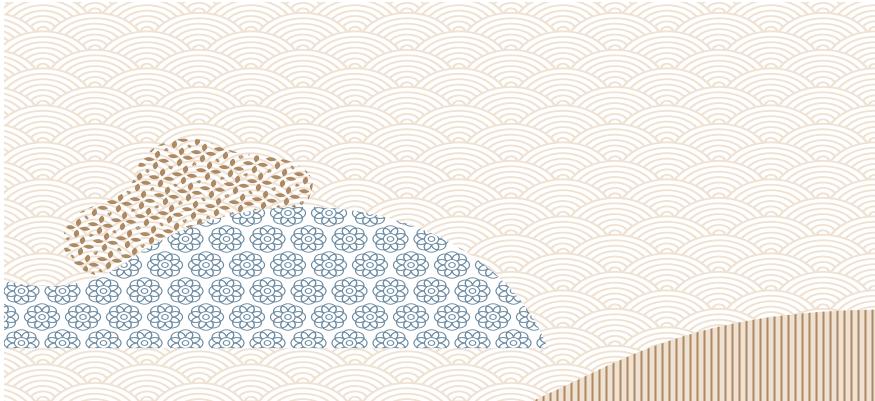
* **다루구지[踏婁牘지]**

활의 등같이 구부러진 해변 끝에 큰 돌이 있다고 하여 지은 지명이다.
[참고, 踏(?), 婁(끌 루), 牘(끌머리 구), 지(?)]

김석훈(인천섬유산연구소 이사)



IV. 교통과 전화(電化), 우편



IV. 교통과 전화(電化), 우편

1. 교통(선박운항사)

가. 해상 교통의 변천¹⁾

1) 일제강점기 이전의 해상 교통

바다를 통해야만 이동할 수 있는 섬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배들을 어떻게 타고 이동했을까? 서해는 동·남해안과 달리 반폐쇄형 대륙붕의 해안 지형으로서 얕은 바다, 복잡한 지형인 리아스식 해안, 촘촘하게 연결된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안전하고 해산물이 풍부해 만(灣)에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연안을 따라 좀 더 먼 거리 사람들도 쉽게 접촉이 가능했던 것이다. 대표적 예로 신석기시대의 패총이나 포함총 유적이 백령도에서 덕적군도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섬에서 확인되고 있어 이미 선사시대부터 폭넓은 해양으로 이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서해에서 인간의 이동에 큰 영향을 끼친 자연환경 요소는 해류, 조류, 바람이었다. 그중에서도 북도면은 조류와 바람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 1900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동력을 이용했기 때문에 역사의 긴 기간은 자연에 의존했다는 것이다.

특히, 바람은 항해에 절대적이며, 계절풍은 일정한 방향성이 있

1) 인천광역시역사자료관, 『역주 仁川鄉土誌』(인천역사문화총서 21) : 용진군향리지편찬위원회, 『甕津郡鄉里誌』, 1996 : 용진군지편찬위원회, 『甕津郡誌』, 2012.

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통나무배나 뗏목을 이용하다가 돛을 사용했고, 범선(풍선)을 통해 이동과 정착, 그리고 교류를 가져왔다. 점차 이동 수단의 발달, 이동 거리가 늘어나며, 활동 범위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연안 항해가 이뤄졌다.

9세기에 엔닌의 해로를 통한 귀국 과정이나 12세기에 송나라 사신 서궁의 개경 방문은 항해의 거리 및 기간, 수단 그리고 준비물과 과정을 통해 당시 항해술과 조선술의 정도와 변천 과정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사례라 볼 수 있다.

또한 영흥도의 업별과 대부도의 방아머리 해안에서 수중 발굴된 서해안의 고선박은 동 시기에 북도면의 이동 수단을 살펴보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근대 이전의 섬사람은 어떻게 육지를 오고 갔을까? 조선 후기는 세곡을 운반하는 선박을 이용하는데, 대표적인 선박은 지토선(地土船)과 경강선(京江船)이었다.

지토선은 지방 사람들이 소유한 작은 배로서 세곡을 운반하면서 점차 커졌다. 그리고 각 지방마다 쓰임새나 모양, 이름이 달랐다.

경강선은 지토선과 대비되는 배이며, 한강을 근거지로 상거래를 했던 배로서 규모가 컸다. 그러나 지토선, 경강선의 공통적인 것은 연해까지 항해를 했다는 점²⁾이지만 주로 지역에서 널리 쓰이는 지토선을 타고 다녔을 것이다. 따라서 북도면 주민들을 주로 지토선 혹은 경강선을 이용하거나 객주의 상고선(商賈船)을 통해 인천 등 육지를 왕래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배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조선 후기 쓰시마번의 조선어 통역관이었던 小田幾五郎이 묘사한 내용을 보면 “조선의 배는 모두 돛대가 2개임. 작은 배는 역풍에도 잘 헤치고 나아가며 날렵하게



|| 자료 || 대부도 고선박 출토 모습
출처 『안산 대부도선발굴조사보고서』

2) 나애자, 『韓國近代海運業史研究』, 국학자료원, 1998, 19~36쪽.

생겨서, 바람이 너무 세게 불 때는 돛대와 돛이 함께 기울어지도록 되어 있다”고³⁾ 하여 외형적으로는 돛대가 2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범선(帆船)은 운항에 있어서는 당연히 한계가 있었다. 바람이 좋을 때 최대 속도가 빠르다 해도 실제 항해 가능 시간은 길지 않았으며, 범선들은 나무돛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선체가 약해 풍랑에 난파되기 쉬웠다. 또한 목면보다 쌈 자리를 엮어 만든 돛을 사용하는 경우 속도가 더 느렸다.⁴⁾ 즉 범선은 역풍 등 자연재해에 가장 취약했고, 돛의 재료도 운항에 한몫했다.

그 결과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은 있을 수 없었고, 항해는 바람, 조류(물때), 기상에 크게 좌우되어 실제 항해할 수 없는 기간이 꽤 길었다.⁵⁾

그러나 이런 단점을 보완하는 기선(汽船)이 19C 말부터 사용되면서 국가 주도의 해운업도 시작되었고, 국가의 재정이었던 세곡 자체의 운반도 점차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우리나라 해운사는 1886년 내무부 전운국(轉運局)이 일본의 작은 기선인 해룡호(海龍號)를 구입하여 인천~용산 간 여객 수송을 한 것이 효시라 한다. 비록 경험 미숙으로 초기에 실패했지만 향후 해상 교통 발달의 초석을 놓았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후 1889년 인천~마포간 객선 용산호(龍山號), 삼호호(三湖號)를 운영하였고, 독일상사 세창양행이 본국에서 도입한 쾨속선 제강호(濟江號)가 운항을 이어갔다. 이처럼 초기 여객선은 주로 한강을 통한 여객



|| 자료 || 우리나라 범선모습 (19세기후반)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유리필름

3) 정성일, 「표류 기록을 통해서 본 조선 후기 어민과 상인의 해상 활동」, 『국사관논총』 99, 국사편찬위원회, 2002, 27쪽 재인용.

4) 이기훈, 「일제강점기 도서 지역의 교통과 일상생활」, 『도서문화』 45,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15, 138쪽.

5) 이기훈, 「앞 글」, 2015,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136~38쪽.

수송을 했지만 운영에 대한 경험과 기술 부족 등으로 실패했다. 바다를 향한 연안항로도 비슷한데, 첫 운항 개시는 1893년 이운사(利運社)를 시작되었다.⁶⁾

이운사는 청·일 전쟁의 영향 및 경영 부진으로 1900년 대한협동우선회사(大韓協同郵船會社, 인천)로 넘어갔으나 선박의 노후, 경험 부족, 사무 정리 및 배의 배선(配船) 등 미숙한 운영⁷⁾과 1904년 러·일 전쟁의 영향으로 폐업했다.

1907년쯤이 되면 세곡 운반선이 아닌 민간의 상업 여객선이나 화물선들이 주요한 섬과 항구들을 연결했으며, 민간인들도 이를 이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⁸⁾

무엇보다 일본인 사업가들이 통감부의 보조금을 받으며 기선 운영 사업에 뛰어들었고 정기선 항로는 더 늘어났다. 그 결과 1910년이 되기 전에 본격적으로 기선들이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연안항로의 개발이 시작되었다.

2) 일제강점기의 해상 교통

섬을 출입하는 정기 연안항로는 1910년대부터 조선우선주식회사(朝鮮郵船株式會社)가 설립되면서 늘어났다. 조선우선주식회사는 1912년 조선총독부가 국책회사로 창립하였으며, 명령항로를 취항하며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 따라서 동해, 남해, 서해 등 전국적 항로를 개설하여 왕래했으며, 서해의 경우 북도면과 가까운 명령항로는 인천-해주 간 정기선이며, 강화도와 교동도에 의무 기항케 했다.⁹⁾ 자영항로(自營航路)도 있었는데, 항로 운영자는 주로 일본인으로서 인천-연안을 다니며, 중간 기항지는 강화 갑곶과 초지를 거쳐 운항했다.¹⁰⁾

6) 신태범, 『인천한세기』, 홍성사, 1983, 206~210쪽.

7)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譯註 仁川鄉土誌』, 인천문화총서 21, 2005, 246쪽.

8)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譯註 仁川鄉土誌』, 인천문화총서 21, 2005, 246쪽.

9) 하지영, 「1910년대 조선우선주식회사의 연안항로 경영과 지역」, 『역사와 경계』 109, 2018, 191~236쪽.

10) 홍성찬, 「일제하 상인, 객주의 연안 해운업 진출과 경영」, 『學林』 48, 2021, 491~542쪽.

특히, 1910~20년대는 인천항의 상권(商圈)에 속하는 황해도, 충남 연안에 기항 삭제 및 불취항 등 항로가 정리되자 발동기선으로 자영 항운을 개업하는 업자들이 대거 등장했다. 그리고 도나 군 등 지방 행정기관들이 명령항로를 개설하고 지방비로 보조를 시작하면서 지역의 선박회사들이 섬 사이를 왕복하는 노선이 부쩍 늘어났다. 대표적인 사례가 다나카회조부(田中回漕部)와 강화의 포목상으로 일본 기업에 대항했던 유진식(俞鎮植)을 들 수 있다.

특히 인천에서 다나카회조부는 개인 경영을 조직 변경하여 1924년 자본금 30만 원으로 인천기선주식회사(仁川汽船株式會社)가 되었다.

1920년대 중반에는 총독부의 명령항로, 도(道)나 부(府) 단위의 관청 명령항로, 관청의 직영항로, 그리고 선박회사들이 자율적으로 경영하는 자영항로 등에 배들이 정기적으로 다니고 있었다. 여객과 화물의 기선 운송이 갈수록 활발해지면서 자영항로가 갈수록 급증했고, 총독부 명령항로는 줄어들었다.

1927년 인천 연안에 정기 항로를 개척하게 되는데, 석모, 덕적·마산선이었다. 여기서 인천-석모선의 기항지가 신도-건평-선수-외포리였으며, 선박명은 28톤의 가시마마루(鹿島丸)였다. 이 노선은 앞으로 여러 회사가 취항하면서 경쟁이 심화되는데, 참고로 1932년 12월 현재 인천 연안 정기 항로표(발동기선¹¹⁾)는 다음과 같다.¹²⁾

11) 조선총독부에서는 발동기선이라 했지만 2행정 기관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어서 엔진이 가동될 때 시끄러운 왕복음이 났고, 이 때문에 통통배 일명 똑딱선으로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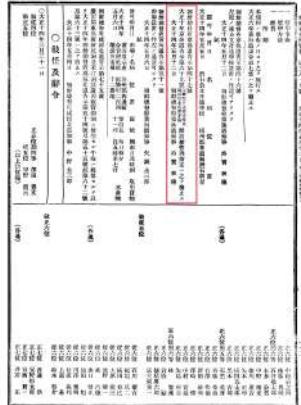
12) 인천문화발전연구원, 『仁川府使 完譯本』, 2004, 807~809. 인천-석모리선은 1970년 강화대교가 개통되어 운항이 정지되기까지 기항지 증설 및 종착지 연장이 되면서 40여 년간의 항로로 북도면 왕래의 중심 항로였고, 인천-덕적, 마산선은 부천통운조합 설립과 함께 덕적선과 마산선으로 분리 운항되었다.

|| 표 || 인천 연안 정기 항로표(1932년 12월 현재)

항로명	기항항명	항해도수	선명(총톤수)	경영자	인천취급점
인천-석모리선	신도, 건평, 선수, 외포	일발	鹿島丸(28)	인천기선 주식회사	국제통운주식회사 인천지점
인천-덕적도, 마산리선	용유도, 영어도, 대부도	월15회	吉見丸(33)	"	"

따라서 북도면은 적어도 1927년부터 보조항로로서 운항이 되고 있었다. 한편 1925년에는 ‘강화군 사기리에서 북도면 모도 사이의 도선(渡船) 관리 지정을 폐지’ 한다는 내용이 있다.¹³⁾ 이 사실로 보아 1925년 이전 북도면의 해상 교통은 강화도 남단에서 통행이 이루어졌고, 관(官)에서 개인 선박을 지정하여 운항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도선 관리 지정을 폐지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 1920년대 발동기선의 연료 등 부대비용의 부담 가중과 인천기선주식회사에서 북도면에 취항하기 정기 노선 때문에 폐지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보아 192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강화도 사기리에서 북도면을 오가는 범(풍)선을 이용해 강화도와 주로 왕래했을 것이며, 이후는 인천-석모선 정기 항로가 생기면서 인천 혹은 강화, 석모도까지 양방향으로 이동의 범위를 넓혀 활동했을 것이다.

그러나 도서 지역에 대한 교통의 불편은 매우 커 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커지기 때문에 마침내 1930년대 부천군의 도서 지역 중심으로 부천통운조합(富川通運組合)을 만들어 배를 운영하게 된 것이다.



|| 자료 || 조선총독부 관보(제3819호)

13) 『조선총독부 관보(제3819호)』, 1925. 5. 12.

3) 부천통운조합의 탄생, 북도면 취항

북도면이 속한 부천군의 해상 교통은 미국으로부터 1929년 시작된 경제 대공황(大恐慌)의 영향이 미치는 1930년대 이루어졌다.

그동안 교통이 없어 산업 발전과 육지 왕래에 큰 불편이 끊이지 않자 부천군수(허섭)과 각 면장이 협의하여 1934년 ‘부천 통운조합’을 만들고, 6월 1일부터 발동선 두 척을 임대하여 운행하기 시작했다.¹⁴⁾ 섬 주민 340명이 조합원으로 참여했고, 총자본금은 2만 5천 원이었다. 조합장 金完洙, 이사 宋炳喆, 서무 李炳常이 담당했다. 그후 9월 2척의 배를 준공하여 진수식을 거행하였는데,¹⁵⁾ 배 이름(船名)은 허섭 부천군수(7대)가 ‘제1, 제2 통운환’으로 명명했다.¹⁶⁾ 이 당시 항로는 3개의 노선을 정하고, 선박은 발동선 제1·2 통운환이 교대로 운항을 개시했다.

이 당시 부천통운조합 노선은 ①인천~마산선 ②인천~덕적선 ③인천~외포선인데, 북도면은 강화 외의 기항지에 해당하며, 3노선의 항로와 운항 횟수는 다음과 같다.¹⁷⁾

|| 표 || 3노선의 항로와 운항 횟수

線名	寄港名	運航回數
인천 마산선	인천 - 내리 - 동리 - 마산	월 17회
인천 덕적선	인천 - 덕교리 - 자월리 - 올리 - (하기)진리 (하기 북리)	월 7회
인천 외포선	인천 - 모도리 - 건평리 - 석포리 - 주문리 - 외포리	월 6회

14) 『조선일보』, 1934.5.27.

15) 『부산일보』, 1934.9.23.

16) 『동아일보』, 1934.9.14.

17) 『동아일보』, 1934.6.2.



|| 자료 || 부천통운조합 항로개시 기사
(동아일보, 1934.6.2.)

항로의 운반 이용은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11~1월은 수확 후 미국 운반이 가장 많았고, 가장 큰 어려움은 유빙으로 큰 지장이 있었다. 4월에는 섬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비료나 시멘트 등의 화물 운송이 보도되고 있다.¹⁸⁾

한편, 첫 운항 개시 후 승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1935년 선박을 새로 구입해 제3 통운호를 운영하게 됐다. 그러나 기존의 인천기선주식회사의 노선과 겹쳐 여객과 화물 운송에 대한 경쟁이 치열했으며, 인천경찰서에서 이들 사이의 조정에 나서기도 했다.¹⁹⁾ 그만큼 인천-외포선은 운항의 수요가 늘어난 황금노선이었으며, 두 회사의 경쟁은 수년간 지속됐다.²⁰⁾

한편 부천통운조합은 1936년 발동선 증가 계획을 수립하고 최신식 배를 구입했다. 그 결과 1937년 기선출범표에는 운항노선, 횟수, 기항지가 점차 증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료 || 부천통운조합 모습
(조선일보, 1938.12.9)

|| 표 || 승선표 취급점 담당자

線名	寄港名	運航回數
인천-마산선 (제1통운환)	인천-(영흥)내리-(대부)동리-(송산)마산	인천발 매일 1회 마산발 매일 1회
인천-덕적선 (제2통운환)	인천 - (용유) 덕교리 - (영흥) 자월리 - (영흥) 이작 - (덕적)울리 - (덕적)진리(하기 북리)	인천발 격일 1회 덕적발 격일 1회
인천-석모선 (제3통운환)	인천-(복도)시도리-(복도)모도리-(복도)장봉리-(강화)선수리- (강화)건평리-(강화)석포리-(강화)외포리-(강화)석모리	인천발 매일 1회 석모발 매일 1회

18) 『동아일보』, 1938.1.15.

19) 『조선중앙일보』, 1935.8.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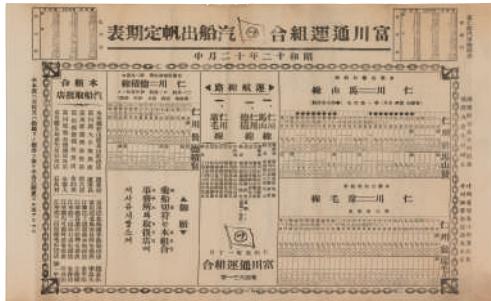
20) 경제 대공황 당시 인천-해주선과 인천-충남 노선에서는 인천기선회사와 조선기선회사가 승객과 화물 쟁탈전을 벌여 한때 화물운임은 1/3선까지, 여객 운임은 선객이 부르는 값 까지 내리기도 했다(『매일신보』, 1932.3.28). 두 회사는 최신형 선박을 배치하고, 가격 경쟁을 벌여 인천-당진 간은 1엔이었던 운임을 30 전까지 인하했다(『매일신보』, 1932.5.29.).

그리고 승선표 취급점의 담당자와 전화번호를 제공하여 승선표 구매를 요청하고 있어 경쟁이 매우 심각했음을 알 수 있다. 각 취급점의 담당자는 다음과 같다.

|| 표 || 승선표 취급점 담당자

마산취급점	대부취급점	영흥취급점	덕적취급점	덕교취급점	시도취급점	모도취급점
조선필	노병창	정창성	김태성	김수태	석만석	조맹출
장봉취급점	선수취급점	건평취급점	석포취급점	외포취급점	석모취급점	
이양기	전갑순	김진권	전용순	정순필	이일갑	

인천-석모 노선은 경기도 보조항으로서 인천-시도리-모도리-장봉리-선수리-건평리-석포리-외포리-석모리(종점)로서 종전보다 기항지가 증가하며, 외포리에서 석모리까지 운항 구간도 연장했다. 이 노선은 종전보다 1 척이 증편된 제3 통운환이 운항하는데, 인천과 석모발



|| 자료 || 부천통운조합 기선출항 정기표

일 1회 운행했다. 흥미로운 것은 광고 문구인데, 승선표 구입과 관련하여 “御願(부탁) 乘船切符(승선표)는 本組合事務所(본조합사무소)와 取扱店(취급점)에서 사주시압소서” 그리고 “通運組合(통운조합)은 우리 組合(조합) 나의 살림은 나의 것으로 通運丸(통운환)은 우리 배요. 우리 교통은 通運丸으로”

그러나 1938년에는 부천통운조합에는 큰 어려움이 있게 되는데, 선박에 필요한 중유(重油) 부족과 발동선 부품의 폭등이 주원인이었다. 따라서 조합 운영이 어렵게 되자 경기도 당국에 보조금을 진정하기도 했다.²¹⁾ 이런 현상은 1940년 초기 명령항로까지 중단하게 되는데, 중·일전쟁의 여파로 보인다.

이외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 것은 겨울철인데, 강화도 왕래의

21) 『조선일보』, 1938.12.9. : 『동아일보』, 1940.1.21.

교통은 빈번하지만 유빙(流冰)으로 인해 큰 방해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다. 석모도로 향하던 제3 통운환(부천통운)과 三福丸(인천기선)이 회항해서 승객이 인천에서 체류하며 곤란 중이라는 내용도 있다.²²⁾

1937년 중일전쟁에 이어 1941년 태평양 전쟁으로 인해 전시통제가 강화되면서 해운업도 국가 통제하게 들어가게 되었다. 1941년 해운조합법이 식민지 조선에도 적용되었고, 1943년에는 조선총독부 산하에 조선선박운항통제회가 설립되어 선박 운항을 총괄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전쟁 수요 물자 중심의 운항계획이 실시되었으며, 전쟁 말기에는 선박 운항 자체가 어렵게 되었다.²³⁾

8·15 광복 직전은 일본계 회사의 퇴진으로 변화가 있었는데, 부천통운조합은 ①인천-영종의 제2 영종환(永宗丸), ②인천-대부-마산의 제1 통운환(通運丸) ③인천-덕적의 제2 통운환을 운영하였고, 삼신기선회사에서 운영했던 ①인천-갑곶의 갑성환(甲城丸) ②인천-백석포에 수원환(水原丸), 제3 강화환(江華丸), 갑제환(甲濟丸)이 있었다. 이들 노선 중 북도면과 관련된 노선은 알 수 없으며, 가까운 노선으로는 인천-영종 노선 혹은 인천-갑곶 노선 중 기항지에 해당할 것이다.

4) 광복 이후~현재까지의 해상 교통

8·15 광복 후 인천항을 중심으로 한 해운업은 태평양 전쟁으로 일대 변화를 맞이했다. 일본인들은 선체 및 선박 연료의 결핍으로 각 운항업자는 강제 병합이 이루어지고 운항 일수의 격감이 있었다. 그 결과 8·15 광복 직전에 ‘인천기선(仁川汽船)’과 ‘해양사(海洋社)’는 ‘조선운송주식회사 인천지점’으로 흡수, ‘충남기선(忠南汽船)’과 ‘애명사(愛明社)’ 등은 해산하여 결국 ‘조선운송주식회사 인천지점’과 ‘삼신기선’(1946년 동양기선으로 개명), ‘부천통운조합’ 등 몇 회사에 불과하였다.

22) 『동아일보』, 1938.1.15.

23) 이기훈, 「앞 글」, 2015, 157쪽.

이 당시 북도면은 일제강점기부터 부천통운조합에서 운영하는 인천-교동선 상의 기항지였으며, 선명은 ‘品川號’ , 정원은 124명, 월 30회 운영하였다. 이 품천의 이용은 6·25 전쟁 이전까지 운영했다.

6·25 전쟁 이후에는 동 조합에서 동일한 항로를 운영하며, 선명은 36.40톤의 ‘제1 통운(通運)’ 이 월 15회 운항했다. 정원은 61명이었다. 기항지는 인천-시도-장봉-선수-건평-외포-석모-교동으로 이어졌으며, 취항선은 2척이었다.²⁴⁾ 앞선 항로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석모도에서 교동까지 연장되어 인천-교동선이 됐다는 점과 모도와 석포리가 빠졌다는 것이다. 아마도 모도가 빠지면서 모도와 시도 사이의 갯고랑에 여객선이 닿으면 양 섬에서 나온 종선(전마선)이 각 섬의 부두까지 여객 수송을 담당했다.

6·25 전쟁을 거치면서 북도면의 경우 1953년까지 변함없이 ‘부천통운조합’에서 운항했다. 그후 점차 이 조합은 적자 운영이 지속되자 부천군에서 흡수하여 관(官) 주도의 ‘부천군 통운사업소’를 설립하여 운영하다 1970년대 초까지 운영했던 것으로 보인다.

1960년대 해운업계의 경영은 주식회사가 3개(동양기선, 서해기선, 황해똑딱선), 부천군과 옹진군에서 운영하는 통운사업소 2개 등 5개의 사업체가 존재했으며, 1968년 10월 현재 북도면 취항은 인천-교동선인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표 || 북도면 취항 인천-교동선(1968년 10월)

선로명	선명	총톤수	船質	기관/마력	정원	사업주
인천-교동	제5통운	82.93	木	燒球/180	139	부천군수(부천군 통운사업소)
인천-교동	갑제호	74.58	鋼	"/84	148	주식회사 동양기선

위 표에서 보듯이 두 회사가 노선을 경쟁하여 선박의 규모, 시간 등 배를 이용하는 측면은 향상되었으나 규모가 큰 장봉도와 신도의 경우 승선을 위해 기항지까지 도착 갑제호 사고 기사하는 일이 문제였다.

즉 장봉도의 경우 축동(杻洞)에서 옹암선착장까지, 신도의 경우

24) 경기도지편찬위원회, 『京畿道誌(中卷)』, 1956, 443~444쪽.

구로지에서 하모리 선착장까지 도착하는 일이 매우 불편하고 힘들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면장이 전양훈이었으며, 선착장 설치를 염두에 두었으나 정부의 예산 문제로 실행되지 못했다.²⁵⁾

그러나 인천-교동선은 여객이나 화물에서 이용이 많았지만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 가장 큰 이유는 상승하는 물가에 비해 운임 인상을 적(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²⁶⁾ 그 결과 선박회사는 과적과 정원 초과가 반복되었고, 무리한 운항으로 인한 해상 사고는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1963년 2월 6일 모도 남쪽 3백m 해상에서 발생했던 갑제호 조난 사고였다. 이 사고의 원인은 유빙을 무시한 무모한 항해에 의한 것이 직접적 원인이었으며, 148명 정원에 승객 213명과 사료(飼料) 44가마, 구공탄 1,150개 그 밖에 잡화 90상자를싣고 가다 사고가 난 것으로 6명이 실종 또는 사망한 것이었다.²⁷⁾

25) 전양훈, 『全揚勳回顧錄』, 2006, 77~78쪽.

26) 인천시사편찬위원회, 『인천시사(하)』, 1973, 153쪽.

27) 『조선일보』, 1963.2.7.(동일한 날짜 『동아일보』에서는 승객 및 선원은 모두 271명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조상태(모도 거주)는 “당시 10대 후반으로서 모도초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철선이었던 갑제호에서 꽝!!! 하는 소리를 듣고 사고가 난 것을 알았어. 선장은 뱃머리를 가까운 박주기 해변 쪽으로 돌려 나오다가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니 기관은 꺼져 배는 멈췄고, 나는 급한 마음에 승객을 구하기 위해 선생님들과 의논하여 학교 교실에 있는 교단을 갖고 나와 물 위에 띄워 승객을 구조하기 위해 힘을 썼지. 그 당시 교사는 3명이었는데, 모두 힘썼어. 그러나 나무로 만든 교단은 무거워 쓰지 못하고, 당시 승객은 큰 유빙 위에 7~8명씩 올라 `배(갑제호)와 육지 사이에 연결된 로프를 잡고 육지를 나왔지. 사망한 분들은 선원 가족이었고, 그 후 몇 시간이 지나 미군이 구호물자를 갖고 왔어”라고 증언했다. 한편, 이 당시 마을 이장은 김현태였으며, 인명 구조 및 대피 등 사고 처리에 공헌하여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김덕배 증언)



|| 자료 || 갑제호 사고 기사
(동아일보, 1963. 2. 7.)



|| 자료 || 하모리(신도) 선착장
(1966년, 차학원 제공)



|| 자료 || 하모리(신도) 선착장
(2024년 현재)

그러나 선박 운항에 결정적 변화는 1970년 강화대교의 개통이었다. 객선을 이용하던 강화군 소속 도서 주민이 대교를 이용하면서 강화노선은 폐쇄됐고, 북도면까지 운행했다. 1960년대 신도의 선착장은 하모리였으며, 여객선에서 부두까지는 종선(從船, 전마선)을 이용했다. 그러나 강화대교가 개통된 이후 강화도 운항이 중지되자 하모리 선착장 대신 염촌 마을 앞 갯뿌리(신도3리) 선착장을 사용했다. 그 이유는 신도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 겨울의 세찬 바람과 낮은 수심이 문제였기 때문이다. 현재 하모리 선착장은 접근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갯뿌리 선착장은 아직도 대합실 등 일부 흔적이 남아 있다.

1970년대의 경우 시도 해수욕장이 개장하면서 피서지로 관심을 얹



|| 자료 || 갯뿌리 선착장



|| 자료 || 갯뿌리 선착장 대합실

고,²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기사에서 인천과 시도를 오가는 편을 소개하고 있다.²⁹⁾ 인천서 출발하여 2시간 소요 및 운항 횟수는 2~4회였다.

그리고 각 섬의 선착장에는 도선이 배치되어 있었다. 신도는 하의 선착장에 3척, 시도의 노루메기 선착장에는 2척, 모도에는 모도선착장에 1척이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³⁰⁾ 이것은 종선(전마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배들이 여객선에서 승객이 내리면 각 섬까지 여객 운송을 맡았던 것이다.

1973년 7월 1일을 기해 행정구역 개편 시 부천군 6개 도서면이 경기도 옹진군으로 편입될 때 마침내 ‘옹진군 통운사업소’가 ‘부천군 통운사업소’를 인수하였다. 이때 북도면을 운항했던 여객선이 관광6호였다. 그후 1984년 2월 25일 ‘옹진군 통운사업소’ 운영이 민영화되어 주원광해운에서 인수하였다.³¹⁾

1980년대는 시도해수욕장의 폐장에 따라 여행객 감소,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으로 섬 지역 인구 감소 등 점차 수익성이 낮아지면서 선박 회사는 폐업이 늘고 마침내 1985년 10월 5일에 인천-장봉 항로가 보조 항로로 지정되었다. 이 당시 여객



|| 자료 || 옹암(장봉도) 선착장



|| 자료 || 시도해수욕장(1970년대)

28) 새한상사에서 높이 5m, 길이 750여 m의 제방을 막아 개발한 해수욕장으로 1970년 7월 19일 개장하여 1980년대 초 까지 운영했다. 썰물에도 사용이 가능했으며, 각종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었다.

29) 인천문화재단·인천시립박물관, 『신도·시도·모도』, 2022, 인천섬생활사 조사보고 2집, 92~93쪽.

30) 내무부, 『島嶼誌』, 1973, 118~126쪽.

31) 옹진군지편찬위원회, 『甕津郡誌』, 1989, 906~912쪽.

선은 송림호와 관광6호가 운행했다.

이외에도 북도면 내에서는 1984년에 새로 건조한 ‘북도2호’ (4.4톤, 관리자 이원식)가 신도와 시도 사이를 매일 4~5회 운항하였다.

그러나 1995년에는 인구 감소로 하루에 2~3명이 이용하는 정도였으며,³²⁾ 인천국제공항 건설에 따른 해저지형 변경 등 복합적 원인이 작용하여 1995년 5월 1일 폐쇄하게 되었다.³³⁾

한편, 앞선 언급한 북도면장 전양훈은 공직에서 물러난 후 재임 시절 이루지 못한 일을 달성하기 위해 다시 교통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1980년대 후반 영종-북도간 도서운항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위원장 역할을 하였다.

첫 출발은 부산 출신의 해운 사업을 희망하던 조일래와의 만남이었는데, 조일래는 전양훈을 만나 해당 항로를 운영하기로 전하고 강화 외포리에서 석모리를 운항하던 강화 2호를 구입해 준비하면서, 1988년 옹진군수로부터 삼목-신도 취항 허가권을 얻어 운항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조일래는 1992년 사업권을 장호덕에게 넘긴 후 떠났으며, 장호덕은 1척의 배로 화물과 여객을 소화할 수 없게 되자 선박 건조와 사세 확장을 위해 시도 출신 백철호와 동업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선박 2척을 건조하며, 자금 사정이 어렵게 되자 부도가 발생하면서 백철호는 독자적으로 세종 해운(주) 법인체를 설립하고, 1999년 3월 1일자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의 면허를 받아 삼목-북도의 도선 항로에 취항하였다.³⁴⁾ 한림해운도 2015년 6월 해상여객운송사업에 대한 면허를 취득하여 여객선을 운항하고 있다.



|| 자료 || 삼목-장봉간 운항 중인 세종9호 모습

32) 『동아일보』 1995.4.12. : 『경향신문』 1995.4.12.

33) 이 항로를 운항했던 선명은 관광7호(정원 167명, 109톤)이며, 인천-세어도-신도-시도-모도-장봉도까지 1일 1왕복 운항했다. 한국해운조합, 『2024년도 연안여객 선업체 현황』, 2024, 137쪽.

34) 전 양훈, 『全揚勳回顧錄』, 2006, 86~92쪽.

2024년 현재 북도면을 오가는 여객선은 북도고속페리(한림해운 소속, 642톤, 정원 498명, 속력 15노트, 차량탑재수 86)와 세종9(세종 해운 소속, 713톤, 정원 485명, 속력 16노트, 차량탑재수 64)의 차도선이 있으며, 삼목선착장에서 신도를 거쳐 장봉도로 향하는 항로를 운항하고 있다.³⁵⁾

|| 표 || 북도면 운항 일람표

구분	선박회사	시기	선명	운항노선	북도면기항지	비고
1	부천통운조합	1934	제1, 2통운환	인천-외포선	모도리	면 운영
		1937	제3통운환	인천-석모선	시도, 모도, 장봉도	면 운영 항로 증가
		?~1950년대	품천호	인천-교동선	시도, 장봉도	면 운영
2	부천군 통운사업소/ 동양기선	1960년대	제5통운호 갑제호	인천-교동선	시도, 장봉도	군 운영 개인 운영
3	옹진군 통운사업소	1973.7.1.	관광6호	인천-장봉선	시도, 모도	군 운영
4	(주) 원광해운	1984.2.25.	송림호	인천-장봉선	시도, 모도	민영화
5	(주) 원광해운	1995.5.1.	관광7호	인천-장봉선	시도, 모도	민영화 폐쇄
6	(주) 세종해운	1999.3.1.	세종7,9호	인천-장봉선	신도	삼목출발
7	(주) 한림해운	2015.6.	북도고속훼리	인천-장봉선	신도	"

나. 연도교(連島橋)

신도, 시도 사이에 이동의 시작은 간조시 도보 이동이었다. 목섬과 같은 조류에 의해 형성된 사주(砂洲)는 이웃 섬을 이동하는데 중요하게 이용되었다. 다른 섬도 사정은 비슷하며, 사람 이외 동물, 예를 들면 목마장이 있었던 경기만 지역의 경우 말(馬)도 사주를 통해 이동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후 양 섬 사이에 가장 좁은 갯벌이나 갯고랑에 돌다리를 놓고 물이 빠지면 건넜다. 주변에 위험 요소는 있었지만 필요할 때 사용했다. 이후 교통수단으로 등 한

35) 한국해운조합, 『앞 책』, 2024, 72쪽.

것이 목선의 전마선(종선, 텐마³⁶⁾)이었다. 이후 돌다리를 놓았던 곳에 교량 혹은 도로가 건설되는 경우가 많다.

1) 신도-시도 연도교

신시도 연도교의 시초는 1955년이다. 따라서 이전의 섬 이동은 하루에 2번 간조시 2시간씩 드러나는 징검다리를 이용하거나 신도1리 구로지 선착장부터 시도선착장까지 노(櫓)를 저어 5~6인이 승선할 수 있는 작은 전마선(0.5M/T)으로 왕래하였다. 배사공은 수십 년 동안 조영순, 허천실, 김창학이 맡았다. 배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해광고등공민학교(이후 북도중학교) 학생들이 등굣길에 주로 이용했다고 한다. 백살은 주민의 전언에 의하면 1970년대 100원이었고, 학생은 월 단위 혹은 보리 등 현물로 지불했다고 한다.



|| 자료 || 신도-시도 연도교 준공비



|| 자료 || 신도-시도 연도교 모습

그후 주민의 불편함과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잠수교를 만들었는데, 공사 기간은 1955년 4월 착공하여 1957년 3월 준공(1차)하였다. 밀물 때는 전마선으로 통행했지만 오늘날 연도교의 초석이 됐던 것이다. 이 당시 북도면장은 천용택이었으며, 그와 친분이 있던 자유당 소속 장경근 국회의원의 협조로 다리를 놓게 됐다고 전 한다.³⁷⁾ 이후 1991년 7월 착공하여 1992년 8월 준공(2차)하여 연도

36) 돛이나 동력을 사용하지 않고 노를 저어 운항하였으며, 여객선이 다닐 때는 승객을 인근 해상으로 마중 나오는 현지 배의 역할을 하는 종선으로 사용했다. 거룻배라고 한다.

37) 최영윤 전 면장(신도3리)의 증언이다.

교를 보강했으나 부실한 점이 많아 2004년 5월 착공했으며, 약 1년 7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2005년 12월 20일 준공(3차)했다. 교량 부분의 제원은 길이 240m, 두 섬의 산뿌리까지 거리는 540m이며, 다리 폭은 1차 3m, 2차 5m, 3차 9.9m로 점차 넓어지고 있어 교통량의 증가에 맞춰 폭을 확장했다. 연도교가 완공되기까지 옹진군수 조건호(북도면 출신)의 노력이 있었으며, 준공을 기념하는 비석이 시도 입구의 소공원에 있다.

2) 시도-모도 연도교

시도와 모도 역시 간조 때는 도보로 이동하고, 만조 때는 노를 저어 전마선을 이용했다. 뱃사공은 한중구, 한성윤이었으며, 점차 전마선 대신 동력선으로 대체되자 종선이 동력(객)선과 섬 사이를 왕래하며 통행을 도왔다. 이 당시 종선은 최병옥과 백갑진이 운영했으며, 김가진, 최병용, 박남영씨 등이 매표 활동 등 종선 사무를 함께했다. 선착장은 시도 노루매기 선착장에서 모도는 가장 가까운 바위나 갯벌을 이용해 승하선을 도왔다.



|| 자료 || 시도-모도 연도교 전경



|| 자료 || 시도-모도 연도교 준공비

교량은 신·시도 연도교보다 약 40년 정도 뒤늦게 건설됐다. 1994년 10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 공사(1차)를 시작으로 1995년 6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2차 공사, 1997년 4월 5일부터 8월 9일까지 3차 공사, 2001년 5월 3일부터 2002년 5월 17일까지 4차 공사에 걸



|| 자료 || 건설 중인 신도대교

쳐 건설한 시도-모도 연도교는 잡수교였다. 그래서 간조나 조금 때만 통행이 가능하고 사리 때는 하루에 4시간을 제외하고는 통행할 수 없어 불편이 뒤따르자 2002년 보강공사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물길(水口)이 없이 석축으로만 건설한 연도교가 오히려 물길을 막고 있어 물고기가 잡히지 않자 옹진군청에서는 2019년 10월 25일 갯벌 생태계 복원 및 연도교 해수 소통로 건설공사(5차)를 이유로 공사를 다시 시작해 4년 6개월여 만인 2024년 5월 준공했다. 폭 10.4m 총연장 570m의 왕복 2차선 교량으로 사업비 205억 원이 투입되었다.

3) 신도대교(가칭)³⁸⁾

인천시는 남북통일 이후 인천국제공항과 북한 지역의 물류 연계를 위해 영종~강화~개성·해주를 잇는 서해남북평화도로를 건설을 계획하였으며, 2019년 1월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반영 및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계획”에 따라 “예비타당성면제 대상사업”이 되면서 옹진군 북도면 주민숙원사업이 본격화되었다.

1단계 구간인 “영종~신도” 평화도로($L=3.82\text{km}$, 왕복 2차로) 건설을 위해 영종도 운서동과 북도면 신도4리 사이에 다리를 건설하는 것이다. 신도대교(가칭)는 2021년 1월 본격적 건설을 시작으로 2025년 12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길이는 2.07km, 폭은 왕복 2차로의 13.5m로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차로 옆에는 인도 겸 자전거도로가 함께 조성된다. 준공 후 바로 2단계 신도~강화(11.4km) 구간을 착공할 예정이다. 이 다리의 영향으로 기존 해상 교통의 많은 변화가 예상되며, 북도면 일대에도 많은 관광객과 교통 혼잡이 예상되고 있다.

김석훈(인천섬유산연구소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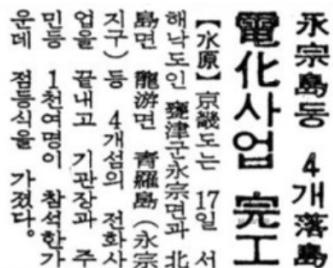
38) 인천광역시청 도로과, 2020.4.27.자 보도자료 참고.

2. 전화

세계 최초로 에디슨이 백열전구를 발명한 지 8년 만인 1887년에 경복궁의 건청궁(乾清宮)에 우리나라 최초의 전등불을 밝혔다. 이 당시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건청궁을 밝힌 전등은 묘한 불이라서 ‘묘화(妙火)’, 괴상해서 ‘괴화(怪火)’, 건들거리면서 자주 꺼져 ‘건달불’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 전력을 이용하여 열, 빛, 동력 등을 얻는 전화(電化) 사업의 빛이 궁궐에서 시작되었지만 옹진군 북도면에는 언제부터 불이 들어와 밤에도 밝은 세상을 볼 수 있었을까?

우리나라는 구한말 전기가 도입된 아래 전국의 도시와 공업 지역을 중심으로 전력을 공급하였고 이는 조명 및 공업용 동력으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만 하여도 전력공급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어촌지역이 상당히 많았다. 1964년 말까지 전화 호수는 농어촌이 318천 호로서 농어촌의 전화율은 12.0%에 불과했다.

따라서 국회는 농어촌 생산력 증강 및 생활향상 도모를 위해 1965년 ‘농어촌 전화촉진법’을 제정하였고, 마침내 북도면은 1970년대 말 정부시책으로 농어촌 전화사업 계획에 따라 추진되었다.³⁹⁾ 이 당시 ‘옹진군은 어촌전화사업 계획에 따라 용자



|| 자료 || 영종도 등 4개 낙도 전화사업 완공
(매일경제, 1980.12.17.)



|| 자료 || 영종도 지구 전화공사 공급 계통도

39) 한국전력공사, 『2011 경제발전 경험모듈화사업 :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電化) 사업』, 2012, 41쪽.

22억 1387만 원과 주민부담 2억 6744만 원, 한전부담 1억 9369만 원으로 인천~영종도간을 수중케이블 공사로 전기를 가설, …(중략)… 북도 745가구가 전기불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⁴⁰⁾ 이 기사는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시점에 나온 것으로 보이며, 북도면의 전화 사업에는 당시 최영윤 면장의 뚜심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한국전력공사 인천지점에서 영종·용유 전화 시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인지했던 계통도 죄면장은 당시 고향이자 근무처인 북도면이 이 시기를 놓치면 전화 사업이 요원할 것 같아 한국전력공사에 몇 차례 건의하였다. 마침내 한국전력공사 인천지점장으로부터 영종·용유지역을 시공할 때 북도면도 동시에 착공하겠다는 확답은 무난히 받았다. 당시 이 공사를 담당했던 한전 책임자는 영종도 출신의 김기호씨였으며, 이 사람이 내부적으로 북도면을 위해 많은 힘을 써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화 사업 추진의 문제는 가구별 자부담이었다. 당시 조건이 가구당 각 8만 원의 자부담에 75만 원 5년 거치 25년 균분 상환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면내 지역 인사들과 협의하였다. 그 결과 자부담 8만 원 부담이 어려울 것이라 하여 다음 기회로 연기하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최영윤 증언 및 자료 제공)

그러나 당시 최영윤 면장은 면장의 직을 걸고 이 기회에 전기를 끌어들이자고 주장하여 마침내 전기의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사업 착공은 1979년, 준공 및 시험 시동은 1980년 9월 20일이며, 점화는 1980년 11월 28일 이뤄졌다. 불과 40여 년 전의 일이다.

김석훈(인천섬유산연구소 이사)

40) 『경향신문』, 1979. 12. 22. ; 『동아일보』, 1979. 11. 28. ; 『매일경제』, 1980. 12. 17.

3. 우편

가. 별정우체국과 직원

1) 별정우체국

북도우체국은 별정우체국으로서 개국했다. 별정우체국은 도서, 산간 벽지 등 정부가 우편업무를 취급하기 어려운 곳에 설립된 민자우체국이며, 별정우체국 설치법(제정 1961.8.17.)에 따라 1966년 11월 10일 개국하였다. 따라서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 및 기타 시설을 갖추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거 체신부) 장관으로부터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받은 자가 체신업무를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경영하며, 법률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별정 우체국장이라 한다.



|| 자료 || 북도우체국

1961년 법률이 처음 제정되었던 당시는 1면 1우체국 규정이 적용되었고, 그 결과 1966년 북도면에 처음 우체국이 개국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6년 12월 20일에 1면 1우체국 설치가 완료됐으니 거의 끝무렵에 해당한다.

2) 직원

우체국 직원은 현재 6인이며, 국장을 포함하여 사무원 2명, 집배원 2명, 특수지 위탁 집배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도면의 경우 위탁 집배원은 장봉도를 담당하는데, 소속은 상급 기관인 인천우체국이지만 근무 상황은 가까운 북도우체국에서 관할한다.

초대 국장은 조동섭이다. 그는 1966년 11월 10일부터 1979년 9월 7일까지 근무(당시 정년은 65세임)했으며, 법률에 의해 배우자 혹

은 자녀 승계가 가능함에 따라 2대 국장은 조상천이 1979년 9월 8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근무(당시 정년은 68세임)했다. 장봉도에서 집배원 시절을 더하면 46년 봉직했으며, 3대 국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조형원이 승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체국의 위치는 원래 시도리 322-2번지였으나 1990년 청사를 신축하면서 현재의 위치(시도로 97)로 옮겼으며, 주변은 북도면사무소를 비롯해 교회, 파출소 등 마을 중심지에 있다.

나. 우편 번호와 집배 활동

1) 우편 번호

우편 번호는 1970년 7월 1일부터 도입되는데, 중계국에서 직접 집배하는 지역은 3자리, 최종 집배국을 거치는 지역은 중계국 번호에 추가로 두 자리가 추가되는데, 북도면의 우편 번호는 160-12였다. 그후 1988년 2월 1일에 행정구역별로 6자리의 우편번호 체계를 새로 도입하면서 409-830이었으며, 현재는 국가 기초 구역 체계와 연계하여 2015년 8월 1일부터 우편 번호 개편(6→5자리)에 따라 23110~23116번이다.

북도면 4개 섬 지역을 골고루 방문하면서 가장 많이 면민을 만났던 사람은 집배원이었을 것이다. 특히 지정된 체신업무 이외에 기억에 남는 일은 각 섬에 면사무소의 중요 전달 사항을 알려드리거나 편지, 소포, 전보 등을 전달하면서 문맹의 어르신께 편지를 읽어드리면 매우 고마워했던 일, 육지의 친인척으로부터 귀한 소포를 받고 고마워하던 일, 보건소가 없던 시절 어르신들의 약을 지어 드리던 일, 상(喪)을 당한 집에 군 복무 자녀의 휴가를 위해 관보를 군부대에 보내던 일 등 일상생활 속에서 정보 전달은 물론 주민들의 손발이 되었다.

2) 집배 거리

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북도면의 경우 개국 당시의 집배 수단은 주로 도보였으며, 섬을 왕래할 경우 배를 이용했다. 신도, 시도, 모도의 경우 연도교나 전마선을 이용하여 하루 왕복이 가능했으며, 하루의 집배 거리는 거의 50km 정도 된다. 그러나 장봉도는 하루에 35~40km를 걸었지만 1일 1회 운항하는 배 시간 등으로 1박을 했으며, 다음 날 강화 교동에서 출항하는 배를 이용해 귀환했다. 2010년을 전후한 시기의 집배 활동은 주로 오토바이를 이용하는데, 오토바이의 경우 집배 순로에 따라 이동 거리는 평균 47km이며, 많이 집배하는 경우 53~55km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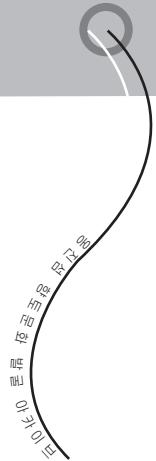
3) 집배 방법

1960년대의 주로 도보로 시작했으며, 1970~80년대부터는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자전거, 오토바이(50cc)에 이어 현재는 소형 트럭을 이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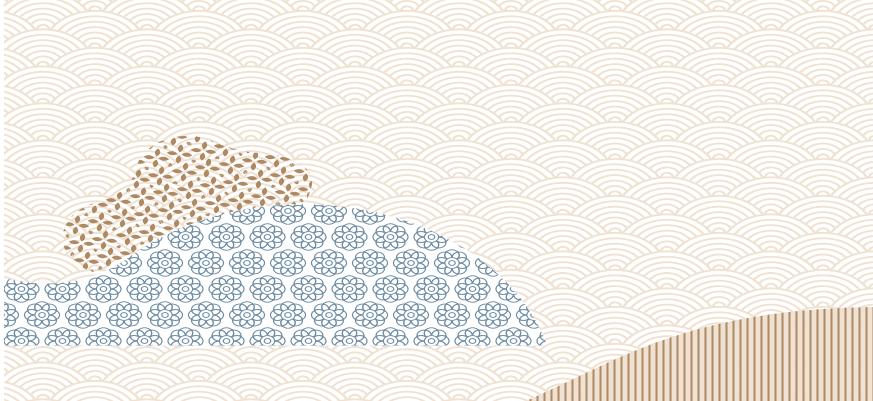
이들에겐 전시에도 집배 운송권이 있으며, 도선료의 지불은 상급 기관인 인천우체국과 선사와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북도면에도 소형 전기차 혹은 드론 활용을 통해 신속, 편리한 시대가 오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도서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대체 직원 채용에 어려움이 급속히 가중되어 우체국장이 집배원 활동까지 겸임한 바 있으며, 자연재해로 인한 선편 결항 등이 애로 사항으로 꼽힌다.(조상천, 조형원 증언)

김석훈(인천섬유산연구소 이사)



V. 교육과 종교



V. 교육과 종교

1. 교육

북도면 교육은 주변의 큰 섬이거나 혹은 육지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으며 발전해 왔다. 이 가운데 1900년대 초기까지는 강화도의 행정구역에 소속되어 강화에서 건너온 인사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일제강점기로 이어졌고, 광복 후에는 경기도에 소속되어 오다가 인천광역시로의 변천 과정에서 육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도면 교육은 크게 광복 이전과 이후의 두 시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겠다. 강화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일제강점기까지는 독립운동가의 은신처로서 독립운동가들에 의해 학교가 설립되어 교육이 이루어졌다.

광복 이후에는 도서 주민들의 교육열이 확산되어 각 도서마다 초등학교가 설립되고, 일부 부유한 사람들은 인천 등 육지로 유학의 길에 오르면서 인천(육지)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북도면 교육의 변천 과정은 표와 같다.

|| 표 || 북도면 초등교육의 변천 과정

구분	이전	1900년대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신도	서당 → 서당 → 강습소(?)	광신 강습소(?)	→	신흥학교 (1920)	영종공립 보통학교 신도간이학교 (1935)	신도초등학교 (1941)	→	→	→	→	인천신흥초 신도분교 (1999)	인천공항초 신도분교 (2007)
시도			→	신창강습소 (1923)	시도학술 강습소 (1930년대 후반)	시도국민학교 (1946)	→	→	→	신도국교 시도분교 (1988)	폐교 (1993)	
모도		베희학교 (1916)	→(?)		신도국교 모도분교 (1946)	시도국교 모도분교 (1967)	모도초등학교 승격(1957)	시도국교 모도분교 (1983)	시도국교 모도분교 (1988)	폐교 (1998)		
장봉도	서당 → 장흥학교 (?)	→ 영흥학교 (1921)		부도공립 보통학교 (1935)	장봉초등학교 (1947)		모도초등학교 승격(1973)	신도국교 모도분교 (1988)	인천도회초 장봉분교 (1999)	인천삼목초 장봉분교 (2007)		
장봉도	(옹암)						장봉국교 옹암분교 (1980)	폐교 (1991)				

|| 표 || 북도면 중등교육의 변천 과정

구분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신도	해광고등공민학교 (1946)	해광고등공민학교 (인가, 1950)	→(폐교)	인천남중학교 북도분교(1972)	→	인천남중학교 북도분교(격하, 1997) →폐교(1999)
장봉도			푸른학원 설립 (1967)	푸른고등공민학교 (인가, 1975)	폐교(1983)	

가. 초등교육 및 교육기관

19세기는 주로 서당 교육을 통해 이뤄지다가 1900년을 지나 서당, 강습소를 통해 교육활동이 이뤄졌다. 이 시기는 북도면에 개신교가 처음 유입되면서 신학문 습득 열기 속에 지역 유지가 모여 사립학교를 건립하면서 점차 초등교육의 모습을 갖추어갔다.

한편, ‘북도면’ 이란 지명이 1914년 행정 구역 개편에 의해 처음 사용되는데, 면(面) 지명을 차용한 교육기관인 ‘북도공립보통학교’는 1930년대 장봉도에 설립되었다.

그만큼 장봉도의 도세(島勢)가 컸음을 의미하며, 비슷한 시기에 신도에는 영종공립보통학교 부설 신도 간이학교가 세워졌다.

1945년 광복 이후 1~2년이 지나 비로소 북도면 4개의 유인도에 초등의 공립학교가 완비됐다. 이후 각 학교에 가장 많은 재학생이 있었던 시기는 1960~70년대로 보인다. 중언에 의하면 한 반에 작게는 30~40명, 많게는 60~70명까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국가 시책으로 가족계획 정책, 이촌향도(離村向都)의 사회적 현상이 심화되면서 섬 내의 인구 감소는 1990년대에 폐교로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옹암분교(1991), 시도분교(1993), 모도분교(1998)가 폐교되었다.

2024년 현재 초등교육 기관은 분교로 격하되어 2개 교가 있으며, 장봉도의 인천삼목초등학교 장봉분교(재학생 6명)와 신도에 인천공항초등학교 신도분교(재학생 13명)도 존폐 문제에 직면한 상태이다. 초등교육기관을 학교별로 살펴보겠다.

1) 인천공항초등학교 신도분교

가) 사립 신흥학교 출발

초기의 교육시설의 설립과 운영은 일제강점기부터 교회와 밀접한 연관을 맺으며 시작됐다. 신도초등학교 『學校沿革誌』에 의하면 1917년에 한일합일학교(韓日合一學校)를 개설하고, 이어서 의숙(義

塾)과 신흥학교로 교명을 개칭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들은 1910년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강화도 출신 황도문(黃道文)이 1920년 ‘신흥학교(信興學校)’를 설립하면서 북도면 초등교육이 시작되었다.¹⁾

황도문은 강화도 출신의 독립운동가인데, 1919년 3월 강화도 만세 시위 운동을 전개하다가 이곳으로 피신하여 신도에 학교를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 학교의 위치는 구로지 입구 현재 일등슈퍼마켓(옛 해태건조장) 자리이다.



|| 자료 || 신흥학교 관련 기사
(동아일보, 1923.9.29.)



|| 자료 || 신흥학교 자리



|| 자료 || 신도초등학교
(현 신도분교) 연혁지

당시 신흥학교의 활동 모습을 보면 ‘신도 구제 활동 이재동포(罹災同胞)를 위해’라는 제목에 ‘사립 신흥학교 학생 70여 명으로 구성된 소년회(少年會)에서는 조선의 수재(水災)와 일본에서 발생한 관동대지진(關東大地震)에 우리 동포를 위해 이재동포 구제단을 조직하고, 구로지 구장(區長) 집 마당에서 구제금 모금’을 한다는 내용이다. 소년회는 회장 전창실, 부회장 정정옥, 간사 나동한, 김봉조, 고문은 황도문이 중심으로 구성하였다.²⁾

이 기사를 통해 사립 신흥학교가 존재했었다는 점과 당시 교육 목적은 3·1운동 이후 일제의 문화통치 전

1) 『甕津郡鄉里誌』 80쪽에는 ‘新興學堂’이라 표현되어 있지만 아래에 나오는 신문 기사에는 ‘信興學校’로 되어 있어 기사의 한자와 이름을 따랐다.

2) 『동아일보』, 1923. 09. 29.

환에 따라 문맹 퇴치와 민족교육을 실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학교의 교사는 독립운동가 황도문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일원으로 1923년 군자금을 모금하다 체포된 송중식(宋重植)이 있다.

나) ‘영종공립보통학교 부설 신도 간이학교’ 설립

1920년대 일제가 추진한 산미증식계획의 실패와 세계 경제 대공황의 여파로 1930년대의 농촌 경제는 파탄에 이르렀다. 이때 농촌을 개발하고 교육시설 부족을 해결한다는 미명 아래에 1934년 간이학교(簡易學校) 설치 근거를 마련했는데, 본질은 직업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켜 농촌을 수탈하려는 의도였다.

신도의 경우 근거에 따라 신흥학교가 1934년 영종공립고통학교(교장 大貫章) 부설 신도 간이학교로 승격하게 되는데, 사립학교가 공립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덜게 되었다. 교사(訓導)는 1인으로서 영종보통학교의 신민철(申玟澈)이 간이학교 교사를 겸임하였다.³⁾

한편, 간이학교는 2년제, 정원은 학년마다 40명이었지만 이 학교는 평균 재학생 수는 13명 정도였으며, 광복 직전까지 운영되었다. 교과목은 당시 교육과정에 의하면 수신(修身), 일본어, 국어, 산술, 직업 등을 배웠으며, 10회에 걸친 연도별 졸업생 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신도 간이학교는 2년제였기 때문에 곧바로 중학교 진학을 할 수 없었으며, 편입을 통해 초등과정의 남은 학업을 이수한 후 진학이 가능했다. 따라서 가까운 영종도나 육지에서 학습을 이어가야 했으며, 대부분의 학생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포기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1941년부터 ‘국민학교’ 명칭을 사용하면서 ‘신도국민학교’로 교명을 개편했고, 1960년대는 구로지(신도1리)에서 고남리(신도2리)로 교사를 이전했다.

3) 『조선총독부 직원록』 참조.

|| 표 || 신도 간이학교 졸업생 현황

졸업연월일	졸업횟수 ⁴⁾		학생수	졸업연월일	졸업횟수		학생수
	남	여			남	여	
1935.03.25.	1	1	9	1941.03.20.	7	6	13
1936.03.25.	2	2	12	1942.03.24.	8	7	22
1937.03.26.	3	·	7	1943.03.21.	9	8	22
1938.03.24.	4	3	13	1944.03.22.	10	·	15
1939.03.18.	5	4	10	계			137
1940.03.23.	6	5	14				

신도2리로 학교 이전하는 과정은 당시 북도면장이었던 전양훈의 중학교 설립 노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는 면장 재임(10대, 1967.2.24~72.6.3) 중에 초등학교 졸업 후 진학을 하지 못하는 지역의 후학을 위해 중학교 설립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경기도교육위원회로부터 북도중학교 신설 결정의 통보를 받게 되면서 우선 건물 부지 확보에 주력하였다. 이때 경기도교육위원회는 분교로 인가해 주겠다는 조건이었다.

고민 끝에 부지(敷地)는 구로지(신도1리)에 목재로 건축한 신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건물이 노후되어 수리 보다 교사(校舍)를 건축해 주겠다는 교육청의 제안에 학교 위치를 기준의 구로지에서 섬의 중심지에 해당하는 고남리(신도2리)로 정했다. 그러나 다음의 과제는 신도2리에 건축을 위한 토지 확보가 문제였다. 이때 전양훈은 부친(전주실)을 설득하여 선친 소유 밭(369평)을 기증받아, 학교를 신축한 것이다.⁵⁾

구로지에서 고남리로의 이전은 1960년대 초에 일부 학년이 먼저 이전했고, 1965년에 완전히 이전하여 그해 9월부터 새 교사를 사용



|| 자료 || 인천공항초등학교 신도분교

4) 졸업횟수의 특이한 점은 남·여 졸업횟수를 달리 했다는 점이다.

5) 전양훈, 『전양훈회고록』, 2006, 72~76쪽.

하게 된 것이다.

그후 1996년 3월 1일 ‘신도초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고, 학생 감소로 1999년 3월 1일부터는 인천신흥초 신도분교, 2007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인천공항초 신도분교로 격하되어 북도면의 초등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도서 지역의 초등교육 명맥을 이어가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며, 연혁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 인천공항초등학교 신도분교 연혁

연월일	내용	비고
1917.04.	한일합일학교 개설	1947년 이전은 불분명
1922.04.	의숙당으로 교명 개칭	
1924.04.	신흥학교로 교명 개칭	
1936.04.01.	영종심상소학교 부설 신도 간이학교로 승격	
1945.04.	북도공립초등학교 신도분교장으로 승격	
1946.07.	교사(校舍) 신축기성회 조직	
1946.11.21.	신도국민학교로 승격(6년제 3학급)	
1947.06.26.	제1회 졸업식 실시	
1948.06.10.	초대 신경국 교장 부임	
1948.09.09.	신축 교사로 이전(구로지)	
1961.11.18.	고남리 신축 교사로 이전(1, 2, 6학년)	
1965.05.06.	구 교사 매각 처분(해광고등공민학교)	
1965.09.01.	신축 교사로 이전(구로지에서 고남리로)	
1972.03.01.	6학급 편성(274명)	
1988.03.01.	시도국민학교가 신도국민학교 시도분교 격하	
	시도국민학교 모도분교장 또한 신도국교로 편입	
	6개 학급 편성(분교 3, 시도 2, 모도 1학급)	
1990.09.03.	성남청년회의소 초청 도시 견학	
1993.02.28.	시도분교장 폐교	
1996.03.01.	신도초등학교로 교명 개명	
1998.02.28.	모도분교장 폐교	
1999.03.01.	인천신흥초등학교 신도분교 격하 편입	
2007.03.01.	인천공항초등학교 신도분교 격하 편입	

|| 표 || 역대 교장 명단

대수	이름	재임기간	대수	이름	재임기간
1	신경국	1948.06.10.~1950.11.19.	13	박해진	1972.03.01.~1977.02.28.
2	이대희	1950.11.20.~1951.08.31.	14	장기문	1977.03.01.~1979.08.31.
3	박태규	1951.09.01.~1953.09.04.	15	김창성	1979.09.01.~1981.09.19.
4	경춘섭	1953.09.05.~1953.11.29.	16	심규섭	1981.09.20.~1983.08.31.
5	홍순하	1953.11.30.~1957.11.04.	17	김만규	1983.09.01.~1985.08.31.
6	변규현	1957.11.05.~1959.03.26.	18	윤창선	1985.09.01.~1988.02.29.
7	이종국	1959.03.27.~1959.12.30.	19	조영준	1988.03.01.~1990.02.28.
8	곽달영	1959.12.31.~1964.03.19.	20	함기석	1990.03.01.~1994.02.28.
9	윤민영	1964.03.20.~1967.02.28.	21	박범석	1994.03.01.~1995.02.28.
10	구자욱	1967.03.01.~1968.02.28.	22	김용천	1995.03.01.~1997.08.31.
11	정운홍	1968.03.01.~1970.02.28.	23	신영식	1997.09.01.~1999.02.28.
12	전경철	1970.03.01.~1972.02.28.	이후 분교로 격하		

|| 표 || 학교 현황(1987.2.14. 현재)

교직원수 교직원수	교원			일반직 일반직	졸업생수 졸업생수
	교장	교감	교사		
5	1	1	2	1	1,202명

학급수 학급수	교사 및 교지			학생수		
	교실	건평	교지	계	남	여
3	7	838.2m ²	7,114m ²	49	27	22

2) 신도초등학교 시도분교

시도분교는 광복 이후인 1946년 9월 5일 ‘시도공립초등학교’로 개교하였다.⁶⁾ 광복 후 1년이 되는 시기에 곧바로 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시도 지역의 교육열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규모가 작은 섬에서 분교가 아닌 본교로 초대 김경선 교장이 취임하였다.

6) 시도초등학교의 위치는 원래 시도교회 뒤쪽(아랫말)에 있었는데, 마을과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폐교된 현재 위치(웃말)로 1960년대 옮겼다.



|| 자료 || 시도초등학교와 교직원, 학생모(198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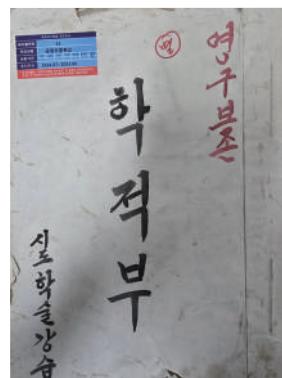
|| 자료 || 시도초등학교 모습(폐교)

본교로 개교하게 된 경위는 광복 이전인 1940년대에 시도 학술강습소⁷⁾가 운영되었으며, 이곳에서 약 130명 정도가 배움의 길을 걷고 있었다. 이들이 광복 이후 곧바로 강습소의 학생들이 학습을 이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물론 학술강습소 이전인 1920년대에도 강습소가 있어서 시도에서 는 학업의 길이 계속 이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앞의 표 참조>.

1950년에는 교육법이 실시되면서 ‘공립’ 두 글자를 제외시켜 ‘시도국민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고, 1960~70년대까지는 매년 20~30명 수준의 입학과 졸업생이 이어졌다.

그러나 1970년대 말부터 수도권 도시 집 중 현상이 심해지면서 도서 지역의 인구 감소가 학생 감소로 이어져 1988년 3월 1일 신도초등학교 시도분교로 격하 편입되었다. 그리고 1993년 2월 28일까지 45년 6개월 동안 시도의 초등교육 기관으로 존속하다가 폐교되었다.



|| 자료 || 시도학술강습소
학적부

7) 시도학술강습소에 재학중인 1~6학년 학생들의 학적부를 확인하였으며, 당시 1학년 학생들의 입학연월일이 1944년 4월 1일이었으며, 수료연월일이 1945년 3월 26일이었다. 광복 직전까지 운영되었기 때문에 광복 후 이어서 학습을 이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아울러 시도 학술강습소의 개교 시기는 정확하지 않으나 1930년대 말로 추정된다.

졸업생과 당시 근무했던 교사의 증언을 통해 1980년대 상황을 살펴보면⁸⁾ 교원은 교장 1명, 교감 1명, 교사 2명 총 4명이며, 교육행정직은 2명 등 총 6명이 근무했다. 6개 학년을 1·3학년, 2·4학년, 3·6학년과 같이 2개 학년을 한 학급으로 재편성해 모두 3개 학급으로 복식 수업을 했다.

담임교사는 선생님 두 분과 교감 선생님이 한 학급을 맡아 학생을 지도했다. 이 당시 전교생은 60명 안팎으로 학년별 10명 정도였다. 당시 6학년 교육과정은 도덕, 국어, 사회, 산수, 자연, 체육, 음악, 미술, 실과 등 9개 교과의 연간 2개 학기로 운영되었으며, 평가는 5단계 척도의 평어(수, 우 등)로 했다. 중학교 진학은 대부분 학생이 신도의 북도중학교에서 수학했다. 소풍(현장체험학습) 장소는 수기와 시도 해수욕장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1980년에는 도·농교류를 위한 자매결연을 맺어 서울 동대문시장 상가번영회 초청으로 평화시장에서 도시 체험학습을 실시한 바 있다. 교사의 학교생활은 주로 사택을 이용했으며, 평균 근무 기간을 2~3년이었다.

당시 시도까지 교통편은 연안부두에서 시도 노루메기 선착장까지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됐으며, 송림호와 관광6호를 이용했다.(이영실 증언)

|| 표 || 시도분교 연혁

연월일	내용	비고
1946.09.05.	시도공립국민학교 개교 초대 김경선 교장 취임	
1958.04.01.	모도분교장을 모도국민학교로 승격	
1983.03.01.	모도초등학교 분교장으로 격하	
1987.09.01.	본관 교사 4교실 개축 준공	
1988.03.01.	신도국민학교 시도분교로 격하	
1993.02.28.	신도국민학교 시도분교 폐교	

8) 도움을 주신 김재현 선생님(1981~82년 근무, 수원 거주), 이영실님(계양구 거주)께 감사드린다. 당시 교원은 김동은 교장, 강희락 교감, 김재현·홍세기 선생님이 계셨다.

|| 표 || 역대 교장 명단

대수	이름	재임기간	대수	이름	재임기간
1	김경선	1946.09.05.~1961.08.16.	6	홍순황	1971.05.01.~1975.02.28.
2	이응재	1961.08.31.~1964.03.20.	7	문상균	1975.03.01.~1979.09.01.
3	이성권	1964.03.21.~1967.02.28.	8	김동은	1979.09.02.~1982.09.01.
4	임충근	1967.03.01.~1969.02.28.	9	김장길	1982.09.02.~1985.09.01.
5	오관영	1969.03.01.~1971.05.01.	10	이인희	1985.09.01.~1988.02.29.

|| 표 || 시도초등학교 졸업생 현황(분교 제외)

졸업횟수	졸업생수	졸업연월일	졸업횟수	졸업생수	졸업연월일
1	21	1947.06.28.	18	20	1964.02.22.
2	16	1948.06.25.	19	19	1965.02.19.
3	17	1949.06.25.	20	13	1966.02.14.
4	15	1950.05.06.	21	32	1967.02.17.
5	24	1951.08.24	22	25	1968.02.22.
6	20	1952.03.26.	23	15	1969.02.12.
7	32	1953.03.31.	24	30(분교포함)	1970.02.13.
8	18	1954.03.27.	25	22	1971.02.18.
9	7	1955.03.23.	26	29(분교포함)	알수없음
10	21	1956.03.21.	27	30(분교포함)	1973.02.07.
11	14	1957.03.22.	28	17	1974.02.06.
12	13	1958.03.20.	29	17	1975.02.18.
13	19	1959.03.12.	30	14	1976.02.12.
14	19	1960.03.07.	31	15	1977.02.11.
15	16	1961.03.17.	32	11	1978.02.14.
16	17	1962.02.17.	33	9	1979.02.14.
17	19	1963.02.22.	34	7	1980.02.11.

3) 신도초등학교 모도분교

모도분교는 섬의 규모가 매우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광복 이후인 1946년 11월 23일 ‘시도공립국민학교’ 모도분교로 개교하였다. 광복 후 1년 만에 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모도 지역의 교육열에 의한 것이다. 학교의 위치는 처음에는 현재 경로당 부근인 마을 앞에 있다가 1950년대 중반 폐교된 위치로 이전하였다.

모도는 광복 이전에도 배화학교⁹⁾가 1916년에 개교하여 초등교육을 이어오고 있었으며, 숙명여학교(淑明女學校)의 설립 움직임도 모도 지역의 교육열을 반영하는 사례라 하겠다.¹⁰⁾

숙명여학교는 신도의 신흥학교에 같이 있다가 1923년부터 모도로 옮겼고, 1924년 기성회를 조직하여 완전한 여학교를 만들려는 계획을 갖고 추진하였다. 대표적 인물은 이도웅(李道應), 황도문(黃道文) 등 지역 유지이며, 학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지만 이후 상황을 알 수 없고, 배화학교와 동일한 학교인지 여부도 알 수 없다.

이런 교육 열기가 모아져 광복 후 1년 만에 학교 건립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주변 도서 지역의 학교와 주민의 증언을 통해 초창기의 모습을 살펴보면,¹¹⁾ “1950년 8살에 입학했는데, 3달도 안되어 6·25가 일어났어. 학년은 6학년까지 있지만 1·4학년, 2·5학년, 3·6학년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해서 모두 3개 학급이었고, 우리 담임은 ‘우리명’ 선생님이셨지. 이 당시 선생님은 ‘우리명, 정○○, 김수경’ 선생님 등 모두 3분이셨으며, 두 분은 여기서 오래 계셨고, 한 분은 근무 기간이 짧아 자주 바뀌었지.”

이상의 내용으로 수업 형식은 복식 수업이었으며, 전교생은 40~60명 정도였다. 6·25전쟁 때는 “아침에 학교에 가서 이북 비행기가



|| 자료 || 모도초등학교(이사 전) 모습

9) 배화학교는 1920년대 기사의 내용으로 보아 추측할 수 있는데, ‘… 교육기관으로는 同島 감리교 경영의 모도 소학교가 있어서 수십 명 남녀 아동을 가르치는 터이며 …’라는 내용으로 보아 모도교회 내에 설치된 학교로 보인다. 또한 ‘… 앱윗 청년회가 얼마 전 창립되어 회원이 수십 명에 달하며, 동교회내 소년회를 새롭게 조직하였는데 청년회와 소년회의 임원을 다음과 같다. 청년회 임원, 회장 김윤배, 부회장 조만석, 총무 조성현, 회계 차홍선, 서기 이독만, 간사 조성관·김석희, 소년회 임원, 회장 이성복, 부회장 류재열, 총무 김수익, 재무 홍기봉, 서기 유배근, 찬성원 조성준 외 5명’ (『동아일보』, 1923. 10. 9.)

10) 『동아일보』, 1924. 1. 15.

11) 1학년 학생들은 모두 9명이었는데, 본인을 비롯하여 김순례, 김명자, 조주안, 조상국, 김정남, 정영일(정○○ 선생님 아들), 그리고 2명이 더 있었다.

떠서 소리가 나면 조용히 있다가 뒷 산으로 옮겨 숨어서 공부를 했지. ‘가, 가, 거, 거 …’ 를 배웠어. 지금도 생각이 나네.” 라고 기억했다. (조지순 증언)

1965년에는 비극적 사건도 있었는데, 당시 초등생이었던 박용남, 차은주, 유순성 등 3명이 전마선을 타고 놀다 조류에 휩쓸려 행방불명된 애석한 일도 있었다.¹²⁾

특이한 사실은 섬의 특성상 굴 방학이 있었다. 김장철이 되면 1주일의 방학을 맞이하여 선

창가 혹은 박주기 해변, 장봉도가 보이는 물성구지 등지에서 굴을 쪘았다. 이 굴은 김장에 사용했으며, 남은 굴은 모아 인천에 매매 했다. 소풍은 박주기나 배미끼미 해변을 이용했다.¹³⁾(이석원, 김덕배 증언)

1970년대 후반부터 수도권 도시 집중 현상이 심해지면서 학생 감소로 이어져 1988년 3월 1일 신도초등학교 모도분교로 격하 편입되었다. 그리고 1993년 2월 28일까지 모도의 교육기관으로 존속하다가 폐교되었다.



|| 자료 || 모도초등학교 모습(폐교)

12) 『조선일보』, 1965. 10. 26. ; 1965. 10. 28. 조상태 증언.

13) 당시 교사는 심행삼, 박현복, ○○○ 선생님이 있었으며, 1960년대 초기의 점심은 옥수수죽과 우유덩이를 배급했다.

|| 표 || 모도분교 연혁

연월일	내용	비고
1916.07.08.	배화학교로 개교	
1946.11.23.	신도공립국민학교 모도분교 개교	
1957.10.21.	모도국민학교 승격 인가	
1964.03.20.	초대 임성원 교장 취임	
1967.03.01.	시도국민학교 모도분교로 격하 편입	
1973.03.01.	모도국민학교로 승격 인가	
1983.03.01.	시도국민학교 모도분교로 격하 편입	
1988.03.01.	신도국민학교 모도분교로 편입	
1996.03.01.	신도초등학교 모도분교로 교명 변경	
1998.02.28.	신도초등학교 모도분교 폐교	

|| 표 || 역대 교장 명단 및 재임기간

대수	이름	재임기간	대수	이름	재임기간
1	임성원	1964.03.20.~1966.02.28.	6	홍관철	1975.03.01.~1979.04.28.
2	윤학중	1966.03.01.~1966.06.30.	7	심행삼	1979.05.01.~1983.02.28.
3	채기로	1966.07.01.~1968.02.28.	8	오정길	1983.03.01.~1986.02.28.
4	박부기	1968.03.01.~1971.02.28.	9	조견상	1986.03.01.~1988.02.28.
5	임봉신	1971.03.01.~1975.02.28.	10	박영철	1988.03.01.~1989.02.28.

|| 표 || 학교 현황

학급수	교사 및 교지			학생수			교직원수	
	교실수	건평	교지	남	여	계	교원	일반
1	3	323.9m ²	1,028m ²	4	3	7	1	.

|| 표 || 모도초등학교 졸업생 현황

졸업회수	졸업생수	졸업연월일	졸업회수	졸업생수	졸업연월일
시도분교	2	1947.06.28.	시도분교	11	1953.03.31.
시도분교	6	1948.06.25.	시도분교	14	1954.03.27.
시도분교	5	1949.06.25.	시도분교	11	1955.03.23.
시도분교	11	1950.05.06.	시도분교	15	1956.03.21.
시도분교	8	1951.08.24.	시도분교	8	1957.03.22.
시도분교	12	1952.03.26.	시도분교	12	1958.03.20.
1959~67년 자료는 알 수 없음					
시도분교	11	1968.02.22.	시도분교	9	1971.02.18.
시도분교	10	1969.02.22.	시도분교	12	알 수 없음
시도분교	본교 포함	1970.02.13.	시도분교	본교 포함	1973.02.07.
1	11	1974.02.25.	7	6	1980.02.11.
2	17	1975.02.20.	8	7	1981.02.20.
3	9	1976.02.20.	9	5	1982.02.13.
4	10	1977.02.23.	10	8	1983.02.10.
5	11	1978.02.09.	총계	100명 (본교)	이후 분교자료는 알 수 없음
6	16	1979.02.23.			

4) 인천삼목초등학교 장봉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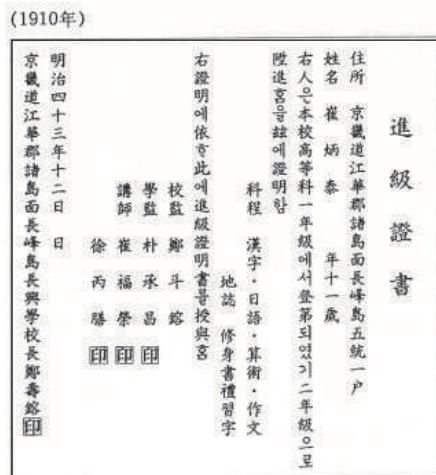
가) 서당 교육

장봉도 내의 초등교육은 서당부터 시작된다. 1902년 평촌에 세운 ‘조용교·이정훈 구황시혜불망비’에 나타난 바와 같이 두 사람의 활동을 통해 알 수 있다. 교육활동은 유교 사상을 기본으로 한 교육 내용으로 이뤄졌으며, 비석에 언급된 두 사람의 입도 시기가 1884년과 1894년이기 때문에 최소한 19세기 후반까지는 서당 교육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1910년 한학 서당을 폐지하고, 신학문을 수용하기 위해 학교를 설립했다.”는 점과 진촌(장봉3리)에 ‘버드나무깨 학방’이라는 지명이 있어 서당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 장흥학교(長興學校)와 영흥학교(永興學校)

장흥학교의 설립년도는 알 수 없지만 1900년대 초기 장봉도 교육의 단면을 알려주고 있어 기재 한다. 1910년에 장흥학교에서 발행한 진급 증서인데,¹⁴⁾ 증서는 11 세의 최병태 학생이 본교 고등과 1학년에서 등제(登第, 합격)되었기에 2학년으로 승진함을 증명하는 ‘진급증명서’를 수여한다는 것이다. 이 증명서에는 “과 목은 한문, 일어, 산술, 작문, 지지, 수신, 서예, 습자이며, 증명서를 수여한 시기는 1910년 12월이다. 교감 정두용(鄭斗鎔), 학감 박승창(朴承昌), 강사 최복영(崔福榮), 서병선(徐丙膳)의 날인란이 봉도 장흥학교장 정수용(印)”이라



|| 자료 || 장흥학교 진급증서
출처『온진군향리지』

이 증서를 통해 ① 매 학년 진급에는 당해 학년에서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시험을 통해 진급 여부를 결정했으며, ② ‘진급증명서’는 오늘날 학년말에 해당하는 시기로 엄격하게 학습 능력을 강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학교에서 운영한 1학년 교육과정은 한문을 포함한 8과목이며, 설립 시기는 1908년 ‘사립학교령’ 공포 이후 1910년 5월까지 2,250여 개의 인가 학교 중 하나였을 것이다. 장흥학교는 산 162번지 안산 중턱에 있었다고 하나 폐교 시기와 이유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동일인인 정수용이 1921년 1162번지에 5년제의 영홍학교를 설립하고, 3회에 거쳐 졸업생을 배출했다고 하는데, 규모는 221

14) 옹진군향리지평창위원회, 『甕津郡鄉里誌』, 1996, 171쪽.

평 대지에 20평의 학교 건물을
지었다고 하며,¹⁵⁾ 1935년 북도공
립보통학교가 세워지면서 폐교되
었다.

또한 “윤기영(尹基永)씨 빌기로 장명신숙(長明新塾)을 창립하고 20여 명 아동을 교수 중이며, 장봉도 교육기관으로는 효시”라는 신문기사¹⁶⁾는 있지만 확인할 수 없다.



|| 자료 || 영흥학교
출처 『장봉도 이야기』

다) 북도공립보통학교 건립

장봉도에 북도공립보통학교가 설립되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다. 동아일보(1935.4.16.)의 기사에 의하면 ‘普校위치 문제로 道에 진정’ 이란 기사에는 “북도면은 4섬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섬에 아직 보통학교가 없어 각각의 섬에 강습원

이 있어 학령아동을 교육시켜 오던바 …(중략)… 면민들이 이천사백 원을 부담하면 곧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 차제에 가장 교통이 치우친 장봉도에서 면 당국도 모르는 사이에 먼저 이 금액을 걷어 군 당국에 학교를 자기 섬에 설치하여 달라고 하여 다른 신도(信島), 시도(矢島), 모도(茅島)의 유지는 일전에 면민대회 형식으로 토의하고 …(중략)… 그 대표로 한기동씨가 15일 경기도 학무당국에 진정하였다고 한다”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북도공립보통학교의 장봉도 유치에 신도, 시도, 모도 주민들이 교육 당국에 진정하였다

道에陳情 普校位置問題豆

|| 자료 || 보고위치문제로 도에 진정 기사 (동아일보, 1935.4.16.)

15) 옹진군향리지편찬위원회, 『앞 책』, 1996, 169쪽.

16) 『동아일보』, 1923. 10. 01.

는 것으로 일제강점기 북도면민들의 교육 관심 정도를 알 수 있는 대표적 사례이다.

그러나 이러한 진정에도 불구하고 1935년 장봉도에 학교가 건립되었으니 이 학교가 현재의 인천삼목초등학교 장봉분교이며, 서창식(徐昌植)이 사재로 학교를 세웠다.

같은 시기에 경상북도는 매년 18개 학교를 설립하여야 하나 기부금이 모이지 않아 8개교만 개교가 확정됐다는 것으로¹⁷⁾ 보아 서창식의 보통학교 설립은 장봉도민의 교육열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설립자인 서창식은 강화 출신의 기독교 신자로서 3·1 운동에 참여하였으며, 장봉도로 피신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독립을 이루지 못한 것을 한탄하며, 1930년대 교육을 통한 민족정신 통일을 통해 독립을 꿈꾸었던 것으로 보인다.

1935년 개교 당시 학생들은 어떤 과목을 배웠으며, 교원은 누가 있었을까? 당시는 교과목은 제2차 조선교육령(1922~38)이 시행되던 시기로서 수신, 국어, 조선어, 산술, 일본 역사, 지리, 이과, 도화, 창가, 체조, 재봉이었다. 재봉은 여학생만 배우는 과목이었고, 선택과목으로 농업, 상업, 한문 중 1과목 또는 몇 과목을 더 할 수 있었다. 이때는 4~5년제 보통학교이며, 일제의 동화정책을 위해 일본 역사와 지리가 신설되었다.

한편, 교원은 『조선총독부 직원록』에 의하면 1936년 조사에서 북도공립보통학교의 학교장은 임영구(林泳龜)이며, 교사는 岡村盛一(강촌성일), 다음 해는 임영구와 日人 교사 岡村 대신 촉탁교원(현 기간제교사) 이복남(李福男) 등 2명이 학생을 교육했다.

눈여겨볼 점은 이 당시 조선인 교장 정원제(전국 보통학교의 5%)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조선인 교장이 임명되거나 일본인 교사가 다음 해 조선인 촉탁교사로 대체되었다는 점은 도서벽지에 일본인이 근무를 기피하여 조선인으로 대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7) 『동아일보』, 1932. 02. 22.

라) 광복 이후 장봉초등학교의 교육

일제강점기를 지나 광복 이후 미군정기(1945.9.7.~1948.8.15.)의 초등교육은 이전 시기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한국 교육의 한국화 추진, 학교의 교수 용어로 한국어 사용, 민주교육의 이념보급을 위한 교원 재교육, 초등학교의 교과서 편찬 보급, 복선형에서 단선형 등 교육제도의 민주화 추진, 교육행정의 자치화 및 지방분권화 시책 강구, 문맹 퇴치를 위한 성인 교육을 추진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일반명령 제4호’ (1945.9.17.)로 학교 교육의 재개를 추진했다. 그 결과 공립국민학교는 그해 9월 24일 개학을 하며, 교육에 있어서 인종 및 종교에 따른 차별 철폐, 교수 용어는 한국어로 전환, 한국의 이익에 반하는 교육 내용의 금지 등을 실천했다.



|| 자료 || 옹암분교 모습(일부)



|| 자료 || 장봉분교 모습

한편 조선교육심의회에서 확정된 학제는 오늘날 교육제도의 근간이 됐는데, 내용은 ① 단선형 ② 교육 연한은 6-3-3-4제, ③ 중등교육은 초급과 고급으로 2분 ④ 전문학교 제도는 순차적 폐지하고 대학에 흡수시킬 것 ⑤ 1년을 2학기 ⑥ 남녀공학을 원칙으로 할 것 ⑦ 1945학년도는 46년 8월까지 연장 ⑧ 신 학제는 46년 9월부터 실시 등이었다.

이 당시 교과목은 공민, 국어, 역사, 지리, 산수, 이과, 체조, 음악, 습자, 도화 공작, 가사 재봉, 직업훈련(이상 전일제 기준)이 편제되어 있었으며, 장봉국민학교에서는 학년에 따라 교과목과 과목 수가 조정 운영되었다.

|| 표 || 장봉초등학교 연혁

연월일	내용	비고
1935.09.10.	북도공립보통학교 설립 인가(4년제)	
1935.10.31.	초대 임영구 교장 취임	
1935.12.09.	훈도 岡村盛一(日人) 취임	
1936.01.05.	新 校舍 낙성 假 校舍에서 이전함. 개교식 및 입학식 거행 (1학년 24명(남 14, 여 10명), 2학년 26명(남 26, 여 4명), 총 50명)	
1936.04.01.	입학식 1학년 입학생 18명(남 12, 여 6명)	
1938.03.25.	제1회 졸업증서수여식(계 30명(남 26, 여 4명))	
1947.06.01.	부천군교육총회 본교에서 개최	
1947.06.10.	장봉공립국민학교로 교명 변경	
1947.10.31.	경기도교육전람회 공작 '젓배'출품 3등 입선	
1948.08.15.	오전 10시 30분 대한민국 정부수립 축하식 거행	
1948.09.01.	1948년도 입학식 제1학년 입학생 34명(19/15명), 제5학급 인가	
1948.12.15.	남한 정부 국제 승인 축하식 거행	
1949.01.06.	중학교 유학생 초청 좌담회 개최	
1949.03.23.	교내 학생자치회 창설	
1949.08.15.	민국 정부수립 1주년 기념식 거행	
1949.09.21.	제6학급 정식 인가되어 전임교장제로 승격	
1950.01.16.	본교 부설 공민학교 인가	
1950.03.25.	교육법 실시로 인해 교명 중 '공립'의 2자를 사용치 않기로 함	
1953.08.30.	민병대 결성식을 거행	
1957.04.01.	7학급 인가(학급 증설)	
1958.07.05.	고서창식교육송덕비 제막식 거행	
1970.03.16.	기성회 해체와 동시 육성회 조직 총회 개최	
1980.03.01.	옹암분교 개교 2학급 27명(남 15, 여 12명)	
1991.03.01.	옹암분교 통폐합(통학버스 운영)	
1996.03.01.	장봉초등학교로 교명 변경/장봉 초등 병설유치원으로 명칭 변경	
1999.02.12.	제61회 졸업식 거행(남 1, 여 1명 계 2명)	
1999.03.01.	인천도화초등학교 장봉분교로 명칭 변경	
2007.03.01.	인천삼목초등학교 장봉분교로 명칭 변경	

|| 표 || 역대 교장 명단

대수	이름	재임기간	대수	이름	재임기간
1	임영구	1935.10.31.~1938.03.31.	14	박윤석	1966.03.01.~1968.03.31.
2	최복엽	1938.04.06.~1940.04.08.	15	방대연	1968.04.01.~1970.02.28.
3	조수학	1940.04.09.~1942.03.31.	16	한영섭	1970.03.01.~1976.02.28.
4	최윤수	1942.04.01.~1945.10.31.	17	박승문	1976.03.01.~1976.06.30.
5	이창복	1945.11.01.~1948.01.31.	18	이선재	1978.07.01.~1980.11.30.
6	김천득	1948.02.01.~1950.11.08.	19	황진원	1980.11.01.~1983.08.31.
7	강교석	1950.11.09.~1953.01.31.	20	김수영	1983.09.01.~1989.02.28.
8	이대희	1953.02.01.~1956.09.04.	21	이환구	1989.03.01.~1991.06.30.
9	정천근	1957.02.28.~1959.03.01.	22	한상갑	1991.07.01.~1993.08.31.
10	허성도	1959.03.02.~1961.08.06.	23	임익수	1993.09.01.~1995.02.28.
11	양재철	1962.08.07.~1968.01.28.	24	변종원	1995.03.01.~1997.08.31.
12	오창환	1963.01.29.~1964.10.21.	25	이우문	1997.09.01.~1999.02.28.
13	신태균	1964.10.22.~1966.02.28.	1999.03.01.일 도화초 장봉분교로 격하		

|| 표 || 연도별 졸업 학생수

졸업횟수	연도	졸업자수	졸업횟수	연도	졸업자수	졸업횟수	연도	졸업자수
1	1938	30	21	1959	35	42	1980	43
2	1939	24	22	1960	30	43	1981	29
3	1940	18	23	1961	37	44	1982	25
4	1941	22	24	1962	28	45	1983	27
5	1942	22	25	1963	29	46	1984	21
없 음				1964	35	47	1985	21
6	1944	29	27	1965	49	48	1986	25
7	1945	31	28	1966	34	49	1987	19

졸업횟수	연도	졸업자수	졸업횟수	연도	졸업자수	졸업횟수	연도	졸업자수
8	1946	20	29	1967	33	50	1988	15
9	1947	21	30	1968	50	51	1989	21
10	1948	21	31	1969	49	52	1990	16
11	1949	23	32	1970	35	53	1991	17
12	1950	24	33	1971	62	54	1992	23
13	1951	30	34	1972	49	55	1993	16
14	1952	46	35	1973	53	56	1994	11
15	1953	41	36	1974	52	57	1995	14
16	1954	33	37	1975	40	58	1996	4
17	1955	48	38	1976	47	59	1997	5
18	1956	33	39	1977	60	60	1998	7
19	1957	29	40	1978	30	61	1999	2
20	1958	27	41	1979	41	계		1811
인천도화초등학교 장봉분교 시기								
62	2000	1	65	2003	6	68	2006	3
63	2001	2	66	2004	5	69	2007	5
64	2002	4	67	2005	9	계		35명
인천삼목초등학교 장봉분교 시기								
70	2008	4	76	2014	3	2020	82	없음
71	2009	1	77	2015	5	2021	83	1
72	2010	2	78	2016	1	2022	84	2
73	2011	6	79	2017	3	2023	85	1
74	2012	2	80	2018	1	2024	86	1
75	2013	6	81	2019	1	계		40

마) 현재의 장봉분교

최근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신입생이 없어 폐교 위기에 있으며, 본교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한때는 학교가 함성으로 넘쳐났다. 1960~70년대에는 한 학년이 1개 학급으로 50명 정도가 있었으며, 1980년대는 10년 동안 옹암분교를 둘 만큼 북적거리던 학교였다. 한때 전교생이 300~350명 정도로 많았지만 이후 인구의 감소와 함께 1990년대 옹암분교는 폐쇄됐고, 2024년에는 1학년 신입생이 없이 전교생 6명이 재학하고 있다.

나. 중등교육 및 교육기관

북도면의 중등교육은 초등교육에 비해 반세기가 늦은 1950년대에 시작되며, 섬 규모가 큰 신도와 장봉도에 각각 한 곳의 교육시설이 설립됐다.

교육은 진학을 통한 단계별 연계 교육이 중요한데, 당시 육지로 유학을 가지 못한 대부분의 초등학교 졸업생은 중등교육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가사에 종사했다. 그만큼 교육의 지속 여부는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런 현상은 초등교육은 물론 섬 내의 사회적 문제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신도에서는 1946년 해광고등보통학교를 건립했던 것이다. 장봉도에서는 이보다 20년이 늦게 1967년 노연태가 푸른고등공민학교를 설립했다. 그러나 1980년 대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으로 도서벽지의 인구 감소가 뒤따르자 두 학교 모두 폐교되었다. 각 학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북도중학교(北島中學校)[鋪교]

가) 중등교육의 시작, ‘해광고등공민학교’

‘해광고등공민학교(海光高等公民學校)’는 5대 면장을 역임했던 천용택이 후손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1946년 6월 5일 개교하였고, 1950년 4월 5일에 경기도 지사의 인가를 받았다.¹⁸⁾

교사(校舍)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하던 신도 간이학교 건물을 사용하였고, 인가와 동시에 학교 설립자 겸 초대 교장으로 천용택이 부임하였다. 교사 5명이었고 신도, 시도, 모도초등학교 졸업생 20~30명을 모집하여 수업에 임하였지만 6·25 전쟁으로 휴교하였고, 수복 후 다시 개교하였다.

18) 해광고등고등학교는 2명의 교원과 3학급으로 운영되는 학교였으며, 당시 교장은 천용택 설립자로 기록되어 있다. 학생은 남학생 39명, 여학생 5명으로 총 44명의 학생이 재학중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경기도지편찬위원회, 『京畿道誌』, 1954년 : 인천문화재단, 『신도·시도·모도』, 2022.) 한편 지역 주민에 의하면 1960년대 당시 교사는 유기훈, 김종길(수학), 김종철, 김영립 등이 있었다.

1955년 3월 30일에는 교장 천윤근이 새로 부임하였고, 교사 3명으로 학교를 운영하지만 개교 초창기부터의 재정적 어려움에 도저히 학교를 이끌고 나갈 형편이 아니었다. 이때 신도교회 최인석 목사가 학교를 인수하여 미국 선교사의 후원을 받아 운영의 명맥은 유지하였으나 결국 후원이 중단되자 전양훈(全陽勳)이 운영권을 이양 받아 중학교 설립을 위해 북도중학교 설립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장을 맡아 활동하였다.

이렇게 북도중학교를 짓는 과정에서 신도초등학교가 신도2리로 옮겨졌으며, 해광고등공민학교 시절은 1946년부터 시작되지만 재정의 어려움으로 북도중학교와 연계됐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나) 북도중학교 건립에서 폐교까지

‘해광고등공민학교’는 이렇듯 구로지의 신도초등학교 옛 목조건물을 임시로 사용하다가 경기도교육위원회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고 그 터에 중학교를 신축했다. 이후 1971년 12월 17일 자로 인천남중학교 북도 분교로 설립 인가(3학급)를 받아 1972년 3월 1일 개교했다.

분교로 개교하여 학교장은 없었으며, 1970년대 학생 수가 점차 증가하자 마침내 1979년 10월 26일 북도중학교로 승격하여 초대 교장 권혁노가 부임하였다.

당시 교직원은 11명이었으며, 교원은 교장 1명, 교감 1명, 교사 7명, 교육행정직 2명으로 구성되었다.¹⁹⁾ 교사는 사택을 이용했으며, 교통은 연안부두에서 시도 노루메기까지 여객선으로 이동 후 다시



|| 자료 || 북도중학교 모습

19) 『발령대장』에 의하면 이 당시 근무했던 교사는 김기영(과학), 송영일(수학), 심재린(역사), 김갑태, 윤정근(영어), 원용현→김광록(체육), 동미선(보건) 등이 근무했다. (이후 당시 근무했던 김광록 선생님이 증언함)

신도로 이동했다. 학급수는 학년 별 1학급으로 총 3개 학급이 운영되었으며, 학급 당 평균 20~30명을 유지하다가 점차 감소하였다. 모도와 장봉도 학생들은 보통 인천으로 유학했으며, 시도 학생들은 잠수교 혹은 전마선을 타고 통학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학생 수가 감소하게 되면서 1999년 2월 28일 폐교되었는데, 학교의 연혁, 학교장 명단, 학교 현황, 졸업생 수는 표와 같다.



|| 자료 || 북도중학교 간판
(정문입구)

|| 표 || 북도중학교 연혁

연월일	내용	비고
1946.06.05.	해광고등공민학교 개교	
1950.04.05.	해광고등공민학교 인가	
1971.12.17.	인천남중학교 북도분교 설립 인가(3학급)	
1972.04.26.	인천남중학교 북도분교 개교식 거행	
1978.11.08.	북도중학교 설립 인가(3학급)	
1979.03.01.	북도중학교로 승격 개교(3학급)	
1979.07.10.	초대 교장 권혁노 취임	
1979.10.26.	북도중학교 개교 기념식 거행	
1987.02.14.	제8회 졸업식 거행(26명 졸업, 누계 226명)	
1997.03.01.	인천남중학교에 북도분교로 격하 편입	
1999.02.28.	인천남중 북도분교 폐교	

|| 표 || 역대 교장 명단 및 재임 기간

대수	이름	재임기간	대수	이름	재임기간
1	권혁노	1979.03.01.~1981.02.28.	6	이종만	1991.03.01.~1991.08.31.
2	최진용	1981.03.01.~1983.03.04.	7	양경석	1991.09.01.~1992.12.10.
3	오세창	1983.03.05.~1985.08.31.	8	이영기	1992.12.12.~1995.02.28.
4	이두영	1985.09.01.~1987.08.31.	9	이진교	1995.03.01.~1996.08.31.
5	김상용	1987.09.01.~1991.02.28.	10	이현무	1996.09.01.~1997.02.28.

|| 표 || 학교 현황(1987. 2. 14. 현재)

학급수	교사 및 교지						학생수			졸업생수
	교실	특별실	관리실	사택	건평	교지	계	남	여	
3	3	1	2	6	423m ²	11,819m ²	45	19	26	해광고등공민학교 197명 북도중학교 340명

교직원수	교원						일반직			
	교장		교감		교사		행정직		교육감 소속	
13	1		1		8		1		2	

|| 표 || 북도중학교 졸업생 현황²⁰⁾

졸업횟수	졸업생수		계 계	졸업연월일	졸업횟수	졸업생수		계	졸업연월일
	남	여				남	여		
1	29	20	49	1980.02.12.	11	7	10	17	1990.02.16.
2	19	11	30	1981.02.23.	12	6	6	12	1991.02.12.
3	13	17	30	1982.02.15.	13	7	2	9	1992.02.13.
4	12	13	25	1983.02.15.	14	5	8	13	1993.02.12.
5	9	18	27	1984.02.14.	15	2	4	6	1994.02.15.
6	8	12	20	1985.02.18.	16	6	4	10	1995.02.15.
7	9	10	19	1986.02.15.	17	6	-	6	1996.02.15.
8	15	11	26	1987.02.14.	18	5	6	11	미기재
9	4	10	14	1988.02.12.	계	170	170	340	
10	8	8	16	1989.02.15.					

20) 『졸업대장』에는 승격 이후의 졸업생 현황만 기재되어 있다.

2) 푸른고등공민학교[폐교]

가) 푸른 학원 설립

장봉도에 북도공립보통학교가 1935년 개교되어 초등교육이 시작됐지만 섬 내에서 상급학교 진학이 이뤄지지 못한 체 30여 년이 지난 1967년 첫 중등교육 기관으로서 ‘푸른학원’이 개교됐다.

즉, 30년 동안 섬 내에서 진학이 이뤄지지 못한 공백기가 있었는데, 이 당시 졸업생은 인천 등

육지로 유학하거나 부모를 도와 어로(漁撈) 활동에 종사했다. 섬 내에 중등교육 시설이 없던 상황 속에 학업의 정검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 노연태(1914~2000)였다. 그는 평남 진남포 출신으로 승실고보를 졸업한 후 항해사 자격을 취득했다. 1938년(24세)에는 인천해운회사 연안여객선 선장으로 취임하면서 인천과 인연을 맺었고, 인천에서는 화도교회 권사, 찬양대 지휘, 주일학교 교사 등 왕성한 종교활동을 펼친 종교인이기도 했다. 6·25전쟁 이후인 1954년(40세)에는 삼목도에 이주하여 낙도 의료 전도 활동을 하다가 1965년 장봉도로 이사하였고, 마침내 1967년(53세)에 ‘푸른학원’을 설립했다. 여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 당시 노연태는 데리고 있던 처자(處子)가 장봉도 남쪽에 위치한 한들해변 부근의 ‘제비우물’ 근처에서 동죽 등 조개 채취 활동을 하다가 우중의 낙뢰에 사망하는 일이 생겼다. 그는 유가족에게 위로금 40만 원을 전했지만 유가족은 오히려 되돌려 주면서 좋은 일에 써달라고 부탁하였고, 그는 유가족의 뜻을 기려 평촌 앞장술에 학교를 설립했던 것이다.



|| 자료 || 푸른고등공민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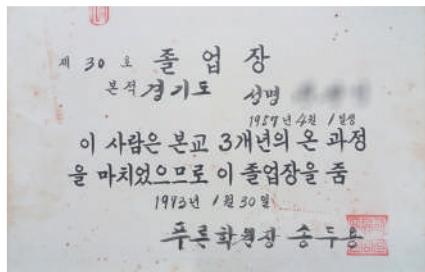
나) 노연태와 송두용의 만남

설립자 노연태의 뒤를 이어 1969년부터 1983년 2월 말 폐교되기까지 대부분은 송두용이 맡아 운영했다. 노연태와 송두용(1914~1986)의 만남은 송두용이 원인 불명의 병으로 고생하던 중 장봉도에 휴양차 머물게 되는데, 이때 노연태의 권유로 학교 운영에 관여하게 됐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특별한 종교적 관계를 맺고 있는데,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성서에 바탕을 둔 신앙생활을 실천했던 무교회주의 운동에 참여했던 종교적 동지였다.

다) ‘푸른학원’ 운영²¹⁾

학교 운영 체계와 교육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1967년 개교 당시는 허름한 학교 건물에 20여 명의 학생이 모여 공부했으며, 1968년은 학생 수는 1, 2학년 모두 20여 명이었다고 하니 학생 수의 결정은 학령 아동 수보다 경제적 여건이 우선순위였다.

1969년은 ① 학년당 20여 명의 학생이 한 학급으로 총 3개 학년 3학급이 모두 갖춰져 학교가 완성되었으며, ② 송두용(宋斗用)이 ‘푸른학원’의 운영을 맡으면서 안정적 교육 기반이 마련된 시기로 보인다. 이 당시 송두용은 학생들에게 ‘장봉도 할아버지’라 불렸으며, 초창기 비인가 교육시설의 친근한 칭호였다. 학교의 체계는 갖추지 못했지만 열정으로 학생을 지도했던 시기였다.



|| 자료 || 푸른학원 졸업장

21) 푸른학원 관련 자료는 연창호(도시역사관), 김선만(장봉1리), 전창섭(장봉2리)이 제공해 주었다

(1) 교명의 ‘푸른’과 교훈의 의미

교명에 ‘푸른’이란 명칭을 사용한 의미와 교훈은 무엇일까? 교명의 ‘푸른’은 노연태 부부의 의지와 밀접하다. 부인인 권정임 여사(1919~1958)는 이화여자전문학교 보육과를 나와 인천에서 유치원 교사를 역임했다. 그러면서 ‘푸른 마음에서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노연태는 푸른 하늘과 바다처럼 푸른 마음으로 학생들이 공부하기를 소망하여 ‘푸른’으로 작명하였다는 것이다.

교훈은 정직(正直)이었다. 송두용은 학생들에게 유난히 ‘정직’을 강조했는데, ‘정직’이란 문구를 교실과 교무실 계시는 물론 자신이 거처하는 방에도 써 붙여 실천 윤리를 강조했던 것이다. 특히 신입생에게 “첫째, 나는 정직한 생활로 인격을 함양하겠습니다. 둘째,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약속을 틀림없이 지키겠습니다. 셋째, 졸업까지 전 과정을 틀림없이 이수하겠습니다. 넷째, 성적이 미달될 때는 몇 번이고 재수하여 실력을 갖추고 진급하겠습니다.”라는 ‘정직 선서’를 하게 했다. 그리고, “정직한 마음, 정직한 사람은 푸른 사람”이라고 강조했다는 점에서 기독교 신앙 윤리를 학생들의 인격 도야에 적용한 것으로 ‘정직=푸른’ 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교사와 학생

교사는 누구, 학생은 몇 명 정도였을까? 개교 초기 노연태가 학교를 운영했던 1967~68년 당시 교사는 함석조, 서완근 선생님 등 2명이 교육을 전담하다가 점차 증원됐다. 1969~74년에는 길광웅, 주정훈, 양성희, 김은숙, 과충



|| 자료 || 교장 사택 모습

란, 황우경, 이원경 등이 부임했으며, 교장의 역할은 송두용, 교감의 역할은 주광호, 송기명이 했다. 1975~79년에는 김선만, 주정훈, 백승완, 송석중 등이 부임했으며, 교장의 역할은 송두용, 주광호, 교감의 역할은 송기영이 맡아 학교를 운영하였다. 1980~폐교 시까

지는 한교전, 최경해 등이 부임했으며, 송두용이 건강이 악화되어 학교를 떠나게 되자 학생과 교사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다가 학생 수의 급감으로 폐교된 것이다.

교과교사는 누가 있을까? 길광옹 교사는 과학을 위주로 영어, 역사, 음악, 이원경 교사는 국어, 황우경과 한교전 교사는 수학을 지도하였다. 소수의 인원이 여러 과목을 지도하는 관계로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의 주요 과목 선생님이 나머지 2~3과목을 가르친 것으로 보인다.

교사들의 생활은 학원 옆 사택을 주로 이용했으며, 결혼하면 독립해 가정을 이뤘다. 근무 연수는 길게는 10년 정도, 짧게는 1~2년 근무한 경우도 있었다. 주로 젊은 교사들이 대부분이었다.

(3) 교육활동

푸른고등공민학교가 처음 개교할 당시는 제2차 교육과정기(1963~74)로서 중학교는 교과활동(국어 외 8 과목), 특별활동, 반공·도덕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반공·도덕 활동이 강조되던 시기였다. 그러나 이 학교에는 특별한 시간이 있었는데, 오늘날 기독교 학교의 채플 시간에 비견되는 주 1회 성서 시간이었다. 이 시간의 지도교사는 학생에게 ‘할아버지’로 불리던 송두용과 ‘할머니’로 불리던 박정수(1898~1996) 선생님이 담당했다. 두 사람은 무교회 신앙의 종교적 동지로서 박정수는 송두용을 따라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 입도했으며, 학생들에게 ‘성서로 풀어가는 성경 속 인물 이야기’를 주제로 재밌는 수업을 진행했다. 필자가 생각건대, 그 당시 교육과정으로서는 매우 파격적이며 특색있는 교육활동이었다.

수학여행은 전교생이 서울 남산이나 강화 마니산 등으로 떠났다고 한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평촌 앞장술 풀밭에서 학교



|| 자료 || 조회 모습(연창호 제공)

장 송두용의 조회가 있었다. 졸업생들의 회고에 의하면 “할아버지의 조회 말씀은 1시간이었지만 전혀 지루하지 않았고 재미가 있었다”고 술회한다.

(4) 학교 운영 및 졸업생

이 당시 대부분의 학교는 학생들의 육성회비와 독지가의 후원으로 운영하였는데, 육성회비는 월 20~25원 정도였다. 그러나 학생들은 대부분 장봉도에서 새우를 잡는 곳배(멍텅구리배)의 선원 혹은 원주민 자녀였으며, 육성회비를 낼 수 없는 가난한 학생들이 많아 학교 운영의 어려움이 커졌다. 1970년대 초 농어촌 및 읍 이하 지역의 육성회비가 150원이었는데, 이보다 턱없이 부족한 소액이었다.

대표적 후원의 사례는 1980년 네덜란드 크리스챤 부인회에서 1천만 원의 후원을 받았는데, 이 후원금의 일부는 투석식 굴 양식장을 만들었으나 실패하였고, 남은 돈으로 바지락 종묘를 구입해 아염등지에 10톤을 뿌렸는데 이것은 결실을 맺었다고 한다. 교사는 박봉에 열정으로 학생을 교육했고, 학교는 자활을 위한 노력을 했다. 졸업생은 인가된 이후 58명이며, 인가 이전의 8년 동안 졸업생이 매년 15명 정도임을 감안하면 전체 졸업생은 약 170여 명으로 보인다.

라) ‘푸른학원’에서 ‘푸른고등공민학교’로

그동안 ‘푸른학원’은 비인가 시설로 교육활동을 하다가 4~5년의 노력 끝에 1974년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 인가를 받게 되면서 교명도 ‘푸른학원’에서 ‘푸른고등공민학교’로 변경되었다.

1975년 3월 1일 인가 시설로 첫 개교하게 됐으니 1967년 ‘푸른학원’으로 첫 교육 사업을 시작한 지 8년이 걸렸다. 그러나 1980



|| 자료 || 졸업식 모습(연창호 제공)

년이 되면서 폐교의 위기가 왔다. 결정적인 것은 학생 수의 급감이었다. 설립 당시에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로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90%였지만 점차 경제적 형편이 나아지면서 육지로 유학하는 학생이 증가했고, 푸른고등공민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눈에 띄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아마 장봉도 주변 만도리 어장에서 새우를 잡는 해선망 어업이 가져다준 경제적 풍요의 결과로 보인다. ‘푸른학원’ 출신이자 모교에서 교사를 했던 김선만(장봉1리)은 “1982년 초등학교 졸업자가 36명이었는데, 이곳으로 진학한 학생은 4명이었어요. 앞으로도 그렇고 … 그래서 이사회를 통해 폐교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증언했다. 결국 푸른고등공민학교는 ‘교육’과 ‘신앙’, ‘어촌’을 묶은 송두용의 교육 사회 활동이 반영된 학교였다.

김석훈(인천섬유산연구소 이사)

2. 종교

현재 북도면에 분포하는 고등종교는 개신교와 가톨릭이 있다. 개신교는 1900년대 초반에 전파되어 100여 년이 흐른 오늘날 신도에 세 곳, 시도에 한 곳, 모도에 한 곳, 장봉도에 세 곳 등 모두 8개의 교회가 됐다.

가톨릭은 개신교 보다 반세기가 늦게 1950년대 후반 처음 전파됐으며, 신도에 준본당을 비롯하여 시도·모도·장봉도에 각각 공소 1곳이 있다. 불교 등 다른 종교시설은 현재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긴 역사를 간직한 개신교는 지역사회와 함께했던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기독교가 전래되던 1900년대 초기는 강화 본도를 통해 개신교가 전파되고 있으며, 현재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갖는 교회가 6곳이나 된다.

둘째, 지역의 정신적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주민이 신자이기 때문에 지역 발전의 계획을 주민과 함께 공유·실천하며, 갈등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설립일 순서에 따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²⁾

|| 표 || 북도면 개신교

지방	소속	교회명	설립일	현 담임자	주소	도서명
옹진	중부 연회	진축	1900.04.25.	김경영	장봉로 701번길 30	장봉도
		신광	1901.01.14.	이종성	신도로 184번길 34-6	신도
		신도	1901.03.09.	황종성	신도로 896번길 44	신도
		모도	1905.10.05.	김동현	모도로 78번길 44-40	모도
		옹암	1906.05.10.	박동수	장봉로 200번길 26-7	장봉도
		시도	1917.04.15.	김옥태	시도로 61번길 87-21	시도

셋째, 동일한 옹진군 소속이지만 백령도·연평도 등 황해도와 가까운 서해5도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언더우드 전파) 소속이지만 화도 및 인천지역 중심의 경기만 중부 해역의 개신교는 기

22) 기독교선교문화연구회, 『인천기독교 135년사-그 역사와 문화-(2)』, 인천기독교역사문화연구원, 2020, 372~373쪽.

독교대한감리회(기감, 아펜젤러 전파) 중부연회 옹진지방 소속으로 계열이 다르다는 점이다.

넷째, 초창기는 도서 지역의 종교는 학교 설립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목회자가 학교의 교사, 교장의 역할, 심지어 행정기관의장을 맡아 한 경우도 있어 교회의 역할과 영향력은 매우 컸다. 심지어 일제강점기에는 교회가 항일투쟁과 민족교육의 중심과 지원 역할을 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현재는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도서벽지의 인구 감소 등으로 신자의 감소와 고령화 추세로 교세는 점차 약화되고 있다. 각 교회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개신교

1) 신광교회²³⁾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신도1리 927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1901년 강화 주둔 대장 이동휘가 나동한 외 4명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개척하였으며, 1903년 김종열의 조모 차 권사의 밭을 구입하여 초막교회를 세웠다. 1905년 하춘택 전도사가 초대 담임자로 파송되어 복음을 전하므로 교인들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우선 구로지 김경조의 밭인 919번지에 있는 초가집에 십자가를 세우고 예배를 시작하였다. 그 후 하춘택 전도사가 영종도에 주재하면서 순회 전도를 하게 되었다. 이때 구로지의 나동한, 고남리의 이봉운전영관, 염촌 마을의 이성필 부친, 시도의 박준출 등이 신도 교회의 교인이 되어 교회를 이끌어 갔다.



|| 자료 || 신광교회(신도)

23) 옹진군지편찬위원회, 『옹진군지』, 2012, 409~410쪽.

그러다가 강화도 황도문이 교회를 중심으로 1920년 신흥학교를 설립하여 신앙과 민족사상을 교육하게 되었다. 이때가 구로지 교회의 신앙적 전성기였다. 신앙심과 애국애족 사상이 투철한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었기 때문이다.

1922년에는 제2대 이동웅 목사가 파송되었는데, 이동웅 목사는 1926년도에 구로지와 고남리의 중간지역인 구봉산 기슭 883번지에 합성교회를 세웠다.

1937년 재6대 남궁관 목사가 인천에 주재하면서 순회 시무 하였는데, 이때 교회가 구로지 마을 921번지에 세워졌고, 남궁관 목사는 월 1회 정도 순회하고 지마리아 여전도사와 나정희 선생이 교회를 지켰다. 그후 1943년부터는 최인환 장로의 조부 최승익 권사가 교회를 이끌어 가고 있었다. 1945년 제7대 노재민 목사가 파송되었고, 이때 8·15광복을 맞아 해방의 기쁨으로 온 교회가 합심하여 주야로 기도회를 가졌다. 교회가 쇠락하고 운영난에 봉착하게 되자 천윤근 권사의 밭 282번지에 교회를 세워 여자들의 힘으로 교회를 운영해 가기도 했다.

1953년 제13대 최은덕 전도사가 인천지방에서 파송 받아 시도, 모도, 구로지, 고남리의 4개 교회를 순회 시무하였는데, 이때 교회가 다시 부흥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최은덕 목사가 떠나가면서 교회의 중직들까지 하나 둘씩 이곳을 떠나게 되었다.

1961년에는 구로지 천윤근 권사의 댁에서 1962년에는 배창섭 속장 댁에서 1963년에는 노연태씨 댁에서 예배를 보았다.

1965년 제14대 장기영 전도사가 담임자로 파송되었다. 실제로 13년 만에 교회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려고 당시 해광고등공민학교 교사를 빌려 예배를 드렸으며 신광교회라는 간판을 달게 되었다.

1968년 11월 11일 천윤근 권사 소유 신도리 산 284번지 내 임야 660m²를 기증받아 교회 69m²를 건축하였다. 1969년 5월 8일 신축교회로 이전하여 봉헌 예배를 드렸다. 1971년 5월 8일 천윤근 권사의 밭 165m²를 기증받아 담임자 주택을 신축하여 봉헌하였다.

1985년 제23대 민학기 전도사가 담임자로 파송되었고, 교회가 다시 부흥하여 교인이 40여 명으로 성장하여 주민의 99%가 복음화 되

었다. 담임자를 잘 받들어 섬김으로 지방회에서도 상을 받고, 오지 선교지방에서 축복받는 교회가 되었다.

1993년 교회 주택을 조립식 건물(66m^2)로 신축하여 봉헌하고, 다시 2002년 10월 25일 신도리 927번지에 부지 995m^2 , 예배동 168m^2 , 수양관 180m^2 을 신축하였다. 2006년 김영리 목사가 담임자로 부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신도 수는 60여 명이다.

<역대 교역자 명단>

하춘택, 이동웅, 전성순, 정동운, 조용구, 남궁관, 노재민, 정도선, 한두원, 이성봉, 홍형순, 변종만, 최은덕, 장기영, 이승철, 전창수, 이인용, 이명숙, 정길남, 안완용, 강종민, 이종해, 민학기, 김대봉, 나종록, 정재설, 권태진, 최승용, 김영리, 이종성, 홍현순, 병종만, 최은덕, 장기영, 이승철

2) 신도교회²⁴⁾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신도2리 614번지 고남부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처음에는 ‘고남리교회’라 부르다가 1954년 현재의 이름으로 개명되었다. 그러나 명쾌한 내력을 밝히거나 신팽교회나 ‘이동휘’ 등 일정한 종교적 연관성을 찾는 일은 자료의 부족으로 쉽지 않다.

이 교회의 연혁지인 『교회연혁(敎會沿革)』(仁川西地方 신도교회)에는 교회의 중요한 역사를 연대순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일부 내용을 윤문하여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복음이 미선교 사들에 의하여 이 강산에 전파되자 서기 1901년에 강화군대 중 대장 이동휘씨는 어둠에서 빛으로 일고 죄악에서 방황하는 不想한 信島 주민들에게 복음의 등불을 밝히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외쳐 초대 하춘택(河春澤) 전도사가 파송되어 이곳에도 복음의 씨는 짹이 터 본부처(고남) 611번지 이봉운(李鳳雲)씨가 자택

24) 옹진군향리지편찬위원회, 앞 책, 1996, 89쪽. : 황종성, 「믿음의 섬, 신도감리 교회」, 『인천기독교역사문화』 6, 인천기독교역사문화연구원, 38~45쪽.

에서 십자기(十字旗)를 세우고 예배를 보기 시작하고 서기 1905년 예배당 초가삼칸 1동을 건축하고 남녀 신도 20여 명이 예배하고 전도사 하춘택씨는 영종에 주재하고 순회 전도하였고 당시 본 처직에 이봉운(李鳳云), 이치명(李致明)임. 서기 1921년에는 이동웅 목사 주재 시무함. 서기 1926년 본 교회는 구로지 부처 교회와 합쳐 중앙지 되는 산마루터에 합성교회로 건축하였음. 서기 1929년 다시 분리 건축하였음.” 이라 기록하고 있다.

신도교회의 역사 즉 첫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교회연혁을 통해 신앙의 짹이 트기 직전인 1901년부터 1905년 교회가 건축되기 이전의 시기로서 행정구역은 ‘강화군 제도면’에 속해 있었다. 이봉운씨가 십자기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며, 1905년 초가삼칸의 1동을 건축했다는 점이다.

일제강점기의 교회와 교인의 활동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10년대는 외국인 선교사인 로튼(Lawton)이 신도에 파송되어

사경회(현 부흥회)를 통한 교회의 부흥이 이뤄졌지만 교회의 사정은 알 수 없고, 초창기 교인의 일부만 남아 있어 매우 아쉽다. 이 중 김살라매 신도의 사례를 통해 당시 신앙의 성격을 엿볼 수 있는데, ‘원수를 사랑’ 하는 성서 중심의 ‘말씀’을 생활에서 실천했던 시기였다. 그리고 종순일, 김익제, 윤희일 목회자의 헌신적 노력에 의해 한 걸음씩 진일보한 시기였다.

1920년대는 큰 변화가 있었던 시기였다. 이때 목회자는 이동웅(李東應)이었으며, 덕적면 우포리에서 신도리 913번지로 거주지를 옮겨 교회를 부흥 발전시켰다. 또한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고 그 결과로 상해에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세워져 국내외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군자금을 모금할 때 신도교회는 그 역할의 중심에 있었다. 교인들은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며, 상해 임시정부의 독립군 군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했다. 신도교회 교인들은 홍삼을 만



|| 자료 || 신도교회

들어 판매한 후 군자금으로 사용했다. 특히, 고남리 최영규댁에서 윤성근씨와 밤이면 홍삼을 제조하며, 군자금을 만들어 임시정부 교통국 소속이었던 윤웅념(임시정부 교통국 참사)과 송중식(신도 신홍학교 교사)을 돋고, 이들이 배를 구입해 군자금 모금에 이용하거나 중국으로 밀항할 수 있도록 돋는 역할을 했다. 그만큼 독립운동은 도서 지역에서 교회를 매개로 학교와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이를 활동은 종교 활동이자 지역 활동이었으며, 결국 국가의 민족 항일운동으로 이어졌다. 신도에서 교회가 민족운동의 거점이 되면서 일제의 감시와 탄압은 심했으며, 신도1리의 구로지교회와 신도2리의 신도교회는 극심한 곤란 속에 1926년 합쳐져 ‘합성교회’가 됐다. 현 신도교회의 『교회연혁(敎會沿革)』에도 “1926년, 본 교회는 구로지 부처 교회와 합쳐 중앙지되는 (배나무재) 산마루터에 합성교회(合成敎會)로 건축하였음”이라 밝히고 있다.

그러나, 1929년 다시 분리하여 설립자 이치명 전도사는 고남마을 중앙지인 안말에 30평 정도의 대지 위에 10평 정도의 초가 건물을 세우고 예배를 시작했다. 그러나 마을의 비기독교도에 의한 비난 및 일제의 탄압은 지속되었다.

1930년대의 종교 활동은 1934년 신도교회에서 금주단연회(禁酒斷煙會)가 조직되어 경제적 저항운동을 전개했다는 점이다. 사실 금주단연운동은 3·1운동 이후 민족운동의 열기 속에서 민족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민족 기업을 설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민족 자본이 필요하게 되면서 추진되었다. 1930년대에 이르러 종교계는 이 운동이 종교 윤리와 부합되어 본격적인 운동을 전개하며, 동아일보에는 “1933년에는 조선기독교연합공의회 등 전국의 기독교 각 기관이 총동원되어 금주 단연의 선전기를 들고 10여만 매의 전단지를 뿌리며 금주가(禁酒歌, 감리교인 임배세가 작사)를 부르고, 가두 행진을 벌였다”고 보도하고 있다.

한편, 신도교회는 다음 해인 1934년 1월에 이 운동을 실천하고 있는데, “신도 신도교회에서는 동리의 청소년으로 하여금 지난 (1934년) 1월 16일에 금주단연회를 조직케 하였는데 앞으로 과거에 소비한 술값과 담배값 만큼을 저축하였다가 상당한 자금이 되면 부업

기관을 시설하리라 한다. 피임된 임원은 회장 전창실, 부회장 한정옥, 서기 김영록, 간사 유순창, 김문희, 유사원, 박홍록, 천희규, 천대규, 박근산, 전성실, 총무 윤효진, 고문 이치명” 이었다. 도서 지역에서의 작은 실천이 1920년대 이후 애국계몽운동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진 항일운동의 일환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당시 이천국, 이치명, 정동운, 조용구 목회자들의 활동도 큰 힘이 됐다. 특히, 이치명의 역할은 이 역사적 사실을 전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1935년 이치명 전도사가 사망한 후 1945년 해방 직전까지 고남 교회에 상주하는 목회자가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1940년대는 일제가 창씨개명을 비롯하여 징병, 징용, 공출 등 민족말살정책으로 남자들은 외지로 나가 직업을 찾거나 강제 동원, 신사참배, 그리고 교회의 경우 성경 읽기, 찬송 부르기, 예배 시간도 통제받던 시기여서 교회의 경우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이 시기 가장 많은 수고를 한 사람은 김영순 권사였다. 그는 만 16세이던 1933년 10월 10일 신도교회의 교인이 되었고, 20대 중반이던 1940년대 극히 어려웠던 일제 탄압 속에서 교인을 방

문하여 병자를 위한 기도, 마을의 관혼상제에 협조, 노인 존경을 실천하고 아래 사람들을 사랑하니 그녀를 따르는 자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수시로 경찰의 조사를 받아 교회 신도에게 하는 설교 내용, 주일학교 교재, 궁성 요배, 황국신민 서사 암송 후 예배, 출애굽기 읽지 말기, 교회 종 공출 등등 검열과 탄압 속에서도 예배를 인도하고 교회를 발전시키는데 큰 공헌을 했다. 이처럼 일제강점기의 고난과 탄압 속에서도 신도교회는 복음에 기초해 있으면서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끊임없이 다가서며 펼친 신앙 활동이 부활과 부흥의 비결이었던 것이다.

1954년 교회가 노후되고 협소하여 전성실 장로, 김영순 권사, 박



|| 자료 || 신도교회 자료들

(출처『인천기독교역사문화』)

근봉 등이 중심이 되어 건축위원회를 조직하게 된다. 당시 북도면장 추무성의 협조를 얻어 면소유림에서 목재를 지원받고 강화도 장원순의 협조로 임야 198m², 건평 83m²의 성전이 완공되었다. 1956년 교회가 부흥·발전되었으나 협소하여 전성실 장로, 천인근, 김태근, 박근봉 등이 교우들과 함께 의논하여 성전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1957년 건평 132m²의 성전을 완공하여 입주하고 입당 예배를 드렸으며, 이때 고남교회를 신도교회로 개명하였다. 그후 1979년 교회 건축 위원회를 조직하여 위원장에 김봉순, 위원에 김태근, 전양인으로 구성하고 신도리 714번지 박근봉 소유 대지 267m²과 신도리 514-4번지 유사원 소유 밭 574m²을 매입하여 합병하였다. 1980년 3월 9일 기공하여 본당 178m², 사택 79m²을 완공하고 동년 12월 2일에 봉헌 예배를 드렸다.

1980년 9월 18일에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인천 서 지방에서 분리하여 옹진 선교지방 소속으로 편입되었다. 그 후 2004년 6월 13일 새 성전 기공예배를 드리고, 2004년 12월 30일 성전을 준공하여, 2005년 3월 25일에 봉헌 예배를 드렸다. 2007년 2월 황종성 목사가 부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신도 수는 80명이다.

<역대 교역자>

이동웅, 권성집, 정동운, 조용구, 남궁관, 정도선, 노제민, 한두원, 이성봉, 홍형순, 변영만, 이윤재, 오세도, 곽장필, 최은덕, 원재석, 최인석, 곽원갑, 최형묵, 이훈경, 권영국, 박논출, 유영택, 이덕찬, 이필상, 이재문, 김천수, 정성호, 이해주, 황종성

3) 신염 교회²⁵⁾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신도로 626에 위치하고 있다. 이 교회는 ‘1955년 가을부터 오세도(吳世道) 전도사가 북도면 염촌에 송판으로 마루와 벽을 치고, 군용 천막으로 천정을 덮어 지금의 신염교회를 설립하고 그해 성탄절 예배를 새 예배당에서 드렸다’ 라는²⁶⁾ 것으로 보아 처음 설립 연도를 알 수 있으며, 이 당시 신자는 황해도 연백에서 피난 나온 김경찬, 이화경 등이다. 1958년 비바람으로 천막이 날아가고 쓰러져 신도교회로 통합하여 예배를 드렸다.



|| 자료 || 신염교회

그후 1977년 1월 당시 신도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조용기 권사, 이화경 권사, 권응녀, 김정자 등이 저녁 예배를 별도로 조용기 권사택(현재 원로장로)에서 드리게 되면서 현재 신염 교회의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1977년 4월 교회 신축 기공 예배를 드리고, 그해 5월 예배당을 신도 4리 마을 목욕탕으로 이전하였다. 1977년 12월 초대 담임자 이주의 전도사가 부임하였고, 1978년 1월에는 교회를 신축하고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1979년 3월에는 봉헌 예배를 드렸다.

1982년 2월 조용기 장로가 피택되어 옹진지방으로부터 파송되었고, 1984년 12월에는 김명찬 장로가 피택되었다. 2012년 7월 제11대 담임자 박호순 목사가 부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역대 교역자>

이주익, 김경록, 이훈학, 임정욱, 봉상근, 신성철, 정태훈, 서동민, 박하종, 김종주, 박호순

25) 옹진군지편찬위원회, 『甕津郡誌(하)』, 2012, 412쪽. : 전양훈, 『북도교회 100년사』, 2006, 94쪽.

26) 오세종 편저, 『92년사 장봉도 옹암감리교회』, 삼필문화사, 1998, 254쪽.

4) 시도교회²⁷⁾

시도교회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시도로 87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웃하고 있는 신도 고남리에 기독교가 먼저 정착한 후 시도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니 박준출이 대표적 인물이다. 이 당시 시도는 전통적으로 내려온 민간 신앙(도당굿)이 만연하여 쉽게 정착하지 못하

다가 1912년경으로 박준출 전도사가 신도의 고남리(전영관)와 염촌(리홍조)의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다 시도리에 거주하는 김실봉 가정이 교인이 되면서 시도리에서 두 가정이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1917년 4월 15일 박준출의 집에서 10여 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다가 신춘해 전도사의 도움으로 396m^2 대지를 구입하여 초가 5칸의 성전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생활고와 기독교에 대한 배척으로 잠시 강화도로 이주하게 되지만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각오로 다시 시도리에 돌아왔다. 여전히 어려움이 많았지만 시간이 흐른 후 어느 정도 생활의 안정을 찾게 되자 다시 예배처를 만들기로 하며, 1930년 강화도 화도면 어느 강습소 한 채를 헬어다 시도리 산117번지에 혼자의 힘으로 26m^2 초가집 예배당을 짓게 되었다.

그 이후 청년 김호신씨는 서울 배재학당에서 공부를 해 고향과 떨어져 지냈지만 주일학교 정신이 살아 있어 교회의 원입인으로 있다가 1934년 11월 17일 임진국 목사에게 김성애씨와 같이 학습 세례를 받아 입교하였다. 1935년 당회 때 두 사람이 같이 속장으로 최선을 다하였다. 그러나 박준출 전도사는 이미 연로한 몸으로 자식들의 직장을 따라 옹진군 어화도로 이주하였다가 광복 이후 다시 고향인



|| 자료 || 시도교회

27) 옹진군지편찬위원회, 『甕津郡誌(하)』, 2012, 412~413쪽. : 전양훈, 『북도 교회100년사』, 2006, 79~90쪽.

시도리로 월남하여 노년을 보내다 시도리 묘지에 안장되었다. 이제 교회는 김성애와 김호신을 중심으로 운영되었고 역경과 고난을 겪으면서 부녀자 20여 명과 함께 힘을 모아 교회를 신축하게 되었다.

1953년 122번지 산 중턱에 예배당 대지를 조성하고 3년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66m²의 현대식 양옥집을 완공하였다. 구 예배당은 담임 목회자 주택으로 보수하여 아름답게 단장하였다. 구 교회당 117번지 산 150여 평과 2차로 신축한 교회 부지 122번지 72,600m², 인근의 밭 325번지 871m² 등을 감리회 유지재단에 등기하여 사무적 절차까지 마쳤다.

오랜 시일이 지난 후 1980년 3월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고, 1981년 12월 10일 봉헌식을 갖게 되었다. 2001년 3월 12일 종탑공사를 하고, 2007년 2월 교회 내부를 리모델링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는 김옥태 목사가 1993년부터 시무 중이며, 오랜 동안 지역 사회와 유대, 협력하면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다.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의 역할로서 상여(喪輿)를 마련하였으며, 현재도 교회 상여를 보관하고 있는 상여집이 있다. 상여의 사용은 신자 혹은 신자와 연관된 마을 주민이 사망했을 때 혹은 마을 상여가 훼손되었을 경우 메거나 대여하면서 지역사회와 함께했다. 그러나 요령꾼 정백록의 사망과 화장 풍습의 유행, 상여꾼의 부족 등으로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 또한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 예배 등 종교 행사를 위해 마을 반상회는 두曜일을 제외한 날을 택하였을 정도로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한결같이 공평무사한 목회 및 종교 활동을 통해 마을의 갈등을 막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신자 및 주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 신도수는 90여 명이다.



|| 자료 || 상여집(시도교회)

<역대 교역자>

신춘해, 최족일, 김경인, 정순일, 강문호, 조옹규, 남궁관, 최은덕, 백운기, 구본홍, 권진태, 오석희, 김영춘, 나명호, 민성식, 오선애, 김옥태

5) 모도교회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모도로 78번길 44-40에 위치하고 있다. 모도교회는 조송은이 설립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설립 시기는 다르다. 1905년 10월 5일²⁸⁾과 1918년 9월 5일²⁹⁾에 설립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정확히 알 수 없고, 다만 북도면 일대에 기독교가 유입되었다는 점에서 1905



|| 자료 || 모도교회 전경

년쯤 설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1918년 교회가 설립되었을 것으로 보인다.³⁰⁾ 1923년 10월 9일에는 모도교회에서는 새롭게 이성복(회장), 유재열(부회장), 김수익(총무), 홍기봉(재무), 유배근(서기) 등 찬성원 조성준 외 5명을 중심으로 모도소년회(茅島少年會)를 조직하였다.³¹⁾ 모도소년회는 동경대지진 및 서선(西鮮, 황해도·평안도 등 조선의 서쪽 지방) 수해의 이재민을 위해 쌀, 보리, 콩 등 곡물과 금전 등 총 20원 30전에 달하는 구호품모집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인천지방회록을 통해 초창기 교인들의 이름을 살펴볼 수 있는데, 교회 구역의 잣은 변동과 파송 등이 있어 북도면의 종교 활동은 매

28) 기독교선교문화연구회, 『인천기독교 135년사-그 역사와 문화-(2)』, 인천기독교역사문화연구원, 2020, 373쪽.

29) 옹진군지편찬위원회, 『甕津郡誌(하)』, 2012, 41쪽.

30) 인천문화재단 외, 『신도·시도·모도』, 인천 섬 생활사 조사보고 제2집, 2022, 121쪽.

31) 『동아일보』, 1923. 10. 9.

우 복잡하다. 모도교회의 경우 1920년대는 영종구역에서 신도구역으로 변경되는데 초창기에는 해당하는 1923년에는 최성익, 조성준 권사가 중추적 일꾼이었다. 1925년에는 차홍선 권사(1924년에 권사)가 일제강점기 내내 모도교회의 중추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광복 이후 1972년 2월 5일 현재의 위치로 성전 신축기공식을 가졌다. 2003년에는 낡은 외벽과 현관 증축 공사를 하게 되었다. 2006년 5월에는 목양실 $21m^2$ 을 증축하고 2007년 5월에는 실내 방음과 뉴 모델링을 통하여 교회를 새롭게 꾸몄다. 2008년 11월 교회 종탑 신축 공사를 하였다. 2020년 현재부터 담임자 김동현 목사가 시무 중이며, 신도 수는 15명이다. 무엇보다 교회의 역사를 대변해 주는 시설물은 종탑이며, 타종 방울이 많아 새로 교체했다고 한다.

<역대 교역자>

조성준, 차홍선, 윤희열, 이동웅, 권성집, 정동운, 남궁관, 한두원, 홍현순, 최은덕, 변형만, 배문신, 김명석, 박진옥, 이예강, 김의천, 김옥태, 조병덕, 정윤영, 안병각, 김동현

6) 옹암 교회³²⁾

장봉도 옹암 교회의 시작은 용유도에서 입도한 이재술(1843~1938)이 강화 화도면 내리 교회를 다니다가 전도를 받고 1906년 장봉리 85번지 자신의 사랑채에서 예배를 보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이보다 먼저 전래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첫째는 장봉도에서 가가운 영종도는 1897년, 신도는 1901년에 이미 복음이 전래되고 있었으며, 이 당시 영종 출신인 하춘택이 주변 도



|| 자료 || 모도교회 종탑

32) 오세종 편저, 『92년사 장봉도 옹암감리교회』, 삼필문화사, 1998, 270쪽.

서 지역을 중심으로 왕성한 전도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점 둘째는 1906년 6월 강화도에서 복신부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 장봉도로 건너와 400가구 중 70가구가 예수를 믿기로 했다는 연회록 내용도 있어 그 이전이라는 설이 매우 설득력이 있다. 이 당시 관할구역은 강화남구역이며, 파송된 인물은 하춘택이었으니 옹암교회의 초대 교역자이다. 그는 모도에서 현집을 매입하고 그 재목을 가져다가 장봉리 85번지에 목조 초가 4칸의 예배당을 건축하였다. 그러나 장애물도 매우 컸는데, ①토속신앙과 마찰 ②성공회와 마찰 ③일진회의 휩박 ④자체 내부의 영적인 시험 등이 대표적 갈등 내용이었다.

이어서 데밍, 손승용이 파송되었으나 알려진 것은 거의 없으며, 이 시기는 강화도에서 활동하던 이동휘의 영향을 받아 이재술의 밭에 강습소(학교)를 세웠다고 한다. 이 당시 이동휘는 강화진위대의 대대장으로 애국계몽운동을 주도했던 저명한 인사였고, 그 영향 아래 북도면은 종교 태동과 성장의 촉진제가 되었다.

한편 1908년 감리교는 전국적인 교단 재편성을 할 때 장봉도는 서울지방에 편제되는 데, 1909년 옹암교회의 임원으로 속장(남)은 이원선, 김순서, 염순일, 속장(여)는 김마리아, 한할노매, 김마가레(이군선 부인)이 있다.

1910년대 중반 인천에서는 혜씨 부인이 라 알려진 혜시(M. Hess) 선교사가 내한하여 1940년까지 27년 동안 선교활동을 하며, 섬 지역 선교를 위해 미국으로부터 선교선 (Cincinnati호, Jennie B호)을 지원받아 운행하였는데, 선장은 신도 출신 지마리아 전도부인의 남편이 운항



|| 자료 || 옹암교회



|| 자료 || 옹암교회 종탑

하였다.

1914년에는 일제가 행정구역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게 되는데, 이 때 소속이 인천지방 영종교회 소속 교회로 변경된다. 옹암교회가 일취월장 발전하게 되는 시기는 바로 1915년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이어진 장봉부흥회 활동이었다. 이 부흥회는 ①약 50여년 지속된 한국 최장기 정기 부흥회였으며, ②초창기부터 한 인물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평신도가 주축이 되어 자발적으로 진행된 평신도 기도운동이라는 점 그리고 교단 조직과 마찰이 없었다는 점 ③인근 도서 교회들이 모여 기도한 연합집회였으며 ④성령운동으로 인한 신비 현상을 체험한 집회 ⑤기도회 마지막날에는 마리산 참성단에 올라 구국 기도와 함께 3·운동의 주도 인물이 나오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유봉진은 만세운동을 부르다 기도회가 끝나는 날 마리산에서 체포되었다.

3·1운동이 일어나던 윤희일 목사 시절에는 강화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황도문이 장동식택에 숨어 있다가 날가지섬으로 가서 독립선언문을 등사하고 그 등사판을 묻고 나왔다고 한다.

이동웅 목사인 1921년에는 ‘ㄱ’ 자 모양의 8평 예배당으로 증축을 하고, 1930년대에는 금주단연운동을 전개하였다. 1933년에는 ‘ㅁ’ 자로 20평 예배당을 증축하고, 1934년에는 목조 함석 지붕으로 4.5칸 담임자 주택을 지었다.

조용구 전도사 재임 당시인 1935년 9월 12일 감리교 청년 조직인 앱윗 청년회가 조직되었으며, 회장 이양옥, 부회장 이시린, 서기 이경환, 총무 장호민, 회계 황옥주, 종교부장 장인희, 교양부장 이양옥, 사회부장 염윤태, 소년지도부장 김시린, 고문 조용구로 구성되었다.

일제 말기는 정준수(창씨개명 禾谷春洙) 감독이 전국적으로 감리교 3회 연회로 구성된 조직을 해산시키고, 교회의 직분과 명칭도 모두 바꿔 놓아 많은 탄압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때 북도면은 신도구역에 속했으며, 옹암교회는 남궁관, 정도선 목사가 역임했다.

광복 이후에는 복흥파의 노제민 목사가 시무했으며, 박재봉 목사가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다시 부흥하기 시작하였다. 1949년에는 서

울여자 의과대 현인섭 박사를 중심으로 무료 진료 봉사활동이 있었으며, 6·25 전쟁 시기인 1951년에는 조영제 목사가 당회를 통해 이양기, 장인희가 장로 후보로 추천되었다. 1966년에는 1915년부터 지속되어 온 장봉부흥회의 명맥이 끊어졌다. 그러나 교회 창립일은 1988년 당회를 통해 장봉부흥회가 시작된 5월 10일을 결의하였다.

1998년 12월에는 장봉도 응암감리교회 92년사를 발행하였다. 신도 수는 38명이다.

<역대 교역자>

하춘택, 데밍, 손승용, 최병현, 김광국, 종순일, 김익제, 윤희일, 이동웅, 권성집, 이천국, 김홍제, 정등운, 조용구, 남궁관, 정도선, 노제민, 한두원, 김만목, 정인화, 정종국, 안정현, 오석희, 강종식, 유학문, 조영민, 정용진, 김남철, 죄종식, 원돈형, 서정환, 유천형, 최대옥, 배경태, 박동수

7) 평촌교회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2리 1198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평촌교회의 시작은 1928년 진촌교회 서운식(徐雲植) 권사가 평촌에 기도처를 두고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일제강점기까지 탄압 등 부침을 겪고 폐쇄 상태에 있다가 광복 후 1949년 4월 13일 응암교회에서



|| 자료 || 평촌교회

시무하는 한두원 목사의 주선으로 북도면 장봉273번지 내 부지(406m^2)에 평촌교회가 재건된 것이다.³³⁾ 1970년 장봉333번지로 교회를 신축하여 이전하였고, 1978년 3월에는 장봉 332번지 내 부지에 교회 155m^2 , 사택 50m^2 을 신축하였으며, 9월에 입당예배를 드리게 되다. 1992년 다시 교회건축위원회를 구성하여 1993년 2월에는 장봉

33) 오세종 편저, 『92년사 장봉도 응암감리교회』, 삼필문화사, 1998, 201쪽.

리 1198번지 내 교회부지 5,280m²을 구입하여, 1994년 4월 15일 교회 신축 기공 예배를 드리게 된다. 1994년 11월 교회 396m², 교육관 191m², 사택 102m²을 준공하고 입당 예배를 드리고, 1997년 11월 봉헌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신도 수는 90명이다.

<역대 교역자>

한두원, 이상민, 이시내, 이진식, 김남철, 전종민, 김청심, 허득천, 박철웅, 김청심

8) 진축교회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로 701번길 30에 위치하고 있다. 진축 교회의 창립 당시 이름은 진촌교회이다. 진축 교회는 1900년 미국 선교사 아펜젤라 목사 부부와 김능순 권사, 장헬란 권사 부부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진축 교회가 시작(1900.4.25.) 되었으며, 1906년에 정식으로 창립 예배를 드렸다.³⁴⁾ 예배당은 조선시대 때 설치한 장봉 수군진터이다. 진터에서 얼마동안 예배를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1918년 윤희일 목사의 주선으로 교회당을 지었다. 1909~1910년에는 강화에 소속되어 활동했으며, 이 당시 주일학교 교감은 윤웅철, 속장(남)은 김취현, 김평근, 김경재, 김능순, 속장(여)은 황엠마, 김영애, 김나오미가 있다.³⁵⁾

그후 1948년 한두원 목사의 주선으로 중축하였다. 1961년에는 김영자 전도사의 주선으로 교역자 주택을 지었고, 1973년에는 성전을 신축하여 봉헌하고 교회 이름을 진촌교회에서 진축 교회³⁶⁾로 변경하



|| 자료 || 진축교회

34) 옹진군지편찬위원회, 『甕津郡誌(하)』, 2012, 415쪽.

35) 기독교대한감리회, 『강화중앙교회 100년사』, 2002, 193~195쪽.

36) 진촌(장봉3리)과 옆 마을인 축동(장봉4리)의 앞 글자를 따서 지은 이름이다.(차윤태 증언)

였다. 관련 기사를 보면 “인천서지방 진촌교회(신중균 목사)는 지역 주민들과 지방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회를 아담하게 신축하여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1973년) 지난 1월 23일 드렸다. 1972년 9월에 군목으로 입대하여 온 후 낙후된 어촌의 복음 선교의 새로운 꿈을 안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어민들을 위해 교회를 개척하였다 … 담임 교역자가 없는 실정이었으나 신중균 목사의 끈질긴 봉사심에서 온 교인들과 열성을 내어 완전 자립으로 1,500,000원의 공사비를 들여 교회를 완공하였다. …”

특히 고완섭 권사를 비롯 4명의 권사와 7명의 속장들이 뭉쳐 봉사하고 있는데 건축금 미불금이 아직 남아 있지만 금년 안에 완전히 주택 건립을 하고 정리하겠다고 온 힘을 모으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어 진축교회의 설립 정황을 엿볼 수 있다.³⁷⁾ 그러다가 1997년 11월 5일 현부지에 성전을 건축하여 2003년 11월 11일에 봉헌예배를 드렸다. 신도수는 80명이다.

<역대 교역자>

윤희일, 허진일, 김익재, 렘잉, 노보을, 종순일, 남궁간, 이동희, 지마리아, 한두원, 김사라, 정인화, 이상빈, 유광호, 이신애, 소영필, 곽장필, 원재석, 김영자, 이덕기, 백형부, 원상준, 최화국, 신중균, 고완섭, 유원우, 안영명, 송동환, 신성철, 봉상근, 이만기

나. 가톨릭

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북도면에서 천주교 관련 활동이 가장 먼저 있었던 곳은 장봉도다. 이후 신도에서 천주교 활동이 이어지며, 북도면 일대에 가톨릭 유입은 6·25 전쟁 이후 난민정착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북도면의 정착 과정은 “1957년 당시 부천군에는 윤을수(尹乙洙) 신부가 운영하는 구산후생학교(鳩山厚生

37) 오세종 편저, 『92년사 장봉도 옹암감리교회』, 삼필문화사, 1998, 270쪽.

學校)³⁸⁾ 사회반 학생 박마리아 등이 장봉2리에 하계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최명칠씨 댁에 거주하며, 밤에 주민들에게 천주교 교리 공부를 한다는 것을 당시 북도면사무소에 근무하던 최의식(崔義植)이 알게 됐다. 그는 부천의 구산후생학교로 윤을수 신부님을 찾아가 신도(信島)에도 사회반 학생을 정식으로 파견하여 줄 것을 건의한 결과 1958년 2월 지창순(테레사, 군산거주), 정요셉 학생 2명이 파견되어 신도3리 김종철의 집에 거주하면서 천주교 교리를 시작했다. 그 후 이아네스(연복) 학생이 파견되어 정신선의 댁으로 옮겨 교리 공부를 하다 1960년에 99m²(30평) 규모의 공소 건물을 신축하였다. 최영윤(신도3리)의 증언에 의하면 공소 건물을 짓는 데는 이 당시 젊은 청년 15명이 밤낮으로 터닦기에 도움을 주었고, 구산후생학교 고아원 아이들이 건축의 조공으로 동원되었다고 한다.

한편 1950년대 후반 영종도와 북도면 일대는 간척사업이 유행했다. 북도면과 가까운 영종도의 경우 ‘西海島嶼撤收難民永宗組合’(조합장 김형찬)을 조직하여 1957년부터 1959년에 이르는 시기에 천주교구제회(NCWC)³⁹⁾의 원조를 통해 제방을 쌓고 염전 축조를 목전에 두고 있어 주민들이 기뻐한다⁴⁰⁾는 기사가 있다.

북도면도 동일한 경우이다. 1950년대 후반에 마을 주민 중심의 ‘공

38) 구산후생학교는 사회사업 전문여성학교로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의 직면한 상황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사업가 양성을 목적으로 윤을수 신부가 1956년 9월 1일 경기도 부천군 소사에 설립하였고, 11월 19일 개교하였다. 이 학교는 2년제 여자 초급대학에 준하는 학교로서 만 17세 이상 25세 미만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교구장이나 수도원장의 추천을 받은 여자만이 입학할 수 있었다. 윤을수 신부는 보다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복음 선포와 사회사업의 전개를 위하여 학교 내에 ‘수도반’을 신설하였다. 입학 후 ‘수도반’과 ‘사회반’으로 분리되었고, 사회반으로 있던 학생들이 북도면을 지원 방문하면서 가톨릭이 유입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학생들은 각 지역에 일정 기간 실습생으로 파견되어 의료반과 함께 무의총 방문, 구호, 개간 및 간척사업을 돋는 일을 했다. 이 학교는 1964년 6월까지 7회 졸업생을 마지막으로 경영난에 문을 닫았다.(<https://duaworld.tistory.com/12024207>)

39) 천주교 구제회는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1946년 메리들 외방전교회의 캐롤 신부에 의해 한국에 진출했다. 구제회의 구호 활동은 주로 밀가루, 옥수수가루, 분유, 영유아 영양식, 식용유 등 양곡과 식료품 같은 현물지원으로 이뤄졌다. 1960년대는 남·서해안의 간척 사업을 통해 가난한 사람의 정착을 도왔다.(『가톨릭신문』, 2022. 5. 6, 『서울경제』, 2020. 1. 20.)

40) 『경향신문』, 1959. 3. 16.

생조합’ (조합장 최의식)을 만들고, 갯벌에 둑을 막아 염전을 조성하는 간척사업을 통해 난민 정착을 돋기 위해 천주교구제회는 구호품을 제공하였다. 게다가 천주교를 믿는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고 하여 신도 3·4리의 많은 주민은 천주교를 믿게 됐고, 주변 지역에서 모이게 되면서 신자는 증가하였다.

점차 교세는 확장되어 1963년에는 신도리 270-2번지 주변 임야에 165m²(50평) 규모의 인천답동성당 신도공소와 66m²(20평) 규모의 관사를 신축하였다.

1) 신도(준) 본당

신도(준) 본당은 2006년 승격된 성당으로 1960년 신도 공소부터 출발했다. 당시 도화동 본당(초대 신부 : Jerome Murphy, 閔) 관할 아래에 설립되었으며, 1981년 1월 5일 제물포 본당 관할로 바뀌었다가 제5대 영종 본당 주임 김재수(金在洙, 토마스) 신부 때인 1986년 10월 25일 시도 공소와 함께 영종 본당 관할이 되었다. 1998년 3월 16일에는 공소 건물을 재건축하였다. 그후 교구에서는 2006년 11월 17일자 공문을 통해 영종 본당 일부를 분할하여 신도 및 시도 전 지역을 관할하는 신도(준) 본당으로 승격시킨다고 발표하였다. 공소 설립 46년 만에 승격된 신도(준) 본당의 초대 주임으로 하성 본당 주임이던 김복기(야고보) 신부를 임명하고 12월 4일 부임토록 하였다. 김복기 신부는 이듬해 12월 12일 교육관과 사제관을 신축하였으나 부임 1년 여 만에 주안5동 본당 주임으로 이임하였고, 제2대 주임으로 부임한 류창영(柳昌永, 토마스) 신부 역시 사목 1년 만에 수도회로 복귀했다. 현재 제8대 주임으로 김정수(사도 요한) 신부가 사목하고 있다. 현재 인천중동구 지구에 소속되어 있으며, 행정구역은 북도면 신도



|| 자료 || 신도본당

로 484번길 138-74이다. 설립일은 2006년 11월 17일이며, 세대수 및 신자수는 65세대 150명이다. 모본당은 영종본당이며, 관할 구역은 북도면 일대이다. 역대 신부는 다음과 같다. 공소 시절의 공소 회장은 최의식, 홍순선, 김광환이다.



|| 자료 || 신도본당 종탑

|| 표 || 신도(준) 본당 역대 신부

대수	성명	세례명	재임기간	비고
1	김복기	야고보	2006.12.04.~2008.01.13.	
2	류창영	토마스	2008.01.14.~2009.01.11.	
3	황해룡	마르코	2009.01.12.~2011.01.06.	
4	김기현	세례자 요한	2011.01.07.~2014.01.12.	
5	김태현	요셉	2014.01.13.~2015.01.12.	
6	양성일	시메온	2015.01.12.~2019.01.13.	
7	김준태	요셉	2019.01.14.~2024.01.14.	
8	김정수	사도 요한	2024.01.15.~현재	

2) 시도공소⁴¹⁾

시도공소는 1964년 파퀘트 신부에 의해 송림동 본당 관할로 설립되었다. 신자들의 집에서 공소예절을 드리다가 이듬해 영종본당이 승격 신설되고 이곳으로 이관되면서 영종본당 초대 주임 시노트 신부가 공소 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에 1967년 공

41) 인천교회사연구소, 『천주교 인천교구 공소 현황 조사 사업 결과보고서』, 2021, 143~144쪽.

소신자의 사유지 위에 공소 건물을 신축하였다. 당시 신자수는 약 50여 명 정도였다. 시도 공소는 1981년 영종 본당이 공소로 지위가 격하되면서 제물포 본당으로 이관되었다가 1986년 영종본당이 재승격되자 다시 이곳으로 이관되었다. 한편 신도-시도-모도간에 다리가 개통되고, 2006년에는

신도(준)본당이 승격 신설됨에 따라 이곳으로 이관되었다. 2014년 공소 부지를 소유하고 있던 공소 신자가 부지를 분할하여 교구로 회사하자 공소 건물 내부를 전면 수리하였다.

현재 시도공소는 주1회 정기적으로 봉헌되고 있으며, 신자 수는 약 10여 명 정도이다. 현재 인천중동구 지구에 소속되어 있으며, 행정구역은 북도면 시도로 104번길 44-31다. 건물은 벽돌조적구조이며, 부속시설로는 성모상과 종탑종이 있다. 역대 공소회장은 김관섭, 남숙분, 백관순, 정백록이 맡았으나 현재는 없다. 공소 미사는 목요일 저녁에 드린다.

3) 장봉도 공소⁴²⁾

장봉 공소는 신도(준) 본당 관할로 2009년에 설립되었다. 처음에는 장영란 선교사가 섬으로 들어가 주민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며, 집에서 공소예절을 행하고 신부를 격주(2, 4주)로 모셔와 미사를 봉헌하기도 하였다. 이에 본당과 교구에서는 2011년 공소 건물을 신축을 하가하고 지원을 해주



|| 자료 || 시도공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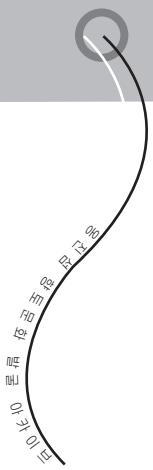


|| 자료 || 장봉도공소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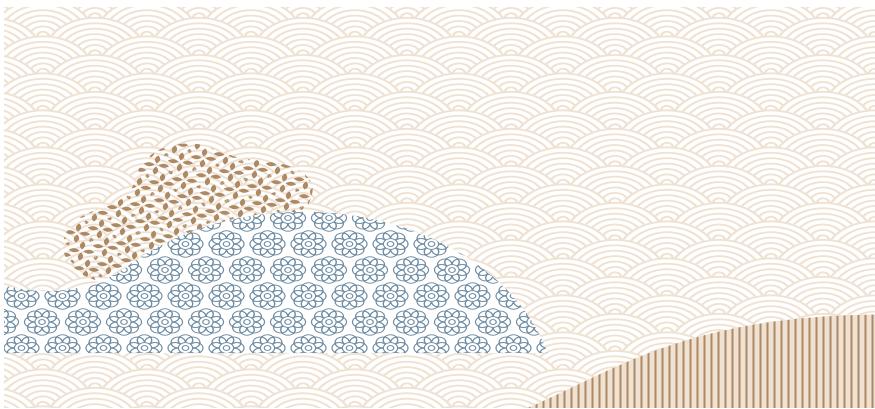
42)인천교회사연구소, 『위 책』 2021, 147~148쪽.

어 이듬해에 공소 건축을 시작하여 2013년 완공하고, 최기산 주교의 집전으로 축복식을 행하였다. 현재 장봉공소는 주 1회 정기적으로 미사가 봉헌되고 있으며, 미사 참여인원은 약 25명 내외이다. 현재 인천중동구 지구에 소속되어 있으며, 행정구역은 북도면 장봉로 541번길 9이다. 건물은 경량철골구조이며, 부속시설로는 성모상과 십자가의 길이 있다. 공소회장은 서정일이었으며, 현재는 고충신이 맡아 하고 있다. 신도는 11명이다.

김석훈(인천섬유산연구소 이사)



VI. 어업문화와 민속유산



VII. 어업문화와 민속유산

1. 어업문화

가. 어업환경

북도면은 인천광역시 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도(主島)인 장봉도(長峰島)를 비롯해 신도(信島), 시도(矢島), 모도(茅島) 등 네 개의 유인도와 아염·사염·선염·날가지·말못·오도(梧島)·동만도(東晚島)·서만도(西晚島) 등 무인도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무인도는 북도면 주민들의 조개 채취와 물고기를 잡는 장소이자 김 양식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과거 북도면은 어업을 생업으로 삼은 곳이다. 주민 대부분이 중선 배를 타고 연평도 근해에서 조기를 잡고 장봉도 인근의 만도리어장



|| 자료 || 1982년 9월 24일 시도와 모도 사이 갯골에 정박한 곳배 모습(출처 옹진군청)

에서 새우, 민어, 잡어를 어획하였다. 민어는 우는 소리가 마치 개구리 울음소리 같았다. 백조기는 색색 울어서 ‘색색구리’라 불렸다. 이 지역의 민어는 20kg이 넘는 대형 어종인데, ‘민어 하나에 쌀 한가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가격은 무척 비싸다.¹⁾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민어는 잡히지 않는다. 장봉도 진말은 잡아온 새우를 말리는 건조장으로 이용되었고, 시도 앞 바다는 수 많은 어선들이 기항하던 천연적 어항이었다.²⁾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시도와 모도 사이의 ‘웬돌끼미’ 갯골은 수십 척의 곳배³⁾가 갈치, 민어, 농어, 도미, 참치, 새우 등의 많은 어획고를 올렸다. 각 배의 선장들은 새우 잡기 좋은 위치인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제비뽑기를 하기도 했다. 북도면 주변의 넓은 간석지에는 패류와 해조류가 흔하였다.



|| 자료 || 곳배 패널과 과거 곳배 조업 자리(모도)

북도면 주변 해역은 한강 하류의 영향이 미치는 내만성 어장으로 예로부터 새우 민어 농어 등이 많이 잡혔다.⁴⁾ 섬 주위로 갯벌

1) 정연학, 「민속조사」, 『서해도서 종합학술조사 II』,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05, 353쪽.

2) 정연학, 앞의 책, 2005, 321쪽.

3) 곳배는 일명 명렁구리 배라고도 불리는데, 자력으로 이동할 수 없고 닻을 내려 조업을 하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곳배는 항상 정박하고 있기 때문에 잡은 새우를 육지로 옮길 수 없어 잡는 즉시 소금을 뿐려 절였다. 그래서 해선(醸船), 젓배 등의 명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1980년대 후반까지도 사용되었으나, 동력선이 보급되면서 자취를 감추었다.

4) 동아일보, 1962. 8. 17. 기사에 따르면 ‘부천군 북도면 일원은 우리나라 3대 어장의 하나이고 「육젓의 창고」로 불린다.’고 할 정도로 어족자원이 풍부하였다.

이 넓게 형성되어 있어 어패류와 해조류 역시 흔한 편이며, 갯골을 이용하여 돌살 등을 설치하여 물고기를 잡았다. 전통시대 문헌 기록을 살펴보면 『輿地圖書』에서는 장봉도(長峯島)는 호수(戶數)가 86호, 인구가 남자 192명, 여자 138명인데 말을 방목하고 물고기 잡이를 주로하고, 신도(信島)는 호수가 54호, 인구가 남자 111명, 여자 100명인데, 염전[鹽盆]과 어업이 생업임을 기술하고 있다.

『世宗實錄地理志』(江華都護府)에는 돌살[魚梁] 2곳에서 홍어(洪魚), 수어(水魚), 민어[民魚], 백하(白蝦), 토화(土花), 굴[石花]이 산출된다고 적고 있고, 『輿地圖書』에서는 장봉도와 신도 근해에서 홍어(洪魚), 백하(白蝦), 생합(生蛤), 황합(黃蛤), 토화(土花), 굴[石花], 낙지(落地), 위어(葦魚), 소하(小蝦), 중하(中蝦), 수어(秀魚), 죽합(竹蛤), 조기[石首魚], 새우[蝦], 민어(民魚), 차조기[蘇魚], 화어(鯧魚), 전어(錢魚), 이어(鯉魚) 등이 산출된다고 적고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는 토산물로 홍어(洪魚), 새우(白蝦), 대합[蛤], 토화(土花), 굴[石花], 낙지(絡締), 소하(小螺), 어표(魚鱠), 수어(秀魚), 중하(中蝦), 죽합(竹蛤), 조기[黃石水魚], 게[蟹], 청계(青蟹) 등을 들고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북도 어업조합에서 시도 앞바다에 조개 양식을 장려하기도 할 정도로 어패류가 많이 잡혔다.⁵⁾ 1930년대 조선일보 신문 기사에 따르면, 시도 앞바다의 조개 생산량이 연간 10만원에 이르렀다. 신도와 시도 400여 호의 어가의 훌륭한 부업이었으나 점차 조개 생산량이 감소하자 1937년 4월부터 북도면어업조합에서 양식을 실시하고 1달간 채취를 제한하여 다시 생산량이 양호하게 되었다.

5) 조선일보, 1937. 8. 11. 〈北島漁組에서 『조개』 養殖獎勵〉.



|| 자료 || 조개 양식장 장려(조선일보 1937. 8. 11.)

2023년 현재, 북도면의 343가구 중 전업 농가가 233호에 이르고, 전업 어가는 전무할 정도로 어업이 쇠퇴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섬의 특성상 겸업은 332호에 656명에 이른다. 경지면적(345ha) 중 논(165ha)의 비중이 밭(180ha) 보다 약간 낮다.⁶⁾ 어선 보유는 총 34 척이며, 그 가운데 1-5톤 미만이 32척, 1톤 미만과 5-10톤 미만이 각각 1척이다. 그나마 10톤 미만인 시도의 연안안강망은 정박만 하고 실제 조업을 하지 않아 모두 소형 어선이다. 이들 어선의 면허는 연안복합(17척)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연안자망(2척), 연안통발(1척), 연안안강망(1척)이다. 그밖에 8척은 낚시어선업으로 신고되어 있다.

2023년 12월 31일 현재, 북도면의 주요 수산물은 어류는 우럭 놀래미 농어 광어 등을, 갑각류는 꽃게와 새우, 패류는 굴 바지락 상합(백합) 소라 가무락 동죽, 해조류는 김, 연체류는 낙지 등을 잡고 있다. 특히 김은 장봉도 해안에서만 양식하고 있다.



|| 자료 || 시도에 정박 중인 연안안강망

6) 『제63회 2023 옹진군 기본통계』, 옹진군청, 2024.

|| 표 || 2023년 북도면 주요 수산물 생산 현황

품종	수산물	어획량(kg)	어획고(천원)
어류	소계	1,443	19,110
	우럭	350	5,250
	놀래미	270	2,700
	농어	273	5,460
	광어	100	1,200
	기타어류	450	4,500
갑각류	소계	3,959	39,590
	꽃게	3,200	32,000
	새우	759	7,590
패류	소계	259,560	779,210
	굴	1,980	33,660
	바지락	170,000	510,000
	상합	78,000	156,000
	소라	880	8,800
	가무락	6,200	62,000
	동죽	2,500	8,750
해조류	소계	162,500	1,756,360
	김	162,500	1,756,360
기타해산물	소계	423	4,230
	낙지	423	4,230

2022년 4월 15일 현재, 어업권 현황을 보면 마을어업권이 22건 449ha, 양식어업이 20건 344ha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굴이 1건 5ha, 가무락 1건 20ha, 김 18건 319ha이다. 김은 옹진군 내 가장 많은 면허 건수와 면적이 넓다. 2023년 12월 31일 현재, 김 생산량은 162,500kg, 1,756,360천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어업 소득금액이 총수입액의 50%이상을 차지하는 겸업 1종의 가구 수는 79호이고, 어업소득금액이 총수입액의 50%이하를 차지하는 겸업 2종은 301호이다. 수산업에 전업하는 경영자 인구는 10명이며, 겸업은 507명(남 279명, 여 331명)이다.

『고려사』, 『세종실록지리지』 등의 기록에 따르면 고려부터 조선

까지 장봉도 신도 시도 모도는 강화에 속하였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부천군이 신설되면서 강화군에서 부천군으로 편입되었다. 이때 ‘북쪽에 있는 섬’이라 하여 북도면이 되었다. 1973년 부천군이 폐지되면서 경기도 옹진군에 편입되었다가 1995년 인천광역시로 통합되었다. 강화대교가 건립되기 이전에는 여객선이 북도면을 거쳐 강화도로 이동하다보니 주민 사이에 통혼권이 생겼다. 강화도에 장봉도 출신 여인이 시집 온 경우가 많다.

『강도부지』에 따르면 신도의 토전은 2결 17부 7속이며, 시도는 토전이 없고, 모도의 토전은 2결 43부 9속이라 언급되어 있다. 『여지도서』에 신도에 “소금 굽는 가마와 어장이 있다”라고 언급되며, 토지 결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서해안의 작은 섬인 신도 시도 모도는 농업보다는 어업을 기반으로 살아왔던 것으로 보인다.⁷⁾ 일제강점기에 들어 신도 3리에 제방을 쌓아 농경지가 확대되었으며, 1950~60년대 간척사업으로 대규모 농경지가 조성되면서 현재는 논농사의 비중이 더욱 늘어났다. 모도에는 논이 없었으나 1986년 제방을 쌓은 이후 비로소 논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⁸⁾

북도면의 어장은 한강 하류의 영향이 직접 미치는 내만성(內灣性) 어장이다. 장봉도는 광활한 간석지(干潟地)가 발달하여 가무락, 바지락, 대합, 상합 등의 조개를 잡았다. 장봉도와 신도를 잇는 갯벌에선 실뱀장어가 많이 잡았다.

북도면의 장봉도는 섬이지만 너른 농토를 가지고 있어 장봉2리를 제외한 주민들은 반농반어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이와 반해 신도와 시도 및 모도는 서로 근접한 섬으로 주민 대다수가 어업에 종사하였다.⁹⁾ 시도 최병모 씨(1941)에 따르면, 장봉2리, 모도, 시도, 신도1리 주민의 90%는 어업에 종사할 정도였다고 한다. 1911년도 『韓國水產誌』의 통계를 보면, 각도의 호구 및 어호(漁戶), 어선, 어망(漁網) 등을 알 수 있다.

7) 홍인희외 3인, 『인천 섬 생활사 조사보고 제2집 신도 · 시도 · 모도』, 인천문화재단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 옹진군청, 2022, 56쪽.

8) 홍인희외 3인, 앞의 책, 2022, 57쪽.

9) 정연학, 「민속조사」, 『서해도서 종합학술조사 II』,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05, 354쪽.

|| 표 || 신도·시도·모도의 어가와 어선

도명(島名)	총호구		어호(漁戶)		어선	어망	
	호수	인구	호수	인구		마망(麻網)	갈망(葛網)
신도	125	420	11	45	11	5	6
시도	114	342	12	36	12	5	10
모도	65	247	23	69	23	-	23
합계	304	1,009	46	150	46	10	39

출처: 조선총독부 농상공부, 『한국수산지』 제4집, 1911

각도의 어호는 소수에 불과하나 이들은 모두 어선을 소유(所有)한 선주이며, 도민의 대다수는 어부나 어획물 처리판매업 종사자들이다. 모도는 총 호수는 적으나 배를 부르는 선주들은 신도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당시의 그물은 칡 줄기로 만든 갈망이 마로 만든 그물보다도 더욱 많이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자료 || 1982년 9월 24일 북도면 모도리 수산물 건조 전경

1915년 총독부에서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경기도지지조서』¹⁰⁾에 따르면 신도 217호 1,030명, 시도(살섬) 194호 941명, 모도 118호 655명, 장봉도 221호 1176명 등 750호 3802명이 살고 있었다. 그 가운데 신도 구로지(九老池)에 133호 626명이, 장봉도 평촌(坪村)에 116호 580명 등 많은 주민이 생활하였다. 2022년 현재 북도면의 인구가 1,190호 2131명¹¹⁾인 점을 고려하면 세대수는 증가하였지만 인구는 감소하였다.

10) 『경기도지지조서』(1915, 경기도 부천군·김포군·여주군),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 1915.

11) 『제63회 2023 옹진군 기본통계』, 옹진군, 38쪽.

|| 자료 || 경기도 부천군 북도면 지지조서(1915)(국토지리정보원)

|| 자료 || 경기도 부천군 북도면 지방별지명조사철(1958)(국토지리정보원)

2022년 현재 북도면 어촌계원은 주로 갯벌에서 바지락, 소라, 굴 등의 어패류와 낙지를 잡는다. 각각 계절과 물때에 맞춰 조업하는데, 바지락은 5월 중순부터 장마 전까지 캐며, 굴은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다음 해 봄까지 수확한다. 굴을 캘 때는 굴을 담는 바구니와 죄(췌)를 준비한다. 최근 굴을 담는 바구니는 플라스틱으로 된 것을 사용하는데, 예전에는 박 바가지에 물이 빠지도록 구멍을 뚫은 뒤 끈을 묶어 손잡이를 만들었고 이를 ‘굴뜨락’이라고 불렀다. 낙지는 8, 9월 금어기를 제외하고 연중 잡는데, 낙지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북도면 주민 중 낙지를 잡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겨울엔 날이 추워서 낙지가 뻘 밑으로 깊이 들어가서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로 봄 가을에 많이 잡는다. 낙지를 잡는 도구로는 낙지삽, 낙지호미 등이 있는데, 낙지호미는 여성들이 주로 사용한다. 맨손어법은 낙지 구멍에 손을 넣으면 낙지가 먹이인 줄 알고 손에 ‘불을’ 때 잡으며, 깊이 들어가면 낙지 삽을 이용하여 갯벌을 파낸 뒤 손으로 잡는다.

장봉도 옹암선착장에는 인어상이 있다. 옛날 장봉도 날가지어장에서 어느 어민이 친 그물에 인어 한 마리가 걸렸다. 어민은 말로만 전해 들었던 인어가 나오자 깜짝 놀라 자세히 보니 상체는 여자와 같이 모발이 길고 하체는 고기와 흡사하였다. 어민은 그 인어를 살려줬는데, 그 이후 고기가 많이 잡혀 그 덕을 인어에게 감사하였다고 한다. 이 전설에 근거해 인어상이 선착장 바닷가에 세워지게 된 것이다.



|| 자료 || 인어상(장봉도 옹암선착장)

과거 북도면은 어족 자원이 풍부한 섬이었으나 인천국제공항건설 및 연도교 건설 등으로 인한 물길의 변화와 어업 허가 등의 문제로 맨손어업으로 굴, 바지락, 가무락 등 어패류 채취에 그치고 있다.¹²⁾ 특산물로는 포도 단호박 굴 바지락 상합(대합) 낙지 등이 있다.

예전에는 풍어제나 당제를 지내는 등 민간종교가 성행하였으나, 천주교 기독교 등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면서 사라졌다. 현재 영종~신도~강화~개성으로 이어지는 서



|| 자료 || 북도면에서 바라본 인천국제공항

12) 홍인희외 3인, 『인천 섬 생활사 조사보고 제2집 신도·시도·모도』, 인천문화재단·인천광역시립박물관·옹진군청, 2022, 64쪽.

해 남북평화도로의 1단계 구간인 영종~신도 4.05km 구간에 연륙교가 2025년 완공될 예정이다. 하지만 북도면은 인천국제공항 항공기가 이륙과 착륙을 위해 지나가는 지점에 있다보니 주민들은 비행기 소음피해로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나. 물 때

서해는 해안선이 구불구불한 리아스식 해안으로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갯벌이 잘 발달하였다. 특히 인천은 조석간만의 차이가 8~9m에 이를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 즉, 목포 인근 해역이 조석간만의 차이가 4~5m, 부산이 1m 내외, 속초가 20cm 내외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하다. 따라서 인천은 조석이 뚜렷하여 갯벌이 넓게 펼쳐지는 모습을 하루에 두 번 볼 수 있는 반면, 동해는 아예 밀물과 썰물 차이를 느끼지도 못할 정도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선박운항, 어업활동, 갯벌체험 등 국민의 안전한 해양 활동에 꼭 필요한 ‘조석표(한국연안)’를 매년 발행하고 있다.¹³⁾ 조석표는 우리나라 주요 항만 및 연안의 고조(만조) 저조(간조) 시각과 바닷물 높이 등의 조석예보 자료와 조석 해설자료 등을 수록하고 있다. 조석은 달과 태양의 중력으로 발생한 기조력(起潮力, tide generating force) 또는 조석력(潮汐力)의 영향으로 해수면의 높낮이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현상이다. 조석간만(潮汐干満)의 차이, 즉 조차(潮差)란 말은 고조와 저조 간의 높이 차이를 의미한다. 즉, 해수면이 최고조에 달한 만조(滿潮)와 가장 낮은 간조(干潮)의 차이를 조수 간만의 차(조차, 潮差)라 한다. 그리고 간조에서 만조까지 바닷물이 밀려오는 현상을 밀물, 만조에서 간조까지 바닷물이 나가는 현상을 썰물이라고 한다.

밀물과 썰물 현상은 대체로 6시간 간격으로 하루 두 차례 반복되며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갯벌에서 어패류 채취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특히 조석간만의 차가 심한 인천의 경우는 더욱 중요시 여긴다. 이를테면 어선이 밀물 때에 맞춰 입출항하고, 연안여객

13) 국립해양조사원(www.khoa.go.kr).

선이 썰물 때를 최대한 피해서 입출항 시간표를 짜고, 갯마을 주민들이 썰물 때에 갯벌에 나가 어패류를 채취한다. 또한 섬과 섬을 연결하는 바닷길이 썰물 때에 열리면 이 길을 통해 두 지역이 서로 왕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인천 어민들은 만조와 간조 시간, 일명 '물 때'를 적어둔 달력을 집에 걸어놓는다. 이 달력은 수협에서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어민들의 어업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달력에는 해면이 가장 높아졌을 때를 만조(滿潮) 또는 고조(高潮)라고 하며, 최저로 되었을 때를 간조(干潮) 또는 저조(低調)라고 표시하였다. 간조에서 만조까지를 밀물(들물) 또는 창조(漲潮)라 하며, 만조에서 간조까지를 썰물 또는 낙조(落照)라 한다

물때는 한 달에 1~15물 주기가 2회 반복되는데,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인천을 비롯한 서해안에서는 음력 초하루를 ‘일곱물’로 여기나, 전남 남동부에서는 ‘여덟물’로 인식한다. 보름과 그믐의 물때는 모두 여섯물로 여기는데, 음력 보름은 물살이 빠르게 흐르는 ‘센사리’이고, 그믐 주기는 물살이 약하게 흘러 ‘족사리’라고 한다. 유두나 백중 때는 1년 중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커서 바닷물이 간척지나 해안가를 침수시키고, 염전 제방이 무너질 정도로 세다. 인천 섬주민들은 누구나 유두사리와 백중사리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다.

월력에 따른 바닷물을 이야기 할 때는 ‘조금’, ‘사리’라고 이야기한다. 조금은 음력 9일과 24일을 전후하여 며칠동안 만조와 간조 수위 차이가 아주 작아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고, ‘사리’는 음력 보름과 그믐을 전후하여 며칠 동안 조수의 간만의 차가 아주 커지는 현상을 말한다. 통상 7물을 중심으로 전후 3~4물을 사리라고 하고, 나머지는 조금이라고 한다.

조금에는 바닷물이 잔잔하기 때문에 유자망, 주낙, 통발, 각망으로 고기를 잡고, 사리 때는 센 바닷물을 따라 이동하는 물고기를 안강



|| 자료 || 장봉도 물때 달력

망, 발, 돌살로 잡고, 갯벌에서는 조개채취를 한다.

현재, 인천 섬 주민들은 물때를 숫자에 물이나 매자를 붙여 호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15물이 끝나면 다시 1물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동일한 섬에서도 노인과 젊은이, 이주민에 따라 부르는 명칭이 차이를 보인다. 젊은이들은 숫자에 ‘물 매’ 자만 붙여서 이야기를 한다. 장봉도 어느 민가의 달력에는 14물을 조금, 15물을 무쉬라고 표기하였다.

다. 물고기 잡이

1960년대만 하더라도 시도에 11명이 승선하는 안강망 어선이 15척에 있을 정도로 어업이 성행하였고, 선원도 모자라서 외지에서 선원을 고용해 어선에서 생활을 하도록 하였다. 안강망 어선은 소만 사리에는 연평도에서 조기를 잡았고, 5월에는 만도리어장에서 밴댕이를, 6월 사리에는

덕적도에서 민어를, 가을에도 덕적도에서 갈치를 잡았다. 그물이 약한 안강망은 사리 때 포구로 들어오지만 새우를 잡는 안강망은 조금 때 돌아오는데 파도의 세기와 그물 상태에 따라 잡는 어종이 달랐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마그물보다 칡그물을 염색해서 주로 사용했다. 시도에 거주하는 최병모 씨(1940)는 15살 때 안강망 어선에서 고기를 잡은 적이 있다. 당시 월급은 한사리마다 주었는데, 그것을 ‘사리용’이라고 하였다. 1년에 철따라 2번 주기도 하였는데 그것은 ‘철용’이라고 하였다. 일 잘하는 선원을 잡기 위해 미리 선불을 주는 것을 ‘선용’이라고 하였는데, 월급에 ‘용’ 자를 사용한 이유는 잘 모르겠다. 안강망 어선은 통상 1년에 8개월 조업을 하고 겨울철에는 어선과 그물을 수선하는 일과로 보낸다.



|| 자료 || 신도 앞바다 어선

북도면에서는 계절에 따라 잡는 어종이 차이를 보였다. 봄에는 실치, 가을에는 새우를 많이 잡았다. 실치는 작으면 포로 만들고, 크면 삶아서 말린 다음 내다 판다. 새우는 곳배로 잡는 경우에는 배 위에서 잡은 즉시 소금을 뿐 려 염장을 하고, 동력선의 경우 신속하게 마을로 가져와서 소금에 절이거나 말려서 내다 판다. 새우는 7, 8월을 제외하고 봄철, 5월, 6월, 입동까지 잡는데, 봄에 잡은 것은 건조를 하고 나머지 것은 젓갈을 담근다. 봄에 새우를 건조하는 것은 날씨 때문이기도 하지만

봄 새우는 살이 많기 때문이다. 5월 오젓, 6월 육젓은 새우 크기가 적당하고 맛이 좋아 비싸게 팔리고, 추젓은 자젓이라고 하고 김장용으로 주로 사용한다. 자젓은 육젓의 새우이기 때문에 그리 좋지는 않다. 입동 즈음에 잡는 동백하는 새우 색깔이 흰색이기에 붙여진 명칭이다. 우럭은 사시사철 낚시로 잡으며, 아구는 천한 고기라고 해서 먹지 않았다. 꽃게는 봄철 암게만 먹고 가을 수케는 먹지 않았다. 박하지는 간장에 담가 먹었다.

장봉도 인근 어장에서 가장 많이 잡는 것이 새우와 민어이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어기가 되면 중선(中船), 해선(醯船) 등이 이곳에 모여 조업을 하였다. 일제시기 해선망 어선은 새우[小蝦] 또는 물고기[小魚]를 어획하는데 잡는 대로 곧바로 젓갈로 가공한다. 그 어선과 어망의 구조 및 사용법 등은 중선과 큰 차이가 없으나 대상어획물에 따라 그물의 크기가 차이가 있을 뿐이다. 어선은 작은 것은 길이 2丈, 너비 1丈, 깊이 4尺餘이고 선원은 7~8인이다. 큰 것은 길이 5丈, 너비 1丈 5尺~1丈 6尺, 깊이 4尺 5寸~4尺 6寸이고 선원은 15~16명이다. 어획물은 주로 새우[小蝦]이나 작은 갈치, 뱀댕이, 기타 잡어가 섞인다. 그러므로 어획물을 갑판 위에 인양하였을 때는 이들 잡어를 골라낸 뒤에 새우[小蝦]만을 해수(海



|| 자료 || 냉동창고에 보관 중인 새우
(장봉도)

水)에 깨끗이 씻어 미리 어선 내에 준비해 둔 독에 넣고 소금을 친다. 새우와 소금의 비율은 10:3이다.

장봉도와 용유도 사이는 장봉수도(水道)라고 하는데, 일제강점기에는 우리 어선은 물론 일본인 어선들도 고기를 잡았다. 이 어장의 주요 수산물은 민어, 농어, 밴댕이, 새우[白蝦] 등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잡히는 것은 새우[白蝦]이다. 어선 10척, 혹은 20~30척의 어선이 줄을 지워 조업하였다.

일제시기 북도면 주민들은 대부분 어업에 종사하였고, 새우잡이가 주 생업이었다. 북도면 주민들은 새우를 무역하는 객주에게 먼저 선금을 받고 어업을 진행하는 방식이었는데, 1931년에 북도면 어업조합을 창설하고 공동판매소를 운영하였다.¹⁴⁾ 그러면서 선금으로 받은 돈을 가지고서 그물 등을 마련하여 새우를 잡았는데,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자 북도면 어민 70, 80명은 부천군청에 공동판매소 수수료 철폐와 공동판매소 설치 연기 해줄 것을 진정하였다.

북도면 장봉도 ‘만도리어장’은 우리나라 4대 새우어장 중에 하나이다.¹⁵⁾ 당시에는 새우를 잡는 무



|| 자료 || 어민 70여 명이 부천군청에 쇄도. 어업조합을 해산 시켜달라고 군당국에 3일간 진정(조선일보 1931.5.5.)



|| 자료 || 장봉도 어선(옹진군청)

14) 조선일보 1931.5.5. 어민 70여 명이 부천군청에 쇄도. 어업조합을 해산 시켜달라고 군당국에 3일간 진정. 동아일보 1932.1.31. 어업조합지정 30일 고시로. 북도면 어업조합이 지정됨

15) 정연학, 『인천 섬지역의 어업문화』,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08.

동력선 곳배[해선망]가 많았으며, 장봉도에만 무려 45척이나 있었다. 1970년대 이후에는 낭장망(안강망) 동력선으로 새우를 잡았으나, 1970년대 말 장봉도에 김 양식이 도입되면서 선주들은 폐선 보상을 받고 김 양식업으로 전업했다.

1) 숭어와 망둑어

숭어와 망둑어는 북도면 해안에서도 많이 잡히는 물고기이다. 숭어는 건강망 그물로 잡고, 망둑어는 통발이나 낚시로 잡는다. 건강망은 바닷가에 일정한 거리마다 말뚝을 박고 거기에 그물을 친 것인데, 북도면에서는 ‘초코’라고 한다. 초코그물로는 주로 숭어와 망둑어를 잡으며, 꽃게, 농어 등 잡어가 든다.

북도면 제사상에는 조기와 숭어가 올라간다. 설에는 제수로 조기를 사용하고, 추석과 마을제의에는 말린 숭어를 올렸다. 숭어는 ‘하늘을 아는 물고기’라 해서 아주 귀하게 여긴다. 숭어의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낸 후 소금에 하루 동안 절여서 말린다. 장봉도 어가에는 숭어, 망둑어를 말리는 건작대가 여러 개 설치되어 있는데, 가을철 ‘건작대’에 말리는 생선의 모습은 장관을 이룬다. 잘 마른 생선은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먹는다. 파리 등의 벌레가 생선을 먹지 못하도록 방충망을 달은 건작대도 판매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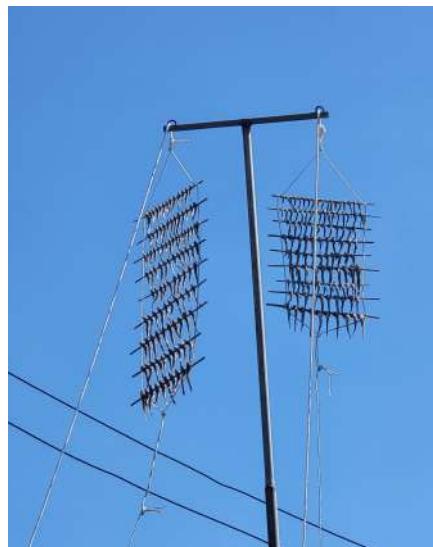
장봉도에는 망둑어를 잡기 위한 통발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그것을 ‘망둑어통발’이라고 하지만 망둑어를 비롯해 서대, 꽃게, 장어, 광어, 복어 등이 다양한 어종이 잡힌다. 특히 장봉도 인근 날가지, 아염, 동만도 등 무인도에도 망둑어통발을 설치하여 다양한 어종을 잡고 있다. 그 길이는 대략 14m 정도 된다.



|| 자료 || 건어장해변 건강망(장봉도)



|| 자료 || 망둑어통발(장봉도)



|| 자료 || 생선 건조 건작대. 오른쪽은 망둑어 건조 모습(장봉도)



|| 자료 || 망둑어 건작대
(2000년 장봉도, 용진군청)

망둑어는 서해안 지역에서 흔히 잡히는 물고기로 가을철 망둥이는 크고 굵다.¹⁶⁾ 보통 밀물에 낚싯대를 들고 들어가 한 차례에 100~300마리는 능히 잡으며, 잡은 망둥이는 소금을 뿐 미끈거림을 제거한다. 망둥이는 회나 매운탕 감으로 사용되며, 잡은 양이 많기에 줄에 꿰어 일정기간 말려두었다가 술안주나 쪘서 먹는다. 인천 어민들은 망둑어를 멍청한 물고기로 인식하는데, 그것은 낚싯대를 드리우면 금방 입질을 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미끼를 낚시 바늘에 끼우지 않아도 잡힌다고 한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도 망둑어 낚시질을 즐긴다.



|| 자료 || 망둑어 낚시
(2023년 10월 15일, 옹진군청)



|| 자료 || 망둑어 낚시를 즐기는 외지인



|| 자료 || 잡은 망둑어

16) 정연학, 「민속조사」, 『서해도서 종합학술조사 Ⅱ』,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05, 361쪽.

2) 농어와 우럭

농어, 우럭도 북도면 해역에서 많이 잡히는 물고기 중의 하나이다. 정치망 그물로 잡거나 통발, 낚시 바늘이 여러 개 달린 줄낚시로 잡는다. 우럭은 물이 맑고 깊은 곳에 서식하기 때문에 낚시꾼들은 배를 타고 나가서 잡아야 하는데, 최근 북도면에서는 활성화되지 않았다. 농어는 근래에 많이 잡히지 않는다고 한다.

3) 주꾸미 통발

주꾸미는 소라를 통발로 해서 잡는다. 과거에는 실재 소라껍질을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소라 모양의 플라스틱 통발을 사용한다. 미리 통발을 만들어 두었다가 봄철 주꾸미철에 사용한다.

최근에는 공갈낚시로 주꾸미를 잡는다. 어선 5-6척이 외지 낚싯꾼을 태우며 이동하는데, 하루에 700마리를 잡을 정도로 그 양이 많다. 주꾸미는 봄철이 산란기이기 때문에 낚시를 할 수 없다.



|| 자료 || 주꾸미 통발 정리하기(장봉도)

4) 게

북도면에서 많이 잡히는 것이 게이다. 게는 ‘박하지’라고 부르는 게와 ‘능쟁이(칡게)’, 꽃게 등 3가지 종류가 있다. 박하지는 꽃게 보다 크기는 작으나 단단하여 보통 삶아서 먹거나 간장에 담가 계장으로 먹기도 한다. 이와 반해 능쟁이는 갯벌 구멍에서 사는 작은 게로 겨울철에 주로 잡아서 조려먹거나 간장에 담가 먹는다. 박하지는 근래에는 통발로 잡는데, 고등어를 미끼로 사용하며 통발에는 박하지뿐만 아니라 고등어를 좋아하는 우럭, 아나고 등도 같

이 듣다. 박하지는 갯벌에 나가 물이나 바위 밑에 숨어 있는 것을 손으로 잡기도 한다. 박하지는 4월부터 11월말까지 잡힌다.



|| 자료 || 꽃게



|| 자료 || 박하지



|| 자료 || 망둑어통발로 잡은 박하지와 꽃게

꽃게잡이는 서해안 주민들에게 고소득을 올리는 효자 어종이다. 꽃게를 잡는 방법은 통발이나 그물을 통해서 잡는데, 통발을 이용해서 꽃게를 잡는 방식은 그 역사가 깊다. 장봉도에서 가을철인 9월에 꽃게잡이를 한다. 꽃게잡이는 대부분 노름풀 어장에서 하는데, 통발과 자망, 유망 등으로 잡는다. 통발은 고등어를 미끼로 해서 잡으며, 자망인 경우에는 양쪽에 닻을 달아 고정시킨 닻자망으로 잡는다. 이와 반해 유망은 바닷물을 따라 그물이 흘러가게 만든 것으로, 부표를 중간 중간 세워 그물이 꽉 펴지도록 한다. 이러한 행위를 ‘벼리’라고 부른다.¹⁷⁾

17) 정연학, 「민속조사」, 『서해도서 종합학술조사 Ⅱ』,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05, 363쪽.

부표는 그물의 위치나 작업한 구역을 표시하기 위해 바다 위에 띄워놓는 도구이다. 부표 밑으로는 그물의 줄과 앵커가 달리며, 부표의 크기는 그물의 대소에 따라 달라진다. 부표는 70년대 초반까지는 유리부표를 사용하였으며, 70년대 초부터 80년대 중반까지는 폐튜브를, 80년대 후반부터는 스티로폼으로 만든 부표를 사용한다.

꽃게잡이 통발은 파란색과 노란색을 사용하는데, 노란색에 꽃게가 더 든다고 한다. 그것은 꽃게가 노란색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봄에는 꽃게가 통발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것은 꽃게는 물이 차가우면 물 속을 헤엄쳐 다니기 때문이다. 반면 여름에는 물이 더워서 바닥으로 기어 다닌다. 그래서 봄에는 자망으로, 여름에는 통발로 잡는 것이 유리하다.



|| 자료 || 꽃게(장봉도)

라. 어선 목수

2022년 1월 기준, 북도면의 어선은 총 34척이다. 그러나 장봉도에서는 1992년도까지 해선망 무동력선 어선 45척으로 새우를 잡았고, 연안안강망은 15척이었다. 김양식이 도입되면서 선주들은 배 대신 김양식으로 전업을 하였고, 인천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배 보상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어선이 소형으로 바뀌고 고용문제가 있어서 주로 부부끼리 조업을 한다. 소형배들은 주로 낚싯배로 운영되고, 김양식 관리선으로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어선은 목선-철선-FRP순으로 바뀌었다. 어선의 수명은 목선은 25년, 철선은 30년, FRP는 25년 정도로 그 수명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북도면에는 과거 목선을 만들었던 목수들이 생존하였고, 필자는 2007-2008년 사이에 신도 김만조씨(1935생), 장봉도 이봉현씨(1927생) 등과 선박 제조와 관련하여 인터뷰를 실시한 적이 있다. 여기서 당시의 내용을 다시 실었다.

1) 도편수

배를 만드는 목수를 ‘도편수’라고 부르는데, 이는 집을 짓는 목수의 우두머리를 가리키는 용어에서 따왔기 때문이다. 배를 만드는 행위 자체도 ‘짓는다.’라고 표현을 한다. 북도면 신도에 사는 김만조씨는 아버지 고 김연근 씨로부터 배를 만드는 목수일을 배웠다. 그의 부친은 20살 때부터 배목수를 하였으며, 해방 전에는 신도의 유명한 대목수로 인천에 거주하는 일본인 목수를 고용해 신도·장봉도·용유도·영종도 예단포 일대에서 주문한 배를 만들었다고 한다. 당시 일본인 고용인을 11명이나 둘 정도로 많은 배를 만들었으며, 조선인이 일본인을 고용해 배를 만든 것은 당시에는 이례적인 일이다. 당시 고용 인부의 임금은 월급으로 주었다고 한다.

김만조씨는 아버지 밑에서 배를 만드는 기술을 배우다가 29살에 인천의 조선소에서 배를 수선하는 일을 하였다. 그러다가 37세에 인천 조선소에서의 일거리가 줄자 신도에서 농사를 하면서 배를 짓

는 일을 하였다. 이미 김씨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는 배를 짓는 일이 많지 않아, 집을 짓는 목수일도 하였다. 섬 지역의 목수들은 한결같이 “집 목수는 배를 못 만들어도 배 목수는 집을 만들 줄 안다.”고 한다. 그만큼 배를 만드는 일이 집을 만드는 일보다 정교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장봉도 이봉현씨는 해방 후 22살 때 목선 만드는 일을 시작하였다.¹⁸⁾ 당시 장봉도에는 대목으로 강산식씨와 김홍식씨가 있었는데, 이들로부터 배 만드는 기술을 배웠다. 배 제작기술을 배운지 4년이 되어 대목이 되었다고 한다.

2) 배 제조와 수리

인천 섬 지역 목수들이 만든 배는 무동력선인 “뗀마”, 새우를 잡는 “젓배”, 조기를 잡는 안강망 “중선배” 정도이다.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한 장소와 재목이 필요하다. 인천 섬 지역에서 배를 만든 장소는 바다가 가까이 있지만 물이 들어오지는 않는 공간을 택한다. 이는 배를 만드는 과정 중에는 배에 바닷물이 닿으면 좋지 않지만, 바다에 가까워야 배를 진수할 때 편하기 때문이다. 신도에서 배를 만든 장소의 지명은 ‘계꼬지’이다. 예전에는 이곳 까지 바닷물이 들어왔으나 간척사업으로 인해 현재는 논으로 변하였다. 장봉도 이봉현씨가 배를 만들던 곳은 집 앞 장술말이라는 곳이다. 장술말은 배를 정박하는 장소로도 이용되었으며, 주로 새우를 잡는 ‘젓배’들이 머물러 있었다.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장은 물론 나무감이 필요하다. 배를 만드는 나무는 일본에서 수입한 ‘스키나무’라고 부르는 삼나무를 이용하였으나, 여력이 없는 목수들은 섬에서 자생하는 소나무를 가지고서 배를 만들었다. 단지 배의 틈을 채우는 경우에만 삼나무껍질로 만든 새끼줄을 사용하였다.

18) 장봉도 큰말 바닷가에 사는 이봉현씨는 예전에 배를 만들었던 연장들이 연장통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이다. 세월이 흘러 녹이 쓴 것들도 많이 있으나, 직접 만든 나무 연장통은 제대로 만들었다.

배를 만들 때 필요한 나무의 수는 배목수가 선주가 요청한 배의 도면을 간략하게 판에다 그리면서 먹으로 배의 중요한 부분인 부자리, 삼, 네끼, 네장 등을 표시하는데, 이때 나무의 수량이 정해진다. 그런 다음 필요한 나무의 수를 셈한 후 인천에서 나무를 캐서 가져온다. 가령 제일 작은 목선인 렌마를 만드는 경우에는 나무 길이가 10-15자 정도, 짐배를 만드는 경우에는 30자-50자 정도 길이의 나무를 캐서 가져온다. 배를 만드는 가격은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하며, 주로 깎아 주는 것은 인건비 정도이다. 한편, 배를 만들 때 도면은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데, 그 이유에 대해 배 목수들은 배 만드는 기술이 점점 발달하여 기준의 도면을 보관해도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배를 만드는 시기는 주문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해진 시기가 없고, 배의 수선은 주로 겨울철에 이루어진다. 배가 정월 보름을 지나면 출어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전에 수리를 하는 것이다.

배를 만드는 순서는 대략 다음과 같다. 우선 배의 밑을 만들고 뼈대를 구성한다. 그런 다음 배의 바닥과 배의 옆면 기둥을 니은자형으로 ‘부자리’를 삼고, 2자 간격으로 ‘눈두’를 세운다. 그리고 배의 선두를 기역자형으로 올리고 ‘삼’을 세운다. 배를 만들 때 가장 힘든 일은 ‘부자리’를 붙이는 것인데, 나무의 앞쪽을 휘어지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무는 끓인 물이나 불로 구워서 구부린다. 이렇게 만든 배는 5년 후에 수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배는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방수를 하는데, 삼나무껍질로 배의 틈을 채워 준다. 이것을 ‘박친다’고 한다. 삼나무껍질은 새끼줄처럼 만들며, 두께는 2치 정도인데 박칠 때는 나무의 틈을 벌려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일본말로 ‘구지야키’라고 한다. 선박과 관련된 용어 가운데 일본어가 많이 들어 있는 것은 일제강점기에 일본 어선들이 우리 인근해에서 조업을 많이 하였고, 배를 만드는 기술을 일본사람들로부터 배웠기 때문이라고 한다. 삼나무껍질로 꼳 새끼줄은 인천의 공장에서 구입을 하며, 배 표면의 방수는 페인트칠로 처리를 한다.

쇠로 만든 닻이 등장하기 전까지 인천 섬 지역에서는 나무로 닻

을 만들었다. 그 모양도 섬 지역에 따라 화살 모양이나 사각형인데 그 구조는 채와 가지로 구분된다. 신도에서는 화살 모양의 닻을 만들었고, 이때 재료로는 단단하고 무거운 참나무와 박달나무를 사용하였다. 이와 반해 장봉도 이봉현씨는 인근에서 자라는 굵은 소나무 또는 참나무를 열십자로 골격을 대고 그 사이에 살을 대어 만들었다. 이 닻은 제 스스로는 물 위에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닻 위에 큰 돌을 올려놓고 고정시킨다. 그런데 닻은 강한 바닷물에 비뚤어지거나 흘어지기는 경우도 있어 다시 만드는 경우가 더러 있다. 닻의 나무가 썩지 않게 하기 위해 철파를 씌우기도 하나 그것 역시 오래가는 편은 아니다. 배가 출항을 할 때는 닻에 연결된 줄을 풀고 바다로 나간다. 닻이 해안가에 고정된 셈이다. 이러한 닻은 새우를 잡는 ‘젓배’에 많이 사용되었다.

배를 만들 때 사용한 연장으로는 기역자 각자(꺽자), 못을 뽑을 때 사용하는 빠루, 배를 단단하게 고정시키는데 사용하는 꺽쇠, 박칠 때 사용하는 연장, 구멍을 뚫을 때 사용하는 송곳, 나무에 선을 그을 때 사용하는 먹줄, 자귀, 톱 등 다양하다. 톱에는 실톱과 굵은 톱, 구멍을 낼 때 사용하는 송고톱 등이 있는데, 국산 보다 일제를 선호한다. 그것은 국산톱의 이가 잘 빠진다고 한다. 배에 사용되는 꺽쇠는 인천의 대장간 등지에서 구입을 하여 사용하였다.

목수들은 조업 중인 배가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곳까지 가서 수리를 하였다. 장봉도 이봉현씨는 젓배가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바다에 나가 수리를 여러 차례 해준 적이 있다. 결국 목수는 배를 만드는 일에서부터 수리, 폐선까지 그 일을 맡아서 한 셈이다.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편수를 도와주는 목수들이 있기 마련이다. 배를 만드는 규모에 따라 그 인원은 달라지는데, 장봉도의 이봉현씨는 3-4명의 현지 목수를 거느리고 배를 만들었다. 목수들의 인건비는 보통 월급으로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는 배를 만들 때 인건비를 결정하기도 한다.

3) 진수식

배 진수식은 마을의 잔치이기도 하고 목수의 생일날이기도 하다. 진수식 날에 선주는 돼지와 막걸리 등을 준비하고, 배를 내리는데 도움을 준 마을 주민들에게 술과 음식을 준다. 섬에 특별한 잔치가 없는 상황에서 배 진수식은 정월 뱃고사와 더불어 가장 큰 마을 잔치이기도 하다. 또한 목수들은 선주로부터 금전적인 혜택을 보기에 생일날이라고 여기기도 한다.

배를 내릴 때는 20-30명의 남자들이 참여하고 배 밑에는 통나무를 대어 배를 바다로 믿다. 배를 밀 때는 여자들은 참여하지 않는 데, 여자를 부정적 존재로 여기기 때문이다. 진수식 때 도편수는 10 원짜리 동전을 ‘애기씨 서낭’에 넣어준다. 장봉도에서는 ‘소당 아가씨’라고 한다. 그러면 선주는 그 답례로 3일 일당 정도의 금액을 그간의 노고를 치하한다는 점에서 도편수에게 준다. ‘애기씨 서낭’ 상자에는 여자 한복, 거울, 신발, 동전, 실 등 여성과 관련된 것들을 넣어준다.

진수식 때는 오색기, 상(上)기, 고깃기 등으로 장식을 하며, 배가 진수한 다음에는 도편수나 선주를 물에 빠뜨리기도 한다. 그러면 배가 만선을 이룬다고 여긴다. 도편수는 진수식 의례를 거행하며 축언을 하기도 한다. 배의 이름도 사람의 이름을 짓듯이 작명소나 한학에 능통한 사람을 통해서 짓는다.

4) 목선의 쇠퇴

목선을 만들던 시기의 도편수의 벌이는 꽤 높은 편이었다. 한 배를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에 1년에 3-4척의 배만 만들어도 생활이 가능하였다. 신도의 김만조씨에 따르면, 사흘만 일해도 쌀 1가마를 임금으로 받을 정도로 수익이 괜찮았고, 4남매를 인천에서 모두 교육을 시켰다.

그러나 목선이 사라지면서 대부분의 목수가 일자리를 잃었다. 1970년도 말에 등장한 철선과 1980년 초에 등장한 FRP 선박의 등장

으로 1980년 중반 목선은 사라지게 되었다.¹⁹⁾ 따라서 목선을 만들던 배목수들은 영세한 농민으로 전락하거나 집을 짓는 일로 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또는 장봉도의 이봉현씨처럼 배목수 대신 곳배의 선주가 되어 젖새우를 잡기도 하였다.

마. 갯벌 어로

1) 갯벌

갯벌의 사전적 의미는 ‘고조시에는 잡기고 저조시에는 드러나는 연안의 평탄한 지역’을 말한다. 즉 갯벌은 주로 조류에 의해 운반되는 작은 모래나 흙이 오랫동안 쌓여 생기는 평탄한 지형으로, 조차가 크고 만이나 섬으로 가로막힌 해안에서 잘 발달한다. 갯벌을 ‘밭’의 개념으로 사용하여, ‘갯밭(탕)’이라고 표현한다. 밭에서 작물이 자라듯 평평한 갯벌에서도 어민들에게 필요한 각종 어패류와 해초 등이 자라고 있기 때문이다. 소금을 생산하는 갯벌을 ‘염전(鹽田)’이라고 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본래 ‘개’는 ‘바다’를, ‘벌’은 ‘육지의 너른 벌판’을 의미한다. 한 마디로 갯벌은 바다의 너른 벌판이기에 섬 주민의 입장에서 육지의 밭과 같은 인식한 것이다.

갯벌은 펄갯벌과 모래갯벌, 펄과 모래가 섞인 혼성갯벌, 바위갯벌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²⁰⁾ 펄갯벌은 진흙 성분이 90% 이상 들어가 있는 매우 질척거리는 갯벌이고, 모래갯벌은 모래가 70% 이상으로 단단하다. 혼성갯벌은 모래와 펄



|| 자료 || 동죽까기

19) 어선의 수명은 목선은 25년, 철선은 30년, FRP는 25년 정도로 그 수명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20)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보포털(www.meis.go.kr).

이 비슷하게 섞여있고 작은 돌이 있는 갯벌이다. 바위갯벌은 바다와 맞닿은 산자락이 오랜 세월동안 풍화작용에 의해서 바위지역에 넓게 펼쳐진 갯벌을 말한다. 인천 지역에서는 위 네 가지의 갯벌 형태가 모두 존재하며, 갯벌에 따라 그 속에 살아가는 조개류가 차이를 보인다. 펠갯벌에는 칡게, 농게, 민챙이, 갯지렁이, 피조개 등이, 모래갯벌에는 범게,²¹⁾ 백합, 맛, 갯가재 등이, 혼성갯벌에는 바지락, 동죽, 가무락, 맛, 쪽, 낙지 등이, 바위개벌에는 박하지, 고동 등이 서식한다. 갯벌의 조개들은 밀물이 진행하면서 물 속에 섞여 들어오는 유기물을 먹는다. 따라서 갯벌에 바닷물이 들어오는 사리 때 조개의 활동도 왕성해지고, 이때 어민들은 조개를 채취한다.

그리고 모래갯벌이 발달한 곳은 해수욕장으로 개발되고, 바위갯벌에서는 돌살을 설치하여 물고기를 잡았다. 모래와 자갈 성분이 높은 갯벌에서는 어민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니면서 패류를 채취할 수 있고 심지어 경운기(耕耘機)가 드나든다.

갯벌은 밀물에 잠기고 썰물에 드러나는 넓고 평평한 땅이다. 따라서 썰물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조개를 채취하는데, 하루에 6시간 간격으로 4번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기에 조개를 채취할 수 있는 시간은 통상 하루에 4시간 정도이다. 그렇다고 매일 조개를 채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석의 차가 큰 사리 때 가능하다.

2) 어촌계와 마을어장

인천 모든 섬은 마을어장을 기반으로 굴, 바지락, 상합 등의 조개채취를 하며 살아오고 있다. 마을어장의 소유체계는 어촌마을 구성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총유’ 체계이며,²²⁾ 마을어업은 면허어업 중 일부에 해당한다. <수산업법>에서 마을어업이란 “일정한 지

21) 범게는 다른 게들과 달리 행동이 민첩하지 못하고 수영도 잘 못한다. 범게는 모래갯벌을 파고 들어가 눈알만 내놓고 있다가 지나가는 조개나 고동, 다른 게들을 틈틈한 집게발로 껍데기를 자르고 속살을 빼 먹는다. 일부 섬에서는 집에 환자가 있는 경우 살아 있는 범게를 문에 걸어두면 병이 낳는다고 여겼다.

22) 김준, 「어촌의 재인식과 갯벌인식 증진을 위한 연구」, 『민속연구』 25,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12. 19~49쪽.

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한 일정한 수심(水深)²³⁾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定着性) 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으로 정의한다. 또, 이러한 마을어업권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漁村契)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에만’ 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천 갯벌에서 조개채취나 물고기잡이는 어촌계에 의해 관리된다.

1953년 9월 수산업법이 제정되고, 1963년 4월 수산업법이 개정되면서 갯벌은 공동어업의 구역으로 변경된다. 이 시기 연안 수역의 각종 소규모 어업을 ‘마을어장’ 개념의 영역에 편입시켰고, 면허어업으로 정치어업, 양식어업, 공동어업으로 구분하였다.²⁴⁾ 정치어업은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기간 어구를 정착 장치하여 어류를 채포하는 것으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의 건강망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양식어업은 수산동식물의 육성 또는 번식에 알맞는 특정수면을 정하여 그 수면에 기타시설을 설치하여 당해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이다. 인천의 경우 1960년대 초반 갯벌을 이용해서 백합, 바지락, 동죽, 굴 등 조개류 양식을 시작해서 김, 다시마, 가리비, 새우 등으로 확대되었다. 2023년 현재, 인천의 양식장은 97곳(57만 8,144m²)이며, 그 가운데 해조류 패류를 양식하는 해수면 양식장 58곳(35만5,300m²)과 새우 해삼 등을 양식하는 내수면 양식장 39곳(22만2,844m²)이 있다.²⁵⁾

23) <수산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마을어업에 해당하는 해수면의 수심은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 5m 이내(강원도, 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7m 이내)”가 된다. 따라서 갯벌은 마을어업의 일부가 된다.

24) 전윤철, 『면허어업의 개념과 어업권의 내용』, 법제처 지식창고, 2009.01.01. (www.moleg.go.kr)

25) 김영빈, 인천시, 5개월간 양식장 특별단속, 2023.01.09. (www.incheonin.com/news)



|| 자료 || 신시어촌계 마을어업 표지판



|| 자료 || 모도어촌계 면허어장 표지판

공동어업은 예전부터 해당 부락민이 공동으로 수산물을 채포한 관습을 인정한 것으로, 1~3종으로 구분된다. 제1종공동어업은 일정한 수면을 전용하여, 패류 해조류를 채취하는 것인데, 최간조시에 수심이 10m이내의 수면에 대하여 면허를 준다. 인천의 조개채취와 김, 다시마 양식 등이 이에 포함된다. 제2종어업은 일정한 수면에서 어망을 되풀이 하면서 쳐 이를 어선에 당기거나 또는 해변에서 당기면서 어류를 채포하는 공동어업을 말한다. 이 어업은 해안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수면에 한하며, 지인망 지조망 들망 등을 사용하여 어류를 채포하는 어업이다. 제3종공동어업은 일정한 수면을 전용하여 그물이나 작살을 사용하여 어류를 채포하는 어업으로 종전의 관행과 관념을 존중하며 어촌의 보호, 어장의 유지를 위한 단순한 어업권이다.

어촌계의 가장 큰 일은 바다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출하 및 공동판매를 통해 수익을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또한 조업 기간을 정하고, 조개의 종류에 따른 가격 시세를 과악하여 조개마다 잡는 양을 조절해주기도 한다. 갯벌에서 조개 채취를 허락하는 것을 ‘튼다’, 금지시키는 것을 ‘막는다’고 한다.

인천 옹진군 섬지역의 어업권은 마을어업 178건(2364.17ha), 양식 어업 227건(2713.645ha) 등 총 404건 5077.815ha에 이른다. 건수로 순위를 매겨보면 영홍도가 100건(1723ha)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자월도(74건, 732.445ha), 덕적도(65건, 539ha), 백령도(54건, 570.94ha), 북도면, 대청도, 연평도 순이다. 어업별 어업권 현황은

패류가 105건, 920.18ha로 가장 많고, 해조류(김, 미역 다시마)가 55건 1117ha, 복합이 39건 441.07ha에 이른다. 복합은 미역과 전복, 굴과 바지락, 가리비와 다시마, 어류와 해삼, 다시마와 톳, 김과 가리비, 전복과 해삼, 미역과 다시마 등을 함께 양식하는 것이다. 어류 어업권은 26건 211.5ha이지만 가두리 양식 방식은 덕적도에 2 건, 영홍도에 1건에 불과하다. 바다에 제방을 만들어 천해의 일부를 막고 수문(水門)을 달아 물을 제방 안으로 순환시키면서 어류나 새우 등을 양식하는 축제식 어류 양식 건수도 1건에 불과하고, 성게, 해삼을 양식하는 바닥식 어류 어업권은 22건에 187.5ha에 이른다.

북도면의 어업권은 마을어업 22건 449ha, 양식어업 20건 344ha 등 총 42건 793ha이다. 여기에 굴은 1건 5ha, 가무락은 1건 20ha, 김은 18건 319ha에 이른다.

|| 표 || 인천 옹진군 어업권 현황

(2022. 4. 15. 기준)

어업별	면별	총 계		북 도		연 평		백 령		대 청		덕 적		자 월		영 흥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총 계	404	5077.815	42	793	27	325.2	54	570.94	42	394.23	65	539	74	732.445	100	1723
	마을 어업	178	2364.17	22	449	13	204	33	373.94	29	300.73	41	342.5	23	344	17	350
	양식 어업	227	2713.645	20	344	14	121.2	21	187	13	93.5	24	196.5	51	388.445	83	1373
어류 등	소 계	26	211.5	0	0	0	0	5	54	1	20	5	17	7	83.5	8	37
	가두리	3	4	0	0	0	0	0	0	0	2	2	0	0	1	0	2
	축제식	1	20	0	0	0	0	0	0	0	0	0	1	20	0	0	0
	수하식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바닥식	22	187.5	0	0	0	0	5	54	1	20	3	15	6	63.5	7	35
폐 류	소 계	105	920.18	2	25	8	43.2	13	90	8	53	13	73.5	37	282.975		352.5
해조류	소 계	55	1117	18	319	4	56	0	0	0	2	6	1	1	30	735	
	김	45	1064	18	319	1	50	0	0	0	0	0	0	0	0	26	695
	미 역	4	11	0	0	3	6	0	0	0	0	0	0	0	1	0	5
	다시마	6	42	0	0	0	0	0	0	0	2	6	1	1	3	0	35
복 합	소 계	39	441.97	0	0	2	22	1	20	4	20.5	4	100	6	20.97	21	248.5
	미역·전복	0	0	0	0	0	0	0	0	0	0	0	0	0	0.00	0	0.0
	굴·바지락	21	250.97	0	0	1	20	0	0	0	0	0	0	3	5.97	17	225
	가리비 · 다시마	0	0	0	0	0	0	0	0	0	0	0	0	0	0.0	0	0
	어류·해삼 (축제식)	2	8.5	0	0	0	0	0	0	0	0	0	0	0	0.0	2	8.5
	다시마·톳	0	0	0	0	0	0	0	0	0	0	0	0	0	0.0	0	0.0
	김·가리비	0	0	0	0	0	0	0	0	0	0	0	0	0	0.0	0	0.0
	전복·해삼	9	127	0	0	0	0	0	0	1	2	4	100	3	15.0	0	0
	미역·다시마	7	55.5	0	0	1	2	1	20	3	18.5	0	0.0	0	0.0	2	15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출처: 옹진군청

마을어업의 장소는 공유수면이지만 어장의 이용권은 어촌계나 지구별 수협에 있다. 어장을 이용하는 권리를 ‘행사권’이라 부른다. 이 권리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얻어진다. 우선, 오랫동안 사용해온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로 이를 ‘관행어업’이라 한다. 두 번째, 수협과 마을어촌계에 가입하여 권리를 얻는 방법이다. 수산업법이 정비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상 후자가 대세가 되었고, 그 기준은 어촌계의 가입 여부이다. 마을어장에 대한 인식은 어촌의 인구 변화, 어장의 규모, 시장성, 어장의 형성과정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져 왔다. 특히, 김·굴·바지락 양식이 발달하면서 갯벌은 어촌계의 중요한 재산적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어촌계 총회는 어촌마을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채취시기, 채취방법, 분배방식 등 모든 과정을 논의한다. 특히 분배방식은 마을어장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마을 구성원이 균등하게 나누는 ‘공동분배’, 능력에 따라 분배하는 ‘능력분배’, 생산량을 정해놓고 이를 초과할 경우 마을공동기금으로 회수하는 ‘제한분배’, 마을결정이나 노동시간에 관계없이 필요할 때 능력껏 채취하는 ‘개별분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인천 어촌계의 분배방식은 제한분배 방식을 많이 채용하고 있다.

2022년 현재 신도 시도 어촌계원은 213명이며, 모도 어촌계원은 29명으로 총 242명인데, 주로 갯벌에서 바지락, 소라, 굴 등의 어패류와 낙지를 잡는다.²⁶⁾ 각각 계절과 물때에 맞춰 조업하는데, 바지락은 5월 중순부터 장마 전까지 캐며, 대부분 전화 주문으로 판매한다.²⁷⁾ 굴은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다음 해 봄까지 수확한다. 굴을 캘 때는 굴을 담는 바구니와 죄²⁸⁾를 준비한다. 최근 굴을 담는 바구니는 플라스틱으로 된 것을 사용하는데, 예전에는 박 바가지에 물이 빠지도록 구멍을 뚫은 뒤 끈을 묶어 손잡이를 만들었고 이를 ‘굴뜨락’

26) 홍인희외 3인, 『인천 섬 생활사 조사보고 제2집 신도 시도 모도』, 인천문화재단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옹진군청, 2022, 65쪽.

27) 2022년 기준 바지락 500g 한 팩에 10,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28) 굴을 채취할 때 사용하는 도구로 지역에 따라 명칭이 조금씩 다르다. 서해안 일대에서는 ‘조새’, 남해안 일대에서는 ‘쪼시개’, 인천에서는 ‘췌’ 또는 ‘죄’라고 부른다.

이라고 불렀다. 낙지는 8, 9월 금어기를 제외하고 잡는데, 낙지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도 시도 모도 주민 중 낙지를 잡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겨울엔 날이 추워서 낙지가 빨 밑으로 깊이 들어가서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로 봄 가을에 많이 잡는다. 낙지를 잡는 도구로는 낙지삽, 낙지호미 등이 있는데, 대부분 맨손으로 낙지를 잡는다.²⁹⁾

장봉도 어촌계 관리 조개는 바지락과 상합이다. 바지락은 양이 감소하여 2024년 5월에서 8월까지 바지락 채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바지락 양식장에 종폐를 뿐려도 바닷물에 떠 내려가는 실정이다. 바지락은 주로 어선을 타고 무인도인 아염, 날가지 주변에서 채취한다. 상합은 주로 4월-9월 말까지 만두리 어장에서 주로 잡는데, 어민들의 채취량을 한정짓지 않는다. 상합은 종폐를 뿐리지 않고 자연산인데 그 양이 무척 적다. 상합을 채취하러 갈 때도 어선을 타고 가는데, 6명이 승선료로 각각 3만원을 지불한다. 채취한 상합은 개인적으로 알아서 판매하며, 외지는 주로 택배를 이용한다.

3) 조개와 해조류 채취

인천 도서지역의 갯벌에 서식하는 주요 패류로는 굴, 전복, 바지락, 피조개, 백합, 가리비, 가무락, 키조개, 소라, 동죽 등을 들 수 있다. 연체류로는 낙지, 갯지렁이, 맛, 개불 등을, 물고기로는 망둑어, 갯장어, 게, 쪽 등을, 해조류로는 김, 파래, 다시마, 미역, 통통마디[함초] 등이다. 이들 어패류와 해조류는 채취시기가 달라 어민들 입장에서는 산란기인 여름철을 제외하고 1년 내내 갯벌에서 조업을 하는 셈이다. 가령, 겨울철에 굴, 김, 파래 등을 채취하고, 다른 계절에는 어패류, 연체류 등을 잡는다.

옹진군의 패류 어업권 건수 현황을 보면, 바지락이 28건(201.2ha)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굴 26건(138.48ha), 전복 22건(109ha), 키조개 9건(169ha), 백합 4건(80ha) 순이다. 북도면의 상황을 보면, 김(319ha), 가무락(20ha), 굴(5ha) 순이다.

29) 낙지 구멍에 손을 넣으면 낙지가 먹이인 줄 알고 손에 ‘붙을’ 때 잡으며 깊이 들어가면 낙지 삽을 이용하여 갯벌을 파낸 뒤 손으로 잡는다.

|| 표 || 옹진군 패류와 해조류 어업권 현황

(2022. 4. 15. 기준)

어업별	면별	총 계		복 도		연 평		백 령		대 청		덕 적		자 월		영 흥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패 류	소 계	105	920.18	2	25	8	43.2	13	90	8	53	13	73.5	37	282.975	24	352.5
	굴	26	138.48	1	5	5	24	0	0	0	0	3	16.5	13	52.975	4	40
	전 복	22	109	0	0	0	0	10	50	6	23	1	3	5	33	0	0
	바지락	28	201.2	0	0	2	9.2	0	0	0	0	6	32	9	45	11	115
	피조개	5	70	0	0	0	0	3	40	2	30	0	0	0	0	0	0
	백 합	4	80	0	0	0	0	0	0	0	0	1	4	2	16	1	60
	가리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가무락	5	80.0	1	20	1	10	0	0.0	0	0	0	0.0	0	0	3	50
	키조개	9	169	0	0	0	0	0	0	0	0	1	15	7	134	1	20
	바지락 가무락	3	15	0	0	0	0	0	0	0	0	1	3	1	2	1	10
	소라	1	20	0	0	0	0	0	0	0	0	0	0	0	0	1	20
해조류	바지락 동죽	2	37.5	0	0	0	0	0	0	0	0	0	0	0	0	2	37.5
	소 계	55	1117	18	319	4	56	0	0	0	0	2	6	1	1	30	735
	김	45	1064	18	319	1	50	0	0	0	0	0	0	0	0	26	695
	미 역	4	11	0	0	3	6	0	0	0	0	0	0	0	0	1	5
	다시마	6	42	0	0	0	0	0	0	0	0	2	6	1	1	3	35

출처: 옹진군청

위에서 언급한 해류와 해조류 어업권 현황은 수익과 직결된다. 복도면의 경우, 김이 1,756,360천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바지락(510,000천원), 상합(156,000천원), 가무락(62,000), 굴(33,660), 소라(8.800), 동죽(8,750) 순이다.

|| 표 || 옹진군 패류와 해조류 수익 현황

(단위 : kg/(천원), 2023.12.31. 기준)

면별품종	복도	연평	백령	대청	덕적	자월	영흥
전복	-	-	2,500 (137,500)	-	2,580 (99,870)	400 (1,200)	-
굴	1,980 (33,660)	-	2,000 (30,000)	-	44,307 (584,037)	815 (19,256)	4,473 (44,211)
바지락	170,000 (510,000)	-	2,000 (10,000)	-	159,440 (477,040)	-	390,110 (1,193,426)
가리비	-	-	8,000 (80,000)	-	-	-	-
상합	78,000 (156,000)	-	-	-	-	-	-
소라	880 (8.800)	4,000 (16,000)	350,000 (3,500,000)	17,120 (205,440)	7,287 (62,870)	-	121,717 (666,301)

면별품종	북도	연평	백령	대청	덕적	자월	영흥
가무락	6,200 (62,000)	-	-	-	725 (4,930)	-	232 (1,446)
동죽	2,500 (8,750)	-	-	-	88 (411)	-	10,099 (25,247)
김	162,500 (1,756,360)	-	-	-	-	-	6,472,200 (6,549,631)
미역	-	3,000 (30,000)	20,000 (200,000)	-	156 (1,828)	-	-
다시마	-	-	12,000 (120,000)	-	277 (2,775)	-	-

출처: 용진군청

가) 굴

조개 중 겨울철에 채취하는 것이 굴이다. 굴은 보통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채취를 하며, 3월 이후에는 독성이 있어 먹지를 못한다. 어민들 부가 수익으로는 다른 조개류에 비해 높은 편이다. 굴은 굴회나 찌개용, 김장용 부재로 주로 쓰이고, 굴과 무채를 버무려 만든 ‘굴나젓’은 밑반찬으로 즐겨 먹는다. 굴회는 굴에 식초와 간장을 넣어 숟갈로 퍼서 먹거나 초고추장에 찍어서 먹는다. 김장철에는 새우젓갈 이외에도 생굴을 첨가하여 김치의 맛 더하는데, 이런 행위는 인천 어가에서만 볼 수 있는 모습이다.

갯벌이 쌓인 바위 표면에는 굴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깨끗한 돌을 갯벌에 넣어 굴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보통 해안가 주변에서 채취한 큰 바위를 잘게 쪼갠 뒤 배에 실어 양식장으로 이동한 뒤 바다 속에 투하한다. 그리고 저절로 포자가 붙어 자라기를 기다렸다가 겨울철에 바닷물이 빠지고 나면 갯벌로 나아가 ‘祚’라고 부르는 도구를 사용해 굴을 채취한다. 따라서 굴이 자랄 수 있는 ‘자연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성할 뿐이라는 의미에서 ‘반 양식 어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은 큰 바위를 쪼개고 나르는 데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일이다. 더욱이 아직 포자가 붙기 전이고 농한기이기도 한 여름철에

이루어지기에 상당히 고되다. 마을 전체가 작업에 참여하기도 하나, 일부 주민끼리 양식계를 조직해 참여하기도 했다. 이러한 공동 양식의 경험은 주민들에게 경제공동체로써 연대감을 만들어 내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굴 생산량이 주민 전체의 생활 수준을 좌우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생산한 굴의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마을에서 시장까지 가장 효율적인 유통로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기에 주민들은 굴양식을 통해 자신들의 경제생활이 상호 의존해 있음을 느꼈다.

굴은 ‘糟’ , ‘쪼새’ 라고 부르는 도구로 바위에 붙은 굴을 직접 따기도 하지만, 바위에 붙은 굴 자체(‘굴봉’이라고 부름)를 따다가 집안의 작업 공간에서 까기도 한다. 겨울철이면 집집마다 굴을 까느라 밤을 세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래야만 다음 날 싱싱한 굴을 어촌계와 계약한 상인에게 팔 수 있기 때문이다. 굴의 껍질은 찍새로 떼어내고 내부의 알은 죄칼로 떼어낸다.

‘糟’는 손잡이 부분인 죄와 굴을 채취하는 부분인 찍새, 그리고 굴을 파내는 죄칼 등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 길이는 29.5cm이며, 찍새의 양날은 12cm와 7.7cm로 좌우 대칭이 아니며 긴 날로 굴을 깐다. 손잡이 길이는 14.5cm, 지름은 2.5cm이



|| 자료 || 굴 채취(장봉도)

다. 죄는 대장간에서 만든 것을 주로 구입하며, 날 부분은 자신 집의 솟돌에 갈아서 사용한다. 한쪽 날이 달면 날을 빼서 바꾸어 끼어 사용하지 않은 반대쪽 날을 사용한다. 죄의 손잡이는 넓은 소나무로 만든다.

굴을 채취하는데 쓰는 바구니를 ‘굴바구니’라고 말하는데, 높이 20~30cm, 지름 10~20cm 정도이다. 굴바구니 대나무로 만들고 몸통과 손잡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닥면은 굴물이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닐 등으로 덮는다. 손잡이와 밑받침은 잘 휘어지는 머루넝쿨로 만든다. 머루넝쿨을 바닥에 댄 것은 바구니로 펼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바구니의 바닥이 다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현재

는 전기전선이나 나일론을 이용해서 만들기도 한다.

장봉도 일부 어민은 배를 타고 아염, 날 가지까지 이동해서 굴을 채취하고, 굴봉을 배로 옮겨 집에서 간다. 배에는 통상 6명이 타고 배삯으로 3만원을 지불한다. 그런데 장봉도에서는 작년에는 굴이 죽어서 하나도 채취하지 못하였다.

나) 바지락



바지락은 인천 섬 어촌계 공동어장에서 집중 관리를 하는 조개이며, 산란기를 제외하고 적당한 시기에 갯벌을 터 마을주민들이 일정량을 채취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다. 섬 상황이 제각각 다르지만, 상품성이 있는 바지락은 살이 꽉찬 5~6월에 채취한 것이다. 바지락 산란기는 7월 초순부터 8월 중순까지인데 이때는 미세한 독성이 있고, 산란 이후에는 살이 붙지 않아 채취를 하지 않는다. 바지락은 주기적으로 어린 종패를 뿐려 개체 수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바지락은 갯벌의 알갱이가 미세한 곳에서는 숨을 쉬기 어려워 모래가 섞인 갯벌에서 잘 자란다.

바지락 채취는 3물에서 11물 사이인 사리 때 한다. 사용되는 도구는 종태(종태기, 종다리)와 호미, 방석(간이의자) 등이 있다. 종태는 나이롱 줄로 엮은 바구니를 말한다. 예전에는 가는 새끼줄로 엮어서 제작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가게에서 구입한다. 종태는 바지락을 가득 채우면 10kg 정도 채울 수 있는 크기이다.



|| 자료 || 바지락호미와 종다리. 왼쪽의 것은 본래 동죽호미이었으나 바지락이 갯벌의 낮은 곳에서 서식하자 작업하기 용이한 동죽호미를 사용하기도 한다(장봉도).

바지락호미는 밭에 사용하는 호미보다 폭이 좁고 날이 날카롭다. 그것은 모래와 작은 돌이 혼합되어 있는 곳에 서식하는 바지락을 채취하기 위해서 일반 호미가 진화한 것이다. 바지락호미 전체 길이는 26cm이고, 날의 길이는 12cm, 날의 폭은 5cm이다. 손잡이는 소나무로 만들며, 길이는 13.5cm, 지름은 3.3cm이다. 호미는 통상 대장간에서 구입을 하며, 종종 날을 벼려줘야 한다. 한편, 장봉도, 영홍도 등지에서는 바지락을 날이 4개 달린 ‘동죽호미’로 잡는데, 그것은 바지락이 과거에 비해 낫게 서식하면서 작업하기 편한 동죽호미를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바지락의 서식지는 자연환경에 따라 수시로 변화기 때문에 지속성을 담보할 수는 없다.



|| 자료 || 바지락 채취하는 모습과 채취한 바지락(장봉도)

바지락 속살은 작은 바지락칼을 이용하여 걷어낸다. 바지락칼은 길이가 10cm정도로 과도처럼 작지만, 바지락 껌질을 벗기기 용이하게 칼날의 폭이 좁고 날카로운 편이다. 그러나 여러번 사용하면 칼날이 무뎌지기 때문에 숫돌에 자주 갈아줘야 한다.

인천 섬 식당의 단골 음식 메뉴 중 하나가 ‘바지락칼국수’이다. 본래 어민들은 바지락 속살에 채썬 호박을 넣고 끓인 후 간장과 파를 버무린 양념을 넣고 먹는 것인데, 식당에서 파는 바지락칼국수는 바지락을 통째로 넣고 손님들이 속살을 떼어서 먹게 하였다. 일일이 바지락껍질을 벗겨 속살을 떼어 내는 것도 일이기 때문이다.

어민들이 바지락을 먹는 방식은 다양하다. 싱싱한 바지락을 그냥 삶아서 먹기도 하고, 속살을 찌개나 국, 칼국수 등에 넣고 먹는다.

바지락 채취 양이 많은 경우에는 바지락을 삶은 후 속살을 건조시켜 보관했다가 간장에 조려 먹기도 한다. 젓갈로 담가 밀반찬으로 즐겨 먹기도 한다.

조개 중 바지락은 민감한 조개이다. 특히 토사가 갯벌로 이동하는 지역에서는 바지락이 성장할 수 없다. 인천 섬 중 영종도 신공항건설로 인해 토사 이동이 심각한 장봉도에서도 바지락이 자라지 않고 있다. 바지락은 서식지로 모래갯벌을 좋아하기 때문에 서식지를 옮기거나 폐사하게 된 것이다.

다) 백합(상합)

백합은 조개의 껌질의 줄무늬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불여진 명칭이고, 조개 중 크기가 커서 대합, 상합 등으로도 부른다. 조개류 가운데 가격이 가장 비싸서 어민들에게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준다. 현재 백합은 강화도, 장봉도 갯벌에서 많이 채취한다. 그것은 백합이 모래 갯벌에서 서식을 하는데, 한강의 모래가 이곳 갯벌로 많이 흘러들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백합은 강 하구에서 많이 채취한다. 백합은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와 주문도에서는 마을 앞 갯벌에서 채취를 하지만, 장봉도에서는 앞섬 무인도에서 배를 타고 이동한 후 채취한다. 백합양식장에는 주기적으로 종패를 뿐려 관리를 한다.



|| 자료 || 백합을 채취하고 돌아오는
장봉도 주민들(2005)



|| 자료 || 껌질마다 백가지 무늬가 있다 하여
'백합'이라고도 불리며, 가장 질이 좋은 조개라
하여 '상합'이라고도 부른다(장봉도).



|| 자료 || 백합탕

백합은 4월에서 11월 초까지 채취하며, 이때 사용하는 도구를 ‘그래’, ‘끄이’(장봉도)라고 한다. ‘그래’는 전라도식과 강화군 서도면식으로 구분되는데, 전라도식은 그래를 끌 때 도구를 어깨에 고정해서 끌지만, 강화군 서도면의 그래는 줄을 허리에 고정하고 견인하는 방식이다. 장봉도의 그래는 전라도식이며, 밑변의 넓이가 60cm, 높이가 120cm 가량 되는 이등변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고, 밑면에는 쇠날이 달려 있어 백합조개를 끌어 모으는 역할을 한다. 이등변삼각형의 꼭지점 부분에는 널빤지를 대어 사람의 어깨에 부착한 후 그래를 끌 수 있게 하였다. 이등변삼각형의 가운데 부분에는 가로목을 대어 손잡이로 사용한다. 즉, 그래를 끄는 사람은 날 부분을 갯벌에 박고 꼭지점의 널빤지부분을 어깨에 대고 손잡이를 잡은 상태에서 뒷걸음질하며 백합을 채취한다. 손잡이 약간 아래에 달린 끈은 사람 허리에 휘감아 그래와 몸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 자료 || 동만도 상합 채취 모습과 채취한 상합(2000, 옹진군)

서도면식 그레는 칼날을 전라도의 것보다 길고 넓게 만들고 그것을 끈으로 연결한 형태이다. 약 40cm 길이의 칼날 좌우에 3m 정도 되는 끈을 달아 허리에 차고 칼날을 갯벌 속에 10cm 정도 넣고 뒤로 물러나면 잡아당기면 백합이 날에 끌려온다. 무엇인가 걸리는 소리가 나면 호미로 파서

백합을 잡는다. 끌개의 날은 인천 도원동 철공소에서 구입하고, 끈 연결 등은 각자한다. 전라도의 끌개 날이 삼각형이라면, 볼음도의 것은 일자형 날이 넓고 큰 편이다. 보통 5년간 사용할 수 있다. 모시조개는 갯벌에 모래와 갯벌이 덮치면 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에 낮은 곳에 팔자로 눈을 뜨고 있다. 시야로 확인하고 이것을 호미로 채취하면 된다.

백합의 시세는 2024년 현재, 1kg 기준 15,000원이며, 모시조개는 10,000원이다. 그러나 장봉도의 상합 채취는 과거에는 1달에 10일 정도였으나 현재는 2일 정도로 줄었다. 장봉도 어느 아주머니는 “바다가 말라요”라고 상합이 없음을 표현하였다.

라) 낙지

장봉도 갯벌에서 잡는 대표적인 연체동물이 낙지이다. 낙지는 특정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잡는 것이 아니라 전문 낙지꾼들에 의해 잡는다. 보통 남자들은 일반 삽의 형태이나 크기가 절반에 이르는 ‘낙지삽’으로 낙지 구멍을 파서 접고, 부녀자들은 ‘낙지호미’로 잡는다. ‘낙지호미’는 일반 호미보다 날 길이의 폭은 좁으나 길이는 상대적으로 길다. 가격도 일반호미보다 비싸 4~5만 원 한다. 1년에 1번 정도 벼린다. 지금도 노인들을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다. 낙지는 영리하여 자신의 집에 여러 개의 구멍을 만들어 천적의 피해로부터 방어를 한다. 그런데 낙지 구멍 앞에는 낙지가 구



|| 자료 || 그레(강화군 서도면 주문도)

멍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몸에 붙은 찌꺼기들을 털고 들어가기 때문에 구멍 앞에는 조개껍데기 조각들이 수북이 쌓이고, 낙지가 숨어 있는 갯벌의 색깔도 약간 붉은 빛을 띠어 낙지 전문꾼들에게 쉽게 발견된다. 낙지 20마리를 ‘한 코’라고 부른다. 낙지는 볶음이나 말려서 간장에 조려먹거나 마른 낙지를 구워 술안주로 먹기도 한다.

장봉도에서는 맨손으로 낙지를 잡기도 하는데, 호미로 낙지 구멍을 파서 손을 집어 넣어 낙지가 손에 붙으면 걷어 올린다. 바위를 들추어 돌 밑에 숨어 있는 낙지를 손으로 잡기도 한다. 낙지는 주로 봄, 가을에 잡는데, 봄낙지는 3월말에서 6월까지, 가을낙지는 9월에서 11월까지 잡는다. 봄낙지가 가장 크고, 1년생으로 5~6월에 산란을 한다.

낙지는 주로 봄, 가을에 잡는다. 봄낙지는 3월말에서 6월까지, 가을낙지는 9월에서 11월까지 잡는데, 봄낙지가 가을 것보다 크다. 낙지는 1년생으로 5~6월에 산란을 한 후 보통 죽음을 맞는다. 봄에 부화한 새끼들은 이른 가을이 되면 어느 정도 자란다.

‘가을낙지는 햇낙지인데 이 때는 잡을 줄 아는 사람이 손을 구멍에 대고만 있으면 낙지가 붙어오기 때문에 이를 날쌔게 잡아채서 잡을 수 있다. 반면 봄낙지는 묵은 낙지로 구멍에서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호미로 캐서 잡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낙지는 통발, 주낙 등을 이용해 바다에서 잡기도 하지만, 섬 주민들은 갯벌에서 삽이나 호미를 이용해 잡는다. 낙지꾼은 낙지 구멍과 숨구멍(부朽)을 찾을 줄 알아야 하고, 가래로 파서 숨어 있는 낙지를 잡아야 한다. 그래서 낙지는 전문낙지꾼들이 잡는다. 보통 남자들은 삽으로, 여자들은 호미로 잡는다. 낙지삽은 일반 삽의 날보다 넓지 않고 좁다. 이는 갯벌을 쉽게 파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개 자루 길이는 1m 남짓이며, 삽날의 폭은 10cm 내외이고, 길이



|| 자료 || 바지락호미와 낙지호미(장봉도)

는 25cm 정도이다. 그 형태는 농기구 ‘가래’ 와 비슷하여, ‘낙지가래’, ‘종가래’ 라고 불린다. 삽날은 전체를 쇠로 만들기도 하고, 갯벌에 닿는 날만 쇠로 만들어서 나무틀에 덧씌웠다.

낙지호미는 호미 유형 중 가장 날이 길며, 낙지 구멍에 깊이 숨어 있는 낙지를 잡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다. 낙지호미는 대장간에서 만들며, 사람의 신체에 맞게 크기를 다양하게 제작한다. 쇠가 많이 들어가다보니 가격도 일반 호미보다 10배에 가깝게 비싸다. 그 대신 1년에 1번 정도 벼리면 되고, 5년 정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내구성이 강하다. 현재 영흥대장간의 낙지호미는 4~5만 원 한다. 낙지는 맨손으로 잡기도 한다. 호미로 낙지 구멍을 판 후 손을 집어 넣어 낙지가 손에 붙으면 걷어 올린다. 때론 바위를 들추어 돌 밑에 숨어 있는 낙지를 맨손으로 잡는다.

갯벌에 사는 낙지는 봄 가을에는 비교적 얕은 구멍을 파고 숨어 있지만, 겨울에는 깊은 곳에 숨어 있어 1m 이상 갯벌을 파내야 한다. 낙지는 영리하여 자신의 집에 여러 개의 구멍을 파서 천적의 공격에 도망갈 수 있는 여러 통로를 만든다. 그런데 낙지 구멍 앞에는 낙지가 구멍으로 들



|| 자료 || 산낙지 판매

어가기 전에 자신의 몸에 붙은 찌꺼기들을 털어낸 조개껍데기 조각들이 쌓이고, 낙지가 숨어 있는 갯벌의 색깔도 약간 붉은빛을 띠어 낙지전문꾼들에게 쉽게 발견된다. 낙지잡이 방법은 우선 들어가는 구멍에 손을 넣고 숨구멍을 보며 어느 방향으로 통로가 아 있는지 확인한 후 개펄을 삽으로 떠낸다. 떠내면서 수시로 구멍에 손을 깊숙이 넣어 통로의 방향을 가늠한다. 삽으로 계속 파들어 가고 계속 넣어본다. 드디어 통로의 끝에 다다르면 낙지를 잡아 올린다.

낙지 20마리를 ‘한 코’ 라고 부른다. 과거 낙지를 잡으면 낙지코를 철사로 20마리씩 꿰어 놓았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낙지는 회나 볶음으로 먹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섬 주민들은 낙지를

말려 간장에 조려먹거나 마른 낙지를 구워 술안주로 삼기도 한다. 이것은 낙지전문꾼 집에서만 먹을수 있는 별미이다.

마) 민꽃게와 칡게

인천 갯벌에서 잡는 게는 ‘민꽃게’ 와 ‘칡게’ 가 있다. 민꽃게는 인천에서는 ‘박하지’ , ‘돌게’ 라고 부르며, 4월부터 11월 말까지 갯벌 돌 주변에 숨어 있는 것을 맨손으로 잡는다. 칡게는 인천에서는 ‘능챙이’ 라고 부르며, 겨울철 갯벌 구멍에 있는 것을 잡는다. 박하지는 꽃게 보다 크기는 작으나 단단하여 간장에 담가 계장으로 먹거나 삶아서 먹는다. 칡게는 주로 잡아서 조려먹거나 간장에 담가 먹는다.

민꽃게와 칡게는 대개 가정에서 반찬용으로 먹지만, 일부 섬에서는 잡은 즉시 상인에게 판매하였다. 겨울철 칡게잡이로 나선 아주 머니들은 굴을 채취하러 갈 때와 마찬가지로 바람을 막기 위해 옷으로 중무장을 한 후 갯벌로 나선다. 활동성이 있는 몸배바지에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옷을 겹겹이 입는다. 그러나 과거처럼 박하지나 칡게를 잡으러 다니는 어민들은 별로 없다. 인천 시민 가운데 칡게를 즐겨 먹는 사람도 없고, 최근에는 바다에서 통발로 대량의 민꽃게를 잡기 때문이다.

바) 쪽

인천 섬 주민들은 갯가재와 유사하게 생긴 ‘쪽’ 이라고 불리는 갑각류를 잡는다. 쪽은 겉모양이 갯가재보다 둥글며 새우에 가깝다. 그런데 쪽은 갯벌에서 갯가재는 바다에서 서식한다. 쪽이라는 명칭은 ‘쪽’ 이 갯벌 깊숙이 생활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쪽은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가 산란기이고 5~7월까지가 채취 시기이다, 쪽을 잡을 때는 쪽 구멍을 찾는 일부터 시작된다. 쪽은 한 곳에 여러 마리가 각각 구멍을 뚫고 집단생활하는 경향이 있어 유사한 형태의 구멍이 많은 곳을 찾으면 된다. 쪽 구멍의 지름은 1cm,

깊이는 50cm 내외인데, 그곳을 파면 맑은 물이 흘러나온다.



|| 자료 || 쪽 구멍에 쪽대 넣기(장봉도)



|| 자료 || 잡아 올린 쪽



|| 자료 || 쪽(장봉도)

쪽을 잡는 방법은 얇은 대나무가지 한 쪽에 개털을 묶은 ‘쪽대’라고 부르는 채를 쪽 구멍에 넣어 상하로 움직이면 개털의 냄새와 움직이는 물체를 먹이인줄 알고 쪽이 건드린다. 쪽이 개털을 잡으면 이때 쪽대를 낚아채어 잡는다. 한 장소에서 여러 개의 쪽 구멍에 숨어있는 속을 다 잡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장봉도에서는 쪽 30마리를 1만원에 판매하는데, 어지간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면 하루에 10만원의 수익은 올린다고 한다. 그러면 하루에 300마리를 잡는 셈이다.

쪽은 생선 매운탕이나 콩나물국에 국물을 우러내는데 쓰이기도 하고 간장에 절여서 먹기도 한다. 장봉도 주민들은 쪽 3마리가 바지락 한 대접보다 국물을 내는데 더 효과가 크다고 한다. 또한 쪽은 맑은 물이 가득찬 구멍에 살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고, 힘이 좋아 이것을

먹으면 몸에 좋다고 한다. 자월도 배씨 할머니는 본도에 쑥이 많지 않자 쑥을 잡으러 제부도까지 원정을 간 적이 있다.

쑥을 잡을 때는 다래끼, 호미, 쑥대를 가지고 가야한다. 다래끼는 쑥을 담는 망태기이고, 호미는 쑥 구멍 주위를 파헤치는 용도로 사용한다. 쑥대는 하루 사용하면 끝에 불인 개털을 새 것으로 교체해준다. 쑥을 잡을 때는 쪼그려서 오랜 시간 쑥과의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질이 급한 사람은 쑥을 잡지 못한다고 한다. 쑥은 갯벌 속에 숨어 있는 조개를 잡아먹기 때문에 조개가 부족한 경우에는 포크레인으로 갯벌을 뒤집어 숨어 있는 쑥을 위로 옮겨 잡기도 한다.

사) 김양식

인천 섬 가운데 덕적도, 자월도, 연평도, 영종도, 장봉도, 연평도 등지에서 김양식이 어민 수익의 일환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³⁰⁾ 그러나 섬 인근의 건설과 환경 변화에 의해 거의 김양식이 쇠퇴하였다. 덕적도의 김 양식은 1971년 최분도 신부가 덕적어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응자를 받아 실시되었고, 진리(眞理), 소야리(蘇爺里)에서 성행하였다. 그러나 수지타산과 판로 미개척으로 인하여 김 양식장은 사라졌다. 자월도의 김양식은 ‘손김’이라고 해서 일일이 손으로 김을 채취하였다. 이곳에서 생산된 김은 충남 김 가공공장으로 판매되기도 하였지만, 일손이 많이 드는 것에 비해 소득이 높지 않았다. 여기에 본도에 김 가공공장도 없고 판로도 좁아 자연스레 김양식장이 사라졌다.

|| 표 || 연도별 인천 김양식 면허 면적(ha) 및 면허 건수

연도	면허 면적	면허 건수
2011	472	21
2012	138	5
2013	138	5
2014	138	5
2015	138	5
2016	138	5
2017	118	4
2018	118	4
2019	118	4
2020	88	3
2021	88	3
합계	1,692	64

출처: 통계청(2011-2021), 천해양식어업권통계

30) 정연학, 『인천 섬 지역의 어업문화』, 인천학연구원, 2008, 244~248쪽.

2023년 현재, 인천시 관내 김 양식 면허는 총 49건에 양식 면적 1,152ha로 생산량은 6,338톤, 생산액은 56억 원이다. 그러나 김양식장 면허감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2011년만 하더라도 김양식장 면허건수가 21건에 이르렀으나 점차 감소하여 2020, 21년에는 3건에 불과하다. 인천의 김 양식은 옹진군 영흥도, 강화군 화도면, 북도면 장봉도, 연평도에서 하고 있다. 그 가운데 김양식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은 영흥면 선재도로 26개 면허에 695ha이고, 그 다음이 북도면이 18건 319ha이다. 영흥도 김양식장은 선재도 측도와 웃구지지선에서 이루어지며, 양식 방법은 부류식이며, 총 면적은 110ha이다. 선재도에 김양식장이 발달하게 된 것은 2001년 대부도 사이에 선재대교 설치로 육로를 통한 교통이 발달하였기 때문이다.

김양식 방법은 장봉도와 연평도에서는 지주식, 영흥도와 화도면에서는 부류식으로 한다. 지주식은 수심이 얕은 바다에서 대나무나 소나무로 지주를 만들고, 지주에 김발을 설치하여 김을 양식하는 방식이다.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하여 양식하므로 김은 하루에 8시간 정도 물 위로 노출된다. 수심이 얕은 곳으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 양식면적이 좁고, 양식 기간이 12월부터 3월까지 한정되어 부류식에 비해 수확량이 적다. 게다가 대나무, 소나무 지주를 일일이 바닥에 박고 양식기간이 끝나면 다시 뽑아 철거 해야 함으로 자재비와 인건비가 부류식에 비해 훨씬 더 많이 들어 간다.

전국의 90%이상의 김이 부류식으로 양식되어 유통되고 있다. 부류식 김은 9월부터 3월까지 양식하며, 늘 바닷물 속에 잠겨 있다. 즉, 부류식은 수중에서 생장시키는 방식으로 지주식보다 생산량이 2~3배 높은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규조류(珪藻類), 잡조류(雜藻類)가 많이 섞이고,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유기산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지주식 김처럼 햇빛에 장시간 노출될 수 없어 자연광에 의한 살균처리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병충해에 약하다. 따라서 강한 산처리가 필요하다. 유기산은 무기산에 비해 가격이 높아서 불법적으로 무기산을 사용하는 어민이 더러 있어 문제가 되기도 한다. 부류식 양식은 15일 간격으로 채취를 한다.

김양식은 수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발아기(가을~초겨울)에는

작정수온이 22 전후~15 사이가 좋고, 겨울철 성육기는 15 이하(8~5)가 적정하다. 봄철 생육정지기는 12~13 사이를 좋게 본다. 양식초기에는 어린 엽체가 너무 많이 착생할 경우 붉은갯병, 짹갯병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건강한 개체만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어야 한다. 포자 부착이 양호하다고 확인되면 채묘 15 일 이내에 10매 이내로 1차 분망을 실시하고, 그 후 5매 내외로 분망을 한다. 그런 후 유엽이 보이는 시기에 최종적으로 본 양성장에 분망을 한다. 초기 김발관리는 10~11월 사이에 이루어지고, 분망 작업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적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분망이 완료되면 12월부터 익년 1월까지는 어장관리 및 노출수위를 단계적으로 올려주어 건강한 엽체로 성장토록 관리를 한다. 김 엽체가 1.5~6cm 정도의 경우는 수온이 12~13에서, 7~8cm 이상 자란 것은 5~10에서 잘 자란다. 1~2월에는 수확을 위한 김발관리를 해줘야 한다. 김 채취는 일반적으로 20~25일 간격으로 하며, 지주식의 경우 채취하기 2~3일 전부터 밭을 높여 색택과 광택을 좋게 하고 채취 한 뒤에는 밭을 다시 낮추어 생장을 촉진시킨다. 부류식의 경우는 채취 이후에 유기산처리제를 사용하여 갯병 등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장봉도의 김양식은 1970년대 후반에 시작하여 1992년에 가장 성행하였다. 1992년 당시에는 86가구가 모두 2만 책을 할 정도였고, 김 전조공장이 무려 28곳이나 있었다. 영종도 신공항매립과 관련해서 보상을 받고 10년 정도 못하다가 1998년부터 80ha를 한정면허를 받아 현재 양식을 하고 있다. 현재 13명이 2천 책을 하고 있다. 김양식을 많이 하는 개인은 대력 400책, 보통은 300책, 적개는 168책이다. 1책은 폭 2m, 길이 40m/day 보통 5책을 연결한다. 2018년에는 한파에 따른 유빙 피해로 북도면은 지주식 김 양식장 5곳(11가구) 120ha(120만m²)가 피해를 입었다.³¹⁾

31) 수산인신문(<http://www.isusanin.com>)



|| 자료 || 부레 역할 플라스틱



|| 자료 || 쇠말뚝 웃장. 나무 부분은
그를 높이를 조정하는 줄을 고정하는 부분이다.
쇠는 줄이 미끄러지기 때문에
나무를 쇠말뚝에 박았다.



|| 자료 || 김 그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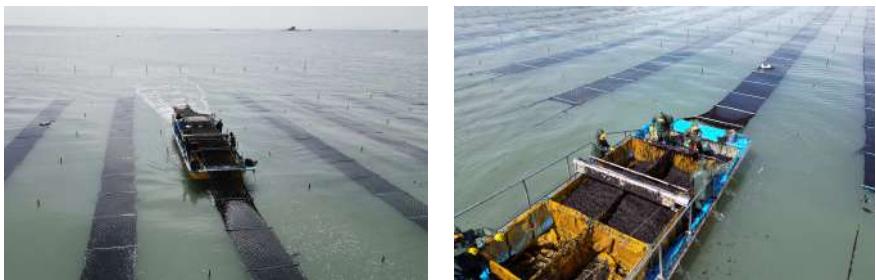
|| 자료 || 김 그루에 묻어 있는 작년 김



|| 자료 || 쇠말뚝을 설치하기 위해
웃장을 옮기는 모습

장봉도 김 양식장은 장봉도 주변 해안은 물론 서만도, 동만도, 아염, 사염 인근 해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 김 양식장은 마을 사람들끼리 제비뽑기를 해서 결정하였으며, 어촌계에서 주관하였다. 김 양식은 지주식으로 하다보니 매년 말뚝을 박아야 하는데, 보통 김양식을 시작하는 9월 즈음에 한다. 여름에 미리 박아놓으면 나무가 썩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은 유빙피해로 지주가 빨리 썩어 많은 시설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고안해 낸 것이 바로 쇠파이프를 활용한 것이다. 250cm 되는 쇠파이프를 갯벌에 150cm 정도 박은 다음, 위부분에 쇠파이프를 붙여 볼트로 고정해 놓는다. 갯벌에 들어가는 쇠파이프를 밀장이라고 하고 위의 쇠파이프를 웃장이라고 한다. 웃장의 길이는 3m이다. 김 양식이 끝나면 밀장은 그대로 두고 웃장 쇠파이프를 빼어 낸다. 이처럼 요즘은 쇠파이프를 사용하여 고정해 놓기 때문에 과거처럼 제비뽑기를 하지 않는다. 쇠말뚝은 길이 6m, 폭 8m 간격으로 박는다. 그물의 노출 높이는 줄로 조정하고, 통상적으로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으로 친다.

김을 채취하다면 파래가 많이 걸리는데, 가마니에 김과 파래를 혼합해서 넣어 발로 밟아 파래김으로 만들기도 한다. 김 건조는 벗장을 엮어 담을 만들어 김발을 걸어 그 위에 말리기도 하였다. 김 양식 작업은 새벽부터 진행하는데, 하루에 가공하는 김의 양은 2,000~3,000장 정도였으며, 100장씩 묶어서 팔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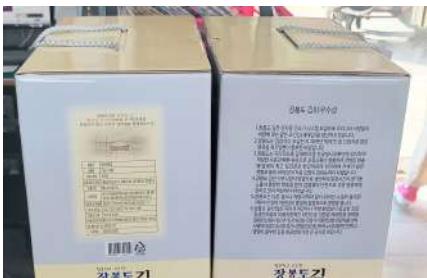
|| 자료 || 장봉도 김 채취(2023년 3월 16일, 옹진군청)

장봉도에서 김 포자는 9월 중순경에 붙이고, 수확은 11월에 시작하여 익년 3월까지 한다. 이곳의 포자는 소봉투채묘를 하는데 대봉 투채묘의 경우는 물살이 세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종묘는 목포나 해남에서 구입하고, 가공은 어촌계공장에서 관리 운영한다. 김 양식업자들은 ‘입어행사비(입어비)’라고 해서 한 책당 2천원을 어촌계에 지불한다. 이것은 바다 갯벌을 특정 사람만이 점유하기 때문이고, 이 돈은 어촌계의 유일한 소득원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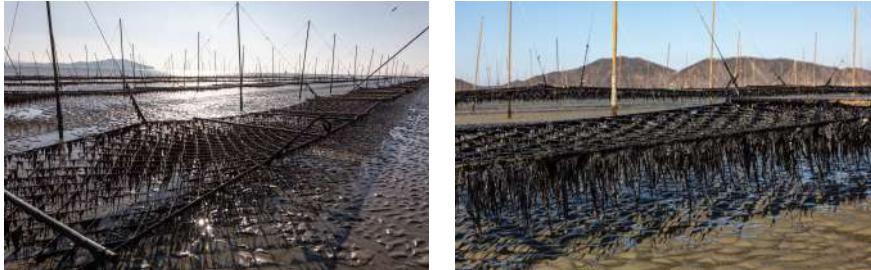
장봉2리 김 제조공장은 장봉도 출신이 운영하며, 김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 라인에 10명이 필요하다. 제조공장 사장은 직접 김을 양식하기도 하고, 충청도 등지의 물김을 받아 가공하기도 한다. 장봉도의 김은 ‘장봉도김’이라는 상품으로 판매하고, 주로 우체국 택배로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지주식 김 양식은 썰물 때 물 밖으로 노출이 된다. 하루에 두 번 노출이 되면 파래와 매생이 등 잡조류와 규조류가 자라지 못해서 깨끗하고 색깔도 좋은 김이 생산된다. 반면 물 밖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부류식에 비해 생산량이 현저히 떨어진다. 김의 채묘는 9월 중순경 시작한다. 그리고 10월 중 하순경 포자가 부착된 어망을 지주식 양식장에 고정을 시킨다. 이후 40일이 지나면 채취를 시작한다. 보통 11월 하순경부터 초사리(첫 채취)를 할 수 있다. 3월 하순경까지 20일 간격으로 채취를 한다.

지주식 김은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하여 간조기에는 햇볕에 노출되어 눈과 찬바람을 맞으며 얼었다 녹는 것을 반복하여 맛이 좋다. 더불어 지주식 양식은 염산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높은 가격에 판매된다.



|| 자료 || 장봉도 김 상자와 우수성 홍보



|| 자료 || 장봉도 지주식 김 양식장(2019.12.31. 옹진군청)



|| 자료 || 물김 담기(장봉도, 옹진군청)

|| 자료 || 말린 김 가공(장봉도, 옹진군청)

바. 건강망과 망둥어 통발

건강망은 물고랑이 형성된 갯벌에 일정한 거리마다 5~7m 말뚝을 박고, 말뚝과 말뚝 사이를 그물을 쳐 썰물에 미쳐나가지 못한 고기를 잡는 것이다. 그 원리는 돌살과 비슷하며, 물이 제일 늦게 빠지는 곳에는 통발을 설치하여 그 안에 들어온 고기를 거둔다. 그러나 물고기 가운데는 그물코에 걸린 것도 있고, 물때를 놓쳐 빠져나가지 못한 물고기가 그물 앞에 놓여 있는 경우도 있기에 건강망을 친 어민은 그물 전체를 살펴보아야 한다. 건강망은 오늘날에도 인천 섬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으나, 해안가와 가까운 곳에 그물을 치다보니 예전처럼 많은 고기를 잡지 못한다. 그물에서 겪은 고기는 주로 가정에서 반찬용으로 사용된다. 건강망에 잡히는 고기는 숭어, 망둥어, 농어, 게 등 다양하나, 주로 잡히는 것은 숭어이다.

사. 전통어로, 돌살과 토살

돌살과 토살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어민들이 만든 함정어구이다.³²⁾ 인천 섬지역에는 과거 돌을 쌓아 고기를 잡은 ‘돌살’의 흔적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건강망 그물이 등장하기 전까지 돌살은 한번에 많은 물고기를 잡는 대표적인 어구이었다. 돌살이란 해안에 돌을 쌓아서 밀물에 따라 들어오는 고기를 가두기 위해 돌로 쌓은 담의 일종이다.³³⁾ 영흥도, 연평도 등에서는 ‘돌살’, 장봉도에서는 ‘돌무지’라고 부른다. 일제시대에 빨간 된 『한국수산지』에는 석방簰(石防簰), 석제(石堤), 석전(石箭)으로도 적고 있다. 한편,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지역에서는 ‘독살’이라고 부르는데, ‘독’은 돌의 사투리이다.

돌살을 설치한 곳은 밀물과 썰물의 차가 심하고, 물의 속도가 빠르며, 쉽게 돌을 구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지형적으로는 해안선이 육지 쪽으로 깊이 패여 든 지형이 좋고, 그 위에 마을과 가까우면 편하다. 따라서 해안이 깊고 밀물과 썰물의 차가 적은 동해안과 리아스식 해안인 남해안도 거제도 동쪽 바다는 부적당하다. 돌살을 쌓는데 쓰는 돌은 바닷가에서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수천 개의 돌을 멀리서 운반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돌 쌓는 법은 돌과 돌 사이의 틈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태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쌓아 올리고, 돌살의 상부가 바닷물과 수평이 되도록 높이를 맞추어야 한다. 만약 돌의 높이가 다르면 썰물 때 지대가 낮은 쪽으로 흐르는 물을 따라 고기들이 빠져나가게 될 것이다.

돌의 크기는 거센 파도를 이길 수 있도록 두 사람 정도가 들 수 있는 크기의 돌로 기단을 깔고, 특히 바다 쪽으로 가까워 파도의 힘을 많이 받는 ‘임통’ 부분은 날개 부분보다 큰 돌을 사용한다. 보통 돌의 크기는 지름이 90×100cm 정도로 돌의 절반 부분은 갯벌 속에 잠긴다. 밑에서 위로, 임통에서 양쪽 활로 갈수록 돌의 크기와 돌의 너비는 좁아진다. 윗부분의 돌의 크기는 40×50cm 정도이다.

7-9월의 태풍 속에도 돌살을 지켜준 것은 굴이다. 6월 달이 산란

32) 정연학, 『인천 섬지역의 어업문화』,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08

33) 정연학, 「전통 어렵 ‘돌살’에 대하여」, 『비교민속학』 11, 비교민속학회, 1994.

기인 굴은 돌에 붙어 번식하기 때문에 돌과 돌 사이의 틈을 좁히고, 돌들이 움직이지 않게 하는 구실도 한다. 돌살에 번식하는 굴은 돌살이 비록 개인 소유라 하더라도 마을사람 전체가 자유롭게 채취할 수 있다. 돌살 어업이 쇠퇴하면서 돌살의 돌은 굴 양식장, 선착장, 제방 등을 만드는데 이용되었다.

돌살에서 잡은 물고기는 갈치, 숭어, 민어, 새우, 망둥어, 게 등 다양하다. 돌살 안에 간힌 고기는 ‘반두’나 ‘태’로 잡고, 지게나 부게로 운반한다. 반두는 180cm정도 되는 소나무, 참나무 또는 대나무 2개에 가로 세로 340m, 세로 1m 정도 되는 그물을 나무 사이에 엮어서 만든 것이다. ‘태’는 고기를 건져 담을 수 있게 만든 것이다. 태는 예전에는 통 대나, 구부리기 쉽고 질긴 박달나무 뿌리를 그늘에 말려서 지름이 50cm 정도로 고리를 짓고 남은 뿌리 부분은 칡넝쿨로 엮어서 손잡이로 삼고, 그물은 칡껍질로 엮어서 만들었다. 근래 남아 있는 태는 소나무를 불에 구워 구부린 후 Y자형 나무에 연결하여 철사로 묶었다.

1) 시도 돌살

옹진군에서 북도면 시도 수기해변에 전통어업 방식인 ‘독살’을 2011년에 조성하였다. ‘슬픈 연가’, ‘풀하우스’의 세트장으로 활용된 수기해변 일원에 생태체험시설인 독살을 4억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하였다. 언론사에서는 옹진군의 보도자료를 받아 “조수간만의 차이를 이용해 고기를 잡던 전통어업 방식인 독살은 충남 태안과 남해안 일대에 주로 조성돼 있으며, 수도권에서는 시도에 처음 들어서게 된다. 독살은 높은 파도와 조석류를 막아주고, 해안의 모래 유실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갯벌이 발달한 서해안에 다양한 해양생물을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³⁴⁾고 보도하였다. 최근 기사에서도 “시도 독살 등 이 지역만의 독특한 해양

34) 경인일보 2011.03.21. 제23면: 옹진에 전통어업 '독살' 체험장 만든다. '시도' 수기해변에 4억 투입 6월께 조성. 수산인신문(<http://www.isusanin.com>) 2011.03.28. 옹진군 시도에 전통어업 방식 '독살' 조성.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³⁵⁾ “수기해수욕장에 V자로 돌을 쌓아 만든 독살에는 썰물 때 빠져나가지 못한 물고기들이 은색 비늘을 번쩍이며 뛰어놀고 있다.”³⁶⁾



|| 자료 || 관광안내도 위에 생태체험시설
독살 안내문(시도 수기해변)

어업방식인 독살 시설이 있어 물이 빠지면 갯벌 체험과 함께 독살 체험도 할 수 있다.”³⁷⁾, <경기신문>(2021.05.20.) “이곳 갯벌에는 우리 조상의 전통 어로 방식인 독살이 설치돼 있다.”³⁸⁾라고 보도하고 있다.

개인 블러그에도 “모래밭이 깨끗한 수기해변은 독살체험을 즐길 수 있다”, “물고기를 잡는 전통 어로방식인 독살이란 곳이 눈길을 끈다”라는 문구들이 보인다. 현재 수기해변 앞 바다에는 3개의 돌살이 겹쳐져 있는 형상이고, 모래사장 한편에는 독살 체험장이라는 광고판이 세워져 있다.

<매일경제>(2021.07.06.)에는 “해수욕장에는 선조들의 전통

-
- 35) 경기신문(<https://www.kgnews.co.kr>) 2016.05.03. ‘옹진 삼형제 섬에서 보물을 찾아라’ .
- 36) 국민일보(<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6006027>) 2012/04.18. 섬과 섬 사이, 한밤이 더 매혹적인 ‘연인들의 섬’ … 인천 옹진군 삼형제섬 신도 · 시도 · 모도.
- 37) 매일경제(www.mk.co.kr/news/culture/9940496) 2021.07.06. 인천 신시모도 삼형제섬 여행…해당화 향기 가득한, 섬에서 섬으로.
- 38) 경기신문((<https://www.kgnews.co.kr>) 2021.05.20. 인천 섬을 가다 30-자전거여행의 메카 신, 시, 모도.



|| 자료 || 시도 돌살



|| 자료 || 옹진군 관계자 태안 영목어촌체험마을
독살 탐방(2011, 옹진군청)

갈 수 있는 역할만 하는 것으로 보인다. 돌살을 설치하기 전에 옹진군은 2011년 06월 15일부터 17일까지 관광 및 해양수산 분야 벤치마킹 출장을 다녔다. 이때 태안 영목어촌체험마을과 만대마을 독살³⁹⁾ 현황을 살폈다.

최병모 씨(1940)는 수기해변의 독살체험장이 원래 고기체험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 주민들도 그것을 돌살이라고 부르지 않고, 돌살의 위치를 물어도 그것의 실체를 모른다. 최씨는 수기해수욕장 앞 바닷물을 가두기 위해 둑을 쌓았으나 낫게 만들고 한쪽을 막지 못해 바닷물이 모두 흘러 나가서 실패하였다고 한다.

수기해수욕장에서 펜션을 11년째 운영하는 어느 사장도 돌살에서 고기를 잡는 체험을 본 적이 없다고 한다. 오히려 환경단체들이 바닷물을 막는 제방을 공사한다는 소식을 듣고 팽과리를 치며 심하게 반대운동을 펼쳤다고 한다.

“실패작이에요. 지금은 해수욕장 허가가 낼지만. 처음에 여기가 간만의 차가 커서 물을 담을려고 돌을 쌓아 제방을 만들어 해수욕장을 만들려고 한 것이에요. 돌이 낫어서 물이 위로 넘어가요. 실패작이에요. 고기를 잡을려고 돌을 쌓은 것이 아녜요. 시도에는 돌살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39) 옹진군(www.ongjin.go.kr/open_content/search/searchImage.do?query=독살).



|| 자료 || 돌살을 방파제 삼아 물놀이 장면

는데, 새한상사에서 높이 5m, 길이 700m의 제방을 쌓아 해수욕장을 만들어 물때와 상관없이 수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도 해수욕장은 제방 일부가 붕괴되고 관광객이 감소하여 1970년대 말에 폐장되었고, 그 제방은 여전히 남아 있다.

결국 방파제를 돌살이라는 친환경 어업체험시설로 둔갑해서 만들려고 하였지만 제방도 돌살도 제 기능을 못하고 예산만 낭비한 셈이되고 말았다. 시도에서 모도로 넘어가는 전에 위치한 시도 해수욕장을 모방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즉, 시도해수욕장은 1970년 7월 19일에 개장하였



|| 자료 || 시도해수욕장 소개 패널과 제방

2) 장봉도의 돌살

장봉도 돌살은 바닷가에 ‘연정(燕井)’이라는 지름 1미터 정도의 작은 못을 끼고 돌을 쌓아 민물과 바닷물을 오가는 숭어, 농어 등을 잡았다.⁴⁰⁾ 연정은 ‘제비가 목욕하는 연못’이라는 뜻으로 물맛이 좋으며, 가뭄 때는 빨래터로도 이용되었다. 돌살은 활 모양으로 쌓고 가운데는 물이 빨리 빠지도록 발을 설치하였는데, 썰물 때 고

40) 정연학, 「제3편 민속과 문화」, 『옹진군지』, 옹진군 편찬위원회, 2012, 543쪽.

기들이 그쪽으로 모여든다. 그곳을 장봉도에서는 ‘불장’, 대부도에서는 ‘임통’이라고도 부른다.



|| 자료 || 제비우물 연정(燕井) 안내판과
돌살 내 연정(장봉도)



|| 자료 || 연정(燕井)

물고기는 ‘태’라고 부르는 도구로 건져 올린다. 태는 예전에는 통 대나, 구부리기 쉽고 질긴 박달나무 뿌리를 그늘에 말려서 지름이 50cm 정도로 고리를 짓고 남은 뿌리 부분은 칡넝쿨로 엮어서 손잡이로 삼고, 그물은 칡껍질로 엮어서 만들었다. 그 뒤 소나무를 불에 구워 구부린 후 Y자형 나무에 연결하여 철사로 묶었다.

돌살에서 건진 고기를 담은 광주리를 ‘부게’라고 한다. 장봉도에서 쓰는 부게는 대나무로 만든 광주리를 지게에 고정시킨 것으로, 광주리에 직사각형 널 판쪽을 등태로 부착시키고, 질 수 있도록 끈을 연결한 영흥도의 부게와 다르다. 장봉도 지게의 크기는 길

이 67cm, 가지 10cm로서 단지 광주리를 받쳐주는 기능만을 할 뿐이다. 광주리 밑에는 오동나무 또는 소나무에 흄을 판 것(‘물받침대’ 또는 ‘웃계홈’)을 부착시켜 광주리에 고기를 담았을 때 좌우로 물이 빠져 나가도록 만들었다. 부계를 사용 하지 않을때는 물받침대를 분리시켜 그늘진 곳에 말려 습기를 제거한 후 보관한다. 장봉도에서는 나무받침 이외에 양철판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고기를 거두러 갈 때 ‘물번 보러 간다’고 한다.

장봉도의 부계는 대나무로 만든 광주리를 지게에 올린 형태로 지계는 길이가 67cm, 가지는 10cm로서 단지 광주리를 받쳐주는 기능만을 한다.



|| 자료 || 장봉도 부계

돌살은 개인소유이며, 돌을 쌓고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재력과 노동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돌살은 논밭처럼 사고팔기도 했고, 자식에게 물려주기도 했다. 비록 돌살을 설치한 바다는 국가 소유이지만, 돌살에서 잡은 고기는 개인 소유로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고 있었다. 돌살의 명칭은 소유자 이름이나 설치된 장소의 이름을 빌려서 명명하기도 한다.

돌살 주인은 선대로부터 상속의 형식으로 물려받지만, 타인 소유의 돌살을 매매를 통해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돌살은 고기가 들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방치되어 파도와 조류에 의해 무너졌고, 1970년대 양식업이 발달하면서 돌살의 돌은 굴 양식장에 활용되었다. 또한 해안 개발로 인해 돌살은 그 흔적이 사라졌다.

3) 토살[土箭]

장봉도에는 돌살 외에 토살[土箭]을 설치하여 1930년까지 고기를 거두었다.⁴¹⁾ 토살은 반달형으로 바닷가의 갯벌을 높이 40cm, 너비는 밑부분 100cm, 윗부분 70cm되게 굽어모은 뒤 그 위에 높이 1m 정도 되는 싸리나무발을 설치한다. 싸리나무발은 1m 간격으로 박혀 있는 그물장대에 연결하여 묶는다. 갯벌은너비는 넓게, 높이는 낮게 쌓음으로써 바닷물에 견딜 수 있고, 갯벌 자체가 응집력이 있어 튼튼하다. 흙살의 수리는 고기를 잡은 후 무너진 갯벌을 다시 모아 두면 된다.

강화도 화도면 동막리에서 ‘토전’, ‘튀전’, ‘싸리방’이라고 하여 토살을 만들어 고기를 잡았다.⁴²⁾ 토살은 가래로 개펄을 모아 둑을 짓고 둑의 중간 부분에 발을 설치하여 고기들이 그쪽으로 몰리도록 하였다. 그 모습은 돌살과 유사하며, 해방 이후에 사라졌다.

18세기 중엽 균역청 해세 절목에 흙살은 “댓가지나 삼대[麻]로 울타리를 만든 것으로 새우와 게 따위를 잡는다”고 되어 있고, 19세기 초에 나온 『만기요람(萬機要覽)』에도 “장소의 편리함과 그렇지 못한것과 어리(漁利)의 많고 적음에 따라 등수를 나누어 세금을 정하되 경기와 황해도의 흙살(土箭)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정약용(1762~1836)은 “연평 바다에 조기 우는 소리가 우뢰처럼 은은하게 서울에 들어오면, 만 사람들이 입맛을 다시며 조기를 생각하건만 이제 흙살에서 잡는 것은 새우와 게에 불과하다 하였으니 이는 잘못”이라면서 흙살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 『한국수산지 (韓國水產誌)』의 토방렴(土防簾)이라는

41) 정연학, 『옹진군지』 제3편 민속과 문화, 옹진군 편찬위원회, 2012, 546쪽.

42) 『어촌민속지』 (경기도 충청남도편), 국립민속박물관, 1996, 47쪽.

것이 같은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에 관한 설명은 없다.

아. 염전과 새우양식

한국전쟁 이후 남북이 갈라지면서 북한 지역의 소금과 중국 수입 염이 제한되자 남한에서는 소금 생산량이 부족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소금증산 5개년 계획을 세워 민간에서도 염전을 조성하도록 허가였다. 이에 따라 옹진군 내 여러 섬에 천일염전이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시도와 신도에도 1960년대 이후 천일염전이 조성되었다.

옹진군지에 따르면 1987년 기준으로 옹진군에 총 53개의 염전이 있었다. 대부분에 39개, 영흥도에 8개, 백령도에 2개, 북도면에 4개(시도1, 신도3)의 염전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염전을 장려하면서 소금의 공급 과잉을 낳게 되고 1990년대 들어 소금 시장마저 개방되면서 불황을 겪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점차 염전이 사라지게 되었고 백령도에 있는 염전이 2017년 이후 소금 생산이 중단되면서 현재 옹진군에는 시도에 있는 ‘강원염전’ 만이 남아 있다.

|| 표 || 북도면 염전 현황

소재지	준공	염전면적				업주	
		총면적	염전	저수지	기타	성명	업체명
신도리37	64.9.19.	41,785	32,803	8,982	-	김학양	
신도리37	64.9.19.	155,293	100,374	32,367	22,552	정태기	
신도리37	54.3.31.	81,511	51,690	18,099	11,722		신도염전
시도리27	77.8.31.	151,753	117,659	17,493	16,601	조성수	유진염전

출처: 통계청(2011-2021), 천해양식어업권통계

천일염은 자연의 힘으로 해수를 증발, 농축시키고 추출된 결정체인 ‘소금’을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햇빛, 바람, 바다와 염부들의 땀방울이 어우러진 결과물이 바로 소금이다. 보통 2월에 소금밭을 청소하거나 정리하는 준비 작업을 거쳐 3월부터 10월까지 소금을 생산한다. 보통 5~6월이 소금 생산의 적기(1년 중 가장 많은 소금이 생산되는 시기)이며 특히, 송홧가루 날릴 때의 소금이 제일 좋다.

소금의 굵기는 바람, 온도, 습도, 염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천일염전에서 소금을 증산하려면 기상 조건이 좋아야 한다. 증발량이 많고 강우량이 적으며 맑은 날이 지속되는 지역이 제염에 유리하다. 증발량은 기온, 기압, 풍향, 풍속, 일조량 등에 영향을 받는데, 맑은 날의 일수, 일조량, 기온 등에 비례하며, 강우량, 강우 횟수, 습도 등에 반비례한다. 일반적으로 봄 소금은 무겁고, 여름 소금은 가볍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름철 습도에 의해 소금이 녹아서 중량이 소폭 감소하기 때문이다. 날이 추워지면 소금이 영글지 못해 가늘어지고, 염도가 너무 높아도 소금이 녹아서 잘다. 비가 자주 오면 소금 생산을 못해서 수확량이 내려가고, 너무 가물어도 소금 생산량이 증가하여 제값을 받기 어렵다.

염전에서 사용되는 제염기구의 종류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대략 30여 종에 달하는데, 대부분 목재 혹은 대나무 소재의 수제품이며, 철제 기구는 찾아볼 수 없다. 염분에 노출되면 부식이 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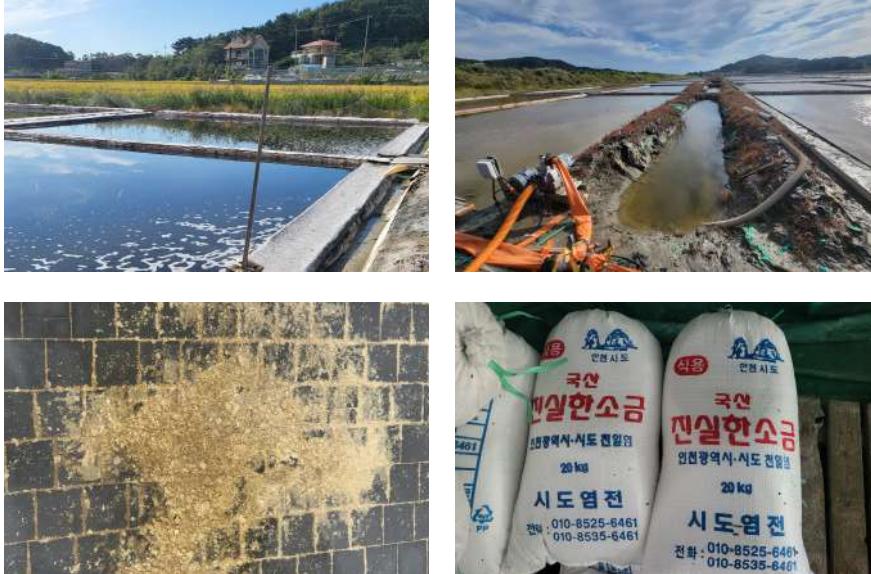
1) 시도염전(강원염전)

주민들에 따르면 ‘시도염전’은 1·4 후퇴 이후 인천 심상호 씨가 제방을 막고 25정 규모의 염전을 1960년대에 조성하여 부양염전이라고 명명하였다. 뒤에 주인이 바뀜에 따라 염전의 이름도 부양염전동성염전유진염전시도염전-강원염전으로 바뀌어 갔다. 부양염전은 정부가 폐염전 정책에 따라 사라지고 어느 사람이 저수지를 이용해 새우양식장을 조성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으나 그것을 갚지 못하자 경매에 들어가게 되었다. 경매 감정을 평가하러 온 서울 기업은행 최홍길 씨가 저수지를 근간으로 12정의 염전을 새롭게 조성하고 동성염전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 다음 최씨가 김진섭 씨에게 팔아서 염전 이름이 유진염전으로 다시 바뀌고, 30여 년 전에 인천 강원연탄 조종학 씨가 구입하여 ‘강원염전’으로 운영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 강원염전의 사장은 학익동에서 강원래미콘을 운영하는 조씨의 아들 조성수 씨이다. 염전 조성 초기에는 토판 염전이었으나 지금은 타일이 깔려 있다. 본래 강원염전 면적은 부양염

전 시기에는 25정(1정 3천평)이었으나, 폐염전 이후에는 13정은 논(잡종지)으로 바뀌고, 약 12정은 염전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강원염전은 임대로 운영되고 있다. 생산된 소금의 40%를 가져가고 임대인이 60%를 챙긴다. 두 사람이 5정씩 염전을 관리하며, 80이 넘은 강씨는 평택 안중(포승)에서 아버지를 따라 염부 일을 시작한 뒤 20여 년간 염업에 종사하다가 염전이 하나둘 문을 닫게 되자 시도까지 오게 되었고, 2000년 초 강원염전을 임대하였다. 작년부터는 영종도 출신 최씨가 소금 생산을 도와주고 있다.





|| 자료 || 강원염전

강원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의 주요 판매처는 김치공장, 축협, 개인 소비자 등이다. 택배로 보내기도 하지만 단골들이 많아 웬만하면 직접 배송한다. 주로 인천, 강화, 북도면으로 팔린다.

시도염전은 4월부터 10월 말까지 소금을 생산한다. 저수지에서 증발지를 거쳐 결정지까지 바닷물이 내려와 소금이 되는데 약 40일 정도 소요된다. 비가 오는 경우에는 결정지의 함수를 간수구덩이(해주)로 옮기고 그것을 다시 결정지로 담으면 3일 후에 소금이 결정된다. 소금을 걷을 때는 3~5명의 염부를 고용하고, 예전에는 여성 2명도 고용한 적이 있다.

염전 1구(5정) 당 결정지는 8열 5단으로 40칸이고, 소금창고는 2개를 설치한다. 결정지 1칸은 약 50평이며, 일조량에 따라 생산량에 차이가 있지만 보통 하루에 20kg 소금 10가마가 생산된다. 현재 결정지 40칸 중 24칸만 사용하는데, 일손도 부족하고 소금 단가도 그리 높지 않기 때문이다. 통상 소금은 염도 28도일 때 걷는데, 시

도에서는 30도에 소금을 채취한다. 소금을 채취할 때 결정지에 함수가 2/3 정도는 있어야 대파로 밀기가 편하다.

약 15만 평방미터 면적의 강원염전은 2024년 기준 20kg 소금 포대 약 2만 개를 생산하였다. 2024년 소금 가격은 1포대 당 25,000이다. 작년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로 인해 소금가격이 4~5만원까지 급등하기도 하였다. 지금은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생산량과 판매량이 줄었다고 한다.



|| 자료 || 강원염전

염부의 직급은 평염부, 부반장, 난치반장, 느티반장, 염부장으로 구분된다. 비가 오면 염부들은 바로 염전으로 달려와 결정지의 함수를 간수구덩이로 옮기는 작업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홀륭한 염부는 천기를 잘 봐야한다고 한다. 영종도 출신 염부 최씨는 달력에 비오는 날을 명기하고, 해가 지는 모습, 안개 등을 보고 비가 내릴 여부를 판단한다고 한다. 통상적으로 바닷물이 조금 때, 밀물 때 비가 오고, 결정지의 땅에 있는 소금을 보고 모가 다르면 비가 온다고 한다. 날씨가 너무 가물어도 결정지 타일에 모래처럼 생긴다. 과거에는 그것으로 그릇을 씻는데 최고라고 해서 돈을 주고 사가기도 하였지만 현재는 모두 버린다.

2) 신도 공생염전

『여지도서』에 따르면 신도(信島)는 54호, 남자 111명, 여자

100명, 염전(鹽盆)과 어업이 생업이라 기록되어 있다.⁴³⁾ 소금가마를 염분(鹽盆), 염부(鹽釜), 염벗 등으로 불렀는데, 신도 3리는 소금을 굽는 가마가 있었다고 하여 ‘벗말’ 혹은 ‘염촌’이라고 불렸다. 두 이름 모두 예전에 자염을 생산하던 것에서 비롯된 이름이다. 신도 염전이 폐전되기 전에는 푸른벗말에서 염전 체험을 운영하기도 했다.

염전을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실향민’이다. 한국전쟁 이후 신안군 중도 염전을 비롯해 영광, 부안, 화성 공생 염전, 삼목도염전 등이 피난민들이 제방을 만들고 소금을 생산한 곳이다. 신도 염전 역시 실향민들이 조성한 염전이다. 원래 신도 4리 지역은 주민들이 소를 끌고 와서 풀을 뜯게 하는 노지였다. 여기에 피난민들이 정착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고, 마을의 이름도 ‘새로운 마을’이라는 의미의 ‘신촌(新村)’이라 불렸다. 실향민들은 먹고 살길이 없다 보니 난민 정착 사업소의 구제사업 인가를 받아 간척사업을 시작했다. 당시 천주교 구제회(NCWC, National Catholic Welfare Conference)에서 개간하는 실향민들에게 구호물자를 나눠줬기 때문에 쌀, 밀가루, 옥수수 포대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 신도 4리에 정착한 150가구의 실향민들은 ‘공생조합’을 결성하고 수십만 평의 땅을 개간하기 시작했다. 마땅한 장비도 없어 맨손으로 싸리나무 지게에 돌과 흙을 담아 읊겼다. 총 4차례에 걸친 간척 사업으로 45만 평의 땅을 개간하였고, 각 가정에서 3천 평씩 나누어 가졌다. 그런데 새롭게 만든 땅에 염분이 남아 있어 농사가 잘 되지 않자, 일부 주민들은 염전업자에게 땅을 팔고 떠나갔다. 그렇게 해서 신도 4리에도 염전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실향민들이 조성한 ‘공생염전’, ‘신도천일염전’, ‘신도염전’ 등 3개의 염전이 신도에서 운영되었다.⁴⁴⁾ 세 염전의 규모를 모두 합치면 약 27만 평방미터 규모였다.

43) 信島 在府南 陸二十里 水四十五里 合六十五里 周回十里 距小檢島三里 有塙盆漁探 編戶五十四 男一百一十一口 女一百口.

44) 홍인희외 3인, 『인천 섬 생활사 조사보고 제2집 신도·시도·모도』, 인천문화재단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옹진군청, 2022, 66쪽.



|| 자료 || 1999년04월22일 북도면 신도 염전 소금 제조 장면(옹진군청)

그런데 1997년 소금 시장이 개방되어 염업이 불황을 겪자 하나둘씩 폐전되었고, 영종도 공항의 건설로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신도에 들어와 토지를 구매하면서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피난민들이 조성했던 공생염전의 자리는 현재 대하양식장이 들어섰다.

3) 새우양식

1997년 소금 시장이 개방되면서 염업은 불황을 겪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신도에 조성된 염전들도 하나둘씩 폐전(廢田)되면서 염전이 있던 자리에는 새우양식장이 들어서게 되었다.⁴⁵⁾

염전은 바다보다 낮게 조성되고 수심이 깊지 않기 때문에 새우양식을 하기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초창기 새우양식은 대부분 국산 대하를 양식하였다. 그러나 대하는 ‘흰점 바이러스’ 등 바이러스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예민해서 생존율이 낮아 양식을 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외래종인 흰다리새우를 도입하여 양식하기 시작했고, 현재 우리나라 새우양식의 99%는 흰다리새우라고 한다. 흰다리새우는 대하에 비해 적응력이 강하기 때문에 생존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으며, 맛도 대하와 비슷하다. 흰다리새우는 하와이에서 개체를 도입하여 치하(稚蝦)를 생산하는데, 2022년 기준 치하는 마리 당 8원이다.

45) 홍인희외 3인, 『인천 섬 생활사 조사보고 제2집 신도·시도·모도』, 인천문화재단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옹진군청, 2022, 67-68쪽.

새우양식은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고, 새우의 생존율이 낮아 위험부담이 크다.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겠지만 새우양식은 특히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일정한 환경을 유지해야 양식이 잘되는데, 비가 적게 오거나 많이 오면 양식장의 염도가 일정하지 않고, 환경변화가 크기 때문에 새우가 폐사할 위험이 크다.

봄철에 시설을 보수하고 장비를 수리하는 등 양식을 위한 준비를 한다. 새우양식에 필요한 도구는 올림포스 호텔 아래 위치한 선구점에서 구입한다. 여름에는 치어를 사들여 양식하는데, 약 3개월 정도 양식을 한 뒤 가을에 판매한다. 겨울에는 양식장에 물을 빼고 바닥을 평탄화하거나 제방 등 주변을 수리, 보수한다. 2022년 현재 1kg(약 30마리)에 30,000원에 거래하고 있다. 12년째 새우양식에 종사하고 있다는 양식장 대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치어 5~60만 마리를 구입해 약 80% 생존율을 보였다고 한다. 2019년에는 약 20톤의 새우를 판매하였고, 올해는 약 15톤의 새우가 생산되었다.

|| 표 || 시도 새우양식장

명칭	면적(m ²)	업주	주소
신촌양식	20,165	이원규	신도로 69번길 93
신도수산	3,247	박성모	신도로 281
서해과학수산	4,100	오명진	신도리 139-56
연철수산	23,292	추연철	신도로 581번길 102

2. 민속유산

가. 북도양조장

주민들에 의하면 북도양조장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운영되었다고 한다.⁴⁶⁾ 이후 여러 번 양조장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확한 개업 시기는 확인할 수 없다.⁴⁷⁾ 이후 1970년대 故 배덕희 사장이 북도양조장을 인수하였다. 시도양조장을 인수한 경위는 1973년 기준 신도·시도·모도의 인구가 2,600여 명으로 당시만 해도 양조장이 돈벌이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한다. 1980년대 부녀자들이 앞장서서 옹진군을 ‘금주(禁酒)의 섬’으로 만들려는 움직임도 있었으나 양조장뿐 아니라 슈퍼, 정육점, 가스 판매까지 했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북도양조장은 옹진군 유일의 양조장으로 섬마을 막걸리, 계곡주, 도촌 막걸리라는 이름의 막걸리를 판매하면서 신도·시도·모도를 찾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특히, 잔술로 막걸리를 마셔도 김치를 안주로 줄 정도로 인심이 좋았기에 배를 타고 들어가서 막걸리를 마셨다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였다. 많은 사랑을 받던 북도양조장은 배덕희 사장의 건강이 악화되자 아들 강대현 사장이 대를 이어 운영했지만, 인구 감소와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2017년 폐업하게 된다. 건물은 남아 있었으나 그마저도 2019년 철거되면서 지금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되었다. 다행스럽게도 2019년 철거 당시 시도리 김정렬 이장이 양조장에서 사용하던 술독⁴⁸⁾과 간판 등을 수집하여 보관해 왔다.⁴⁹⁾ 북도양조장의 마지막 흔적인 이 술독과 간판은 2023년 조성될 ‘신도·시도·모도 섬마을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이다.

46) 홍인희외 3인, 『인천 섬 생활사 조사보고 제2집 신도·시도·모도』, 인천문화재단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옹진군청, 2022, 84-85쪽.

47)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옹진군 북도면 시도로 79의 최초 사용승인일은 1905년으로 확인된다. 다만, 양조장의 정확한 개업 시기는 특정할 수 없다.

48) 양조장 밖에 있던 술독의 곁면에는 소화(昭和)라고 새겨져 있어 세월의 흐름을 알 수 있다.

49) 조사가 진행된 2022년 신도 선착장 인근 ‘고남정’ 식당 앞에 놓여 있었는데, 따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술독 일부가 깨진 상태였다.

나. 도당굿

신도·시도·모도에 기독교가 전래되기 이전에는 전통 신앙인 도당굿을 지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어업에 주로 종사하였던 섬 사람들의 특징으로 보인다.⁵⁰⁾ 당시 신도·시도·모도의 주민들은 도당굿을 준비하기 위해 음력 정월 초부터 10여 일간 외출을 금지하였고, 외부인의 출입도 금하였다고 한다. 도당굿은 무당이 주재하였으며, 순한 귀신을 부르는 장구, 북, 소고와 악한 귀신을 제거하는 징, 제금 방울 등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신도·시도·모도에서 도당굿을 지냈던 장소는 신도성당 근처의 성황당과⁵¹⁾ 시도의 노적산에 위치했다고 한다.⁵²⁾ 신도·시도·모도의 도당굿 방식은 대체로 비슷하였으나, 도당굿에 사용하는 제물은 달랐다고 한다. 신도의 경우 소를 잡아 제물로 하였고, 시도에서는 윗마을 아랫마을이 각각 돼지 3마리씩 총 6마리를 도당굿의 제물로 하였다고 한다. 모도의 경우는 소나 돼지 대신 숭어를 제물로 하였다. 신도·시도·모도에 기독교가 전래되기 시작하면서 도당굿은 서서히 사라졌다고 한다.

『북도교회100년사』에서는 1917년 설립된 시도교회가 도당굿을 지내는 유지들의 반대로 잠시 마을을 떠나기도 했고, 1943년 시도 강습소에서는 강습소를 운영하던 마을 유지가 교회를 다니는 교사와 학생을 퇴직 퇴학시키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신도와 모도 부분에는 이와 같은 기록은 없으나 시도에서는 도당굿을 지내던 유지들과 교회 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교회 설립 초기기에 교회와 마을 사람들 간의 충돌이 있지 않았었나 추측한다.

시도교회는 옹진군 북도면 시도로 87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이다.⁵³⁾ 교회가 처음 세워진 시기는 1917년이라고 하나, 당시에는 제

50) 홍인희외 3인, 『인천 섬 생활사 조사보고 제2집 신도·시도·모도』, 인천문화재단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옹진군청, 2022, 114쪽.

51) 『옹진군 향리지』, 1996, 옹진군 향리지 편찬위원회, 109쪽.

52) 『옹진군 향리지』, 1996, 옹진군 향리지 편찬위원회, 120쪽.

53) 홍인희외 3인, 『인천 섬 생활사 조사보고 제2집 신도·시도·모도』, 인천문화재단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옹진군청, 2022, 119-120쪽.

대로 된 예배당도 없었다고 한다. 이는 당시 시도에 도당굿을 지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당시 신도였던 박준출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으며, 1930년이 되어서야 시도리 산117 부근에 교회를 마련하였다고 한다.

1930년 교회를 마련한 이후 시도교회의 교인들이 증가하면서, 도당굿을 지내는 사람들과의 갈등이 지속되었다. 당시 도당굿은 마을 유지들이 주관하여 운영하였는데, 시도교회의 교인들은 도당굿을 지내는 일에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갈등은 1943년 시도 강습소에서 교회의 신자였던 교원 정덕여의 강제 퇴직과 교회 출신 학생들을 퇴학시켰던 사건으로 확장되었다. 이 사건으로 교회지도자였던 김호신과 시도강습소와의 갈등이 꾸준히 이어오다가 1945년 광복 이후에 해소되었다.

다. 장봉도 당제

장봉도에는 교회가 들어온 지 100년이라 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주민들은 교회에 다니는 신자인지라 당제가 사라 진지 오래되었다. 장봉1리에서는 당산 나무에 치성을 드렸지만 1970년대 초 새마을운동과 함께 사라졌다. 당시 당나무는 소나무였는데, 현재는 터만 남았다. 장봉 3리에도 해방 전까지 당제를 지냈는데, 당산에는 2칸짜리 당집이 있었는데, 현재는 소실되었다.

장봉도에서는 선주들을 중심으로 1980년초까지 풍어제인 고창굿을 지냈다. 배가 출어하기 전 인천, 서울에 있는 무당을 불러다가 풍어굿을 했는데, 풍어제이지만 도민 전체가 참여하는 잔치적인 성격을 가졌다. 굿이 끝나면 제물로 쓴 소와 돼지고기를 도민들이 나누어 먹었고, 춤판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북도면 장봉리 띄뱃놀이는 유명하다. 당제와 용왕제를 지내는 일종의 풍어제로 마을의 액운을 불태워 바다로 띄워보내는 의식이다. 정월 초사흘이나 보름 전에 풍어제를 실시하는데, 제를 거행할 주변과 제관들의 집에는 금줄을 두르는 등 엄격한 금기가 지켜진다. 띄배놀이는 새벽에 거행하는데, 용왕제를 치르기 전에 당제를 한다.

영기를 든 기수가 먼저 앞장서고 무당, 선장, 화장, 선주, 악대 순으로 열을 지어 당으로 올라간다. 당에 도착하면 오방기를 동서 남북 중앙에 기를 세우고, 화장은 지게에 지고 가져온 제물들을 당 앞에 차려놓는다. 제관에 의해 제사를 지내고 뒤이어 무당의 소지 태우기와 축원이 이루어진다. 굿이 끝나면 음식을 음복하고 한 바탕 눈다. 당제가 끝나면 영기를 선두로 뱃기와 악대를 세우고 마을로 내려온다. 이때부터 띄배를 가지고 나오는데, 띄배 안에는 액물을 싣는다. 배에는 오색기를 달고 무당이 축원을 하고, 굿이 끝나면 띄배를 불사를 곳으로 가서 불사르고 고기잡이 장소로 떠난다. 어장을 한 바퀴 돈후 돌아오면 용왕님에 대한 고사를 올리고 만선을 축하는 한마당을 올리고 선주집으로 간다.

라. 상여와 장례

시도에는 마을주민이 사용하는 상여와 교인들이 사용하는 상여가 따로 있었다고 한다.⁵⁴⁾ 현재 시도 주민의 95% 이상이 교인이다보니 교회에서 십자가 장식 등이 들어간 상여를 별도로 만들어 장례에 이용하였다. 그러나 교회나 마을 모두 토장을 지내지 않고 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다보니 자연스럽게 상여를 멜 일이 살아졌다. 이미 시도에서 상여를 안 맨지 20년이 다가가며, 상여를 보관하는 곳집이 있지만 상여 상태는 좋지 않다.

신도에는 총 2군데의 공동묘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2군데의 공동묘지 모두 구봉산에 위치하고 있다.⁵⁵⁾ 신도 1리와 신도 2리의 주민들은 주로 구봉산 서남쪽의 끝부분 인 신도리 산319 근처에 매장하였으며 면적은 약 19,638m²이다. 해당 묘지에는 최근이었던 2012년 이후에도 매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남아있는 묘비 대부분은 신도 교회 혹은 신광교회의 교인들이었다. 묘지 곳곳에는 축대를 쌓아 묘

54) 홍인희외 3인, 『인천 섬 생활사 조사보고 제2집 신도·시도·모도』, 인천문화재단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옹진군청, 2022, 128쪽.

55) 홍인희외 3인, 『인천 섬 생활사 조사보고 제2집 신도·시도·모도』, 인천문화재단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옹진군청, 2022, 125-126쪽.

를 조성했던 흔적과 지표면에 진로 및 삼학소주의 병을 통해 1970년대의 흔적은 살펴볼 수 있으나, 그 이전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다.

신도 3리와 신도 4리의 주민들은 구봉산의 동쪽 끝에 매장하였다고 한다. 그 위치는 신도4리 마을회관 근처인 신도리 산153-1 부근이며, 면적은 약 14,073m²이다. 현재는 북도면 공설묘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공설묘지 주변으로 조성 이전에 매장된 봉분이 10여 기 확인되고 있다. 묘비는 대부분 2000년대 이후에 조성되었으나, 상여를 보관하던 상여집이 남아 있고, 1970년대에 생산된 경월소주의 병이 발견되는 등 이전의 흔적 또한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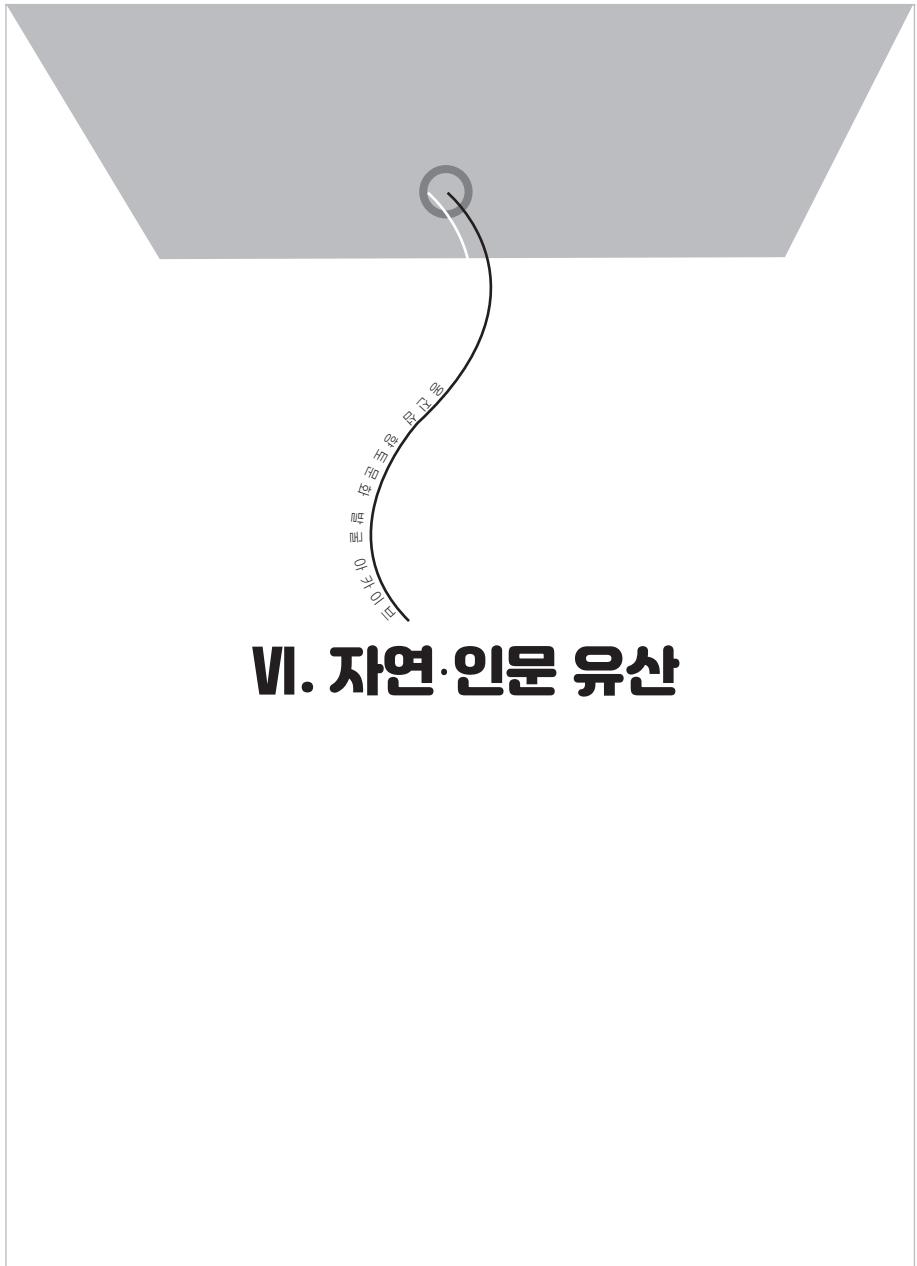
2011년 9월 18일 북도면 공설묘지를 조성하였는데, 60기를 최대 6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시도에는 시도리 산105에 시도리 공동묘지가 있어 주로 이곳에 매장하였으며, 면적은 약 11,802m²이다. 시도리 공동묘지가 조성되기 이전부터 이곳은 공동묘가 조성되었는데, 정확히 언제 조성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1967년에 조성된 묘가 남아있어 그 이전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모도에는 모도리 산41에 모도리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2011년 11월 12일에 조성하였다. 38기를 최대 60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면적은 약 11,702m²이다.

장봉도에는 마을마다 곳집이 있다. 과거에는 장례를 치르기 위한 상여계가 있었고, 장봉1리에는 상여계가 두째로 나뉘어 번갈아가면서 상가집 일을 도와준다. 상여는 12명이 메웠으며, 행상을 할 때는 ‘목상계’라고 해서 망자의 자식과 친척들에게 거둔 돈을 관리하였다. 행상에서 걷어 들인 돈은 상여자금은 활용되는데, 주로 공동묘지를 관리하거나 상여를 교체하거나 수리하는데 썼다.

장봉1리의 상여는 장골에 있는 상여집에 보관되어 있는데,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이다. 상여는 상가집으로 가져와서 조립해서 사용하였는데, 한때 상여를 조립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 미리 틀을 짜놓고 사용하기도 하였다. 요즘은 주로 장례식장에서 상례를 치루기 때문에 장봉도에서 상여를 맨지 오래되었다.

정연학(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 과장)



VI. 자연·인문 유산



VII. 자연·인문 유산

1. 자연 유산

북도면의 유인선인 신도, 시도, 모도, 장봉도가 간직하고 있는 자연유산을 편의상 신, 시, 모도 자연유산과 장봉도 자연유산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자연유산이란 함은 섬에 분포하는 섬의 내부와 해안에 노출된 지형, 지질과 생물로 한정한다.



|| 자료 || 신도, 시도, 모도의 자연유산 분포

가. 신, 시, 모도 자연유산

신도, 시도, 모도에 분포하는 대표적인 자연유산을 신도, 시도, 모도 순으로 살펴보면 신도의 구봉산, 신촌 염전, 갯부리 선착장과 시도의 장골해안, 누진구지해안, 노루메기, 시도(강원)염전, 수기 해수욕장과 모도의 박주기해안과 배미꾸미해안 등이 있다.

1) 신도 구봉산

신도 중앙에 우뚝 솟아 있는 구봉산(179.6m)은 경사가 완만하여 정상 주변에는 남쪽의 영종도를 조망하기 좋은 위치에 구본정이라는 정자가 세워져 있다. 더더욱 구봉산에 오르는 4km 정도의 임도가 개설되어 있고 임도 주변에는 빛나무 식재되어 있어 벚꽃이 만개한 봄철 등산이 좋으며, 산 중턱에 성지약수터가 있어 시원한 약수를 마실 수 있다. 구봉산 등산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숲을 걸으며 고



|| 자료 || 구봉정에서 바라본 풍경



|| 자료 || 구봉정에서 바라본 공항신도시 야경



|| 자료 || 구봉정에서 바라본 신도 남쪽 갯벌



|| 자료 || 구봉산 정상 운모편암으로 쌓은 돌탑

요한 산길을 걸을 수 있는 힐링 코스이다. 날씨가 좋은 날 정상에 오르면 신도 갯벌, 영종도, 영종대교, 인천대교를 볼 수 있고 특히, 밤에 오르면 공항신도시, 인천국제공항, 영종대교의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 신도는 구봉산을 비롯해 왕봉산(136.2m), 안산(101.1m) 까지 이어지는 등산로가 조성되어 있다.

2) 신도 염전

신도 3리는 소금을 굽는 가마가 있었다고 하여 ‘벗말’, ‘염촌’이라고 불렸다고 역사적 기록을 통해 보더라도 신도는 예전 자염을 생산했던 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도에 천일제염의 염전이 생긴 것은 한국전쟁 이후 서해안 일대 도서 지역에 실향민이 정착하기 시작했고 국가에서는 전쟁 난민들의 자립을 위해 갯벌을 매립하여 염전을 조성했다. 신도4리 지역에 피난 나온 실향민들이 정착하면서 난민들은 먹고 살길이 없어 정착 사업소의 구제 인가를 받아 간척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 천주교 구제회에서 개간한 실향민들에게 구호물자를 나누어 주고 ‘공생조합’을 결성하여 총 4차례에 걸친 간척사업으로 45만여평의 땅을 개간하였다. 각 가정에 3천 평씩 나누어주었는데 새로 만든 땅에 염분이 남아 농사가 잘되지 않자 일부 주민들은 염전업자에게 땅을 팔고 떠나갔다. 그렇게 해서 신도4리에 염전이 조성되기 시작되었다. 실향민들이 공동으로 조성한 ‘공생염전’, ‘신도천일염’, ‘신도염전’ 등 3개 염전이 신도에서 운영되었으나, 1977년



|| 자료 || 신도3리 염전 흔적



|| 자료 || 새우양식장으로 바뀐 공생염전

소금 시장의 개방으로 불황을 겪게 되자 하나둘씩 폐전되었다. 실 향민이 조성한 ‘공생염전’은 현재 새우양식장과 논으로 변했다.¹⁾

3) 갯부리 선착장

신도3리(염촌)에서 안산과 공생염전(현재 논) 사이에 나 있는 길을 따라 동쪽해안 끝에는 예전에 선착장으로 사용했던 매표소와 대합실로 사용했던 폐건물과 방파제가 있는데 이곳이 바로 갯부리 선착장이다.

갯부리 선착장 주변 해안가에 노출된 암석들은 온수리 편암으로 추정되는 어두운색의 편암과 이를 관입한 밝은색 화강암, 편암과 화강암을 관입한 백색의 석영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강암에는



|| 자료 || 갯부리 선착장 부근의
온수리 편암과 화강암



|| 자료 || 갯부리 선착장
부근의 온수리 편암



|| 자료 || 화강암에 포획된 온수리편암



|| 자료 || 온수리편암을 관입한 화강암

1) 인천문화재단, 『인천 섬 생활사 보사보고서(제2집) 신도, 시도, 모도』, 2022, 73~7쪽.

기존의 온수리편암을 포획하고 있고 지각변동을 받아 형성된 단층과 습곡 등을 관찰할 수 있다.

4) 시도 장골해안

시도 장골해안은 신도·시도 연도교 끝나는 지점에 조성된 시도공원 초입에 나 있는 시도 남동쪽 해안을 따라 나 있는 좁은 시멘트 포장도로를 따라 이동하면 도로 끝에 노출된 시도 남서쪽단 해안이다.

도로 끝에서 해안가로 조금 내려가면 간조때 노출되는 해식대지와 해식절벽을 구성하고 있는 암석을 볼 수 있다. 이곳의 암석을 자세히 살펴보면 해식대지를 구성하고 있는 암석은 장봉편암의 일부인 밝은색 결정질석회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결정질 석회암은 움푹 들어간 돌개구멍과 바닷물의 주기적 흐름에 의해 생긴 고랑 모양의 글루브 등을 관찰할 수 있다.

해식절벽을 이루고 있는 암석은 상대적으로 붉게 보이는데 이는 장봉편암의 결정질 석회암을 중생대 쥐라기에 관입하여 생긴 중립질 흑운모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두 암석은 관입의 경계를 보이고 있는데 바다를 두고 마주하고 있는 모도의 박주기해안과 유사한 형태를 간직하고 있다.



|| 자료 || 장골해안 장봉편암과 화강암의 경계



|| 자료 || 장골해안 장봉편암의 돌개구멍과 글루브

5) 시도 누진구지해안

시도 누진구지해안은 시도 남쪽에 있는 시도의 유일한 부속섬 시오도와 마주하고 있다. 누진구해안의 동쪽에 노출된 암석을 살펴보면 신원생대 초에 형성된 장봉편암의 결정질석회암과 이 암석을 관입한 중생대 쥐라기의 중립질 흑운모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역에 노출된 결정질석회암과 이를 맥상으로 관입한 화강암의 차별침식으로 화강암이 돌출되어 마치 용 모양처럼 용바위를 관찰할 수 있다.

해안을 따라 북쪽(신도·시도연도교) 방향으로 장봉편암의 결정질석회암은 발견되지 않고 흑운모편암으로 구성된 검은색 장봉편암과 이를 관입한 중생대 중립질 흑운모화강암 비교적 넓게 노출된 너럭(넉)바위를 볼 수 있다.



|| 자료 || 누진구지해안의 용바위와 시오도



|| 자료 || 누진구지해안 결정질석회암의 습곡



|| 자료 || 누진구지해안의 장봉편암과 화강암의 경계



|| 자료 || 누진구지해안의 너럭(넉)바위

6) 시도 노루메기

노루메기는 시도 선착장까지 길게 뻗은 모습이 노루의 목처럼 길어서 생긴 지명으로, 시도에서 처음으로 마을이 생긴 곳이기도 하다. 시도 노루메기의 남쪽 해안 부근(조각상이 세워진 부분)을 이루고 있는 암석을 살펴보면 얇은 지층이 반복적으로 쌓인 엽층리 구조를 보인다. 이 암석에 염산을 뿐려보면 활발히 반응한 것으로 보아 장봉편암을 구성하고 있는 결정질 석회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주변에는 결정질 석회암을 관입한 붉은색 중립질 흑운모화강암이 분포한다.

특히, 조각상이 설치된 바로 아랫부분의 암석을 보면 일부 지층에 한정적으로 선명한 습곡 구조가 관찰되는데 이와 같은 습곡은 퇴적물이 퇴적암으로 굳어지기 전에 발생한 지진이나 해일 등과 같은 요인으로 퇴적층이 교란되어 생성된 충간습곡으로 추정하고 있다.



|| 자료 || 시도 노루메기 장봉편암(결정질석회암)



|| 자료 || 시도 노루메기 결정질석회암의 충간습곡

7) 시도(강원) 염전

시도 북동쪽해안에 있는 시도(강원)염전은 한국전쟁 1·4 후퇴 이후 주민들이 조성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염전 조성 후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뀐 뒤, 현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소재한 강원래미콘 회사에서 소유하여 ‘강원염전’란 상호로 운영하고 있다. 시도(강원)염전은 현재까지 소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인천광역의 유

일한 염전으로, 그 면적은 151,753m² 이고 2021년에는 200g 포대 1만개 정도를 생산하여 판매했다고 한다.²⁾



|| 자료 || 시도(강원)염전



|| 자료 || 시도(강원)염전의 소금 채취(옹진군청)

8) 시도 수기해수욕장

시도의 북서쪽 해안가에는 위치한 수기해수욕장은 시도의 유일한 해수욕장으로, 수심이 얕고 경사가 완만하여 피서지로 인기가 많아 여름철에 많은 피서객들이 즐겨 찾는다. 또한 수기해수욕장에는 비와 송혜교 주연의 드라마 '풀 하우스'가 촬영됐을 정도로 낭만적인 분위기를 안겨주고 있고, 해변 동북쪽 언덕에는 드라마 '슬픈 연가' 세트장이 있다. 날씨가 좋은날에는 북쪽으로 펼쳐지는 강화도 마니산, 강화남단 갯벌, 동막해수욕장 등을 볼 수 있다.

수기해수욕장에는 전통 고기잡이 방식인 '독살'이 있는데 이는 간조 때가 되면 관찰 할 수 있다. 수기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북서쪽과 북동쪽에 노출된 암석들은 퇴적기원의 변성암인 장봉편암을 기반암으로 하여 이를 관입한 쥐라기 화강암과 각섬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인천문화재단, 『인천 섬 생활사 보사보고서(제2집) 신도, 시도, 모도』, 2022, 70~72쪽.



|| 자료 || '풀 하우스' 촬영지 안내 표지



|| 자료 || '슬픈 연가' 촬영 세트장



|| 자료 || 수기해수욕장 항공사진



|| 자료 || 수기해수욕장의 '독살'



|| 자료 || 장봉편암을 관입한 화강암과 각섬암



|| 자료 || 수기해수욕장의 흑운모화강암

9) 모도 박주기해안과 배미꾸미해안

모도 박주기해안은 시도·모도연도교를 지나 모도 배미꾸미 조각 공원 삼거리에서 500m 떨어진 모도 남동쪽 해안에 있다. 박주기해안에는 시도 노루메기와 장골해안을 구성하고 있는 암석과 동일한 장봉편암의 결정질 석회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식대지에 노출된 암석 표면에는 움푹 패여 있는 돌개구멍, 끊어

져 어긋난 단층, 물결처럼 암석이 휘어진 작은 습곡, 차별침식을 받아 울퉁불퉁한 암석 표면, 염풍화작용을 받아 형성된 풍화혈(타포니 구조) 등을 관찰할 수 있다.



|| 자료 || 모도 박주기해안



|| 자료 || 모도 박주기해안의 결정질 석회암



|| 자료 || 모도 박주기해안 암석의 풍화혈



|| 자료 || 모도 박주기해안 암석의 단층



|| 자료 || 모도 박주기해안의 돌개구멍과 글루브



|| 자료 || 모도 박주기해안의 작은 습곡구조

모도 남서단 있는 배미꾸미해안 이란 명칭은 배의 밑바닥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의 해안으로, 이곳에는 에로틱한 분위를 보이는 이일호 작가의 조각들이 해안가에 설치되어 있어 특이함을

더해주고 있다.

배미꾸미 해안가에 노출된 암석은 장봉편암의 결정질 석회암과 이를 관입한 중생대 쥐라기 적자색 흑운모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배미꾸미 서쪽 해안을 자세히 조사해 보면 두 암석의 관입 경계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해안가에 철사로 나무 형상을 보여주는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곳을 이루고 있는 암석은 적자색 흑운모화강암이다.



|| 자료 || 배미꾸미해안 조각상 하단부의 화강암



|| 자료 || 배미꾸미해안의 장봉편암과 화강암 관입 경계

나. 장봉도의 자연유산

장봉도 해안가 주변에 노출되어 있는 자연유산을 장봉바다역(옹암선착장)에서 부터 북서쪽 끝자락에 있는 가막머리까지 순서대로 살펴보면 장봉바다역(옹암선착장) 서쪽 해안의 해식동굴(쇠코구멍 바위), 작은멸꽃, 옹암해수욕장, 옹암해수욕장 서쪽해안의 석류석 결정과 돌개구멍, 장봉도 당산나무, 한들해수욕장 동쪽해안의 결정질 석회암, 강구지해안의 쌍해식동굴, 대빈창과 진촌해안, 윤옥골 해안, 쪽쪽골해안 장봉편암, 가막머리 해식동굴, 동·서만도와 풀 등 등이 있다.

1) 장봉바다역(옹암선착장) 서쪽 해안 해식동굴(쇠코구멍바위)

장봉도 바다역 서쪽 해안은 기반암인 장봉편암을 중생대 쥐라



|| 자료 || 장봉도 자연유산 분포

기애 관입하여 생긴 적자색 중립질 흑운모화강암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고, 장봉편암이 소규모로 분포한다. 장봉도 바다역 선착장이 보이는 해안가에 노출된 적자색 화강암에는 지각변동을 받아 깨진 틈인 절리가 발달되어 있는데 절리를 따라 형성된 해식동굴이 몇 개 발견된다.

대표적인 해식동굴로는 소 콧구멍과 비슷한 형상을 하고 있어 쇠코구멍바위라고 부른다.



|| 자료 || 옹암선착장 서쪽해안의 해식동굴(쇠코구멍바위)

2) 작은멀꽃

장봉도 선착장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인어상이다. 인어상 뒤로는 작은 섬이 보이는데 이 섬은 가까이 있어도 못 간다는 의미를 가진 작은 멀꽃이다. 지금은 옹암구름다리가 연결되

어 누구나 쉽게 건너갈 수 있다. 또한 작은 멀곳에는 관광객의 휴식과 전망을 위하여 정자가 설치되어 있다.

작은 멀곳을 구성하고 암석을 자세히 조사해보면 한들해수욕장의 남동쪽 해안에 있는 암석과 동일한 장봉·편암에 협재된 대리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은 멀곳의 대리암에는 돌개구멍과 밭고랑처럼 패여 있는 글루브를 발견할 수 있다.



|| 자료 || 작은멀곳 원경



|| 자료 || 작은멀곳과 옹암구름다리 원경



|| 자료 || 작은멀곳의 돌개구멍과 글루브



|| 자료 || 작은멀곳의 결정질석회암

3) 옹암해수욕장

옹암해수욕장은 길이 1km, 폭 50m로 고운 백사장이 펼쳐져 있고 경사가 완만하여 만조 때에는 해수욕을 즐길 수 있고, 간조 때는 갯벌에서 조개 등을 잡을 수 있다. 도로와 백사장 사이에는 100년 넘은 노송으로 이루어진 솔밭이 발달되어 있어 한여름 피서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 옹암해수욕장의 소나무 군락은 옹암해수욕장 근처에

정착한 사람들이 모래와 바람을 막기 위해 심은 소나무들이 자라서 생긴 것으로 방풍림이다.³⁾



|| 자료 || 옹암해수욕장 갯벌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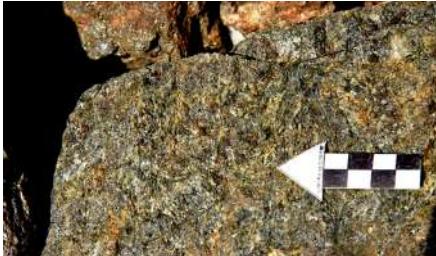


|| 자료 || 옹암해수욕장 해송군락

4) 옹암해수욕장 서쪽 해안의 석류석 결정과 대형 돌개구멍

멀리서 옹암해수욕장 남서쪽 해안을 바라보면 하얀색을 띤 암석을 볼 수 있는데 이 암석은 장봉편암 중 결정질석회암으로 구성된 부분이 노출된 것으로 한들해수욕장 남동쪽 해안을 구성하고 있는 암석과 동일한 암상을 가지고 있다. 옹암해수욕장의 모래사장을 벗어나 남서쪽 해안의 초입에는 운모편암이 잘 발달되어 있다. 이 암석의 엽리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붉은색 석류석 결정이 발견된다. 이것으로 보아 장봉편암은 저변성 작용을 받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해안가에 노출된 장봉편암의 결정질 석회암에는 2m 정도 깊이의 대형 돌개구멍이 있고, 대형 돌개구멍 하단부에도 소규모 돌개구멍이 여러 개 발달되어 있다. 이 지역의 대리암에는 노란색을 띤 방해석 맥이 관입되어 있다. 풍화 침식으로 노란색 방해석 암맥이 마치 포획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다.

3) 장종근, 『말문에서 시작하는 장봉도 이야기』, 그린칼라(주), 2006, 156쪽.



|| 자료 || 장봉편암 발달된 석류석 결정



|| 자료 || 결정질석회암에 발달된
대형 돌개구멍

5) 장봉도 당산나무(소사나무)

말문고개에서 진촌방향으로 오다 보면 좌측에 한들해수욕장 입구가 나온다. 그 맞은편에는 소사나무 고목들이 몇 그루 보이고 좌측으로는 주유소가 자리잡고 있다. 오래전에 이곳은 장봉도 주민들이 매우 신성시하던 신당이었다고 한다. 가마를 타고 가다가도 내려서 걸어야 했고, 상여도 지날 수 없었던 곳이었다.



|| 자료 || 장봉도 당산나무(소사나무 고목)

과거 섬에는 풍어와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좋은 날을 택 일하고, 집집마다 경비를 각출하여 당굿을 했다. 당굿을 하고 주신을 모시는 당집을 두어 여러 사물을 보관하기도 했지만, 1980년대 이후 기독교의 영향으로 사라졌다. 당목 혹은 신목(神木)으로 흔히 느티나무, 팽나무, 회화나무, 소나무 등의 고목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봉도는 특이하게도 소사나무를 당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6) 한들해수욕장 동쪽해안 결정질석회암

한들해수욕장은 길이 400m, 폭 30m의 아름드리 해송이 모래 해변

을 끼고 울창하게 펼쳐져 있다.⁴⁾ 이곳 해수욕장은 수심이 얕고 경사가 완만하여 이곳에 있으면 ‘마음이 한없이 한가롭다’고 하여 한들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한들해수욕장 남동쪽 해안에는 장봉편암에 협재한 것으로 알려진 결정질석회암이 잘 노출되어 있어 다양한 지질 현상을 살펴볼 수 있다. 가까이 접근해서 살펴보면 해안선과 같은 방향으로 큰 단층이 있어서 그 부분이 비교적 많이 침식되어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을 정도의 구멍이 있다. 이와 같이 해안가에 단층이나 절리 등 약한 부분이 많이 침식되어 관통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시-아치라고 한다. 암석은 대체로 밝은색으로, 백색과 회색이 교호층으로 나타나며, 이 암석을 관입한 방해석 맥에는 기존의 결정질석회암 조각이 포획된 포획암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해안가 해식대지의 암석이나 하천 밀바닥의 암석에 항아리 모양으로 구멍이 파여진 침식 자국인 돌개구멍이 관찰되는데 큰 것은 사람이 들어가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크기가 크다. 돌개구멍이란 하천 바닥이나 해식대지에 있는 암석 위에 있는 자갈이 흐르는 강물이나 파도에 의해 맷돌처럼 회전하면서 밀바닥 암석을 갈아내서 형성된 움푹 패인 구멍으로,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무릉리 주천강 바닥에 있는 천연기념물 제543호로 지정된 요선암 돌개구멍이 대표적이다.



|| 자료 || 한들해수욕장해안 결정질석회암



|| 자료 || 한들해수욕장해안 암석의 시-아치

4) 장종근, 『말문에서 시작하는 장봉도 이야기』, 그린칼라(주), 2006, 150쪽.



|| 자료 || 한들해수욕장해안 암석의 돌개구멍



|| 자료 || 한들해수욕장해안 암석의 방해석 맥과 포획암



|| 자료 || 한들해수욕장해안 암석의 단층



|| 자료 || 한들해수욕장해안 암석의 습곡

7) 강구지해안 쌍해식동굴

장봉도 강구지해안에는 전형적으로 해식 절벽과 해식대지가 발달되어 있다. 해식절벽에는 커다란 해식동굴이 2개나 존재하는데 멀리서 보면 해골 모양으로 보이며, 20~30명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 해식동굴의 내부가 넓다. 인접한 두 해식 동굴의 내부가 하나로 합쳐져 내부에서 밖을 바라다보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다.

이곳에 해식동굴이 생겨있는 것은 해식동굴이 있는 부분이 다른 지점의 암석보다 풍화 침식에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해식동굴이 있는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깨어진 틈(절리)이나, 층이 어긋난 단층이 있다. 이러한 절리나 단층에 지하수 등이 흘러 들어오면 풍화 침식을 쉽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파도가 치거나 하면 더 쉽게 침식되어서 동굴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곳의 암석은 퇴적 기원의 석회 성분이 들어있는 점토가 퇴적되

어 형성된 부분과 잔모래가 퇴적되어 형성된 사암이 교호하는 암석으로 이 암석이 지각변동을 받아 형성된 퇴적 기원의 장봉편암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중생대에 관입한 석영맥이 장봉편암 사이에 분포한 형태로 되어 있다. 강구지 해안은 조류가 다른 지역보다 강해서 낚시가 잘되고 굴이 맛이 최고라고 한다. 또한 이 지역의 해식대지에는 원마도가 좋지 않은 표력들이 많이 존재하고, 표면에는 자연산 굴이 많이 붙어있다.



|| 자료 || 강구지해안 쌍해식동굴 외부



|| 자료 || 강구지해안 쌍해식동굴 내부



|| 자료 || 강구지해안 쌍해식동굴내부에서 바라본 동, 서만도와 쪽쪽골해안 원경

8) 건어장해안 열굴바위 시-스택

건어장에서 남동쪽 해안가 갯텃길을 따라 강구지 해안으로 100미터 정도 걷다 보면 약 5미터 높이의 시-스택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바위를 북서쪽에서 바라보면 사람 얼굴의 옆모습을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바위를 얼굴바위라고 부른다.

얼굴바위에 접근하여 살펴보면 모래와 점토층이 반복되어 형성된 사암과 이암이 지각변동을 받아 형성된 규암과 점판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습곡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차별 침식을 받은 울퉁불퉁한 장봉편암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 자료 || 건어장해안 얼굴바위 시-스택



|| 자료 || 건어장해안 얼굴바위에 발달된 습곡

9) 대빈창해안과 진촌해수욕장

대빈창해안에 노출된 암석은 장봉편암을 기반암으로 하여 장봉편암을 관입한 각섬암과 각섬암을 관입한 세립질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지하수에 용해되어 있던 석회 성분이 암석의 틈에 침전되어 형성된 방해석 맥도 발견된다. 방해석 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방해석 결정이 개 이빨과 같은 특이한 모양의 방해석 결정을 이루고 있는 견치석을 관찰할 수 있다.⁵⁾

대빈창에서 진촌해수욕장으로 가는 산책로 아래쪽에 있는 장봉편암을 간조때 살펴보면 절리나 단층이 있는 곳이 다른 암석 보다 풍화 침식을 받아 형성된 작은 해식동굴과 심지어 해식동굴이 관통되어 반대쪽 해안이 보이는 시-아치 등의 해식지형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5) 김기룡 외, 『옹진섬, 중구 섬으로 떠나는 자연과 역사, 문화 산책』, 2017, 190쪽.



|| 자료 || 대빈창해안의 장봉편암을 관입한 각섬암의 구상풍화



|| 자료 || 대빈창해안의 장봉편암과 이를 관입한 암맥에 발달된 단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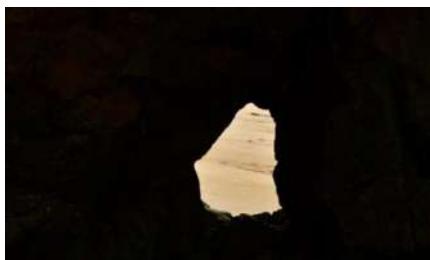
|| 자료 || 대빈창해안의 방해석맥에 발달된 견치석



|| 자료 || 대빈창해안의 방해석맥에 발달된 방해석 결정



|| 자료 || 진촌해수욕장 동쪽해안 해식동굴



|| 자료 || 진촌해수욕장 시-아치

10) 윤옥골해안 관입암과 포획암

윤옥골은 물이 흐르는 골짜기를 따라 길이 형성되어 있고, 옛날에는 이곳에 사슴이 살며 골짜기에 내려와 목을 죽였다고 하여 불

여진 지명이다.

간조때 윤옥골에서 쪽쪽골로 가는 갯텃길을 따라가면서 해안가에 노출되는 암석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반암인 장봉편암을 관입한 흑운모화강암과 흑운모화강암을 관입한 화강반암과 화강반암을 관입한 각섬암과 석영맥 등 장봉도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암석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윤옥골해안에는 관입암과 포획암의 관계를 규명하여, 암석의 선후 관계 규명을 할 수 있다.



|| 자료 || 윤옥골해안의 관입된
화강암에 포획된 장봉편암

11) 쪽쪽골해안 장봉편암

원생대 퇴적기원의 호상편암인 장봉편암이 가장 선명하게 노출된 곳은 장봉도 남서쪽해안에 있는 윤옥골해안에서 쪽쪽해안 까지 간조 때가 되면 걸어갈 수 있다. 특히 쪽쪽골해안의 갯텃길과 등산로 주변에 노출된 장봉편암을 자세히 살펴보면 엽충리, 소습곡, 차별침식, 관입, 절리, 단층, 부단 구조, 돌개구멍, 글루브, 해식동굴, 해식절벽, 해식대지 등의 다양한 지질 구조와 해안 침식 지형을 관찰할 수 있다.

이 지역은 장봉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갯텃길과 해안가 등산로 트레킹코스로 정평이 나 있는데 이곳을 구경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수석을 전시한 것처럼 보이는 수석공원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쪽쪽골해안 주변에 노출된 암석을 자세히 보면 두께가 매우 얕은 층이 반복되어 나타난다. 많이 패인 층은 석회 성분 포함된 이암층이 변성된 점판암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돌출된 층은 석영 성분이 많은 모래가 퇴적되어 생긴 사암이 변성되어 생긴 규암층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어 풍화, 침식에 견디는 정도가 달라 차

별침식을 받아 생겨 울퉁불퉁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장봉 편암은 장봉도를 비롯하여 인근의 도서인 모도, 석모도, 강화도 남서 해안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 자료 || 쪽쪽골해안 장봉편암에 발달된 소습곡



|| 자료 || 쪽쪽골해안 장봉편암의 차별침식



|| 자료 || 쪽쪽골해안 장봉편암을 관입한
석영맥과 화강암



|| 자료 || 쪽쪽골해안 장봉편암에
발달된 돌개구멍과 글루브



|| 자료 || 쪽쪽골해안의 장봉편암



|| 자료 || 쪽쪽골해안의 장봉편암 수석공원



|| 자료 || 쪽쪽골해안의 장봉편암과 동, 서만도 원경

12) 가막머리해안 해식동



|| 자료 || 가막머리해안 해식동굴의 외부



|| 자료 || 가막머리해안 해식동굴의 내부

장봉도의 서쪽 끝 가막머리 해안에는 중생대에 생성 중립질 자색 흑운모화강암이 잘 노출되어 있다. 화강암에는 절리가 발달되어 있고, 절리를 따라 관입된 암맥들도 발견되고, 절리를 따라 지하수가 스며들어 다른 지역보다 풍화와 침식에 약해 해식동굴이 발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중생대 화강암과 원생대 퇴적기원의 장봉편암의 경계부에는 화강

암이 층리 구조를 간직하고 있는 퇴적 기원의 장봉편암을 포획하고 있는 모습도 흔히 발견할 수 있다.

13) 동, 서만도와 풀등

장봉도에서 남서쪽으로 약 6.5km에는 무인도 형제의 섬으로 알려진 동·서만도가 있다. 동·서만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종도 삼목선착장에서 신·시·모도, 장봉도행 여객선을 타고 장봉도 선착장에 도착하여 장봉도에서 어선을 별도로 임대하여야 한다. 동, 서만도의 만도라는 명칭은 배가 피할만한 만이 있어서 붙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래 하나로 이루어진 섬이 파도의 침식으로 두 개의 섬으로 나누어져 동쪽에 있는 것을 동만도, 서쪽에 있는 것을 서만도라고 하였다.

동·서만도의 모양은 대체로 북서-남동 방향으로 길게 뻗어 있고, 세로 폭이 길고, 가로 폭은 좁은 긴 타원형의 형태를 보인다. 두 섬은 해안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경사가 60~70° 정도에 달한다. 동만도의 북서쪽으로 서만도가 인접해 있는데 간조 때 모래 갯벌이 노출되어 걸어갈 수 있다.



|| 자료 || 건어장에서 바라본 동, 서만도 원경



|| 자료 || 서만도의 노랑부리백로 둥지

장봉도 서쪽 끝에 있는 가막머리 전망대에서 가깝게 보이는 동·서만도 주변에는 간조 때에만 노출되는 바다의 신비로 알려진 풀등이 발달 되어 있다. 이곳의 풀등 표면을 살펴보면 대이작도 풀등보다 훨씬 큰 물결무늬 자국이 발달 되어 있는데 이는 이곳의 조류가

대이작도보다 강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풀등 표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검은색으로 보이는 가루가 발견되는데 이것에 자석을 가까이 대면 찰싹 달라붙는다. 이 검은색 가루는 암석에 들어 있는 티타늄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자철석이 풍화 침식되어 생긴 것으로, 한때 모기업에서 이것을 채취하기 위한 채광권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장봉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한다. 이 지역은 우리나라 최초로 주민들의 요청으로 2003년 12월 갯벌습지 보호지역 제5호로 선정하여 보호하고 있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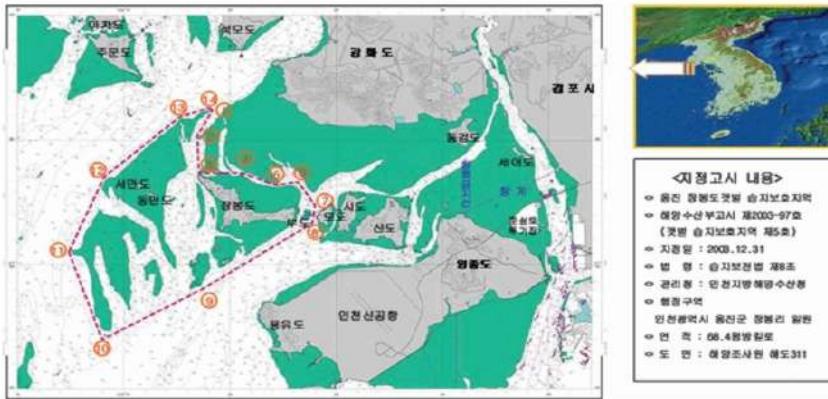
|| 자료 || 동, 서만도와 풀등 원경



|| 자료 || 장봉도 풀등 표면의 현생 연흔

풀등에는 백합 조개를 비롯하여 많은 어패류 등이 서식하고 있어 어민들의 수익원이 되고 또한 철새들의 먹이가 되고 있다. 학술조사에 따르면 장봉도의 동·서만도 주변 풀등에는 38종 13,500여 마리의 철새가 서식하고 있으며 그중 노랑부리백로, 저어새, 검은머리물떼새 등과 같은 30 여종의 희귀 철새들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6) 옹진군지편찬위원회, 『옹진군지』, 1989, 77~78쪽.



|| 자료 || 장봉도 갯벌 습지보호지역 제5호

<지정고시 내용>

- ※ 용진 청정도갯벌 습지보호지역
- ※ 해양수산부고시 제2003-97호
〈갯벌 습지보호지역 제5호〉
- ※ 지정일 : 2003.12.31
- ※ 법 명 : 습지보전법 제8조
- ※ 관리처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 면적 : 66.4평방킬로
- ※ 도면 : 해양조사원 제도311

김기룡(사단법인 인천섬유산연구소 이사장)

2. 인문 유산⁷⁾

가. 신도

1) 구로지 조개더미(貝塚)

구로지 마을은 신도에서 가장 서쪽에 위치한 마을이며, 갯골을 사이에 두고 시도와 마주보고 있다. 연안에는 갯바위가 많아 패류가 쟁쟁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 일대에서 채취한 굴이 패총을 이루고 있다.

패총은 현재 마을 내 밭으로 경작하고 있는 완만한 구릉지 일대로서 빗살무늬토기가 확인된 패총은 마을 앞쪽 고추밭을 따라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으며, 집 마당이나 길에서도 확인된다. 김광일씨 댁 부근의 해당한다.

토기는 모두 점토질의 바탕흙을 썼으며, 토기의 외면은 적갈색, 내면은 황갈색으로 두께는 0.6cm이다. 이 유적은 처음 필자에 의해 확인된 곳이며, 이후 국립문화재연구소와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 의해 추가 조사된 바 있다. 마을 안쪽에도 패각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보아 여러 유적의 존재 가능성이 매우 크다.



|| 자료 || 구로지 조개더미

7) 북도면은 일제강점기 아래 고고학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지역으로 시도폐총은 서해안 일대에서 가장 먼저 1970년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이후 2000년 전후 한 시기부터 다시 지표조사가 이루어지며, 북도면 자료는 다음과 같다.(鳥居龍藏, 「平安南道黃海道古蹟調查報告」, 『大正五年度古蹟調查報告』, 조선총독부, 1917, 791쪽 : 오상화, 「경기도 선사시대 유적지명표」, 『史叢』 6, 81. : 한병삼, 『시도폐총』,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8책 1970, 김석훈, 「인천섬 지역의 신석기유적 新例」, 『仁荷史學』 7, 인하역사학회, 1999, 3~40쪽: 국립문화재연구소, 『군사보호구역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 경기도편』, 2000.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서해도서 종합학술조사Ⅱ』, 2005. : 문화재청, 『제2차년도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 및 관리방안연구』, 2022.

2) 뒤동골 조개더미(貝塚)

신도1리에 해당하며, 연도교에서 동쪽으로 200m 지점의 경작지 전면에 패각이 흘어져 있다. 패각은 굴껍질이 주종을 이루며 백합과 복족류도 약간 보인다. 주민의 전언에 따르면 원래는 굴껍질 패각층이 두껍게 남아 있었으나 닭 사료용으로 채취하였고, 남아 있던 패각층 조차도 포도밭을 개간하면서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한다. 유물은 빗살무늬토기가 대부분이다. 바탕흙은 점토에 모래를 섞었으며, 주로 몸통 부분으로 두께는 0.7~0.9cm이다.⁸⁾

3) 알미산 조개더미(貝塚)

신촌 부락은 신도4리에 해당하며, 주변은 간척지와 바다로 이루어진다. 유적은 원래 바닷가에 위치했으며, 알미산(해발 33m) 남록을 깎아 경작지로 만드는 과정에서 단면의 패각층을 통해 찾게 되었다. 지금도 알미산 일대의 도로변 단애부에 굴껍질로 이뤄진 패총이 드러나 있다.

절토한 단면 상에서 확인된 패각층은 남북으로 이어지며, 남쪽의 경우 황갈색 생토층 위에 30~50cm로 형성된 패각층 위를 20cm 두께의 지표층이 덮고 있다. 남쪽의 경우는 삑평된 바닥까지 패각층이 이어져 전체 두께는 알 수 없으나 더 깊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 유적은 필자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으며, 무경식 석축 1점과 빗



|| 자료 || 알미산 조개더미



|| 자료 || 알미산 조개더미 출토유물

8) 김석훈, 「앞 글」, 1999, 17쪽 : 국립문화재연구소, 『앞 책』, 2000, 586쪽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앞 책』, 2005, 117~119쪽.

살무늬토기편 12점을 보고한 바 있다.⁹⁾ 빗살무늬토기는 대부분 몸통부분으로 바탕흙은 점토질, 외면은 적갈색, 내면은 황갈색이다. 무늬는 단치구를 사용했으며, 눌러긋기를 통해 토기 표면에 무늬를 넣었다.

4) 윷판형 암각화

가) 유적의 위치와 주변 지형

이 유적은 신도바다역(선착장)에서 신도로를 따라 가면 신도1리(구로지)와 신도2리(고남리)로 갈라지는 삼거리에서 구봉산(해발 178.4m) 등산로를 따라 정상을 오르면 30분 정도 소요된다. 유적 가까운 지점에는 평지를 조성하고 ‘구봉정’ 정자를 지었다.

암각화 유적은 정자에서 정상부에 이르는 등산로 상의 초입에 있어 등산객이 밟고 다니는 평평한 암면(岩面)이다.¹⁰⁾ 암각화는 거의 산 정상부에 해당하고 있어 주변의 조망이 좋다. 바위의 암질은 운모가 일정 방향으로 배열된 편암(Schist)이며, 주변에 동일한 암석이 산재해 있다.



|| 자료 || 윷판형 암각화 모습

나) 암각화의 형태

윷판형 암각화는 지름 1~2cm 정도되는 19개의 작은 원형 구멍들

9) 김석훈, 「앞 글」, 1999, 17~21쪽 : 국립문화재연구소, 『앞 책』, 2000, 587~588쪽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앞 책』, 2005, 115~117쪽.

10) 임도를 건설하면서 아쉬운 점은 ①정자 주변은 중장비에 의해 깊겨진 바위에서 인공의 성혈(알구멍, 性穴, Cup-mark)이 찾아진다는 점 ②암각화의 평평한 바위 표면이 포크레인에 긁혀 윷판의 구멍 일부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아마 공사하면서 더 많은 바위가 이동되거나 훼손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원형을 이루고 있고, 원형 내부는 비슷한 크기의 9개의 원형 구멍이 ‘열 십자(+)’ 형태를 이루고 있다. 전반적 형태는 현대의 4각형 윷판을 원형으로 만든 것과 같은 형태(+)이다.

이러한 윷판은 최소 6개 이상이 확인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겹쳐져 있어 규칙적으로 정렬된 모습을 지니지 않는다. 윷판 암각화는 1개당 29개 내외의 작은 구멍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불분명한(혹은 미완성의) 암각화는 각 선마다 6개의 작은 구멍과 접하는 지점에 1개를 만들어 ‘ㄴ’ 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 유적은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윷판형 단독 조성의 유적 범주에서 벗어나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적 조사는 국립문화재연구소와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서 지표조사한 바 있다.¹¹⁾ 윷판은 지름이 적은 것은 27cm, 큰 것은 35cm 가량으로 크기와 상관없이 구멍의 개수가 일정하다. 십자의 한 선은 7개의 구멍이며, 원한 바퀴의 구멍은 20개이다.¹²⁾ 모두 같은 지점에 해당한다.

윷판형 암각화는 전국적으로 발견되고 있으며, 가까운 유적으로는 강화도 국화리 강화산성 남장대 전돌, 교동도 고구리 화개산성 암각화에서 확인된다.¹³⁾

다) 황해 중부 섬 지역 발견 의미

윷판형 암각화의 제작 시기는 특정할 수 없다. 이 유적의 경우 주민들도 모르며, 관련 설화 역시 알 수 없다. 암각의 전체적 모양



|| 자료 || 윷판형 암각화 세부 모습

11) 국립문화재연구소, 『앞 책』, 2000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서해도서종합학술조사Ⅱ-영흥·자월·북도면-』, 2005, 참조.

12)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앞 책』, 2005, 참조.

13) 전호태·이화우·홍승지, 『한국의 윷판형 암각화』, 울산대 반구대암각화보존연구소, 2019, 26~33쪽.

이 육판 모양이라는 정보 이외는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해 도서의 산상에서 발견 예가 없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 육판형 암각화의 종교적, 신화적 의미는 추후 발견 예가 있을 때까지 미루지만 신도의 암각화는 중부 도서 지역의 산상에서 발견되었다는 점과 한 곳에 밀집 분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례용으로 해석하기도 한다.¹⁴⁾

5) 고인돌(추정)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의 조사에 의하면 신도교회에서 서북쪽으로 50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덮개돌은 동-서 방향으로 놓여 있으며, 크기는 230×190×40cm이다. 덮개돌 밑에는 50×30×15cm, 60×70×20cm의 받침돌 2개가 놓여 있다.¹⁵⁾

6) 신도 목장 마성터

신도 목장의 첫 조성 시기는 언제일까? 적어도 1417년에 강화도와 신도 등 5곳에 목장이 있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신도 목장은 1417년 이전에 설치되어 북도면에서는 가장 먼저 운영되었다.¹⁶⁾ 이어 1423년(세종5)에는 신도를 비롯해 강화도 및 부속 섬에서 기르는 말이 1,642필을 사육하고 있으며,¹⁷⁾ 1434년(세종16)에는 “흑오명(黑五明)이라는 암수 말과 주동이, 눈, 불(고환), 발굽은 새까맣고 나머지 부위는 백색인 암수 말을 신도에 방목하였으나 번식이 많지 않아 다시 전국 각지에서 보충하여 (이번에는) 보음도(甫音島, 볼음도)에서 방목” 하라는 것으로 보아¹⁸⁾ 한때는 희귀한 명품 말을 기르는 국가적 차원의 목장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규모는 얼마나 될까? 『세종실록』에는 “둘레가 30리이고, 나라의 말 36필을 기른

14) 국립문화재연구소, 『앞 책』, 2000, 588쪽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앞 책』, 2005, 113~115쪽.

15)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앞 책』, 2005, 110~111쪽.

16) 『太宗實錄』 권 33, 태종 17년 6월 4일 무자.

17) 『世宗實錄』 권 20, 세종 5년 5월 21일 경자.

18) 『世宗實錄』 권 66, 세종 16년 10월 14일 정사.

다”¹⁹⁾는 내용에서 목장의 규모와 말의 수를 가늠해 볼 수 있겠다.

조선 후기인 1785년(정조9)에는 강화의 길상목장을 폐장하고, 그 목마를 신도목장으로 옮겼던 것으로 보아 조선 후기에도 중요한 목장으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이며,²⁰⁾ 1896년에는 …信島舊牧馬場…이라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폐장된 것으로 보인다.²¹⁾

현재 목장의 위치는 구봉산 북쪽인 선창구미부터 쑥개, 마장 지역 일대, 그리고 수천내, 마골재, 배주개 북쪽으로부터 왕봉산 북록을 경계로 한 넓은 지역이었다. 그중 신도3리의 ‘마장(馬場)’ 부락 일대가 출입구 부분에 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 조사에 의하면 구봉산 남쪽으로 말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쌓았던 마성 석성이 현재에도 여러 곳에 남아 있다. 석축은 주로 구봉산 북서록의 신시도 연육교 인접 구릉에서 확인되는데, 대개는 기저부의 석축만 남아 있으며, 주변 간척지와 경작지, 주택의 축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²²⁾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서도 조사하였다.²³⁾

7) 김봉록 목사 기념비

김봉록(金奉錄, 1925~2017)은 신도(信島) 출신으로서 우리나라 기독교 감리교의 감독회장을 지낸 분으로 종교에 대한 공로 및 지도자로서 명성이 매우 높은 분이며, 그의 활동을 기려 1994년 4월 40일 북도지역 교회에서 기념비를 건립하였다. 김봉록은 부친 김영선과 모친 김씨 사이에 5남 1녀 중 막내이며, 신도리 612번지에서 출생하였다. 이 비석의 내용을 중심으로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950년 서울신학교 졸업
- 1950~1956년 강화지방 조산교회 시무

19) 『世宗實錄』 권 148, 지리지 경기 부평 도호부 강화 도호부.

20)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인천의 섬과 역사문화유산(상)』, 2017, 201쪽.

21) 『各司瞻錄』 1896년 3월 27일.

22)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앞 책』, 2017, 202쪽.

23)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앞 책』, 2005, 143~145쪽.

- 1956~1963년 인천동지방 화도교회 시무
- 1963~1968년 인천서지방 울목교회 시 무중
서지방 감리사 역임
- 1964~1966년 총리원 실행이사 역임
- 1968~1987년 서울 종로지방 세검정교회 시무
- 1972~1974년 서울북지방 감리사 역임
- 1978~1980년 선교국위원회한국교회협의회(KNCC)
선교위원장 역임
- 1981~1986년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사업유
지 재단이사장 역임
- 1984~1986년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역
임,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 재단이사장 역임
- 1988~1994년 서울 정동제일교회 시무
- 1991~1993년 협성신학교운영이사장 역임
- 1990~1994년 태화사회관운영위원장 역임

이 비석 건립 추진 위원은 김태근 장로,²⁴⁾ 전양훈, 장인희 외 북도
지역 교역자 및 각 교회 장로가 중심이 되어 비석을 세웠다.

8) 왕봉산 초소 및 참호(塹壕)

신도3리 강화도와 인근의 해역이 조망되는 왕봉산 정상부에는 6·25 전쟁 당시 대한청년단이 축조하고 사용했던 초소와 참호가 남아 있다. 초소는 콘크리트로 만들었으며, 초소의 출입과 주변을 망(望)보기 위해 참호를 만들었다. 이와 같은 초소와 참호는 북도면 지역에 섬마다 몇 곳이 있는 것으로 주민들은 증언하고 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²⁵⁾ 1950년 당시 “모도에는 연희전문 학생이 광복 전부터 모도에 있었다고 한다. 천용택은 그 학생이 공산주의 운동을 하다가 피신했을 것이라고 했다. 학생은 해방 직전 섬에서 사



|| 자료 || 김봉록 기념비

24) 이분은 1875년 운양호 사건 당시 강화 초지진에서 일본군과 싸웠던 김옥현(金玉賢) 초관(哨官)의 손자이다.

25) 천용택, 「잊을수 없는 6·25」, 연도 미상, 6~7쪽.

라쳤지만, 그가 섬에 끼친 영향은 적지 않았다. 해방 후 모도에는 다른 지역보다 공산주의자들이 많았던 것이다. 천용택에 의하면 해방 후에 사람들이 신도를 대한민국, 장봉도를 미국, 시도를 인민공화국, 모도를 모스크바라고 불렀을 정도라고 했



|| 자료 || 왕봉산 초소 및 참호

다.²⁶⁾ 신도에는 결사대 형태의 조직인 대한청년단 북도면단이 있었다. 그런데 대한청년단 북도면단은 북도면사무소가 있던 시도가 아니라 신도에 있었으며, 이 조직의 간부들은 목사를 포함하여 신도 출신이 많았다”고 서술하고 있다. …²⁷⁾

대한청년단 북도면단은 6·25 전쟁 이전부터 군사 훈련을 실시하여 자체 치안을 준비하였으며, 전쟁 과정에서는 인민군의 공격을 감시하며 북도면 방위에 주력했다. 당시 대한청년단 북도면단장은 천용택이었다.

9) 왕봉산 구들장 채석장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난방시설은 구들인데, 여기서 쓰이는 ‘구들장’ 일명 ‘온돌’이라 불리는 석재를 왕봉산에서 채취해서 썼다. 신도3리에 왕봉산의 구들장 채석장은 신도리 산 38-7 부근이며, 채취 시기는 1930년대 처음 시작되어 1950년 6·25 전쟁 이후 전성기를 이뤘다.

이곳을 최초로 광산 경영한 사람은 당시 신도3리에 거주했던 윤정운씨이며, 처음에는 주민들이 거주할 집을 짓기 위해 필요한 양만큼 채석하여 썼다. 그러나 이후 점진적으로 소요량이 증가하게 되자 석회석 광권을 내고, 인천에 중간 상인인 심봉섭, 남타용을 두

26) 필자는 2024.10.4.(금/16:00~18:00)일 신, 시, 모도 주민과 북도면사무소에서 6분의 주민과 간담회를 하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27) 신기철, 『한국전쟁, 전장의 기억과 목소리』, 역사만들기, 54~55쪽.

어 경인 지역에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50년 6·25 전쟁 이후에는 전후 상황과 흉작으로 인해 신도의 전 세대 가구가 구들장 채석에 종사하여 중간 상인에 넘겨 팔아 생계를 유지하였는데, 경제 활동의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이 지역의 구들장은 불을 피웠을 때 열을 가할수록 단단해져 품질이 좋아 경인 지역 전 수요량의 90%가 신도산 구들 제품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신도의 구들장 채석과 관련해 최영윤(신도3리)은 부친(1914년생)이 15세에서 20세에 이르는 시기부터 처음 시작됐다는 얘기를 전해들어 1930년대부터 채석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본인도 1970년대 초 구들장을 선적(船積)하고 용돈을 받았다고 한다. 하모리 일대에서 가장 많이 산출됐다고 하는데, 배는 물이 밀 때 육지 가까이 들어왔으며 썰 때 선적했다고 한다.

10) 숯가마(炭窯)

고남리에서 벗말로 넘어가는 고남리 마루턱의 옛 고개를 숯고개 혹은 숯재라 부르는데, 이유는 고개에서 숯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이 일대에는 숯을 구웠던 숯가마 일부가 남아 있다. 이곳은 신도리 산137번지 일대에 해당하는데, 원시적으로 원형의 구덩이(가마)를 파고, 그 속에서 숯을 만들었다. 주변은 예로부터 숯 원료인 굴참나무 군락지로서 최적의 장소였다. 최초로 숯을 굽던 시기는 1930년대이며, 염주동 일명 염주부가 운영했다고 한다.

11) 신도의 금광

신도3리 지역에는 금광이 있었는데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후까지 운영하였다. 광산의 위치는 구봉산 동남쪽 줄기 알봉산 지역이었으며, 신도3리 골 안쪽에는 선광장(選礦場)이 2개소가 있었다. 공

장 명청은 조선기계창(朝鮮機械廠), 일본기계창(日本機械廠) 등이 있었는데, 이 기계창은 광석을 분쇄해서 금을 선별했던 금방앗간이었다.

두 곳의 광주(礦主)는 각각 1918년에 등록된 일본인 岡本光量과 1921년에 등록된 조선인 方禮錫이었으나 1938년에 광업권이 岡本光量에게 이전되어 신도의 광산은 일본인 소유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주된 광물은 금과 은이었다. 선광장 주변에는 광물을 골라내기 위해 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물이 있었으며, 바위를 폭파하기 위한 화약고가 있었다.



|| 자료 || 신도 금광굴을 가르키는 최영윤 전 면장
때문에 우물이 있었으며, 바위를 폭파하기 위한 화약고가 있었다.

|| 표 || 조선광구일람표(1941. 7. 1. 현재)²⁸⁾

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광산명	광종	광구평수	광업권자	주소
북도면	11666호	21.5.23	동광산 금광	금, 은	288,000	方禮錫	함북 함흥시 본정 2-23
"	8988호	18.6.25	"	금, 은, 동	40,000	岡本光量	경성부 길정 2-205

화약고의 규모는 5칸 정도이며, 1칸은 3평 정도의 규모라 한다. 1920년을 전후한 시기에 사업을 시작하지만 채굴량은 알 수 없고 다만 1930년대 황금광시대에 대규모 채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광과 관련한 증언을 해주신 최영윤 전 면장(신도3리)의 조모인 석간난 여사는 1930년대 400명 되는 광부를 대상으로 식당을 운영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영종과 신도 사이 해중에 있는 바위섬(솟바리)에서 최영덕씨가 금덩이를 채취했다고 전하며, 광복 후에도 금광굴 주변에서는 사금을 찾는 활동이 이어졌다고 한다. 금광과 관련된 주된 시설이 있던 지역은 신도3리였다.(최영윤 증언)

28) 옹진군향리지편찬위원회, 『甕津郡鄉里誌』, 1996, 75쪽.

나. 시도

1) 시도 수기 조개더미(貝塚)²⁹⁾

이 유적은 일제강점기인 1916년 鳥居龍藏이 강화도 부근의 전도(箭島)에 유문토기가 나온다는 보고를 한 이후 광복 이후 1950~60년대에 간혹 간단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곳은 원래 밭으로 경작된 곳이며, 패각류를 닦의 사료로 팔기 위해 표토를 제거하면서 하얗게 노출되어 알려지게 됐다. 패각은 주로 굴껍질이다.



|| 자료 || 시도 수기패총

이 유적은 1970년 경기만에서는 처음으로 중앙박물관에 의해 발굴된 유적인데, 발굴 유적이 많지 않았던 1970~2000년 사이 이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 무늬와 형태를 이름하여 ‘시도식 토기’라 하였다. 그러나 반세기가 지난 현재 과거의 흔적은 모두 사라졌고, 해수욕장 관광자원으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이 들어서 있어 유적은 거의 없다. 이 당시 조사된 지점은 3곳인데, 각각의 유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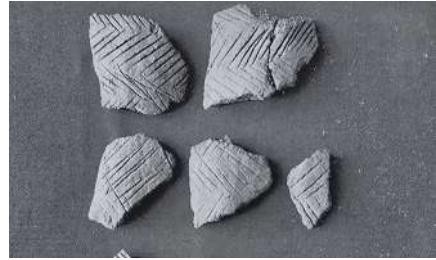
가) 제1지구

시도패총에서 가장 유물이 많이 출토된 중심 유적이다. 토기는 1,200여 점이 발굴되었는데, 연구한 바에 의하면 토기 표면의 경우 암사동 유적의 특징인 입술, 몸통, 밑부분이 구분되어 시문한 것과 반대로 ‘시도식 토기’는 입술에서 몸통에 이르는 대부분의 기면(器面)에 구분없이 동일한 무늬를 넣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대부분을 차지하는 빗살무늬는 시문구를 사용해 횡주어골문, 격자문, 사선대

29) 한병삼, 『矢島貝塚』, 국립중앙박물관, 1970, : 김석훈, 「앞 글」, 1999, 17~21쪽 : 국립문화재연구소, 『앞 책』, 2000, 589~591쪽.

문 계통의 문양을 넣었다. 주로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확인되고 있어 ‘서해안식 토기’라 부르기도 한다. 이런 특징은 대체로 신석기 시대의 후기에 해당하는 특징이며, 석기는 소량이지만 그물추, 돌도끼, 돌날, 석촉, 갈돌이 찾아졌다.

이곳에서 찾아진 토기의 무늬는 어골문(魚骨紋)이 주종을 이루며, 끝부분이 약간씩 겹쳐 사격자문을 이루기도 한다. 이외에도 20여 종의 다양한 무늬를 넣었는데, 규칙성은 없고, 전반적으로 전형적인 빗살무늬에서 퇴화된 듯하다. 토기 내면은 작은 석립이 드러나 있어 외면에 비해 매끄럽지 못하다. 바탕흙은 점토질이며, 내·외의 표면에 운모가 섞여 있으며, 색조는 적갈색을 띠고 있다. 기면의 외부는 잘 다듬어졌으나 거친 석립(石粒)이 간혹 보이며, 두께는 0.8cm 정도된다.



|| 자료 || 시도조개더미 출토유물(빗살무늬토기)

나) 제2지구

이 유적은 수기 해수욕장 동쪽 끝단으로서 남북으로 훌려내린 산줄기가 끝나는 능선상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제1지구 패총과는 약 100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여기서는 제1지구 패총 보다 면적이나 유물의 수와 다양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유적이다. 여기서는 화덕자리(爐址)가 1기가 찾아졌는데, 지름이 10~15cm 가량의 돌을 원형으로 둘러 직경 60cm되는 화덕을 만들었다. 그 안에는 검은 재가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발화 행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토기는 모두 약 170여 점이 발굴되었는데, 대표적인 무늬는 2줄 세트의 복선으로 사격자문 또는 횡주어골문을 스치듯 긋어 무늬를 넣은 것이 대표적이다. 현재 유적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다) 제3지구

이 유적은 당말레산(해발 105m)의 동남사면 경작지 일명 가골에 해당한다. 즉, 시도와 신도 사이의 연도교를 지나 시도 동쪽에서 남향으로 200여 m 떨어진 구릉 사면의 경



|| 자료 || 제3지구(가골) 유적 모습

작지이며, 여기서는 약 300 여평의 면적에서 패각 부스러기와 빗살무늬토기, 삼국시대 토기편, 백자편이 산포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산에서 이어지는 첫 경작지부터 해변가에 이르기까지 길이 약 60~70m, 폭 50~60m이며, 해발 약 5~15m 사이에 해당된다. 이 유적의 동편은 신도 사이에 뱀이 형성되어 있다. 패각은 주로 굴껍질이다. 제3지구 I 패총은 현재 포도밭이다. 패총 깊이는 최대 70cm이며, 20 cm 두께의 검은 색 부식토 층의 패각이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패각은 해안선을 따라 길게 이어지며, 면적은 16×25m이다. 유물은 빗살무늬토기편과 무문토기편, 점열문토기편이 발견되었고, 고려시대 경질토기편과 자기편, 옹기편도 일부 확인된다.

2000년을 전후한 시기에도 지표채집을 통해 다수의 유물이 보고된 바 있으며, 3지구(가골)의 경우 필자를 비롯하여 지표조사를 실시했던 기관에서는 많은 유물이 채집되어 보고된³⁰⁾ 바 있어 추가 조사와 발굴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자료 || 제3지구 유적 출토유물(빗살무늬토기)

30) 김석훈, 「앞 글」, 1999, 13~16쪽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앞 책』, 2005, 122~126쪽.

2) 시도 수기 유적

이 유적은 시도 수기 조개더미(1지구)에서 남쪽으로 약 100m 떨어진 산 능선 아래 부분에 위치하며, 여기서는 갈돌과 갈판의 한 조가 출토되었다. 출토 경위는 이 산의 주인(시도리 거주)이 포도밭을 만들기 위해 중장비를 통한 지표정리 작업



|| 자료 || 시도 수기 유적

도중 출토되었다. 현재 유물 출토 지역 일대는 사질토양으로서 조개더미 보다 포함층 유적일 가능성이 크며, 밭 주변으로는 소나무가 자라고 있다. 이곳은 시도 수기 조개더미와 매우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이 유물은 현재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으며, 유물을 소개하면 ①갈판은 사암제로서 얇고 좁은 판석을 사용하였으며 현재 일부만 남아 있다. 양면은 사용에 의해 잘 갈려 있으며, 가장자리는 돌아가며 쪼아 형태를 만들었다. 현존 길이는 13.1cm, 너비 7.6cm, 두께 2.5cm이다. ②갈돌은 사암제로서, 타원형의 자갈돌을 사용하였으며 표면의 일부가 매끈하게 갈려 있다. 길이 8.7cm, 너비 6.0cm, 두께 3.5cm이다.³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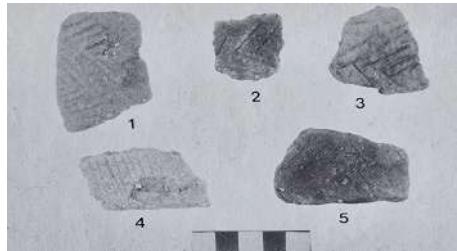


|| 자료 || 시도 수기유적 출토 유물(갈판, 갈돌)

31) 김석훈, 「앞 글」, 1999, 11쪽.(이 유물은 필자가 기증하여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 보관 중이다)

3) 시도 노루메기 유적³²⁾

이 유적은 시도 모도 연도교 부근이다. 이 유적은 해안도로와 제방을 축조하면서 상당 부분이 이미 유실된 상태이다. 해안도로 동쪽의 해안 단구상 상층부에 깊이 약 25cm, 넓이 약 30m의 패각 단면이 노출되어 있다. 패각의 주성분은 굴이며, 유물은 단면과 패각층 단애부 아래의 풀숲에서 발견되었다. 채집한 유물은 모두 빗살무늬토기이며, 주로 몸통 부분에 어골문을 넣었다. 바탕흙은 석립과 점토, 모래를 섞어서 만들었다.³³⁾



|| 자료 || 노루메기유적 출토유물(빗살무늬토기)

4) 살섬탑(矢島塔)

시도와 모도를 잇는 연육교의 시도 끝부분인 ‘노루메기’에 위치한 시멘트 콘크리트로 만든 탑이다. 탑이 위치한 곳은 높이 3m 안팎의 낮고 독립된 구릉으로서 도로가 중간을 관통하면서 산줄기 끝 부분이 자투리로 남게 되었다. 북쪽에 길을 끼고 동서로 배치된 구릉 서쪽에 살섬탑이 있고, 살섬탑 동쪽 40여m 지점에는 ‘시모도 연도교 준공비’가 있다. 탑은 이 섬에서 석축이 발견된 것을 기념하고, 발견된 석축을 보관하기 위해 세운 것으로 옛날 강화도에서 시도를 향해 활쏘기를 해서 섬 이름이 유래됐다는 것이다.

탑은 방형의 이형탑으로 길에서 시멘트 계단으로 올라간다. 탑은 북향하고 있으며, 위쪽은 네 귀퉁이를 뾰족하게 만들었다. 탑 가운데에 동판을 박아 일종의 탑기(塔記)를 적었고, 동판 위에는 탑신을 관통해 구멍을 뚫어 석축을 보관하였으며 앞뒤 구멍은 유리로 막아 보호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앞 유리와 화살촉 모두 사라진

32) 김석훈, 「앞 글」, 1999, 12~13쪽.

33) 김석훈, 「앞 글」, 1999, 12쪽.

상태이다. 동판에 기록된 탑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화도 마니산에서 본 도(島)를 목표 지점으로 활쏘기를 해서 살섬(矢島)으로 명명했다는 전설에 따라 그 유물을 찾던 중 본도 서북간 이(貳)마장 지점(수기)에서 당시 사용했던 화살촉을 발견(신석기시대 사용 하던 석촉) 이에 소장하고 그 탑을 세움 1973년 12월 25일 소장 복도지서 범조(凡調)”



|| 자료 || 살섬탑

유리장 속에 있는 석촉은 유경식(有莖式)이며, 단면은 마름모이다. 이 석촉을 채집했던 곳은 동판에 기록된 바와 같이 1970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발굴 조사한 시도폐총(제2지구)이며, 발굴조사 후 1973년 지표에 새롭게 드러난 유물을 채집한 것이다. 관련 내용을 좀 더 추가하면 “1973년 인천 중부경찰서 북도면 지서장으로 부임한 성낙주는 평소 고고학 분야에 관심이 있었고, 때마침 1970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발굴했던 북쪽 해안가 수기 일대의 시도폐총을 답

사하면서 화살촉을 채집했다. 이 사실에 대해 그는 보람 있으면서도 전설과 관련있는 ‘살 섬’ 역사의 상징이 될 만한 유물이라 여겨 오래도록 ‘시도’에 소장할 방법을 찾다가 ‘화살탑’을 세울 것을 결심했으니 ‘살섬 탑’ 이라 하고, 사람의 왕래가 잦은 노루메기 선착장 입구에 세웠다는 것”이다.³⁴⁾ 길이는 7cm, 너비 1.5cm이다. 이 석촉을 채집한 곳은 현재 시도 북쪽 해변인 수기 해수욕장으로 운영되는 시도폐총 제2지구 부근이며, 중앙박물관에서 발굴조사한 이후에 채집한 것이다.

시도의 유래가 전설로서 과장된 면이 있다고 하지만 이 화살촉과 시도의 지명과는 어떤 관련성도 없다. 지역에 관심이 많았던 공직자의 발로였다고 생각되며, 수기 해수욕장의 시도폐총은 1970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발굴한 신석기 유적으로서

34) 인천문화원, 『제3집 향토사료조사보고서(옹진군일원)』, 1999, 169~171쪽.

전설과 유물의 시간 차는 물론 화살촉도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6) 이호승 공적기념비(愛國志士李浩承先生功績紀念碑)

이호승(1878~1939)의 본적 및 주소는 북도면 신도리 295이며,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일원으로 독립운동을 했으며, 기록은 각종 일간지를 통해 사건이 크게 보도됐다. 동아일보(1923.5.20.)의 제목은 ‘인천을 중심으로 한 중대 사건의 진상’ 이란 제목하에 주요 사건으로 취급하여 다루고 있다.³⁵⁾

비문에 기록된 이호승의 업적은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 초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특히, 상해에서 군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1922년 4월경, 국내로 들어와 있던 대한민국임시정부원 윤응년(尹應念)³⁶⁾을 만나 이듬해 초부터 함께 행동을 하였다.



|| 자료 || 이호승 공적기념비

이호승 선생은 1922년 1월 26일 오후 9시경 상해 임시정부원 윤응년과 윤도중(尹度重) 선생과 함께 세 사람은 권총과 회중전등(懷中電燈)을 소지하고 경기도 부천군 계남면 벌옹절리(伐應節里)에 사는 부평지역 최고 자산가 박주순(朴周淳)의 집에 가서 군자금을 요청하였으나 주인이 없었고, 박종현(朴鍾賢)·김하열(金夏烈) 등도 군자금을 요구하였으나 이들 또한 가난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다. 1923년 3월, 임시정부원 윤응년과 이호승 선생을 비롯한 독립단원 동지들은 상해 임시정부 교통총장 손정도(孫貞道) 명령으로

35) 관련 신문 기사는 다음과 같다.(『동아일보』 1923. 5. 20. ; 5. 30. ; 6. 22. ; 7. 18. ; 7. 29. ; 8. 21. ; 9. 27. ; 9. 28. : 1925. 5. 17.)

36) 윤응년은 1920년 10월 5일 대한민국임시정부 교통부 참사로 임하였다.(대한민국임시정부 공보 제19호(1921.3.10.))

인천 근해의 섬인 영종도, 대부도, 장봉도, 시도, 신불도 등을 중심으로 독립자금 모금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일부 모금한 현금 561원과 출금 계약 5천여 원의 증서만 받았다. 3월 28일에 이호승 선생은 독립단원 동지 7명과 함께 경기도 부천군 대부면 북일리에 사는 김규환(金奎煥)에게 군자금 360원과 대부면장 김종원(金鍾元)으로부터 120원을 모금하고, 또한 김달원(金達元)으로부터 3,000원의 출금 계약 증서를 받았으며, 특히 일부 모금한 돈으로 윤웅년은 상해와의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350원으로 배 한 척을 구입하였다. 상해 임시정부 지원을 위해 독립자금 모금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다가 1923년 5월 초 이호승을 포함한 독립단원 동지 9명은 경기도 경찰부에 체포되었다.

이호승은 비밀 조직원 군자금 모금과 관련하여 1923년 7월 31일 경성지방법원 ‘예심판결’과 동년 9월 25일 ‘결심판결’에서 ‘강도죄’로 징역 5년형 선고를 확정받고 복역하던 중 1924년 1월 26일 칙령 제10호에 의거 징역 3년 9월로 감형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석방된 후 1939년 7월 20일 경기도 부천군 북도면 신도3리 자택에서 향년 61세를 일기로 생을 마쳤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지난 2006년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2023년, 올해는 이호승 사건이 알려진 100주년이 되는 해이며, 당시 활동을 함께했던 북도면과 연관있는 윤도중(선원), 최수연(선원), 송중식(교사)의 업적도 함께 기려야 할 것이다. 기념비는 2014년 1월 14일 신도에서 시도로 들어가면서 좌측의 소공원에 건립하였다.

7) 너와집

위치는 북도면 시도로 61번길 81(시도리 321-1)에 있으며, 정면 4칸, 측면 4칸의 너와집이다. 자연석 기단에 평면 형태는 ‘ㄷ’ 자형이다. 본체는 1940년대, 바깥채는 1960년대로 추정되며, 지붕은 돌을 얇게 켜 너와로 사용했다. 일반적으로 너와집은 용마루, 내림마루를 설치하지 않으나 본 가옥의 마루기와는 한식 기와를 사용했

다. 지붕 형태는 팔작지붕이며, 일부 무너진 곳을 제외하면 너와의 상태는 양호하다.

시도 일대에서는 거의 지붕 재료로 너와를 사용하는 사례가 없으며, 근대 한옥 재료의 다양성을 볼 수 있는 중요한 건물로 보인다.³⁷⁾

8) 시도 목장

정확한 설치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임진왜란이 진행 중이던 선조 31년(1598)에 왜군의 침입으로 남해안 목장으로부터 전마의 조달이 어렵게 되자 거을도(居乙島)를 비롯한 경기, 황해, 평안, 함경도 소재 목장에서 전마 조달을 논의한 사실로 미루어 늦어도 1598년에는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서 시도 목장은 강화 초지진의 관할 아래 들어갔다. 처음에 마목장으로 시작된 시도 목장은 1872년경에는 양을 사육하는 양목장으로 바뀌었다. 시도에는 토전은 전혀 없었고 모든 토지는 사복시에 둔전의 형태로 소속되어 있었다. 『續修增補 江都誌』 (1932)에는 양목장을 두었으나 혁파된지 오래됐다는 점으로 보아 시도 목장도 1896년경에 폐장된 것으로 보인다. 목장의 위치는 정확히 알 수 없다.³⁸⁾

시도 목장은 신도, 장봉도에 비해 규모나 중요도는 미치지 못하며, 조선 후기에 간행된 읍지류에 간단히 언급될 정도이다.

다. 모도

1) 모도 조개더미(貝塚)

보고서에 의하면³⁹⁾ 모도의 남서 해안가에 있는 패총으로 산 정상

37) 문화재청, 『제2차년도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2022, 275~276쪽.

38) 『江華府志』, 卷上, 牧場 : 『江都府誌』 : 『續修增補 江都誌』, 島嶼

39) 국립문화재연구소, 『앞 책』, 2000, 592쪽.

부에 있는 송전탑에서 시작되어 바다까지 이어지는 작은 골짜기의 아래쪽이다. 유적 좌우로는 해식애가 길게 이어지나 이곳만은 좁은 만을 이루고 있고 모래 해안도 끼고 있다. 패총은 북서 남동 방향 사면 중턱의 민묘 2기가 있는 지역 일대이다. 민묘를 만들면서 지표 아래 덮여 있던 패각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패총의 대략적인 범위는 10×5m로서 소규모이며,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패각은 주로 굴껍질로서 순패각층은 보이지 않고 검은 부식토와 뒤섞여 혼토패총으로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모도 주민들이 중언하고 있다.

2) 이건창 영세불망비

이건창(李建昌)은 조선시대 말기 강화도 출신으로 1852년(철종3)에 태어나 1898(고종35)에 사망했다. 문신이며, 대문장가로 본관은 전주, 호는 영재(寧齋), 이조판서 이시원(是遠)의 손자, 증 이조참판 상학(象學)의 3남 중 장남으로 강화 사기리에서 태어났다. 할아버지로부터 가학(家學)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5세에 문장을 구사할 만큼 재주가 뛰어나 신동이라는 말을 들었다. 용모가 청수(淸秀)하였으며, 천성이 강직하여 부정, 불의를 보면 친척이나 친구,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처단하였다.

이건창의 암행 활동은 충남, 경기도 일대 두 차례에 있게 되는데, 1877년(고종14) 가을 충청도 암행어사로 나갔다가 1878년(고종 15) 여름에 돌아왔다.⁴⁰⁾ 암행어사 때의 일로 누명을 쓰고 평안도 벽동으로 유배되었다가 1879년(고종16) 봄에 사면되어 돌아왔다. 1882년(고종19) 가을 통정대부에 올랐으며, 경기도의 암행 활동은 1882년 가을에 나갔다가 1883년 여름에 돌아왔다. 그는 경기도 암행어사가 되어 민정을 살피다가 이곳 모도에 들러 당시 도민들의 어려운 생활을 보고 돌아가 섬에 부과된 조세와 부역 등을 면제해 주었다. 이때의 고마움을 보답하는 의미에서 이 비석을 세웠다. 비신은 모서리가 각진 규형으로서 앞면에 세로로 暗行御史李公建昌

40) 이은영, 「寧齋 李建昌의生涯와 文學-고향 江華를 中心으로-」, 『陽明學』 67, 한국양명학회, 2022, 61쪽 ; 국립문화재연구소, 『앞 책』, 2000, 591~592쪽.

永世不忘碑 ‘라고 새기고, 글 좌우에 4자 4행(右. 持斧剛直 鷦滅重役, 左. 惠及島濱 賴以永新)으로 이건창의 성격과 공적, 주민에게 끼친 영향을 적고 있다. 뒷면에 보이는 건립연대(乙酉六月 日)로 보아 1885년 세운 것이다. 크기는 비신이 높이 130cm, 너비 37(아래) · 41(위)cm. 두께 20cm이다.



|| 자료 || 이건창 영세불망비

비석의 위치는 처음 마을과 모도초등학교 사이에 있는 상여집 부근에 있다가 사람의 왕래가 많은 연도교 입구의 산기슭 아래로 옮겼다. 그러나 2002년경 산사태로 인해 비석이 부러져 시멘트로 불였고, 현재는 소공원인 모도쉼터를 조성하면서 마을 앞으로 옮겼다. 당초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에 두면서 모도 주민에게 귀감으로 삼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3) 모도 당제⁴¹⁾

이미 조선시대부터 당제사를 지내왔으며, 모도 교회 뒤쪽의 야산에 제사터가 있지만 서낭당은 사라졌다. 제사는 정월 초에 택일하여 지냈으며, 돼지와 떡을 제물로 올리고 풍물굿을 지냈다. 당제가 끝나면 바로 맷고사를 지냈다. 당집안에는 임경업 장군을 포함하여 4명의 신상이 걸려 있었으며, 임경업 장군은 말을 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 약 50년 전에 당제는 사라졌다.

4) 모도 목장

기록이 적어 자세히 알 수 없으나 『大東地志』(1866)에는 혁파된 폐목장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19세기 이전에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편찬된 『江華府志』(1872)에 의하면 모도에

41)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앞 책』, 2017, 203쪽.

양목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로 미루어보면 『大東地志』가 편찬되던 19세기 중엽에 일시 혁파되었다가 다시 복구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續修增補 江都誌』 (1932)에는 양목장을 두었으나 혁파된지 오래됐다는 점으로 보아 양목장으로 운영되다가 1896년경에 폐장된 것으로 보인다. 모도에는 토전이 2결 43부 9속이 있었으며 기타 토지가 사복시에 소속되었는지 그리고 모도 목장이 언제까지 존속했는지 알 수 없다.

모도 목장은 시도 목장과 같이 조선 후기에 간행된 읍지류에 간단히 언급될 정도이며, 19세기에는 양(羊)을 기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목장의 위치는 정확히 알수 없다.⁴²⁾

라. 장봉도

1) 형옥터(刑獄址)⁴³⁾

조선시대 때 감옥이 있었다고 전하는 곳으로 ‘옥당머리’라고 부른다. 장봉리 사지와 인접한 공동묘지의 맞은편 지역으로서 남북 산줄기가 끝나는 곳에 펼쳐진 평평한 지역이다. 이곳을 끼고 농업 용 도로가 지나가며 주위는 현재 논과 포도밭으로 경작하고 있다. 조시 당시 감옥이라고 할만한 유구나 유물은 발견되지 않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⁴⁴⁾

2) 천제단(天祭壇)

장봉도는 전쟁을 대비해 임금의 임시 거처가 있었다고 하며, 이곳에 머물던 임금이 하늘에 제사를 지낸 곳이라 전하고 있다. 장봉도에서 가장 높은 국사봉(國師峰, 149.8m) 정상에 있는 석축 시

42) 『江都府誌』 : 『續修增補 江都誌』, 島嶼

43)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앞 책』, 2017, 223쪽.

44) 국립문화재연구소, 『앞 책』, 2000, 596쪽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앞 책』, 2005, 153~154쪽.

설이다.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⁴⁵⁾ 이곳에는 1996년 세운 높이 73cm의 나무로 된 표석 주위가 천제단이다. 천제단의 시설로 장방형 석열(石列)이 드러났는데, 석열은 장축이 북동-남서 방향이며, 네 귀퉁이에는 큰 돌을 놓고 네 변에는 이보다 작은 돌을 사용했다. 석축은 대부분 무너지고 한 단 석열만 남아 있으며 석열도 군데군데 유실되었다.

석열 남서쪽 모서리에서 백자 접시와 기와편이 발견되었다. 기와편은 박리된 것도 있으나 능형 집선문, 무문 등이 시문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안쪽에 포목흔이 뚜렷한 것도 있다. 석재에는 치석흔이 보이지 않고 막돌을 이용해 쌓았다. 석열 둘레는 주위보다 높아 석축을 쌓기 전에 흙으로 돋우어 대지를 조성한 것을 알 수 있다. 네 귀에 놓은 큰 돌은 주초석으로 보인다 주위에서 기와편이 발견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간단한 구조의 소규모 건물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3) 장봉진터(長峰鎮址)

장봉도에 설치되었던 장봉진의 진정사(鎮廳舍)가 있었던 곳으로서 지금도 장봉3리를 ‘진촌(鎮村)’이라고 부르고 있다. 장봉진이 설치되는 것은 조선 후기로서 장봉도가 군사지역으로 중요성이 인식되지만 조선 전기에는 수군진 보다 제사처 혹은 목장으로 주목받았다. 특히 조선 전기 장봉도 목장은 호마(胡馬) 생산지로 탁월했다.

조선 후기가 되어 서해에 황당선(荒唐船)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서해 방비가 주목되었다. 본래 강화도 서쪽에서 발생하는 변란에 대해 정포진과 월곶진에서 1차 대응하게 되어 있었지만 조수(潮水)의 영향으로 전선(戰船)이 망가져 제때 출격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 때문에 장봉도는 자연도(영종도)와 함께 서해 방어의 요충지로 부상하게 되었다. 1683년(숙종9)에는 강화도 인근 지역 중에서 진보 설치가 필요한 곳으로 장봉도와 자연도, 주문도, 매음도, 보음도 등이 추천되는데, 최종적으로 장봉도, 자연도, 주

45) 국립문화재연구소, 『앞 책』, 2000, 594~595쪽

문도가 수군진 설치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이후 장봉진은 교동에 소속되어 수군만호가 배치되는 만호진이 되었다. 장봉진이 설치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708년(숙종34)을 전후한 시기에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장봉만호는 교동(喬洞)에서 직접 관할하는 진으로서 수군첨절제사가 파견된 덕적진이나 주문진과는 달리 주된 업무가 목장 관리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⁴⁶⁾



|| 자료 || 장봉진 추정지
출처 『조선시대 수군진조사-경기지역』

한편, 수군진 설치를 위해 일정 이상의 거주민을 확보해야만 했다. 이를 위해 인근 무의도, 용유도, 덕적도의 백성을 장봉진에 소속시켜 부족한 거주민 문제를 해결한 결과 1871년 장봉진에는 본진 수군 62명, 다른 지역 수군 470명과 크고 작은 전선 7척이 배치되었다.⁴⁷⁾ 일부나마 장봉진장으로 부임했던 명단은 다음 표와 같다.⁴⁸⁾

이후 1895년(고종32) 각도 진보에 대한 폐지건이 반포됨에 따라 폐진되었다.

46)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조선시대 수군진 조사V 경기지역편』, 2022, 112-123쪽.

47) 『경기읍지』, 권 1, 「장봉진지」

48) 옹진군향리지편찬위원회, 『앞 책』, 1996, 151쪽.

|| 표 || 장봉진장 일부 명단

이름	부임시기	관직	비고
김학흥(金學興)	1859(철종10)	만호(萬戶)	
김승현(金承鉉)	1861(철종12)	절제사(節制使)	
김승현(金承鉉)	1862(철종13)	만호(萬戶)	
이한영(李漢永)	1863(철종14)	"	
윤창업(尹昌業)	1863(철종14, 6월)	"	
강진룡(姜辰龍)	1866(고종3, 8월)	"	
이방선(李邦善)	1866(고종3, 10월)	"	
김재국(金在國)	1869(고종6, 12월)	"	
나원식(羅元植)	1875(고종12, 10월)	"	
장도환(張道煥)	1875(고종12, 12월)	"	
김종철(金鍾哲)	1876(고종13, 12월)	"	
김완식(金完植)	1877(고종14, 6월)	"	
김영식(金泳植)	1878(고종15)	대장(代將)	
김재완(金載完)	1878(고종15, 6월)	별장(別將)	
김영식(金泳植)	1880(고종17, 12월)	"	
김주현(金柱顯)	1881(고종18, 12월)	"	
장형준(張亨浚)	1883(고종20, 12월)	"	
장경술(張庚述)	1884(고종21, 12월)	"	

4) 봉수대⁴⁹⁾

유적은 일찍부터 봉수산, 봉화산, 봉수재(해발 139.7m) 등으로 불리던 산 정상에 위치한다. 장봉도의 지리적·전략적 위치는 매우 주요했으며, 자료에 의하면 “장봉도와 자연도(영종도)가 바다 양쪽

49) 김주홍, 『기전 지역의 봉수』, 2021, 경기문화재단, 293~305쪽.

에 위치하고 있어 남쪽 뱃길의 목구멍(咽喉)과 같은 곳”이라거나, “강화 소속의 섬이 많은데 그 가운데 장봉도와 자연도는 해구(海口)에서 아주 보며, 우뚝 솟아 교통의 요지가 되니 …(중략)… 지키면서 망을 볼



|| 자료 || 봉화대 모습(복원)

수 있는 곳을 얻게 되어 방어하는 데에 힘이 될 것 입니다”라고하거나 “장봉도와 주문도(注文島) 두 섬은 서남쪽 바다 가운데 있는데 …(중략)… 만약 이들이 외양(外洋)을 경유하려고 한다면 모두 장봉도와 주문도의 사이를 빠져나와야 한다. 이와 같이 이 두 섬은 요충이 되는 곳이다.”라고 하여 장봉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전망이 트여 주변 해역을 관망하기에 매우 좋은 조건이다.

설치 시기는 17세기 후반부터 의논이 있었다. 1684년(숙종10)에 좌참찬 윤지완은 “장봉과 위문 두 섬은 …(중략)… 차라리 봉수를 설치하여 변경을 알리는 장소로 삼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라거나 1685년(숙종11)에 강화유수 윤계(尹培)가 아뢴 내용에 “장봉도와 주문도 두 섬은 바로 강도의 울타리이니 진보(鎮堡)를 설치해야 합니다. …(중략)… 전날 등대하였을 때 연대(烟臺)를 설치하여 장교를 파견하고 ‘별장(別將)’이라 호칭하여 후망(候望)을 맡기기로 탑전에서 결정한 뒤에 연대를 설치하고 별장을 파견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을 통해 윤계가 강화유수 재임 시절 설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부터 340년 전에 설립된 것이다.

봉수 노선은 조선 후기 자료에 나타나는데, 그중 『증보문헌비고』(1908)에 우리나라는 모두 5개 노선의 직봉에 모두 23개의 간봉 노선이 설치되었다. 이중 장봉도 봉수는 직봉 혹은 간봉 노선이 아닌 연변봉수(沿邊烽燧)로서 직봉 제5거(炬)에 전달하기 위한 첫 번째 봉수였으며, 대웅 봉수는 서북쪽에 위치한 강화군 서도면의 볼음도 봉수였다.

현재 봉수대의 상태는 방형의 대(臺)를 마련 후 연조 형태로 1기를 복원하여 놓았다. 대는 직경이 동서 3.2m, 남북 3.6m이다. 연조

는 화강암 할석을 시멘트로 접착하여 내부가 빈 형태로 복원하였다. 규모는 직경이 1.4m, 높이 2m 가량이다. 화구는 북쪽 지표면에 1개소를 마련하였는데 0.6×0.4 m의 규모이다,

6) 장흥학교터(영흥학교터)

『옹진군향리지』에 장흥학교에 관한 언급이 있다. 1910년(명치 43)에 장흥학교에서 발행한 진급증서가 있으며, 교감 정두용(鄭斗鎔), 학감 박승창(朴承昌), 강사 최복영(崔福榮), 서병선(徐丙膳)의 날인란이 있으며, 경기도 강화군 제도면 장봉도 장흥학교장 정수용(인)"이라 기록하고 있다. 이 학교는 산 162번지 안산 중턱에 있었으며, 일찍이 장봉도에 학교가 건립된 것은 장봉진 설치와 함께 유입된 사람들의 교육열, 사재를 들여 배움을 베푼 조용교·이정훈의 영향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장흥학교의 폐교 시기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학교장이었던 정수용이 1921년 장봉도 1162번지에 5년 제의 영흥학교를 다시 설립하고, 3회에 거쳐 졸업생을 배출했다고 전한다. 영흥학교의 규모는 221평 대지에 20평의 학교 건물을 지었다고 하며,⁵⁰⁾ 1935년 북도공립보통학교가 세워지면서 폐교되었다.



|| 자료 || 영흥학교 교원 및 학생 기념촬영
출처 『장봉도 이야기』



|| 자료 || 영흥학교 추정지
(장봉리 1162번지)

50) 옹진군향리지편찬위원회, 『앞 책』, 1996, 171쪽.

7) 조용교·이정훈 구황시혜불망비



||자료|| 조용교, 이정훈 영세불망비

북도면 장봉출장소 마당에 있는 비석으로 1901년(辛丑年) 대흉작 때 굶주림에 처한 장봉 주민들을 구제한 참봉(參奉) 조용교(趙鏞敎)와 진사(進士) 이정훈(李鼎薰)의 은덕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석이다. 비석의 앞면에는 세로 두 줄로 ‘前參奉 趙公鏞敎 救荒施惠不忘碑, 進士 李公鼎薰 救荒施惠不忘碑’의 문구를 새기고, 가장자리 여백에 작은 글씨로 ‘惟公德望 一島頌清 積而能救 類以得生, 高尚其志 俗人難從 憂樂相同 亞訓助農’이라 밝혀 두 분의 업적을 언급하고 있으며, 뒷면에는 光武 六年 三月 日立’이라 새겨 1902년 3월에 설립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용교는 1884년(고종21), 이정훈은 1894년(고종31)이 섬에 들어왔는데, 1884년은 갑신정변(1884), 1894년은 동학 농민 운동, 청일전쟁, 갑오개혁이 있던 때로 국내외적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던 시기에 이 섬으로 들어왔다.

또한 두 분은 참봉, 진사의 지위로 보아 지방 향촌 사회를 이끌어 가며, 서당 운영을 통해 장봉도민을 교육했으며, 1901년 신축 대흉년에는 사재를 들여 장봉 주민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었던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비석 상단에 새긴 지름 15cm 크기의 태극무늬인데, 이 무늬는 조선 사회의 주된 이념이었던 성리학의 원리를 도식화하여 태극 문양을 새긴 것으로 보인다.⁵¹⁾ 비석에 태극 문양을 사용하는 사례는 거의 볼 수 없어 도서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보인다.⁵²⁾

51) 비석의 태극무늬 해석은 목수현 교수(근현대미술연구소)가 도와주셨다.

52) 『인천일보』, 2024. 4. 3.

8) 장봉목장 마성(馬城)

장봉도는 신도, 신도, 모도와 같이 국영목장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이곳 마성은 말이 목장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설치한 일종의 석축 담장이다.

장봉도 목장은 ‘둘레가 40리, 폭이 5리’라고 밝히고 있어 대략적인 규모를 알 수 있

다. 한편, 인근 섬인 신도와의 비교도 가능한데, 신도 목장은 둘레가 30리였기 때문에 장봉도 목장이 신도 목장보다 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장봉도 목장을 기록하는데, ‘폭이 5리’ 임을 추가로 기록하고 있어 목장의 생김새는 ‘폭이 좁고 길이가 긴’ 특이한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⁵³⁾ 이 당시 기르던 동물은 무엇일까? 처음 사육하던 동물은 소(牛)로서 우목장이었다는 점이 특이한데, 기간은 그다지 길지 않았던 것 같다.

한편, 1456년(세조2)에 장봉도에 기르는 말을 훈련하여 길들이고, 말을 선별하여 양질의 말을 증식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보아 15세기 중엽에는 소가 아닌 말을 기르고 있어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⁵⁴⁾ 이어서 1457(세조3)에도 호마(胡馬)를 방목하여 번식시키며, 어린 말(兒馬)과 수말(雄馬)이 46필이 있다는 기록에서 장봉도 말 목장의 사육 정도를 파악할 수 있겠다.⁵⁵⁾

이후 1598년(선조31), 임진왜란이 끝난 후 향후 전쟁 재발을 염려하여 말 수급을 염려하고, 유사시 말을 차출하는 대상지로서 언급된다.⁵⁶⁾

1664년(현종5)에는 강화 진강 목장에서 골라낸 잡종 말을 이곳으



|| 자료 || 말문고개(장봉도)

53) 『世宗實錄』 권 148, 지리지, 경기 부평도호부, 강화도호부.

54) 『世祖實錄』 권 5, 세조 2년 12월 23일 무오.

55) 『世祖實錄』 권 9, 세조 3년 9월 7일 무진.

56) 『宣祖實錄』 권 98, 선조 31년 3월 24일 기유.

로 옮겨 방목하였다는 기록에서⁵⁷⁾ 목장의 기능이 이어지지만 1683년(숙종9)에는 목장이 잠시 혁파되었고, 이어서 1708년(숙종34)에는 강화도 길상, 북일 두 목장의 말 380여 필을 장봉도, 신도의 목장으로 나누어 보내자는 것으로 보아 장봉도에서 목장의 기능이 조선 후기에도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장봉도 목장은 강화도 본섬 및 부속 도서에서 가장 오랫 동안 존속됐었던 것으로 보이며, 갑오 개혁 이후 혁파된 것으로 보인다. 장봉도는 일찍부터 토지가 비옥한 곳으로 알려져 있어 농경지로 삼자는 논의도 있었지만 개인이 소유 경작하는 민전(民田)은 없었고 모든 토지는 사복시(司僕寺)에 소속되어 있었다.

주민들의 전언에 따르면 마장은 현재 선착장이 있는 섬 동쪽 끝에서 ‘말문고개’ 까지(장봉1리, 옹암 일대)였는데, ‘말문고개’는 사람을 위한 출입 시설을 따라 설치하였던 곳이라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마



|| 자료 || 마성(장봉도)

성도 마장의 외곽을 따라 설치되어 있는데, 남쪽 해안에서 시작하여 국사봉 동쪽 산허리를 따로 북쪽 해안인 장봉1리까지 이어진다.

마성의 축조는 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막돌과 할석을 섞어 쌓은 것으로서 마장 안쪽인 동쪽 면을 면 맞추어 쌓고 반대쪽은 석축 높이까지 흙을 채웠다. 현재 최고 2~3단까지 남아 있으며 높이는 1m 안팎이다. 석축은 산 중턱을 따라 시설된 관계로 대부분 무너졌으나 도로가 개설된 곳과 장봉1리 주거지역을 제외하고는 인위적인 훼손은 없는 편이다.⁵⁸⁾

57) 『顯宗實錄』 권 8, 현종 5년 3월 27일 기축.

58) 조사 및 연구자료는 다음과 같다(국립문화재연구소, 『앞 책』, 2000, 593쪽 : 인천시립박물관, 『앞 책』, 2005, 147~150쪽, 이희인, 「장봉도에 말문고개라는 지명이 있는 까닭」, 『장봉도』, 2017, 민속원, 63~77쪽),

9) 절터

장봉리에서 확인한 유일한 절터이다. 장봉2리에서 3리로 연결되는 도로의 북쪽 계곡 사면에 위치한다. 골짜기를 끼고 있는 산 사면에는 동서로 공동묘지를 조성하였으며. 절터는 공동묘지의 동쪽 끝이다. 절터는 묘역과 일부 맞물려 있으며, 묘역을 조성하고 논을 만들면서 대부분 훼손되었다. 주위는 소나무와 가시덩굴 등의 잡목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어 출입이 어렵다. 이곳을 마을에서 ‘절터골’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조사 결과 사찰과 관련한 어떤 유물이나 유구 흔적도 찾을 수 없다.⁵⁹⁾



|| 자료 || 절터 추정지

역과 일부 맞물려 있으며, 묘역을 조성하고 논을 만들면서 대부분 훼손되었다. 주위는 소나무와 가시덩굴 등의 잡목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어 출입이 어렵다. 이곳을 마을에서 ‘절터골’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조사 결과 사찰과 관련한 어떤 유물이나 유구 흔적도 찾을 수 없다.⁵⁹⁾

10) ○○○ 영세불망비⁶⁰⁾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장봉3리 ‘진촌마을’ ‘에서 대빈창으로 연결되는 도로 중 ‘대빈창 쪽 해안도로 길가에 넘어진 채로 발견되었다. 비석은 지난 1999년 실시한 도로 포장 공사 때 흙 속에서 발견된 것으로서 공사가 끝난 후 마땅한 자리를 찾지 못한 채 이곳에 방치한 상태이다.

비석 형태는 비갓이 없는 규형으로서 대좌에 꽂힌 흔적은 있으나 대좌는 찾지 못했다. 비석 전면에 개劂흙이 묻어 있고, 부분적으로는 시멘트도 엉겨 굳어 있다. 전면에는 세로로 비문을 적었으나 마모로 인해 판독이 불가능하고 다만 ‘永世不忘’이라는 네 글자가 확인된다. 비석의 크기는 높이 123cm. 너비 44(위) · 41(아래)cm ‘두께 20cm’이다. 현재

59) 국립문화재연구소, 『앞 책』, 2000, 595쪽 : 인천시립박물관, 『앞 책』, 2005, 154~155쪽,

60) 국립문화재연구소, 『앞 책』, 2000, 596~597쪽.

이 비석은 대빈창 해변의 수문 공사 때 다시 매몰되었다고 한다.⁶¹⁾

이외에도 진촌에서 대빈창으로 넘어오는 비석거리에도 과거에는 2~3개의 비석이 민가 앞에 만호 겸 감목관의 선정비가 세워져 있었다고 하며, 그 중 하나가 아래에 위치한 김영근 씨 소유 밭에 있었다고 하나 모두 찾을 수 없다.



|| 자료 || 000영세불망비(대빈창)

출처 『군사보호구역 지표조사보고서』

11) 옹암 선사유적

필자가 2000년대 초반에 옹암 해수욕장에서 발화석(發火石)으로 추정되는 석기와 경작지로 이용되는 모래밭(토속 점 팬션 일대)에서 빗살무늬토기를 수 점 채집하였다. 이 유적은 처음 보고되는 유적이다.



|| 자료 || 옹암 신석기유적

12) 서창식(徐昌植) 교육 송덕비

서창식은 1935년 북도공립보통학교를 설립한 인물로서 학교 건립 목적을 위해 송덕비 전문을 제재하며, 생몰 연대는 미상이다. 비문의 내용을 다음과 같다.

“공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민족정신 통일은 교육에 있다하시고 설립인가를 맡기 위하여 관계 당국에 수십 여차나 절충하셔서 설립인가를 얻어 교사건축과 부속시설을 완비하시기에 당국에서 약간의 보조는 있었으나 그간 가업을 불고하시고 다액의 사재를 희사하신

61) 김준태 이장(장봉3리 거주)이 증언하였다.



|| 자료 || 서창식 교육송덕비

고로 자연 가산을 탕진하였으나 태연히 후진 교육만을 유일의 낙으로 삼으시다가 향년 84세에 작고하시다.

공은 강화에서 생장하신 기독교 신자로서 기미독립운동 당시 적극 활동하시다가 일제의 탄압을 피하여 본도에 오셔서 성사치 못함을 한탄하시며 뒤로 민족정신 통일을 위하여 활동하심이 실로 이 때문이시니라. 단기 4291(1958)년 6월 21일. 장봉초등학교 1,2회 졸업생 일동”

이 학교를 졸업한 1, 2회 졸업생이 20여 년이 지난 1958년 설립자의 뜻을 기리는 송덕비를 학교 교정에 세웠으며, 제막식 행사는 1958년 7월 5일 거행됐다.

13) 최석영(崔錫永) 교육 기념비

장봉도 출신 교사로서 1945년 12월 15일 장봉초등학교에서 교직을 시작해서 퇴임에 이르기까지 외길 인생의 최석영 선생님(1924~2009)을 소개한다. 그는 1945년부터 퇴직에 이르는 교직 생활 중 40여 년 동안 장봉도 지역 사회와 아동에

게 남다른 애착을 갖고 교직 생활을 하신 분으로 인재 육성을 통한 장봉도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 또한 청빈한 삶으로 지역 주민 사이에 알려져 있다. 학교 교정에는 1989년 8월 31일 퇴직에 즈음하여 제자(장봉초 33회 졸업생)들이 그의 교육 기념비를 세웠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료 || 최석영 교육기념비

[“정직하라” , 이 말씀은 42개 성상 교육 생활 중 37년을 고향의 교육에 헌신하신 선생께서 교단에서 하시던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제 비록 선생께서 교육일선에서 떠나시더라도 이 교정에서는 사람은 누구나 그 은공을 기리고 말씀을 되새겨 삶의 지표가 되게 하고자 이 기념비를 건립하여 드립니다.”] 현재 장봉2리에는 그의 생가가 현존하고 있다. 그리고 최석영 선생님의 약력은 표와 같다.

|| 표 || 최석영 선생님 약력

연 월 일	내 용
1945.12.15.	촉탁교원(현, 기간제교사)으로 부임(1년 3개월)
1947.03.20.	촉탁교원 퇴직
1949.12.06.	준교사로 부임(11개월)
1950.11.08.	영흥초교로 전출
1951.07.06.	장봉초교 전입(18년 9개월)
1970.03.01.	인천시 서곶초교 전출
1971.03.01.	장봉초교 전입(6년)
1977.03.01.	교감 승진, 양주 봉암초교 전출(3년)
1980.03.01.	장봉초교 전입(9년 6개월)
1989.08.31.	정년퇴직

마. 북도면 문화유산의 특징

북도면의 대표적 문화유산은 국가지정문화재인 옹진 신도(薪島)의 노랑부리백로와 팽이갈매기 번식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1988. 08. 23.)된 것이 유일하다. 지금까지 언급했던 문화유산 가운데 유형문화재를 중심으로 분류해 보면 표와 같다.

|| 표 || 북도면의 유형별 문화유산 통계표

구분 섬	지정 문화재 천연 기념물	비지정문화재											계
		선사	고인돌	암각화	마장	비석	탑	천제단	가옥	봉수	염전	진터	
신도		3	1	1	1	1							7
시도		5			1	1	1		1		1		10
모도		1			1	1							3
장봉도	1	1			1	3		1		1		1	10
계	1	10	1	1	4	6	1	1	1	1	1	1	30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도면에서 확인되는 문화 유산은 대부분 비지정문화재로서 크게 2가지 특징이 있다. ①조개더미(貝塚)와 같은 선사유적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 ②목장이 섬마다 존재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시도 수기의 시도패총과 장봉도의 말문고개는 두 가지 특징을 알려주는 상징적 유적으로서 지역 주민에게 잘 알려져 있는 곳이다. 북도면을 이해하기 위해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살펴 보겠다.

1) 북도면에는 조개더미(貝塚)가 왜 많을까?⁶²⁾

가) 기수역의 경기만, 어패류가 자라는 최적의 해양 환경

북도면에 선사유적이 많은 이유는 갯벌, 염분농도, 수온 등 해양 환경이 다양한 어패류가 풍부하게 자랄 수 있는 자연환경을 조성하였고, 인류는 식량자원을 얻기 위해 도서 지역을 찾아 조개더미(패총) 흔적을 남겼다.

(1) 유적의 위치 : 해양 환경과 선사유적은 밀접한데, 북도면의 선

62) 김석훈, 「황해 중부 섬 지역의 자연환경과 신석기 유적」, 『호서고고학』 6·7집, 호서고고학회, 47~75쪽

사유적은 주로 해발 10m 이내 낮은 해안 지형에 있으며, 간조 시는 넓은 갯벌이 펼쳐진다.

특히, 갯벌은 저서 돌말류의 광합성 작용에 의한 유기물 생산이 미세생물의 번식을 가져오고, 갯벌의 동물이 사는 기본 에너지원이 되어 어패류가 잘 자라는 환경을 받쳐 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갯벌의 조개류는 해변가 혹은 낮은 산기슭에서 처리되었고, 패류는 유물과 함께 폐기돼 조개더미가 됐다.

(2) 염분 농도 : 패총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굴은 어떤 조건에서 생장할까? 수온과 염분농도, 수심이 바다생물의 서식 활동에 큰 영향을 주는데, 이중 굴은 염분농도가 18~28%에서 잘 자라 경기만의 12~32%은 굴 생장에 최적의 조건이었다. 따라서 강화도 및 북도면 섬, 그리고 영종도 부근에 위치한 섬은 한강의 민물과 섞이는 기수역(汽水域) 이어서 민물과 바다에 생장하는 다양한 종의 어패류가 살 수 있는 최적지였기 때문이다. 또한 기수역은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는 공간으로 인류는 모여들었고, 그들의 흔적은 유적으로 남게 된 것이다.

나) 섬으로 가는 이동 수단, 통나무배(丸木舟)·조류(潮流)

(1) 통나무배 : 선사인은 어떻게 바다를 건넜을까? 당시 이동 수단은 통나무배와 밀물과 썰물의 흐름 즉 조류(潮流)를 이용했으며, 가까운 섬은 썰물 시 걸어서 다녔다. 우리나라에서 통나무배(丸木舟) 사용은 이미 경남 창녕 비봉리 유적에서 소나무로 8천 년 전에 만들었던 배가 발굴돼 이곳에서의 이용 가능성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서해안의 경우 갯벌의 토탄 속에서 발견 가능성이 매우 크다.

배 제작은 통나무를 군데군데 불에 태운 다음 돌자귀 같은 날카로운 석기를 이용해 깎아내고, 다시 갈돌과 같은 도구로 표면을 정리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그리고 이동에는 육지에서 가까운 섬으로 먼저 이동해 거점 도서를 만든 다음 전략적으로 식량 채집시기에

맞춰 이웃 섬을 건넜다. 최근 영종도, 삼목도에서는 대규모 신석기 주거지가 발굴된 바 있으며, 북도면 각 섬도 발굴조사를 하면 많은 선사유적이 발견될 것이다.

(2) 조류의 이용 : 경기만의 조류 방향은 북동에서 남서로 흘러 섬 지역을 두루 통과하기 때문에 선사인은 외해까지 갈 수 있었다. 즉, 한강 하구부터 위로는 연평도와 강화도를 거쳐 북도면, 그리고 영종도 일대를 거쳐 멀리는 외해의 덕적군도로 흐르는 방향의 조류를 이용했기 때문에 경기만의 섬에는 많은 고고학적 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다) 북도면과 이웃 섬, 많은 고고학 유적 산재

북도면을 중심으로 이웃 섬에는 선사유적이 있을까? 주변 상황을 살펴보자. 북도면은 지리적으로 강화도가 북쪽에 위치하고, 남쪽에는 영종·삼목·용유도가 있다. 강화도는 아직까지 지형 변경이 거의 없지만 남쪽의 영종도와 그 이웃 섬은 큰 변화가 있었다. 인천 국제공항 건설로 인해 신불도는 사라졌고, 영종도·삼목도·용유도의 세 섬도 하나의 섬으로 변했다. 하루가 다르게 대규모 형질 변경이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유적이 발굴됐다. 영종도의 중산동 및 송산 유적, 운북동·운서동 유적을 비롯하여 삼목도 유적, 용유도 을왕동·덕교동·남북동 등 해안가 전역에서 대규모의 신석기 유적이 확인되었다. 한편 북쪽에 위치한 강화도에서도 선사유적이 섬 남쪽의 사기리·동막리·여차리·건평리 등 북도면과 마주하는 남쪽과 남서쪽 해안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같은 내용으로 보아 영종도와 강화도의 중간 지역에 위치한 북도면(北島面)은 수산자원이 풍부해 선사인의 이동이 있었고, 그 결과 신석기 시대의 선사유적이 많이 발견됐다. 시도폐총이 이미 100여 년 전부터 알려졌고, 그 영향으로 1970년에 경기만 지역에서 처음으로 발굴됐던 것이다.

2) 북도면은 각 섬마다 왜 목장을 만들었을까?

반세기 전만 하더라도 절해고도라 불리던 북도면, 교통이 불편했던 고도(孤島)에 목장을 설치한 배경과 목적, 위치와 규모, 사육한 동물, 현재의 흔적은 무엇이 있을까?

가) 목장 설치 배경

마정(馬政) 연구에 의하면 조선시대 말은 재래종인 토마(土馬)와 북방에서 유입된 호마(胡馬)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는 마갑(馬甲)과 중무장한 기병(騎兵)의 무게를 지탱할 수 없고, 중장기병은 체형이 큰 후자를 사용하는데, 일명 서역마(西域馬), 몽고마(蒙古馬), 달단마(韃靼馬)라 부른다.⁶³⁾ 우리나라의 재래종인 토마는 체형이 작은 과하마(果下馬)가 대표적이며, 체형이 큰 호마 중 서역마와 몽고마는 흉노(匈奴)를 통해 한반도에 유입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40년간 기마로 유명한 몽골(元)의 부마국(駙馬國)으로 지내던 고려 충렬왕 2년(1276) 원나라가 제주도에 몽골마를 들여와 몽골식 목장을 처음 설치하면서 몽골마 즉 호마(胡馬)가 크게 증대하였다. 이때부터 제주도는 명마의 산지로 중국에 알려졌다. 그러나 1360년 원나라의 뒤를 이어 명(明)나라로 교체되자 명은 제주도의 목장을 탈취 소유하려 했고, 마침내 조선과 외교 문제로 대두되었다.

조선 조정에서는 명나라의 무리한 요구에 대책을 여러 가지 마련하면서 북도면 말목장의 설치 배경이 됐다. 주요 대책은 전마 확보책으로 제주 말을 육지의 다른 곳으로 옮기고, 목장을 강화도에 새로 설치하는 것이었다.

특히 강화도를 지목한 이유는 산들의 경사가 완만하고 초원이 널려 있으며, 목마지로서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무엇보다 당시 수도인 한성과 근거리여서 말의 수송 및 왕래가 편리하였다는 점이었다. 이 마정에 가장 앞장 선 왕은 조선 태종과 세

63) 남도영, 『韓國馬政史』, 1996,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8~30쪽.

종, 세조인데, 태종이나 세종은 강화도 전역을 목장화하려 했기 때문에 백성의 강제 이주가 동반되어 목장 설치에 찬반론이 대두되다가 결국 중지되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세종은 강화 부속 섬에 말목장(馬牧場)을 설치했던 것이다. 이로써 강화부 소속이었던 북도면에 목장이 설치되는 결정적 배경이 됐다. 또한 말목장이 섬 지역에 설치된 이유는 말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및 이탈 방지에 최적지였고, 여말선초에 서해 도서 지역의 왜구 출몰로 인한 피해가 커 섬 지역이 비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임진왜란(1592)과 병자호란(1636)을 겪으면서 급기야 농토의 황폐화로 강화도 백성은 경작지가 부족해 먹고사는 문제에 직면했고, 강화유수들이 목장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강화의 마장(馬場)은 점차 폐지됐으니 북도면의 폐장(閉場)은 1896년이다.⁶⁴⁾

나) 북도면의 국영 목장

말(馬)은 타거나 끌거나 혹은 식용, 교통·통신 등 다용도로 사용됐지만 조선시대의 말은 전쟁, 기마전(騎馬戰)에 나갈 기병에게 전마를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국가 위정자들은 ‘군정은 말보다 급한 것이 없다’라고 하여 기동력이 우수한 호마의 생산에 주력했다. 따라서 북도면 4개의 섬에서 사육했던 동물은 주로 말(馬)이었다. 조선왕조실록 등 다양한 옛 문헌에 목장과 관련하여 자주 등장했던 섬은 신도, 장봉도, 시도, 모도의 순이었다. 신도는 둘레가 40리, 장봉도는 30리로서 신도가 더 큰 목장의 규모를 갖고 있었으며, 규모도 어느 정도 큰 섬이었기 때문에 자주 등장했던 것으로 보이며, 가장 작은 섬인 모도는 조선 후기에 간단하게 언급되고 있다. 그리고 사육한 동물은 말 이외 장봉도는 소(牛)를 짚은 기간 동안 사육하다 말을 사육했으며, 시도는 말에 이어 양(羊), 모도는

64) 이홍두, 「조선시대 강화도 馬木場의 置廢와 戰馬의 생산」, 『軍史』 9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105~134쪽 ; 「호마의 전래와 조선시대 호마목장의 설치」, 『軍史』 99, 2016, 113~144쪽 ; 「조선 초기 마목장 설치 연구」, 『동북아역사논총』 55, 2017, 동북아역사재단, 227~262쪽 ; 「조선시대 경기 서해 연안의 목장연구」, 인천학연구총서 52, 2023 참고.

양을 길렀다(牧羊場).

선사유적 혹은 마장 이외에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산이 각 섬마다 분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정밀한 조사 연구가 진행돼야 할 것이다. 섬 혹은 마을 단위에서 주민 사이에는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나 비지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개발에 따라 훼손 혹은 멸실의 가능성은 매우 크다. 관심 있는 어르신(주민)들과 기억도 점차 사라지는 것이 현재 도서 지역의 실상이다. 현상 파악을 통해 기록으로 남겨 복도면 나아가 서해 도서의 해양 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김석훈(인천섬유산연구소 이사)

참고 문헌

사료

- 『각사등록(各司瞻錄)』
- 『강화부지(江華府志)』
- 『조선지지자료(朝鮮地誌資料)』
- 『경기읍지(京畿邑誌)』
- 『고려사(高麗史)』
- 『만기요람(萬機要覽)』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 『속수증보 강도지(續修增補 江都誌)』
- 『여지도서(輿地圖書)』
- 『장봉진지(長峰鎭誌)』
- 『조선총독부 관보(朝鮮總督府 官報)』
- 『조선총독부 직원록(朝鮮總督府 職員錄)』

도서

- 전양훈, 『북도교회100년사』, 2006.
- 강화군, 『江華 옛 地圖』, 2003.
- 경기도지편찬위원회, 『京畿道誌』, 경기도, 1956.
- 경인일보특별취재팀, 『실향민이야기』, 다인아트, 2018.
- 국립문화재연구소, 『군사보호구역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 경기도편』, 2000.
- 국립민속박물관, 『어촌민속지』(경기도·충청남도편), 1996.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조선시대 수군진 조사V 경기지역편』, 2022.
- 기독교대한감리회, 『강화중앙교회 100년사』, 2002.
- 기독교선교문화연구회, 『인천기독교 135년사-그 역사와 문화-(2)』, 인천기독교역사문화연구원, 2020.
- 김기룡 외, 『옹진 섬으로 떠나는 자연과 역사·문화산책』, 대명출판사, 2016.
- 김기룡 외, 『옹진 섬과 중구 섬으로 떠나는 자연과 역사·문화산책』, 대명출판사, 2017.
- 김석훈, 『백령도』, 다인아트, 2024.
- 김주홍, 『기전 지역의 봉수』, 경기문화재단, 2021.
- 나애자, 『韓國近代海運業史研究』, 국학자료원, 1998.
- 남도영, 『韓國馬政史』,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1996.
- 내무부, 『島嶼誌』, 1973.

- 문화재청, 『제2차년도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 및 관리방안연구』, 2022.
- 서해연안환경연구센터, 『인천연안도서 해양환경 조사 및 보전, 관리 계획』, 인천광역시, 2007.
- 신기철, 『한국전쟁, 전장의 기억과 목소리』, 역사만들기, 2020.
- 신태범, 『인천한세기』, 홍성사, 1983.
- 오세종 편저, 『92년사 장봉도 옹암감리교회』, 삼필문화사, 1998.
- 오홍석, 『증보판 취락지리학』, 교학연구사, 1994.
- 옹진군, 『제63회 2023 옹진군 기본통계』, 옹진군청, 2024.
- 옹진군지편찬위원회, 『甕津郡誌』, 옹진군청, 1989.
- 옹진군지편찬위원회, 『甕津郡誌』, 옹진군청, 2010.
- 옹진군지편찬위원회, 『甕津郡誌』, 옹진군청, 2012.
- 옹진군향리지편찬위원회, 『甕津郡鄉里誌』, 옹진군청, 1996.
- 웨스트비전, 『장봉도 이야기』, 2006.
- 이세기, 『흔들리는 생명의 땅 섬』, 한겨례출판, 2015.
- 이기섭, 이종렬, 『필드가이드 새』, 필드가이드, 2009.
- 이우신, 구태희, 박진영,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2020.
- 인천광역시, 『仁川의 地名由來』, 1998.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서해도서 종합학술조사Ⅱ-영흥·자월·복도면』, 2005.
- 인천광역시역사자료관, 『역주 仁川鄉土誌』, 인천광역시, 2005.
- 인천교회사연구소, 『천주교 인천교구 공소 현황 조사 사업 결과보고서』, 2021.
- 인천시사편찬위원회, 『인천시사(하)』, 인천광역시, 1973.
-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인천의 섬과 역사문화유산(상)』, 인천광역시, 2017.
-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인천의 지명(하)』, 인천광역시, 2015.
- 인천문화원, 『제3집 향토사료조사보고서(옹진군일원)』, 1999.
- 인천문화재단 외, 『인천 섬 생활사 조사보고서 제2집 신도·시도·모도』, 옹진군청, 2022.
- 전양훈, 『전양훈회고록』, 2006.
- 전호태·이화우·홍승지, 『한국의 윷판형 암각화』, 울산대 반구대암각화보존 연구소, 2019.
- 정연학, 『인천 섬지역의 어업문화』,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08.
- 정중권, 『말문에서 시작하는 장봉도 이야기』, 웨스트비전, 2006.
- 조선총독부 농상공부, 『한국수산지』, 1911.
- 천용택, 『잊을 수 없는 6·25』, 기독교복음운동중앙회, 2001.
- 최중기 외, 『장봉도』, 민속원, 2017.
- 최중기 외, 『황해섬연구총서 장봉도』, 사)황해섬네트워크, 2018.
- 한국해양연구원, 『조력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 최종보고서(인천만 조력발전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연구)』, 2011.
- 한국해운조합, 『2024년도 연안여객선업체현황』, 2024.
- 한병삼, 『시도폐총』, 국립중앙박물관, 1970.

- 해양환경공단, 『2021년 갯끈풀 제거 및 관리사업』, 해양수산부, 인천광역시, 강화군, 해양환경공단, 2021.
- 황재화 외, 『강화·온수리도폭 지질조사 보고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05.
- 황종성, 「믿음의 섬, 신도감리교회」, 『인천기독교역사문화』 6, 인천기독교역사문화연구원, 2021.

학위논문

- 심현보, 『한국 산 나문 재속의 분류 및 염생식물상 연구』, 인하대학교 이학박사학위 논문, 2005.
- 정연학, 「돌살(漁箭)考」,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논문

국내논문

- 김석훈, 「인천 섬 지역의 신석기유적 新例」, 『仁荷史學』 7, 인하역사학회, 1999.
- 김석훈, 「황해 중부 섬 지역의 자연환경과 신석기 유적」, 『호서고고학』 6·7집, 호서고고학회, 2002.
- 김준, 「어촌의 재인식과 갯벌인식 증진을 위한 연구」, 『민속연구』 25,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12.
- 박현우, 「초등 생물 야외 탐구 학습장으로서 장봉도의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생물교육학회지』, 2008.
- 서인수, 홍재상, 「장봉도 갯벌을 이용하는 어류군집의 계절 변화」, 『한수지』, 43(5), 2010.
- 신용운·한승우·이시완·황인서·박치영, 「서·남해안 연안습지의 수조류 군집 특성」, 『한국해양학회지』, 2019.
- 오상화, 「경기도 선사시대 유적지 명표」, 『史叢』 6,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1961.
- 이기훈, 「일제강점기 도서 지역의 교통과 일상생활」, 『도서문화』 45,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15.
- 이시환·김용현·강태한·송민정, 「대형저서동물과 물새류 서식지인 장봉도 습지보호지역의 생태적 중요성」, 『한국조류학회지』, 2010.
- 이은영, 「寧齋 李建昌의生涯와 文學-고향 江華를 中心으로-」, 『陽明學』 67, 한국양명학회, 2022.

- 이혜민, 송진일, 김종욱, 최재윤, 윤병일, 우승범, 「경기만 염하수로에서의 한강 유량에 따른 담수 유입 수치모델링」, 『한국 해안, 해양공학회 논문집』, 2021.
- 인천문화발전연구원, 『仁川府使(完譯本)』, 2004.
- 전윤철, 「면허어업의 개념과 어업권의 내용」, 『법제월보』 11, 7, 법제처, 1969.
- 정성일, 「표류 기록을 통해서 본 조선 후기 어민과 상인의 해상 활동」, 『국사관논총』 99, 국사편찬위원회, 2002.
- 정연학, 「민속조사」, 『서해도서 종합학술조사 Ⅱ』,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05.
- 정연학, 「전통 어렵 ‘돌살’에 대하여」, 『비교민속학』 11, 비교민속학회, 1994.
- 주강현, 「남해강진만의 돌발」, 『해양과 문화』 7, 해양문화재단, 2001.
- 주강현, 『神이 내린 황금그물 돌살』, 들녘, 2006.
- 주강현, 「충남 서해안의 독살(石箭) 분포와 특징」, 『고고와 민속』 1, 한남대학교 박물관, 1998.
- 홍성찬, 「일제하 상인, 객주의 연안 해운업 진출과 경영」, 『學林』 48, 연세사학연구회, 2021.
- 하지영, 「1910년대 조선우선주식회사의 연안항로 경영과 지역」, 『역사와 경계』 109, 경남사학회, 2018.
- 한국전력공사,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電化) 사업』, 2012.

국외논문

- Bang, H.K., H.Y. Lee, J.H. Chang, C. W. Lee, and J. K. Oh, 「History and characteristics of tidal sand ridges in Kyeonggi Bay」, 『J.Kor. Soc. Oceanography』 29, 1994.
- 鳥居龍藏, 「平安南道黃海道古蹟調査報告」, 『大正五年度古蹟調査報告』, 조선총독부, 1917.

신문·인터넷

- 『가톨릭신문』
『국민일보』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인일보』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매일신보』
『부산일보』
『서울경제』
『인천일보』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국립해양조사원(www.khoa.go.kr)

법제처(www.moleg.go.kr)

수산인신문(<http://www.isusanin.com>)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보포털(www.meis.go.kr)

도움주신 분들

옹진군청, 북도면사무소, 북도면사무소 장봉출장소
김선만, 김종훈, 이근덕, 이만식, 조상천, 조상태, 차운태, 차학원, 최영윤, 흥순일

[옹진문화원 역사문화총서 I]

2024 옹진섬 향토문화 발굴 아카이브

옹진 섬마을 역사 문화 이야기 | 북도면

기획·총괄 사단법인 옹진문화원

집필진 김석훈(인천섬유산연구소 이사)
김기룡(인천섬유산연구소 이사장)
정연학(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 과장)
정재희(인성여자중학교 교사)
최중기(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 명예교수)

발행일 2024년 11월
펴낸이 사단법인 옹진문화원장
펴낸곳 사단법인 옹진문화원
주소 (22332)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74, 4층
032-891-2131 / www.ongjincc.or.kr

디자인·제작 영동인쇄공사
(22324) 인천광역시 중구 우현로 24-10
032-884-1255

I S B N 979-11-976541-7-6

이 도서의 저작권은 사단법인 옹진문화원에 있으며, 일부 또는 전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옹진문화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